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2. 8





일 러 두 기

【 1 】 본 보고서는 관광기본법(법률 제8741호) 제4조(연차보고)에서 규정하는 2021년 기준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임

【 2 】 2008년부터 본 보고서의 기준년도를 제시함(예: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3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기관 명칭은 해당 시점에서의 명칭임

contents



제1장	관광환경 변화와 동향	▶ 1
	1. 관광환경 변화 3
	2. 국제관광시장 동향 9
	3. 한국관광시장 동향 12
제2장	2021년도 주요 관광정책 성과	▶ 23
	1. 관광산업위기 안전망 구축 25
	2.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28
	3. 국민행복을 위한 포용관광 추진 32
	4. 지역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34
	5.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준비 37
제3장	국민관광의 진흥	▶ 41
	1. 국내관광 진흥활동 43
	2. 관광수용태세 개선 48
	3. 계층별·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56
	4. 남북관광 교류협력 61
제4장	국제관광의 진흥	▶ 65
	1. 방한 관광 진흥활동 67
	2.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89
	3. 국제협력 증진 101

제5장	관광자원 개발	▶ 121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23
2.	관광지	146
3.	관광단지	148
4.	관광특구	152
5.	광역권 관광개발	155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171
7.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176
8.	문화관광자원 개발	181
9.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203
10.	관련부처 관광자원 개발	208

제6장	관광산업 육성	▶ 245
1.	여행업	247
2.	관광숙박업	250
3.	관광객이용시설업	258
4.	국제회의업	264
5.	카지노업	265
6.	유원시설업	269
7.	관광편의시설업	270
8.	관광인력 양성	275
9.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85
10.	관광벤처 사업	286
11.	관광두레 사업	291
12.	관광 관련 법령 개정	294
13.	관광진흥개발기금	300

제7장	관광교통 발전	▶ 307
1.	철도	309
2.	육운	314
3.	해운·항만	318
4.	항공	324

제8장	관광관련 기구와 활동	▶ 329
1.	문화체육관광부	331
2.	한국관광공사	336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0
4.	관광사업자 단체	362
제9장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 375
1.	서울특별시	377
2.	부산광역시	387
3.	대구광역시	410
4.	인천광역시	424
5.	광주광역시	433
6.	대전광역시	443
7.	울산광역시	449
8.	세종특별자치시	456
9.	경기도	463
10.	강원도	471
11.	충청북도	478
12.	충청남도	485
13.	전라북도	494
14.	전라남도	502
15.	경상북도	509
16.	경상남도	522
17.	제주특별자치도	529
부록		▶ 551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	553
2.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558
3.	보세판매장 및 내국인 면세점 현황	560
4.	관광관련 서적 및 연구실적물	562
5.	시티투어 코스	568

〈표 1-1〉 세계관광 성장추이	9
〈표 1-2〉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	10
〈표 1-3〉 지역별 세계 관광수입	10
〈표 1-4〉 주요 국가 외국인 관광객 현황	11
〈표 1-5〉 주요 국가 관광수입 현황	11
〈표 1-6〉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13
〈표 1-7〉 월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13
〈표 1-8〉 연도별/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14
〈표 1-9〉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15
〈표 1-10〉 연도별 국민 해외여행 출국 현황	17
〈표 1-11〉 월별 국민 해외여행 출국 현황	18
〈표 1-12〉 국내여행 총량	20
〈표 1-13〉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21
〈표 2-1〉 2021년 회의기술 컨설팅-디지털 전환 연계 사업화 주요 내용	32
〈표 2-2〉 무장애 관광콘텐츠 생산 및 정보 제공	33
〈표 2-3〉 지역관광추진조직(DM0)사업자 현황(2021년 기준)	36
〈표 2-4〉 '제1회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 개요	40
〈표 3-1〉 여행주간 캠페인 홍보실적	45
〈표 3-2〉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현황	50
〈표 3-3〉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 운영현황 및 주요성과	52
〈표 3-4〉 연도별 내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	54
〈표 3-5〉 연도별/유형별 내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	54
〈표 3-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현황	55
〈표 3-7〉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	60
〈표 3-8〉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현황	62
〈표 3-9〉 연도별 개성 관광객 현황	62
〈표 4-1〉 관광유치단 파견 및 관광교역전 참가 실적	75
〈표 4-2〉 연도별 초청·지원 언론인 및 여행업자 현황	77
〈표 4-3〉 해외홍보 간행물 발간 실적	79
〈표 4-4〉 코리아그랜드세일 실적	87
〈표 4-5〉 연도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현황	92

〈표 4-6〉 국내 면세판매점 비교	93
〈표 4-7〉 연도별 면세점 업체 수	94
〈표 4-8〉 연도별 내·외국인 면세점 이용현황 및 구매실적	94
〈표 4-9〉 연도별 사후면세 판매장 현황	95
〈표 4-10〉 연도별 외국인 관광불편신고접수 현황	99
〈표 4-11〉 연도별/유형별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현황	99
〈표 4-12〉 관광 관련 국제회의 참가실적 및 계획	112
〈표 4-13〉 국제회의도시 지정현황	116
〈표 4-1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현황	116
〈표 4-15〉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현황	116
〈표 4-16〉 국제회의 관련 간행물 발간실적	117
〈표 4-17〉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118
〈표 4-18〉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118
〈표 4-19〉 국내 국제회의 개최 시설 현황	119
〈표 5-1〉 관광지 지정 현황	146
〈표 5-2〉 관광단지 지정 현황	148
〈표 5-3〉 관광특구 지정현황	153
〈표 5-4〉 2021년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현황	157
〈표 5-5〉 2021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현황	160
〈표 5-6〉 2021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163
〈표 5-7〉 2021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165
〈표 5-8〉 2021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167
〈표 5-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개요	173
〈표 5-10〉 문화관광축제 지원현황	182
〈표 5-11〉 시·도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현황	183
〈표 5-12〉 연도별 템플스테이 참가자 현황	183
〈표 5-13〉 시·도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185
〈표 5-14〉 시·도별 국가등록문화재 현황	185
〈표 5-1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 지자체 및 권역	196
〈표 5-1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197
〈표 5-17〉 권역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여행상품 및 이용 현황	198
〈표 5-18〉 권역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비대면 간접여행 상품 및 이용 현황	200
〈표 5-1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201
〈표 5-20〉 국립공원 지정 현황	208

〈표 5-21〉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209
〈표 5-22〉 도립공원 지정 현황	211
〈표 5-23〉 군립공원 지정 현황	212
〈표 5-24〉 지질공원 지정 현황	214
〈표 5-25〉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215
〈표 5-26〉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215
〈표 5-27〉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실적 및 예산투자 현황	217
〈표 5-28〉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218
〈표 5-29〉 시·도별 관광농원 운영 현황	220
〈표 5-30〉 시·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현황	220
〈표 5-31〉 시·도별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221
〈표 5-3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경위	222
〈표 5-33〉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세부계획(2021년)	222
〈표 5-34〉 연도별/시·도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223
〈표 5-35〉 시·도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이용 현황	224
〈표 5-36〉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228
〈표 5-37〉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231
〈표 5-38〉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조성계획	231
〈표 5-39〉 연도별/시·도별 산림욕장 조성 현황	231
〈표 5-40〉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232
〈표 5-41〉 국유림 명품숲 선정 현황	237
〈표 5-42〉 안보관광시설별 내·외국인 방문 현황	240
〈표 5-43〉 접경지역 발전지원 주요사업	242
〈표 5-44〉 시·도별 온천 현황	243
〈표 6-1〉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	247
〈표 6-2〉 연도별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248
〈표 6-3〉 연도별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의 내국인 해외 송출실적	249
〈표 6-4〉 시·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251
〈표 6-5〉 시·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252
〈표 6-6〉 연도별 관광호텔업 증가 추이	253
〈표 6-7〉 관광호텔업 등급별 객실 운영현황	253
〈표 6-8〉 호텔업 유형별 객실 운영현황	254
〈표 6-9〉 지역별 호텔업 객실 운영현황	254
〈표 6-10〉 관광호텔업 등급별 외국인 객실 운영현황	255

〈표 6-11〉 시·도별 한국전통호텔업 등록 현황	256
〈표 6-12〉 시·도별 가족호텔업 등록 현황	256
〈표 6-13〉 시·도별 호스텔업 등록 현황	256
〈표 6-14〉 시·도별 소형호텔업 등록 현황	257
〈표 6-15〉 시·도별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현황	257
〈표 6-16〉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현황	258
〈표 6-17〉 시·도별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현황	259
〈표 6-18〉 시·도별 아영장업 등록현황	260
〈표 6-19〉 시·도별 관광유람선업 등록현황	261
〈표 6-20〉 시·도별 관광공연장업 등록현황	262
〈표 6-21〉 시·도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	262
〈표 6-22〉 시·도별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263
〈표 6-23〉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264
〈표 6-24〉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비율	266
〈표 6-25〉 연도별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현황	266
〈표 6-26〉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발전과정	267
〈표 6-27〉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268
〈표 6-28〉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269
〈표 6-29〉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270
〈표 6-30〉 전국 관광계열 관련 고등학교 현황	275
〈표 6-31〉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279
〈표 6-32〉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 현황	280
〈표 6-33〉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281
〈표 6-34〉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운영 현황	282
〈표 6-35〉 2021년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283
〈표 6-36〉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현황	284
〈표 6-37〉 연도별 관광벤처사업 발굴 건수	287
〈표 6-38〉 연도별 관광벤처사업 창업 및 고용성과	290
〈표 6-39〉 전국 관광두레 사업 추진 현황	292
〈표 6-40〉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302
〈표 6-41〉 연도별 기금사업비 구성비율	303
〈표 6-42〉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현황	303
〈표 6-43〉 연도별 출국납부금 징수 현황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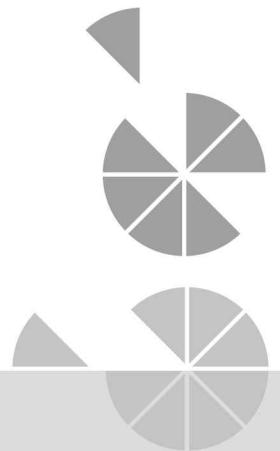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표 7-1〉 전국 철도관광벨트 운영 현황	311
〈표 7-2〉 철도 관광열차 현황	312
〈표 7-3〉 외국인전용 철도상품 이용 현황	312
〈표 7-4〉 시외버스 현황	315
〈표 7-5〉 고속버스 현황	315
〈표 7-6〉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현황	316
〈표 7-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현황	316
〈표 7-8〉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현황	317
〈표 7-9〉 국내 여객선 수송 현황	318
〈표 7-10〉 연도별 국제 여객선(정기) 여객수송 현황	322
〈표 7-11〉 연도별 항공수송실적	324
〈표 7-12〉 연도별 국내선 운항 현황	324
〈표 7-13〉 항공협정 체결국가 현황	325
〈표 7-14〉 연도별 국제선 운항 현황	326
〈표 7-15〉 연도별 국제선 여객수송 실적	327
〈표 8-1〉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이용현황	340
〈표 8-2〉 2021년 『한국관광정책』 주제	357
〈표 8-3〉 2021년 MICE업계 인력양성 사업	372

[그림 1-1] 2020년, 2021년 월별 국내여행 횟수	20
[그림 5-1]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도	124
[그림 5-2]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도	125
[그림 5-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129
[그림 5-4]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130
[그림 5-5]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139
[그림 5-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념	171
[그림 5-7] 관광거점도시 심사 개요 및 단계별 절차	177
[그림 5-8]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비전 및 도시별 사업 추진방향	178
[그림 5-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방향	195
[그림 5-1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체계	196
[그림 5-11] 코리아둘레길 구성	205

제 1 장

관광환경 변화와 동향

1. 관광환경 변화	_3
2. 국제관광시장 동향	_9
3. 한국관광시장 동향	_12



1. 관광환경 변화

가. 사회환경 변화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재난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의 하락 양상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발생 후에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실제 2021년 결혼 감소세가 2년 연속 10% 이상 감소하였고 합산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관광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광수요의 변화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산업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촉진된 인구구조의 변화(1인가구의 증가와 MZ세대의 소비주체 부각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화에 대응한 관광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었다. 예컨대, 학교 수업은 현장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종교활동도 비대면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의 증가를 야기하였고,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는데, 특히 20대의 증가 폭이 남녀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근무환경도 방역지침을 적용, 재택근무가 권장되면서 유연근무는 2019년 10.8%에서 2021년 16.8%로 증가했고 비대면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은 4.3%에서 2021년에는 32.3%로 크게 늘었다.²⁾ 또한 플랫폼 산업과 비대면 노동시장이 발전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촉진되었는데, 플랫폼 산업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유통, 판매, 생산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 노동 및 사회 문화 체계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유발·촉진된 비대면 문화는 사람들의 라이프

1)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스타일과 사회문화 변화를 초래하였고, 여가의 형태와 소비 방식, 지역 간 이동과 관광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불러왔다.

나. 기술환경 변화

전자기기와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발명한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IT 강국으로서 산업 전반에 기술 도입을 이루어 왔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해 가던 정치·사회·경제 전 분야에 비대면화, 온라인화를 촉진하였다. 예컨대,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정보와 일자리 문제 등의 위협으로 디지털의 각종 편익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술을 급격히 수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은 비대면·비접촉(PCR검사, 백신접종 증면 등)을 지원했고, 공공의 영역 및 민간사업자, 국민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뉴딜 1.0 추진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2021년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2.0」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2.0은 전 부처 차원에서 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등 데이터 댐 구축을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확장 가상세계라 불리는 메타버스(metaverse)를 디지털 뉴딜 2.0의 새로운 과제로 추가하고, 콘텐츠 제작·실증, 개발자 교육 등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관광분야에서도 관광객의 소비와 지출, 관광객 이동 및 주기 등 각종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요자들의 데이터 활용 및 처리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부처차원의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나아가 2021년 10월에는 민간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급격한 기술 도입에 따라 인력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의 활용 역량에 대한 직군 간 경계가 더 명확해질 우려 및 경제적 지식이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에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도입에 따른 산업주체들에 대한 양극화 완화 및 인력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다. 경제환경 변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긴밀히 연결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세계화에 반하는 ‘탈세계화’가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이어진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 국가 간 차원에서 확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폐쇄가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 대응 정책 완화로 다소 소강상태였으나, 2021년 11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뤄지면서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³⁾ 움직임이 다시금 강화되었다. 또한 2021년 1월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합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 상태에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로 대응 시스템이 구조화⁴⁾되는 다자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을 국제무역질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장기간 미중 충돌이 낳을 국제협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탈세계화는 자국 생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에 대한 과잉의존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주면서 촘촘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각국의 정책 변화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해외로 옮긴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⁵⁾하였다. 미 연방준비제도 산하 뉴욕연방은행에서 신규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GSCPI)는 2021년 12월 GSCPI가 4.5 수준까지 증가하며 분석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극단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화의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탈세계화는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간 이동 제한과 거리두기로 전 세계적인 비대면 수요가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관광소비와 비대

3) 한국은행조사국 (2020).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4) 동아시아연구원 (2022). 「글로벌 팬데믹과 신흥력외교: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시리즈 9」.

5) 자본시장연구원 (2022).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

면 관광 서비스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여행의 제한과 관광객이 밀집된 명소에 대한 기피에 따른 ‘로컬’ 중심의 지역 관광, 안전과 위생 보장형 관광 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생태환경 변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가 2021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⁶⁾ 이는 인간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에 해롭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면서 육지, 해양, 대기에서 행성 규모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또 다른 분명한 징후라고 세계기상기구(WMO)는 경고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 왔고 인간의 삶과 복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2022년에 강조된 식량과 물안보(water security)와 인구 이동(displacement)에 대한 충격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의 필요성은 범정부적으로 탄소중립 대책으로 이어졌다.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범부처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마련한 이후 각 부처들에서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에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 위원회를 4월에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범부처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관광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노력은 관광 기업, 관광객 등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고 관광 교류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활발해지게 되면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게 될 것을 감안하여 관광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목표의 구체적인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향한 관광산업의 보다 실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활동에 기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산업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대응과 실천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⁷⁾

6) WMO (2021).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1」.

7) 최경은·김현주·강지수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보호의 개념이 적극 적용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기업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⁸⁾

환경에 대한 관광업계의 인식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 지역 재료 조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를 늦추고자 하는 시도가 여행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행을 통해 경험한 탄소 없는 생활을 일상 복귀 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행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차원에서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할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관광개발과 생태관광을 육성할 방침이다.

마. 정치·제도 환경 변화

2021년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시행하였다. 방역 정책의 기초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정책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여행업계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중요 여행사의 사업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전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문체부는 관광기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돕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형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⁹⁾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재조명되고 있다.

8) UPI뉴스 (2021.09.28.). 비건·친환경 강세...러쉬코리아, 작년 영업손 214% 끌어올렸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80091>

9) 문체부 보도자료 (2021.1.19). 2021년 관광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 1. 21. 관광기업 투자·지원 확대로 혁신적 창업 및 강소기업 체계적 육성 등 설명.

향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염병 대응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과정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다자간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¹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국제관광객 수는 2021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하였고,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대비로는 80% 감소한 상황이다. 2021년 6-7월에는 백신접종과 국경재개로 인해 국제관광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9월에 실시한 UNWTO의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또는 2024년 이후에야 국제관광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UNWTO, 2021).¹¹⁾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감한 국제관광 수요는 국내관광 수요와는 달리 큰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제관광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해외관광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제관광 시장을 둘러싸고 수요 선점을 위해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트렌드의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변화된 관광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관광활동의 제약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¹²⁾

10) 최경은·김현주·강지수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21). 「World tourism baro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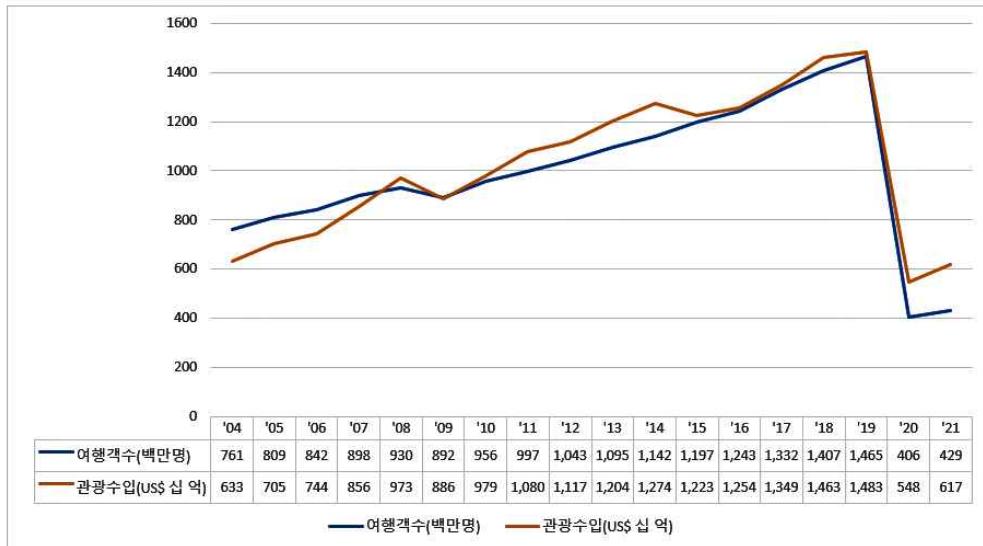
12) 최경은·김현주·강지수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국제관광시장 동향

가. 개관

UNWT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는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위기 직전년도인 2019년에 14억 6,500만 명을 기록하였다. 무려 15억 명에 육박하던 세계관광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30년 전인 1990년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2020년 국제관광객 수 및 국제관광수입은 각각 4억 600만 명, 5,48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과 국가 간 국경 통제의 점진적 완화로 2021년 국제관광객 수는 4억 2,900만 명, 국제관광수입은 6,170억 달러로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세계관광 성장추이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세계관광지표(원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주) 2021년은 잠정치임

나. 대륙별 동향

2021년 기준 대륙별 국제관광객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유럽지역의 국제관광객이 전년대비 21.1% 증가한 2억 8,88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대륙 가운데 1위를 고수하였다. 미주지역과 아프리카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8.1%, 3.3% 증가한 8,240만 명과 1,9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경개방에 보수적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제관광객이 전년대비 65.1% 감소한 2,060만 명으로 확인되었고, 중동 지역 또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1,8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2〉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

(단위: 백만 명, %)

구 분	관광객 수			성장률		구성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	'21/'20	2021년
전 세계	1,465	406	429	-72.3	5.8	100.0
유럽	745.2	238.1	288.4	-68.0	21.1	67.2
아시아·태평양	359.6	59.2	20.6	-83.5	-65.1	4.8
미주	219.3	69.8	82.4	-68.2	18.1	19.2
아프리카	68.1	18.8	19.4	-72.5	3.3	4.5
중동	73.0	19.8	18.6	-72.9	-6.2	4.3

자료: UNWTO (2022). 「World Tourism Barometer. Vol. 20, Issue 4」.
 주) 2021년은 잠정치임

〈표 1-3〉 지역별 세계 관광수입

(단위: 십억 달러(US\$), %)

구 분	관광수입			성장률		구성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19	'21/'20	2021년
전 세계	1,483	548	617	-63.2	6.8	100.0
유럽	574.3	237.7	307.6	-59.2	21.6	49.9
아시아·태평양	441.4	126.2	94.0	-71.6	-29.1	15.2
미주	330.1	125.5	139.8	-61.6	5.5	22.7
아프리카	38.9	14.9	16.6	-61.4	4.3	2.7
중동	98.7	43.2	58.6	-56.2	34.0	9.5

자료: UNWTO (2022). 「World Tourism Barometer. Vol. 20, Issue 4」.
 주1) 2021년은 잠정치임
 주2) 성장률은 자국화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표 1-4〉 주요 국가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백만 명, %)

국 가 명	방문객 수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	'21/'20
프랑스	90.0	40.0	-	-55.6	-
스페인	83.5	18.9	31.2	-77.3	64.7
미 국	79.4	19.2	22.1	-75.8	15.0
중 국	65.7	8.0	-	-87.9	-
이탈리아	64.5	25.2	26.9	-61.0	6.7
터 키	51.2	15.9	29.9	-69.0	88.3
멕시코	45.0	24.3	31.9	-46.1	31.3
태 국	39.9	6.7	0.4	-83.2	-93.6
독 일	39.6	12.4	11.7	-68.5	-6.1
영 국	39.4	10.7	-	-72.8	-
:					
대한민국	17.5	2.5	1.0	-85.6	-61.6

자료 : UNWTO (2022). 「World Tourism Barometer. Vol. 20, Issue 4」.

주) 2021년은 잠정치임

〈표 1-5〉 주요 국가 관광수입 현황

(단위 : 십억 달러(US\$), %)

국 가 명	관광수입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	'21/'20
미 국	199.0	72.5	70.2	-63.6	-3.1
스페인	79.7	18.5	34.5	-77.2	80.2
프랑스	63.5	32.6	40.8	-49.7	21.0
태 국	59.8	13.5	4.8	-77.4	-63.2
영 국	52.7	18.9	22.7	-64.3	11.9
이탈리아	49.6	19.8	25.2	-60.9	22.7
일 본	46.1	10.7	4.7	-77.2	-54.6
호 주	45.7	25.8	17.0	-42.9	-39.7
독 일	41.8	22.1	22.2	-48.2	-2.8
마카오(중국)	40.1	9.2	15.4	-77.4	68.7
:					
대한민국	20.9	10.3	10.5	-50.8	1.8

자료 : UNWTO (2022). 「World Tourism Barometer. Vol. 20, Issue 4」.

주1) 2021년은 잠정치임

주2) 성장률은 자국화폐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3. 한국관광시장 동향

가. 입국·출국 관광 동향

1) 외국인 관광객 입국 동향

① 개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2021년 코로나19 백신의 본격화 및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이하 트래블버블)¹³⁾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다소 회복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심화 및 코로나19 변이 출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019년 1,750만 2,75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2020년 전년대비 85.6% 감소한 251만 9,118명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데 이어 2021년 또한 전년대비 61.6% 감소한 96만 7,00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2019년까지 80% 수준이었던 관광목적의 입국자 비중은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입국자 제한 조치로 2021년 21.9%까지 감소하였다. 2021년은 한국 방문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 기타 목적이 가장 65.7%로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경우 전년대비 73.4% 감소한 50만 9,869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52.7%를 차지하였으며 미주지역은 전년대비 10.9% 감소한 24만 1,82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바운드 중 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구주지역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14만 7,330명으로 15.2%를 차지하였고, 중동지역은 전년대비 14.7% 감소한 3만 6,969명으로 3.8%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지역의 경우 홍콩(-98.6%), 대만(-97.5%), 일본(-96.5%), 태국(-89.1%)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전년대비 80-9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에도 각각 -7.4%, -14.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국(-56.1%), 프랑스(-19.0%), 이탈리아(-36.6%), 호주(-84.9%) 등 구주 및 대양주 지역의 국가들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였다. 성별 입국 현황을 보면 남성(63.1%)의 비중이 여성(36.9%)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1~30세(27.1%)의 비중이 가장 컸고 30대(22.2%), 40대(16.3%), 50대(16.0%) 순으로 나타났다.¹⁴⁾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전세계적으로 방역 안전막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각 국가별로 방역 우수지역간의 안전망을 형성, 두 개국 이상의 상호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등 하반기부터 관광입국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3)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여행 전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됨

14) 2021년 성별/연령별 입국현황 중 승무원(434,415명)을 제외한 전체 532,588명에 대한 값임(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1-6〉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명, %)

연 도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연 도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1996	3,683,779	-1.8	2009	7,817,533	13.4
1997	3,908,140	6.1	2010	8,797,658	12.5
1998	4,250,216	8.8	2011	9,794,796	11.3
1999	4,659,785	9.6	2012	11,140,028	13.7
2000	5,321,792	14.2	2013	12,175,550	9.3
2001	5,147,204	-3.3	2014	14,201,516	16.6
2002	5,347,468	3.9	2015	13,231,651	-6.8
2003	4,752,762	-11.1	2016	17,241,823	30.3
2004	5,818,138	22.4	2017	13,335,758	-22.7
2005	6,022,752	3.5	2018	15,346,879	15.1
2006	6,155,046	2.2	2019	17,502,756	14.0
2007	6,448,240	4.8	2020	2,519,118	-85.6
2008	6,890,841	6.9	2021	967,003	-61.6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표 1-7〉 월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명, %)

월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구성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1,272,708	58,397	-95.4%	50.5	6.0
2	685,212	65,582	-90.4%	27.2	6.8
3	83,497	74,604	-10.7%	3.3	7.7
4	29,415	70,112	138.4%	1.2	7.3
5	30,806	74,463	141.7%	1.2	7.7
6	36,938	77,029	108.5%	1.5	8.0
7	61,012	83,005	36.0%	2.4	8.6
8	68,797	97,087	41.1%	2.7	10.0
9	65,040	89,800	38.1%	2.6	9.3
10	61,585	92,416	50.1%	2.4	9.6
11	61,764	94,358	52.8%	2.5	9.8
12	62,344	90,150	44.6%	2.5	9.3
계	2,519,118	967,003	-61.6%	100.0	1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주) 성장률은 전년 동월대비임

〈표 1-8〉 연도별/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구주	교포	기타	계
2011	33.6	22.7	6.8	7.0	3.3	26.6	100.0
2012	31.6	25.5	6.3	6.4	3.0	27.2	100.0
2013	22.6	35.5	5.9	6.3	2.5	27.2	100.0
2014	16.1	43.1	5.4	6.0	2.1	27.3	100.0
2015	13.9	45.2	5.8	6.1	2.0	27.0	100.0
2016	13.3	46.8	5.0	5.5	1.6	27.8	100.0
2017	17.3	31.3	6.5	7.0	2.0	35.9	100.0
2018	19.2	31.2	6.3	6.5	1.6	35.2	100.0
2019	18.6	34.4	5.9	6.2	1.1	33.8	100.0
2020	17.1	27.2	8.7	8.5	1.0	37.5	100.0
2021	1.6	17.6	21.0	15.2	1.4	43.2	1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주) 연도별/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② 주요 시장별 입국 현황

○ 중국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최대 국제관광 시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와 외교적 마찰(2017년 사드 배치, 대만 관련 문제 등) 발생으로 인해 방한 관광 감소 분위기 속에서 2017년 이후 방한 중국인의 급감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20년 전년대비 88.6% 감소한 68만 6,43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 전방위적 확산으로 2021년에는 2020년보다 75.2% 감소한 17만 215명이 방문했다.

○ 일본

일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지속으로, 한·일 상호 간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인 방한여행 수요가 거의 전무하면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방한 관광객 대비 일본인 관광객 비율은 1%대로 하락하였다. 감염 확대 방지의 일환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 간 왕래가 정지되어 있다. 특히, 2021년은 한·중·일 윤번제로 개최국을 정하여 개최하는 한중일 관광장관회

의의 개최국이 일본으로서 3국의 관광 교류 확대 및 항공편의 조기 회복 등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 재난 심화로 세부적 안전 도출 및 실행에 한계를 보였다. 2021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96.5% 감소한 1만 5,265명을 기록하였다.

○ 대만

대만 정부는 보수적인 국경·방역정책을 표방했다. 이러한 보수적 국경·방역 기조는 2021년 관광관련 기조에도 반영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만 외교부는 해외 단체 관광 모객·송객·접객을 금지하였고 해외 모든 지역에 대한 여행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2021년 백신 2차 접종을 60%이상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대만 위생복지부질병관제서(CDC)는 트래블버블 구축이나 자유여행 허용 등에 보수적이었다. 이후, 일부 백신 접종 완료조건부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우선 국경 개방을 검토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국경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지속했다. 2021년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97.5% 감소한 4,13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7월 이후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 미국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3월 19일 자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여행금지)로 지정했다. 이후, 2021년 6월 한국 여행정보 기준을 기존 2단계(강화된 주의, 2020년 11월 발령)에서 1단계(일반적 사전 주의)로 대폭 완화하였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 수는 20만 4,025명으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21.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

(단위: 명, %)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구성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아시아주	1,918,037	509,869	-73.4	76.1	52.7
중 국	686,430	170,215	-75.2	27.2	17.6
일 본	430,742	15,265	-96.5	17.1	1.6
대 만	166,716	4,130	-97.5	6.6	0.4
홍 콩	88,878	1,258	-98.6	3.5	0.1

(단위: 명, %)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구성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태 국	76,568	8,319	-89.1	3.0	0.9
필리핀	115,696	116,233	0.5	4.6	12.0
베트남	81,939	22,946	-72.0	3.3	2.4
말레이시아	48,550	4,488	-90.8	1.9	0.5
싱가포르	18,009	7,525	-58.2	0.7	0.8
인도네시아	66,762	46,563	-30.3	2.7	4.8
중 동	43,323	36,969	-14.7	1.7	3.8
미 주	271,487	241,825	-10.9	10.8	25.0
미 국	220,417	204,025	-7.4	8.7	21.1
캐나다	34,734	29,795	-14.2	1.4	3.1
구 주	214,911	147,330	-31.4	8.5	15.2
러시아	73,086	32,897	-55.0	2.9	3.4
영 국	20,419	8,974	-56.1	0.8	0.9
독 일	24,128	20,038	-17.0	1.0	2.1
프랑스	19,371	15,700	-19.0	0.8	1.6
이탈리아	6,455	4,091	-36.6	0.3	0.4
대양주	30,454	5,574	-81.7	1.2	0.6
호주	23,172	3,503	-84.9	0.9	0.4
뉴질랜드	6,598	1,660	-74.8	0.3	0.2
아프리카주	14,374	12,087	-15.9	0.6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3,143	1,195	-62.0	0.1	0.1
기 타	26,532	13,349	-49.7	1.1	1.4
교포	26,391	13,292	-49.6	1.0	1.4
미상	141	57	-59.6	0.0	0.0
전 체	2,519,118	967,003	-61.6	100.0	1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주) 각 지역 합계에는 기타 국가가 포함됨

2) 국민 해외여행 동향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내국인들의 출국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해서 약 2,870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2021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122만 2,541명으로 전년 대비 7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총 3차례의 마이너스 성장률('97~'98: IMF 외환위기, '03: 사스, '08~'09: 글로벌 금융위기)을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은 역사상 최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 국가들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제한·금지,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¹⁵⁾를 2020년 3월 23일 최초로 발령하여 한동안 지속하여 왔다.

국민 해외여행의 경우, 2021년에는 백신접종율의 증가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2021년 하반기 소폭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과 국제선 항공여객 운항 편수 감소로 인해 국민 해외여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국민 해외여행은 7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0〉 연도별 국민 해외여행 출국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출국자 수	성장률	연 도	출국자 수	성장률
1988*	725,176	42.0	2005	10,080,143	14.2
1989*	1,213,112	67.3	2006	11,609,879	15.2
1990	1,560,923	28.7	2007	13,324,977	14.8
1991	1,856,018	18.9	2008	11,996,094	-10.0
1992	2,043,299	10.1	2009	9,494,111	-20.9
1993	2,419,930	18.4	2010	12,488,364	31.5
1994	3,154,326	30.3	2011	12,693,733	1.6
1995	3,818,740	21.1	2012	13,736,976	8.2
1996	4,649,251	21.7	2013	14,846,485	8.1
1997	4,542,159	-2.3	2014	16,080,684	8.3
1998	3,066,926	-32.5	2015	19,310,430	20.1
1999	4,341,546	41.6	2016	22,383,190	15.9
2000	5,508,242	26.9	2017	26,496,447	18.4
2001	6,084,476	10.5	2018	28,695,983	8.3
2002	7,123,407	17.1	2019	28,714,247	0.1
2003	7,086,133	-0.5	2020	4,276,006	-85.1
2004	8,825,585	24.5	2021	1,222,541	-71.4

자료 : 관광자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주) 1998년부터 승무원 포함

* 해외여행 허용연령 : 45세 이상(1987.9.16.), 40세 이상(1988.1.1.), 30세 이상(1988.7.1.), 연령제한 폐지(1989.1.1)

- 15)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표 1-11〉 월별 국민 해외여행 출국 현황

(단위 : 명, %)

월	출국자 수		성장률	구성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	2,513,030	86,143	-96.6	58.8	7.0
2	1,046,779	68,213	-93.5	24.5	5.6
3	143,366	73,999	-48.4	3.4	6.1
4	31,425	71,302	126.9	0.7	5.8
5	37,802	75,416	99.5	0.9	6.2
6	48,353	79,446	64.3	1.1	6.5
7	65,936	101,963	54.6	1.5	8.3
8	88,888	137,712	54.9	2.1	11.3
9	76,798	116,615	51.8	1.8	9.5
10	71,970	124,399	72.8	1.7	10.2
11	70,686	147,907	109.2	1.7	12.1
12	80,973	139,426	72.2	1.9	11.4
계	4,276,006	1,222,541	-71.4	100.0	1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원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

주) 성장률은 전년 동월대비임

3) 관광수지

관광수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0~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2008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59.8% 증가하며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0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9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207억 달러로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최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관광수입이 50.9% 감소하여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1년 이후 지속된 관광수지 적자는 2019년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1,750만 명)이 입국함에 따라 -85억 달러로 개선되었다. 2020년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관광수입과 관광지출이 동시에 줄면서 -30억 달러(잠정치)로 적자 폭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하는 한편, 국민 해외여행자 수가 하반기에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3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¹⁶⁾

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나. 국내관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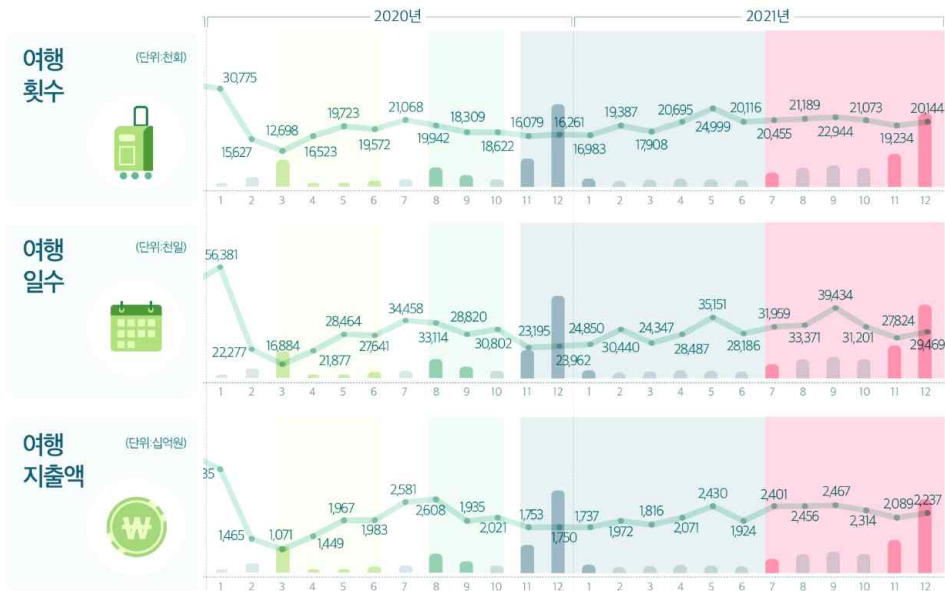
2021년은 2020년 대비 국내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등 4개 항목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전년대비 7.5%p 증가한 93.9%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89.0%, 기타여행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71.3%로 조사되었다. 국내여행 횟수 총량은 2억 4,513만 회(숙박 여행 8,779만 회, 당일여행 1억 5,734만 회)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수치이다. 관광여행 횟수 총량은 1억 9,880만 회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기타여행 횟수 총량은 4,633만 회로 전년대비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여행 일수는 3억 6,472만 일(숙박여행 2억 738만 일, 당일여행 1억 5,734만 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관광여행 일수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3억 36만 일, 기타여행 일수는 전년대비 22.9% 감소한 6,436만 일이었다. 국내여행 지출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25조 9,150억 원(숙박여행 16조 7,610억 원, 당일여행 9조 1,540억 원)이었으며, 관광여행 지출액은 전년대비 14.0% 증가한 23조 670억 원, 기타여행 지출액은 전년대비 27.1% 감소한 2조 8,49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의 출국자 수는 2019년에 비해 71.4% 감소한 가운데 국내여행의 경험률과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등 전반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7.5% 증가한 93.9%를 나타냈으며, 지출액 또한 7.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년째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행에 관한 국민의 국민 해외관광수요 등이 방역으로 인해 이동이 일부 제한되면서 이에 대한 전환 수요로서 국내관광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나아가 국민관광 촉진을 위한 코로나 19 대응 다양한 지원 대책이 국민 관광향유 증가에 직·간접적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2〉 국내여행 총량

구분	단위	국내여행 ¹⁷⁾		관광여행 ¹⁸⁾		기타여행 ¹⁹⁾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여행 경험률	%	86.4	93.9	75.5	89.0	53.7	71.3	
여행 횟수	국내여행	천 회	225,199	245,127	170,642	198,800	54,556	46,327
	숙박여행 ²⁰⁾	천 회	88,450	87,785	68,834	74,894	19,616	12,891
	당일여행 ²¹⁾	천 회	136,749	157,342	101,808	123,906	34,940	33,435
여행 일수	국내여행	천 일	347,876	364,721	264,445	300,358	83,431	64,362
	숙박여행	천 일	211,127	207,379	162,636	176,452	48,491	30,927
	당일여행	천 일	136,749	157,342	101,808	123,906	34,940	33,435
여행 지출액	국내여행	십억 원	24,121	25,915	20,213	23,067	3,908	2,849
	숙박여행	십억 원	15,638	16,761	13,579	15,514	2,058	1,247
	당일여행	십억 원	8,483	9,154	6,633	7,552	1,850	1,6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그림 1-1〕 2020년, 2021년 월별 국내여행 횟수

- 17)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함. 단, 단순 식사, 쇼핑, 영화감상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의 산책, 등산, 취미, 교양생활, 스포츠 등의 일상적이며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제외함
- 18)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 19) 출장·업무 방문, 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 방문, 단순 결혼식, 장례식 참여 등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 20) 응답자가 거주하는 집이 아닌 곳에서 숙박한 여행(숙박장소 뿐만 아니라, 찜질방, 차안 등 비숙박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포함)을 의미함
- 21) 숙박을 의도하지 않고 떠난 여행(돌아오는 길에 자정을 넘긴 경우도 당일여행으로 포함)을 의미함

다. 남북왕래 현황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2013년 4~5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 제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태였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진전이 있었으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한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북왕래는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져들었다.

〈표 1-13〉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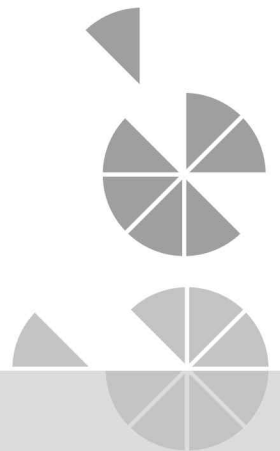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입경	120,662	77,028	127,878	131,390	14,926	19	9,583	2,407	656	38
출경	120,706	76,956	127,668	131,367	14,719	19	9,616	2,444	606	46
계	241,368	153,984	255,546	262,757	29,645	38	19,199	4,851	1,262	84

자료 : 법무부, 2022년 6월 30일 기준

제 2 장

2021년도 주요 관광정책 성과

1. 관광산업위기 안전망 구축 _25
2.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_28
3. 국민행복을 위한 포용관광 추진 _32
4. 지역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_34
5.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준비 _37



2021년도 주요 관광정책 성과²²⁾

1. 관광산업위기 안전망 구축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관광시장은 해외 출입국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가. 고용·일자리 지원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시·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관광지 방역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및 환경점검 등을 수행하는 방역·관리요원 채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방역·관리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였다.

나. 역량강화 지원

정부는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행업계 및 마이스 업계를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관광숙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등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러닝 및 집합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업체 역량 강화를

22)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를 토대로 2021년 주요 관광정책 성과를 작성하였음

위하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의 조기 시행 및 지원금 증액을 통하여 관광분야 혁신벤처기업 발굴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비대면 및 스마트 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스마트 기반 기술 도입 등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다.

마이스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임차비와 현장방역 관리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하였다.

다. 세제 및 부담감면

정부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한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또한 호텔업과 유원시설업의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소유 국제회의 시설 및 유원시설 부지 임대료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각종 세금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 경주시, 청도군, 봉화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정부는 관광사업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감면 및 납부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관광업계의 부담을 감면하였으며, 유원시설업 안전 점검 수수료 감면도 추진하였다. 매 3년마다 실시해온 호텔등급심사 또한 감염병 확산 우려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진행상의 어려움과 한국호텔업협회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이밖에 카지노업 관광기금의 납부를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로 유예하였으며, 여행사에는 임차료 부담 감면을 위하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였다.

라. 코로나 확산 단계별 정책 대응

1) 코로나19 확산 안정기의 정책 대응

정부는 2021년 1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속하면서 ‘설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여행 자제 유도 방침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 관광 관련 정책은 여행 소비 촉진보다는 관광기업 지원, 방역상황 점검을 기조가 유지되었다. 1월에는 코로나19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2월~3월에는 기간 업계 지원,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등 세 가지 축에서의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업계지원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이었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시·국제회의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유원시설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신규로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여행업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상향, 관광업계 지원 확대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 관광시장에서의 미래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국제관광시장 회복 준비 특별전담반'을 출범하였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지능형(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도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 급증기의 정책 대응

2021년 4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환자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재증가에 따른 관광업체 피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우선 4월 1일에는 관광기금을 활용한 '긴급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신용보증부특별 용자 500억 원 지원, 2020년 용자금 상환유예 대상자에 대한 상환 유예 1년 재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관광업계 피해 극복 및 재도약 논의를 위한 '시도 관광 국장 회의' 개최, 유원시설 방역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이후의 정책 대응

2021년 중반 이후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게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 예방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에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 정책 추진 계획을 6월 8일 발표하였다.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피해 파악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 소통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확대, 주요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방역물품 지원,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등의 업계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안전여행 캠페인 지속 전개, 관광지 방역 관리 강화,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 조성 등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서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 접목 및 운영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효율성과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가. 관광산업의 디지털혁신 확산

1)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2021년 6월 15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안내를 위하여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무인다국어 관광안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이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개항장 일원)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지정하는 한편 2021년 7월 국내 1호 '스마트관광도시'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스마트관광 기반을 구축하였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은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었다.

2)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확대

정부는 2021년에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 예산을 13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남 여수시, 경기도 수원시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추가 선정하였다.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타임슬립, 1795 수원 화성’을 주제로 AR·VR 기술을 결합하여 과거의 원형을 디지털로 복원하였으며, 전남 여수시는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하는 밤·디·불 여수여행’을,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낮보다 아름다운 수성의 저녁 관광’을 주제로 하여 기존 관광자원의 매력을 첨단기술과 결합하였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스마트관광을 확산하고 전국에 균등한 품질의 스마트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스마트관광도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더불어 스마트관광도시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관광 행태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융합·분석을 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3)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서 데이터 기반 관광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2021년 2월 17일 공개하였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는 지역별 관광 이동 및 소비행태와 같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관광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관광 관련 다양한 이종(異種)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별 방문자수, 방문자 거주지, 방문자 이동행태, 관광 소비금액, 인기 관광지 등 최신 관광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지역 관광상황판’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각 지역별 관광객의 방문·체류 추이, 관광활동 유형, 방문객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관광 특화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데이터 활용을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관광데이터랩을 연계하여 관광산업 종사자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학계·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연계하여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민간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가능해졌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역별 관광 여건, 관광트렌드 및 이슈를 기반으로 관광과제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은 2021년 기준 기업·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총 2,439개와 가입회원 1만 2,126명을 확보하였고, 누적 이용자수는 15만 5,746명,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5만

5,102건을 기록하였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체 조사(2021.2) 결과 전반적 만족도와 관광 산업 발전 기여도가 각각 4.25점, 4.36점(이상 5점 만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관광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부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관광산업 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관광기업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 여행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역량강화

정부는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중소 여행사에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시장 회복에 대비하고 여행업의 비대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사업은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 소셜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모바일 고객응대시스템 도입,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과제의 수행과 업체별 디지털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우수성과 도출 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사업자(법인, 개인)와 창업 1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험형(디지털 활용 경험 미보유업체)과 주도형(디지털 활용 경험 보유 업체)으로 구분, 2021년 220여 개 업체에 총 65억 원을 지원(업체당 2,000만 원~3,500만 원)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여행업계 생태계 전환 지원의 하나인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중소여행사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30억 원 규모)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1년 12월 기준 총 101개 업체의 유통 플랫폼 진출과 132개 업체의 디지털 보안서비스 구축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융합형 관광인재 육성과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업계 IT인력 신규 채용지원’사업과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였다. ‘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인력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31억 원 예산 규모로 실행되었다.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2021년 기준 여행업 사업주, 종사자, 실직자, 관광안내종사원 등 최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35억 원을 지원하여 관광이러닝센터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13개 신규과정 제작, 2,642명 수료), 주요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교육(19회, 482명 수료),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연계맞춤형 교육(206개 사 교육 완료)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2)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역량강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회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이스 트렌드에 대응하고, 마이스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이스 분야 7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마이스 행사에 적용 가능한 회의기술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 수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마이스 기업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회의기술 전반의 이론 교육 및 활용 방안 구상, 특정 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기업 맞춤형 컨설팅 분야 선정과 컨설턴트 섭외 등을 지원하였다

2021년 회의기술 컨설팅-디지털 전환 연계 사업화 주요 내용은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비대면 MICE 행사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한 컨설팅, 행사 운영 및 관리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도입 컨설팅, 행사차량 이동관리 시스템 개발 컨설팅 등이다.

정부는 마이스 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과 ‘마이스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디지털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은 2021년 318명의 마이스 업계 종사자, 컨벤션학과 관련 대학(원)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획 전문가 과정, 데이터 전문가 과정, 저작권 전문가 과정, 개발자 과정, 일반 과정 등의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마이스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 마이스 행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21년 4월 추진한 이 사업은 컨벤션, 마이스,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 분야의 전문인력을 마이스

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의 업무 유형은 온라인 마이스 행사 기획 및 개발 분야, 행사 홍보물 및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행사의 홍보 콘텐츠 관리 분야, 웹 기반 모바일 사이트 기획 및 개발, 온라인·비대면 회의 시스템 운영, 온라인 행사 데이터 설계 및 관리 등이다.

〈표 2-1〉 2021년 회의기술 컨설팅-디지털 전환 연계 사업화 주요 내용

컨설팅 내용	디지털 전환 연계 사업화 내용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위치 서비스 기반 참가자 이동 동선 관리 시스템으로 MICE 행사 수송 관리, 탑승 예약 가능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참가자 방역 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행사 운영
비대면 MICE 행사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쟁 플랫폼 분석, 디지털 마케팅 전략 컨설팅 진행 MICE 관련 대외활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하이브리드 및 메타버스 행사 전문 홍보 채널 운영
행사 운영 및 관리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도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관리, 연사 및 세션 관리, 가상 전시 관리 등 MICE 행사 운영 관리 솔루션 개발 자사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전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진행
행사차량 이동관리 시스템 개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에 사용되고 있는 각 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탑승자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하여 추진 점검, 향후 계획 수립 등 진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3. 국민행복을 위한 포용관광 추진

가. 무장애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정부는 장애인·고령자·영유아를 동반한 여행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숙박시설·음식점 등 연간 1,000개에 달하는 무장애 여행 정보 DB 구축,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전국 주요 관광지의 경사도 정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휠체어 대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장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관광 향유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안내 등 제반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표 2-2〉 무장애 관광콘텐츠 생산 및 정보 제공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무장애 DB 생산·제공	큐레이션	• 열린관광지 대상 무장애 추천코스(장애인 유형별,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개발 → 무장애 열린관광 추천코스 총 197개(누적) 기획
	정보 제공	• Tour API 활용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무장애 정보 지속 현행화, 무장애 DB 7,454건 보유
장애유형별 콘텐츠 생산	감각 장애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열린관광지 오디오서비스, 음성안내 서비스 생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린관광지 소개 수어 영상 제작
	지체 장애	• 열린관광지 홍보 영상 VR / 360° 파노라마 콘텐츠 제작 • 무장애 지도 제작을 통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 경사로 등 안내 → 무장애 동선, 장애물 등 관광지 접근성 사전 확인 가능
	발달 장애	•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관광지 안내 영상 제작 → 무장애 관광지 설명, 관광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나. 열린 관광지 대폭 확대 조성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을 목표로 신체적·환경적·사회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2016년까지 총 11개소였던 열린관광지는 2021년 기준 총 92개소까지 늘어났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휴게공간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체험 공간 조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픽토그램, 시설 종합 축지도 등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된 후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였다. 실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이동약자들의 관광 접근성을 보장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은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접근성과 포용적 관광(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2021.5.31). UNWTO는 2007년 유엔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협약을 필두로 포용적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건의 포용적 관광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열린관광지를 선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하였다.

4. 지역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가. 관광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국가 관광개발계획 수립

정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향후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향후 10년간의 관광개발 미래 전략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의 제한적 상황과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미래 비전을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으로 제시하는 한편 10년간 전략화 하여 추진하는 6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전략 내 17개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 추진전략 내용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은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관광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광정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을 위한 5대(13+4) 관광공간 설정을 시도하고 5대 대권분류 및 대권별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1핵구조의 관광권에서 다핵구조로의 전환과 메가관광권-관광중추도시-관광중핵도시 등 서로다 른 위계의 공간 층위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관광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2021년 16개 각 광역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5년간(2022~2026년) 지역관광발전 추진 위한 관광개발 종합전략인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관광진흥법 제51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역계획의 조정지침을 각 지역에 배포 및 조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별 권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경쟁력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토 관광공간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관광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4차 기본계획~제7차 권역계획~관광지 등의 조성과의 연계를 위한 연속적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등 시도지사의 권역계획의 수립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을 완료하였다.

나. 지역 주도의 관광산업 추진 체계 확립

1) 지역관광 재정분권 실현

관광분야에서 관광재원 중 국비를 통하여 지역에 지원한 7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자율편성사업으로 2019년에 이관했으며, 관련된 회계 등의 행정업무 또한 지방사무로 본격 이양을 완료 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원칙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권한과 재원을 배분하여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지역분권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회계 사업은 총 7개이고 관광지,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 국민여가캠핑장조성, 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 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등이 있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지방세의 추가확충,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관련부처 간 및 당·정 간의 거듭된 논의와 협상을 거쳐 2021년 7월 합의에 이르렀다. 제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3년까지 25.3%로 4.3%p 인상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마련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안 등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5조 3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1.1%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재정분권의 의의는 기능이양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2단계에서는 2.25조원의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2026년까지 이양된 사무의 실행의무가 종료되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어 지방의 재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²³⁾

23) 김순은(202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35(4), 3-36.

2)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통한 거버넌스 구축

DMO(DMO :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 추진한 이래에, 2021년 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한 총 17개소의 DMO를 추가 선정하였다. DMO는 지역 내 관광공급자(여행·숙박·음식·쇼핑 등) 관광 관련 산업, 협회, 주민조직과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여 당면한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역의 관광산업 전반의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핵심기능은 지역관광에 대한 합의 및 조정을 이끌어내는 지역관광플랫폼 기능으로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자원 관리, 관광산업 지원, 관광품질 관리 등의 5대 중점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에서 선정한 DMO들의 경우 2021년에 안전여행 문화정착을 필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안전여행 서비스 지원, 안전한 관광안내, 안전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총 22개의 안전여행 문화정착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공정여행 홍보, 일주일살기 체험 공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 지역 현안에 DMO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표 2-3〉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자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지역	사업자
2020년 선정(12개)	경기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강원	평창군관광협의회
	경북	고령군관광협의회,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
	전남	여수시관광협의회,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전북	익산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충남	보령축제관광재단, 행복한여행나눔
	충북	단양군관광협의회, 제천시관광협의회
2021년 (관광거점도시 추천 5개 DMO)		부산관광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안동시관광협의회, 전주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재)목포문화재단
2021년 선정 (12개)	경기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경북	(재)경주화백컨벤션부로
	경남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전남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전북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충남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재)행복한여행나눔
	충북	(사)단양군관광협의회,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사)제천시관광협의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3) 지역주민 주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지원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 하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식음·여행알선·체험·기념품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창업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역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두레 사업은 2021년에 한국관광공사로 이관 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관광두레 사업의 질적 성장 및 중앙(본사)-광역(국내지사)-기초(PD)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고도화 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사업체의 연간 성과 및 성장 단계를 평가하는 진단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광두레 사업성과를 구체화하였다.

관광두레 사업은 2013년 5개 지역 선정을 시작(‘14년 20개, ‘15년 11개, ‘16년 8개, ‘17년 7개, ‘18년 10개, ‘19년 12개, ‘20년 12개)으로 2021년 22개 지역을 신규 선정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58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총 305개의 주민사업체계를 육성 및 관리 중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2017년 이후 청년 창업과 관련된 지역관광 수요가 높아지면서 ‘청년두레’(구성원 2/3 이상이 청년인 주민사업체)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2017년부터 시작한 청년두레 사업은 2021년까지 총 120개를 발굴하고 청년의 관광분야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PATA GOLD AWARDS 2021 CBT(Community Based Tourism, 지역기반관광) 분야 수상, 국무총리실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2021년 관광두레 사업은 국내외 우수정책사례로 인정받았다.

5.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준비

가. 국제관광 대응 체계 구축

1)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특별전담반(TF)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문체부, 국토교통부, 각 협회, 항공관계자, 관광·의료전문가 참석하여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상호호혜적인 국제관광 재개

1) 한-사이판 트래블버블 시행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6월 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트래블버블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동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안전을 확보하면서 격리조치의 부담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첫 번째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한-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시행

사이판과의 트래블버블 시행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에 한국-싱가포르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신축: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하였다. 이는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동 합의를 통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입국 직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해외 관광교류 회복 네트워크 확대

1)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온라인 개최

한일 양국간 관광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최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2021년 11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한일 관광당국은 관광교류 재개 및 관광산업 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2)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관광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21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관광포럼(2021 OECD Global Forum on Tourism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을 통해 다양한 관광 분야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견해 및 관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관광산업이 어떠한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함께 회복력 있는 관광경제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 국내 관광 우수사례 해외 홍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1년 12월 2일 개최된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 (UNWTO The Best Tourism Villages Pilot Initiative)’ 시상식에서 신안 ‘퍼플섬’,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은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농어촌의 지역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으로 해소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자연자산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올해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대상은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인구수 1만5천명 미만 마을이며,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자연자원, 관광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2개국의 44개 ‘최우수 관광마을’ 마을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한 국가 당 최대 3개 마을까지 신청 가능해 전 세계 75개국 총 174개 마을이 참여하였다. 선정된 최우수 관광마을엔 인증서(라벨)가 부여되고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6월 국내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3개 예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했으며, 이후 현장실사,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컨설팅 등을 진행, 공모기준에 최적화된 출품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선정 마을을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지닌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판촉 지원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표 2-4〉 '제1회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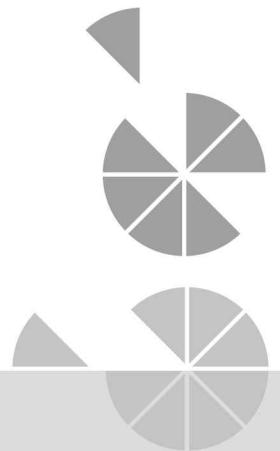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명	제1회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
공모기간	2021.6 ~ 2021.9.15
추진목적	UNWTO에서 올해 최초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불균형, 농촌인구 감소 등 문제 해소
응모대상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거주자 1.5만명 미만 마을(※ 국가당 최대 3개 응모가능)
선정기준	문화/자연자원, 잠재성, 경제/사회적 지속성, 거버넌스 등 종합고려
선정분야 (3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관광마을(The Best Tourism Village) : 최우수 관광마을 라벨 - 최우수관광마을 개선 프로그램(Upgrade Program) : 컨설팅 지원 - 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 : 정보교류 지원
수상내용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신안 퍼플섬 최우수 관광마을(BTV) 선정

자료 : 한국관광공사 보도 자료 (2021년 12월 3일). 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제 3 장

국민관광의 진흥

- 1. 국내관광 진흥활동 _43
- 2. 관광수용태세 개선 _48
- 3. 계층별·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_56
- 4. 남북관광 교류협력 _61



1. 국내관광 진흥활동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여행 참여 촉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취약 계층 향유권 확대 등 세 분야의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민 국내여행 참여 촉진을 위해 ‘안전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여행 캠페인’을 통해 방역우수관광지 집중 홍보, 여행특화 방역지침을 수립, 관광종사원 대상 방역교육 강화 등 안전여행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국민에게 교통, 숙박, 체험 등 여행관련 혜택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21년은 ‘여행가는 달’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민간·공공 협력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4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10만 원), 기업(10만 원),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2018년 2,441개사 2만 명, 2019년 7,518개사 8만 명, 2020년 11,931개사 96,086명, 2021년 8,906개사 86,360명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사업을 통한 국내여행 신규 수요는 51.3%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10만 원) 대비 약 8.6배(861,725원)를 총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천! 가볼만한 곳’,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등 지역 관광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였다. ‘한국관광 100선’ 국내 및 해외 홍보 리플렛(5개 언어)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국내 및 해외지사, 전국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2021년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자원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하여 6개 분야 8개 수상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하였다. 2021년 대국민 대상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5점 척도)는 2021년 3.89점으로 2020년 3.83점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밖에 재방문 의향(3.67점→3.75점), 타인 추천 의향도(3.73점→3.80점) 역시 전년대비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관광의 별’ 선정 영향력도 2020년 3.61점 대비 2021년 3.63점으로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2021 내나라 여행박람회’ 및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언론 홍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활용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여 국내 대표 관광지 육성을 지원하였다.

셋째, 관광취약 계층 향유권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 내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섹션 및 별도의 웹사이트(https://access.visitkorea.or.kr)를 구축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정보 및 특수 기능(고대비 모드, 스크린 리더 기능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2021년까지 7,551개의 관광정보와 신규맞춤형 추천코스 27건 및 누적 197개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총 20개의 열린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관광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관광취약계층의 여행욕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사업인 ‘나눔여행’을 2021년 기준 총 10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성보학교’ 등 특수학교 총 29개교 3,720명,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등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총 55개 기관 1,867명, ‘부산사상구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총 24개 기관 311명, ‘한꿈학교’ 등 탈북청소년 총 9개 기관 250명에게 문화관광체험 여행 행사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관광 연계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하여 전북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1 미래·안심·힐링 여행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였으며, ESG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자체 등)간 협업 체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가. 국내관광 이미지 제고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국민의 인식 전환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02~2003년에는 ‘내나라 먼저보기’ 캠페인, 2004~2005년에는 ‘내나라 사랑여행, Love Korea’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06~2013년에는 ‘구석구석 캠페인’을 추진하여 TV, 인쇄매체 등 전통적 매체는 물론 지하철 내·외부

광고, 인터넷 광고 등 새로운 매체로 영역을 확대하여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2007년 캠페인에서는 국내의 숨겨진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여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영화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국내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였다. 2009~2010년에는 기존의 ‘인지향상’ 목적의 광고를 넘어 ‘행동 변화’를 위한 구석구석 캠페인의 전략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는 SNS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확대함에 따라 구석구석 캠페인을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2013년에는 대내·외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으로 캠페인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음식관광’을 주제로 한 테마형 국내관광 캠페인을 최초로 시도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2014년에는 최초로 민관협업에 의한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주간’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 ‘관광주간’이 ‘여행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관광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 분산 및 신규 여행수요 창출에 기여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 방역시대 안전여행 분위기 조성 및 위축된 국내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특별여행주간’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여행을 일상화하고 침체된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고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매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을 ‘여행가는 달’로 통합해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운영하였다. 10개 공공기관, 21개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교통, 숙박, 여행상품 및 유원시설과 야영장 등 다양한 여행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였다. 숙박과 유원시설 약 5천 개소 대상 방역물품 배포와 주요 관광지에 3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 및 지역여행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21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속세에도 ‘2021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국내 이동량은 전년도 여행주간 기간 대비 5.3% 증가(160만 명→168만 명)하였으며 관광소비 지출액의 경우 3.2% 증가(5.9조 원→6.1조 원)하는 등 전년 대비 여행수요 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3-1〉 여행주간 캠페인 홍보실적

연도	매체	기간	횟수
2014년	TV 광고	4~5월, 9~10월	295회
	라디오광고	4~5월, 9~10월	102회
	TV 특집프로그램	4~5월, 9~10월	24회

연 도	매 체	기 간	횟 수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9~10월	188회
	인터넷광고	4~5월, 9~10월	318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가판대, 전광판 등)	4~5월, 9~10월	6,991개소
	극장광고	4~5월, 9~10월	312,955좌석
2015년	TV 광고	4~5월, 9~10월	1,622회
	라디오광고	4~5월, 9~10월	124회
	TV 특집프로그램	4~5월, 9~10월	31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9~10월	117회
	인터넷광고	4~5월, 9~10월	349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가판대, 전광판 등)	4~5월, 9~10월	2,329개소
2016년	TV 광고	4~5월, 9~11월	1,568회
	TV 특집프로그램	4~5월, 9~11월	26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9~11월	78회
	인터넷광고	4~5월, 9~11월	571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전광판, 버스, 극장 등)	4~5월, 9~11월	2,634개소
2017년	TV 광고	4~5월, 9~11월	1,614회
	TV 특집프로그램	4~5월, 9~11월	25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9~11월	91회
	인터넷광고	4~5월, 9~11월	494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극장 등)	4~5월, 9~11월	2,094개소
2018년	TV 광고	4~5월, 9~11월	1,060회
	TV 특집프로그램	4~5월, 9~11월	12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9~11월	141건
	인터넷광고	4~5월, 9~11월	301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극장 등)	4~5월, 9~11월	1,239개소
2019년	TV 광고	4~5월, 8~9월	1,203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4~5월, 8~9월	89회
	인터넷광고	4~5월, 8~9월	621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극장 등)	4~5월, 8~9월	2,644개소
2020년	TV 특집프로그램	6~7월	1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6~7월	39회
	인터넷광고	6~7월	823백만 회
	옥외광고(지하철, 버스, 극장 등)	6~7월	1,067개소

연도	매체	기간	횟수
2021년	TV 광고	11월	264회
	TV 특집프로그램	11월	2회
	인쇄매체(일간지, 잡지 등)	11월	37회
	인터넷광고	11월	464백만회
	옥외광고(지하철, 기차역 등)	11월	39,140개소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나. 관광상품 개발 및 정보 제공

국민들이 쾌적한 국내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국내관광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개 주제로 70개의 ‘추천! 가볼만한 곳’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선호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관광의 대표 스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국관광의 별’ 사업과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 사업을 통해 국내 관광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내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에 대한 지도, 관광지 소개 등의 신규 정보를 매년 리뉴얼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개인 및 전국 관광안내소 대상 100선 소개 리플렛의 상시 배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비대면 걷기여행 캠페인 ‘다시 걷는 대한민국’에 연인원 37,520명이 참여하였다. 캠페인의 주 내용은 두루누리 앱에 등재된 전국 2,000여개 걷기길 중 완주 코스수에 따른 경품지급 및 누적거리 기준 걷기왕 선발 등이다.

우리나라 국토 외곽을 잇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킴이 50명을 운영하여 914회 노선점검, 간이안내사인(리본 약 3만개, 화살표 약 1만개)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노선 모니터링 및 지역 협의를 통해 보행안전성을 개선(도로 위험 구간 약 61km 감소)하였다. 또한 ‘코리아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파랑길 대표코스를 선정하였으며 인플루언서 및 사진작가와 연계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대표코스 방문이벤트를 진행하여 600명이 참가하였다. 하반기에는 대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남파랑길 원정대’를 운영하여 각 40명 씩 2회, 총 80명의 원정대와 6박7일 동안 15개 노선을 걸었으며, 연관 콘텐츠 384개를 제작하여 ‘코리아둘레길’ 홍보에 기여하였다.

접경지역 걷기여행길인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코스)은 11월 20일부터 12월26일까지 총 146회차를 운영하여 3,102명이 신청하고, 1,516명이 방문하였다.

강릉시 스킨스쿠버, 원주시 산악자전거, 달성군 수상레저, 부여군 열기구, 신안군 자전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레저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에 부응하여 창원, 전주, 군산 등 지역 자전거 여행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 스탬프투어를 추진하여 4,064명이 참가하는 등 무동력 친환경 여행 방식인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였다.

2. 관광수용태세 개선

가.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안내체계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는 관광안내전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²⁴⁾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안내서비스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에 대한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광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 9월 '관광안내전화 1330' 개통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으며, 2019년 기준 1330 콜센터의 안내건수는 194,934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 대외변수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안내건수 역시 80,862건으로 감소하였다. '1330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가 분산 운영해오던 것을 2012년에 한국관광공사 콜센터로 통합·일원화하여 국번 없이 1330만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4개 언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24시간 전국통합관광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외에도 관광불편신고 상담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 관광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전화로서 1330 서비스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2018년 다변화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태국어, 베트남

24) 관광안내체계 개선 내용은 「제3장 국민관광의 진흥」에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 모두 해당됨

어, 말레이시아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서비스를 확대하였고,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데이터(mVoIP)기반 무료통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여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4개 언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를 제공하는 문자·채팅서비스를 추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소는 각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여행업협회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520개소를 운영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대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전국 대상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관광안내원 대상 현장답사 및 온라인교육 지원 등 관광안내원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이후 매년 전국 관광안내소를 대상으로 관광안내소 현황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관광안내소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안내표지 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 디자인과 설치 매뉴얼이 포함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배포 및 준수를 적극 권고하였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전체 외래객 약 1,750만 명 중 일본과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등) 관광객이 약 64%를 차지하는 등 중화권 및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어와 함께 관광안내표지의 다국어 표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을 제공하여 관광용어 관련 외국어 표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 등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관광안내표지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대규모 국가행사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 자연·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²⁵⁾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당초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설사의 역할과 기능이 관광(단지, 생태·녹색 관광,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자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5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후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객의

25)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내용은 「제3장 국민관광의 진흥」에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 모두 해당됨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를 명문화하였다.

〈표 3-2〉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현황

(단위: 명)

지 역	양 성 인 원							활 동 인 원				
	'01~'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328	0	14	39	0	0	381	214	206	234	235	231
부산	160	0	0	19	10	0	189	92	127	105	111	117
대구	279	0	0	0	0	9	288	122	120	120	119	118
인천	219	10	14	4	24	2	273	108	113	113	111	130
광주	150	0	0	22	18	0	190	81	70	59	65	90
대전	79	0	20	0	0	0	99	44	63	63	60	60
울산	130	15	11	19	10	0	185	65	69	63	77	81
세종	13	0	0	5	5	0	23	8	7	6	11	14
경기	859	0	61	0	66	0	986	477	554	554	521	554
강원	323	15	14	15	28	6	401	195	201	208	230	213
충북	210	0	0	18	0	6	234	168	159	177	177	174
충남	265	17	7	12	13	8	322	170	169	173	172	170
전북	469	35	27	41	45	27	644	238	245	273	297	275
전남	489	28	34	40	80	44	715	316	331	350	377	422
경북	577	0	0	57	2	38	674	358	345	323	382	379
경남	401	20	22	21	13	14	491	193	210	217	233	231
제주	271	41	0	0	0	0	312	200	193	190	188	188
총 계	5,222	181	224	312	314	154	6,407	3,049	3,182	3,228	3,366	3,4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에 3,44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설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단체인원이 해설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각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서 개설·운영하는 100시간의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얻은 후에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1) 온라인 관광정보 다양화

3만여 건의 관광지 DB를 바탕으로 테마별 여행기사, 코스추천 등의 온라인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국문 여행정보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웹/앱)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 내 지역여행정보 강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큐레이션 영역(지역 정보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사용자들이 17개 광역 시도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여행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파트너스(B2B)서비스를 신설하여 지자체, 민간기업 등 대외기관의 콘텐츠 및 채널 제휴요청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콘텐츠 확보와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대학생 관광기자단 ‘트래블리더(32명)’ 및 전문 취재단 ‘다남(10명)’을 운영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및 홍보하였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대한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 국민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사용자 로그분석, 소셜 트렌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니즈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여행콘텐츠를 생산하는 한편, 백년가계(중소기업벤처부), 지역축제정보(지자체) 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8개 SNS 채널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국내여행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210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확충 및 소통 지향적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섬 발전 유공 포상,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등을 수상하였다.

〈표 3-3〉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 운영현황 및 주요성과

채널명칭 (주소)	주요 성과		개설 연도
	2020년	2021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웹/앱) (https://korean.visitkorea.or.kr)	방문자수 2,858만 명, 앱다운로드수 (누적)507만 건	방문자수 2,113만 명, 앱다운로드수 (누적)522만 건	1997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_diary)	평균 조회수 1.7만	평균 조회수 1.9만	2008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트위터 (https://twitter.com/Kor_Visitkorea)	팔로워수 39.2만 명	팔로워수 38.9만 명	2009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9suk9suklive)	평균 도달수 6.9만	평균 도달수 4.3만	2011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visitkorea)	구독자수 57.9만 명	구독자수 61.6만 명	2014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to9suk9suk)	팔로워수 28.9만 명	팔로워수 34.8만 명	2014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브런치 (https://brunch.co.kr/@koreadiary)	구독자수 5,630명	구독자수 6,156명	2017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네이버 밴드 (https://band.us/@koreadiary)	멤버수 12.4만 명	멤버수 14.4만 명	2018년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튜브 (https://youtube.com/channel/대한민국구석구석)	구독자수 9,357명	구독자수 12,264명	2019년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스마트폰 활용 관광정보 제공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스마트폰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 2월 국문 스마트폰 여행 어플리케이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출시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모바일 웹을 오픈함으로써 모든 스마트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모바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웹과 앱으로 분리된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과 앱 서비스를 통합하였으며,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웹·앱 통합 외에 복잡한 메뉴를 간소화하고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으로 UI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공앱 성과측정에서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20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여가 부문에서 코레일톡,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이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앱 3위로 조사되었다.

3) 관광정보 대외 개방서비스 확대

한국관광공사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사가 보유한 관광정보 80만여 건(콘텐츠 21만여 건, 이미지 59만여 건)을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67건을 포함하여 지난 11년간 민간영역에서 총 702건의 다양한 앱/웹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수요발생으로 2021년 총 5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개방 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21년 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빅데이터 정보, 두루누리 정보 등 신규 관광정보 약 123만 건을 추가 개방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정보원의 관광정보(국문관광정보)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관광지,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지역N문화’ 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외연을 확장하였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앱 개발에 국한됐던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더욱 확장시킨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통해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여러 형태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였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외에 아이디어만으로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신설해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온라인 설명회 등 홍보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참여도를 제고하고, 협력사 데모데이, 홍보영상 제작 등 수상작 대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라.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시정함으로써 쾌적한 관광분 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특별시·특별자치시·도, 광역시·도, 한국여행업협회 등 전국 24개 기관에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광시설 및 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광사업체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엽서 등을 통한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로 접수된 불편사항은 직접처리 또는 관할 행정기관 및 단체에서 처리되는데, 신고사항을 이전 받은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한국관광공사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접수된 관광불편신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 수용태세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광부문의 정책입안, 연구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²⁶⁾

2021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국인 불편사항 신고는 7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대비 15건(-16.3%) 감소, 2019년 대비 65건(-45.8%)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전체 불편신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숙박 관련 신고는 2020년 49건 대비 8건 증가한 57건이 접수되었다.

〈표 3-4〉 연도별 내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불편사항	불편 외 사항	총 접수건수
2017년	217	22	239
2018년	168	12	180
2019년	142	6	148
2020년	92	4	96
2021년	77	10	8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3-5〉 연도별/유형별 내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불편 사항	숙박	62	28.6	44	26.2	44	31.0	49	53.3	57	74.0
	음식점	15	6.9	14	8.3	20	14.1	10	10.9	3	3.9
	관광종사원	4	1.8	4	2.4	8	5.6	5	5.4	3	3.9
	여행사	62	28.6	50	29.8	36	25.4	4	4.3	2	2.6
	공항 및 항공	7	3.2	4	2.4	1	0.7	3	3.3	1	1.3
	쇼핑	18	8.3	3	1.8	6	4.2	2	2.2	1	1.3
	버스	4	1.8	6	3.6	3	2.1	-	-	-	-
	철도 및 선박	5	2.3	2	1.2	3	2.1	-	-	-	-
	택시	6	2.8	6	3.6	2	1.4	-	-	-	-
	안내표지판	-	-	3	1.8	1	0.7	-	-	-	-
	콜벤	-	-	1	0.6	-	-	-	-	-	-
	분실 및 도난	-	-	-	-	-	-	-	-	-	-
기타	34	15.7	31	18.5	18	12.7	19	20.7	10	13.0	
소계	217	100.0	168	100.0	124	87.3	92	100.0	77	100.0	
불편 외 사항 ²⁷⁾	감사내용										
	총계	239		180		148		96		8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26)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제3장 국민관광의 진흥」에 구성되어 있으나 국내·외 관광객 모두 해당됨

마. 출입국 심사제도 선진화 지속적 추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²⁸⁾ 이용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6천만 명에 근접(1억 5,994만 명)하였다. 19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등록 외국인의 사전등록절차 면제, 단기체류 후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국허용, 미국, 홍콩, 마카오에 이어 대만, 독일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²⁹⁾ 개시 등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2021년 자동출입국심사대 36대를 신규 설치하여 12개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공·항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입국 자동심사 전면 제한(2020.4.11.) 및 출국 외국인 자동심사 제한(2020.6.11.)이 2021년에도 지속되어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전년(37.1%) 대비 17.2% 감소하여, 전체 출입국자의 19.9%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당분간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국가 간 교류가 재개되면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증가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증설·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입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표 3-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08~'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입국자(계)	475,122,516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자동출입국 이용자(계)	61,701,065	24,620,574	30,466,946	37,697,784	5,459,765	908,914
전체대비 이용률	12.9	30.6	34.3	40.3	37.1	19.9

자료: 법무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7) '불편의 사항'은 칭찬 및 감사내용, 여행소감 등이 분류됨

28) 첨단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등 바이오 정보로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무인심사 시스템임

29) MOU 체결 등을 통해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상대국 국민도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 실시함

3. 계층별·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다가오는 2025년 고령자 수는 약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 2035년에는 약 1,5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여행 제약을 겪는 우리나라의 관광취약계층은 2021년 기준 장애인 264만 명(5.1%), 영유아 동반 가족 251만 명(4.8%), 고령자 854만 명(16.5%)으로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관광활동과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촉구 하고 있으며,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대로 관광을 단순한 휴양 및 위락 활동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간의 기본욕구로 인식을 전환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사회의 인구 변화가 맞물리면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및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관광복지정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보조하거나 장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관광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 계층별 관광 지원

정부의 관광복지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여행바우처’ 사업은 시행 초기 여행을 가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국내 여행경비의 30%를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정부지원금을 40%로 높여 추진되었으나, 하반기에 사업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행바우처’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소득 격차가 관광 활동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행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2010년에 동 사업은 부활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수행된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중심이었던 데에 반해, 2010년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되었으며, 월 소득 기준으로 각각 차등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05년 10,110명, 2006년 14,024명, 2010년 5,413명 등 총 3만여 명의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정부지원으로 관광혜택을 받았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2011년 대폭 개선되어, 기존에 ‘복지관광’과 ‘여행바우처’로 나누어 운영되던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을 ‘여행바우처’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동시에 바우처를 개별·복지시설단체·지자체 기획 등 3가지로 나누어 운영하여 수혜자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된 형태로 개선하였고, 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여 2011년에는 49,332명, 2012년에는 64,145명, 2013년에는 68,333명이 정부 지원으로 관광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문화·여행이용권 및 스포츠관광권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에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던 사업이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총괄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정부가 실시하는 여가 관련 각종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용권 사업을 통합 지원하되,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문화더누리사업) 중 일부로 문화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통합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총 1,178개 프로그램 75,248명 참여). 2015년에는 여행분야 민간업체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봄·가을맞이 관광상품 개발로 전년 동기 대비 관광분야 이용금액이 대폭 상승하였다(2014년 봄·가을맞이 관광 1,123백만 원 소비, 2015년 봄·가을맞이 관광 5,315백만 원 소비).

2016년부터는 기획사업(문화더누리사업)을 중단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하였다. 시외버스, 정보화 마을(체험, 관광), 한옥스테이, 굿스테이 등 실생활에서 관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였다. 관광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 관광상품 할인(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계절별·주제별(8도 장터, 야간열차 등) 국내 관광상품 할인(코레일) 등의 상품 개발과 할인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관광분야 사용액은 7,725백만 원으로 2015년(5,261백만 원)대비 46.8% 상승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의 여행상품 이용이 용이하도록 민간업체 협력을 통해 시즌별 할인상품 개발 및 홍보를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하였다. 수도권 출발 상품 편중 현상을 없애고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할인상품을 다수 개발하였으며, 봄시즌(3~5월) 181개, 여름시즌(6~8월) 175개, 가을·겨울시즌(9~12월) 162개의 여행상품이 수록된 시즌별 홍보리플렛을 출발지역 주민센터에 배포 및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였다. 2017년 관광분야 사용액은 11,69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3% 상승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관광분야 사용액이 16,490백만 원, 2019년에는 22,823백만 원, 2020년에는 23,650백만 원, 2021년 32,975백만 원으로 관광분야 사용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0년, 2021년에는 관광분야의 숙박 대전 등 행사와 연계하여 이용자 대상 이벤트를 실시하고,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분야 사용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여행바우처 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3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여행경비를 적립해주고 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9년 8만 명, 2020년에는 대상자를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로 확대하여 9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사업 대상자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하여 약 8만 6천여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몰 내 여행용품, 캠핑·레저 용품, 외식 이용권, 공연·전시 이용권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나.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정부는 생애주기별로는 청소년, 청년, 고령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행기회가 적고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문화관광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으로서의 동기부여 및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소년의 진로 및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관광체험 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여행 경험률이 가장 높은 청년들에게는 국내여행 경험 및 국내 관광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체험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청년층 취향을 반영한 관광분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역량향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이지만, '여행정보 수집의 어려움', '함께 여행할 사람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관광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움에 따라 '관광정보 찾기',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여행계획 세우기', '사진촬영 기법' 등 관련 교육 및 직접적인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각지대의 고령층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지 접근성 강화와 관광지 내 이용·편의시설, 경사로, 보행로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전국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관광지 500개, 숙박시설 150개, 음식점 150개 등 총 800개를 조사한 결과, 경사로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음을 말하는 ‘보통 수준(89.2%)’이지만, 실제로 장애인 이용편의성을 위한 규정규격(Barrier Free 인증규격)에 따른 양호수준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설치 역시 ‘미흡 수준(87.4%)’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화장실, 이용시설, 경사로 조성, 장애인 주차면 확보 등 규정규격을 준수하고, 관광지 내 이동의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관광동선을 확보하도록 권고 및 노력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웹사이트 개선, 관광지 내 음성정보 안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안내사와 같은 인적서비스 지원 등 앞으로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관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이동 및 편의를 위해 관광지 주요 시설을 개·보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정보 및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 내 무장애 여행 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총 7,063건의 다양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추천코스를 발굴하여 2021년 현재까지 장애인 코스, 고령자 코스, 영·유아 동반가족 코스로 나누어 총 183개의 맞춤형 추천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행복나눔여행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관광취약계층을 돕는 여행동행자 교육과 무장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전문인력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7〉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

연 도	관 광 지	개 소 수
2015년	한국민속촌, 순천만습지, 곡성기차마을, 통영케이블카, 대구중구근대골목, 경주보문관광단지	6
2016년	정동진모래시계공원, 보령대천해수욕장, 고창선운산도립공원, 고성당항포관광지, 여수오동도	5
2017년	울산 십리대숲, 정선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고령 대가야역사테마파크, 양평 세미원, 제주 천지연폭포	6
2018년	아산 외암마을, 시흥 갯골생태공원, 망상해수욕장, 무주 반디랜드, 함양 삼림공원,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온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 공남지, 여주시 해양공원, 영광 백수해안도로,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대장경기기록문화테마파크	12
2019년	춘천 남이섬, 물길로, 소양강 스카이워크,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전주향교, 경기전, 남원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관, 장수 방화동 가족휴가촌·자연휴양림, 장수누리파크, 외룡 자연휴양림, 뜬봉샘 생태관광지, 김해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안옥체험관	20
2020년	수원화성연무대, 수원화성장안문, 화성행궁, 강릉커피거리, 경포 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 횡성호수길, 유현문화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온달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외딴날, 완도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타워, 정도리구계동, 거제시 수협호시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평화파크, 칠천량해전공원, 서귀포치유이숲, 사려니숲길·삼나무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23
2021년	(고양시) 행주산성,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 행주산성역사공원, (강릉시) 하균·허난설현 기념공원, 통일공원, 솔향수목원, (충주시) 충주세계무술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탐사적공원, (군산시) 시간여행마을, 경암동철길마을, (익산시) 교도소세트장, 고스락,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 향가오토캠핑장, (순천시) 춘천만국가공원,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대구광역시) 비슬산군립공원, 사문진주막촌	20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특히, 2022년부터는 관광지 간 이동 및 식당·숙박시설 등 관광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등 관광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관광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4. 남북관광 교류협력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긴장상태에 있던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은 한때 관광객 감소로 침체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고, 2002년 정부의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관광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은 2002년 하반기에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 및 개발 사업을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강산 해로관광에 이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육로시범관광이 2003년 2월에 이루어지고 그 해 9월 1일부터 육로관광이 개시되었다. 이후 남북을 잇는 도로 연결공사와 사스(SARS) 확산 우려 등으로 금강산관광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4년 7월에 1박 2일 및 당일관광 일정이 추가된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해 연간 금강산 방문객이 2005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5년도 6월에는 금강산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강산 관광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월에 북한과 백두산 시범관광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백두산관광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위기에 처하였으나, 2007년 들어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사되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금강산관광 지구에 판매시설을 개설하였다. 2007년 5월 17일에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구간 열차시범운행이 이루어지고, 6월부터 내금강 관광길이 개통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간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관광 추진이 합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에는 민·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 25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백두산 삼지연 공항의 활주로와 공항시설 등 직항로 개설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였다. 또한 관광도로를 포함한 숙박시설, 편의시

설 및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였으며 북한 항공 및 도로 전문가와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등 백두산관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한편 2005년 3차례의 시범관광을 거쳐 2007년 12월 5일부터는 고려의 옛 도읍인 개성시내와 박연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당일 코스 개성관광이 본격 시작되어 남북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표 3-8〉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현황

(단위: 천 명)

연 도	'98~'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21년	계
관광객 수	429.5	84.7	74.3	268.4	298.2	234.4	345.0	200.0	-	1,934.5

자료: 통일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3-9〉 연도별 개성 관광객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21년	계
관광객 수	1,484	-	7,427	103,122	-	112,033

자료: 통일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관광기간은 2007년의 경우 동년 12월, 2008년의 경우 1월~11월임 (2005년은 시범관광)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고 진상규명,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남북관광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으며, 아울러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초 개성관광마저 중단되어 현재까지 남북관광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에 북한은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발표에 이어, 6월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공포하고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의 재산권 관련 협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6월과 7월 2차례 민관협의단을 구성하여 금강산에서 남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8월에 북한은 금강산 내 남한 재산의 몰수 및 동결을 선언하고 체류 중인 모든 인원을 추방하였다. 2014년 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개최되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남북관광 교류는 2017년 중순까지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2017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등 화해무드로 전환되면서 2018년에만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으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이 중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고 함으로써 남북

관광교류 재개를 거론하였다. 아울러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여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특구개발을 확대하는 문제도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광을 비롯한 협력증대와 남북 간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인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하고 2018년 12월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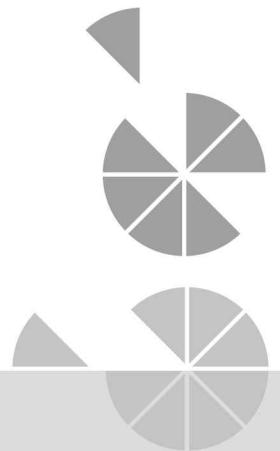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특히 2018년에는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합의를 발표하며 관계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2019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 등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 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을 가지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6월)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접경지역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거, DMZ 평화의 길 조성,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연계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접경지역 돼지열병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제 4 장

국제관광의 진흥

1. 방한 관광 진흥활동 _67
2.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_89
3. 국제협력 증진 _101



1. 방한 관광 진흥활동

코로나 1년차(2020년) 방한 관광 관련 사업방향이 갑작스런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단발적인 위기대응이었다면, 팬데믹 2년차에 접어든 2021년은 관광 디지털화 가속, 트래블버블 체결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방한 관광 재개 시점별(현재-일부 재개-전면 재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방한 수요가 위축된 현재 시점의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하여 잠재고객 범위를 확장하였고, 방한 관광 일부 재개 시점을 대비한 유통채널 사전 정상화를 위해 관광 주요인사 대상 초청 팸투어와 일반 소비자 대상 얼리버드 상품을 판촉하였으며, 국제관광이 전면 재개된 미래 시점에서 타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자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도입하였다.

가. 해외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행

1) 개요

2021년은 코로나19로 관광목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위하여, 지역에 색을 입히는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민요가 가미된 힙합음원 제작과 전통화 현대의 조합,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활용 영상 촬영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2개 도시(서산, 경주/안동, 서울, 순천, 강릉/양양, 부산/통영, 대구, 전주, 목포)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머드맥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한 한류스타 '브레이브걸스'를 활용하여 테마별 광고 5편을 제작하였다.

디지털 마케팅 선도를 위하여 한국관광 홍보캐릭터(킹덤프렌즈) 인스타그램 신규 운영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과 디지털 소통을 전개하였으며 글로벌 소비자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활용 K-VIBE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글로벌 MZ세대 대상 한국관광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2021년 해외광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효과조사' 결과 한국관광 인지도는 61.7%(전년대비 +1.3%p), 한국관광 선호도는 65.1%(전년대비 +1.4%p)를 기록하였다.

2) 연도별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향(2011~2021년)

- 2011년 :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는 ‘Touch Korea’
- 2012년 : 스타와 함께 체험하는 ‘Touch Korea Tour’ 캠페인
- 2013년 : 한국 문화를 아이콘화하여 마케팅 한 ‘PSY’s Wiki Korea’ 캠페인
- 2014년 : 관광 브랜드 리뉴얼(Imagine your Korea) 및 한국여행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To:ur Imagination’ 캠페인
- 2015년 : 지방 특정 거리 ‘상상길’에 해외소비자들의 이름 블록을 설치한 ‘Write your name in Korea’ 캠페인
- 2016년 : 온라인상의 한국관광 콘텐츠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Korea visits You!’ 캠페인
- 2017년 : 글로벌 캠페인 온라인 페이지 구축 및 소비자 참여형으로 진행 (3D 피규어 촬영) 평창 올림픽 응원단 모집, ‘I am waiting for me in Korea’ 캠페인으로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전달
- 2018년 :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글로벌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 ‘#LoveforDMZ’ 실시로 DMZ를 방문코자 하는 세계인의 소망 메시지를 수신하여 한국관광에 대한 호기심 자극 및 방한 유도
- 2019년 : 전국의 한국인과 친구가 되어 현지매력을 탐험하는 ‘Live Like a Local’ 캠페인 추진
- 2020년 : 코로나 상황 고려하여 한국의 흥에 집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전개
- 2021년 : 지역에 색을 입히는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전개

나. 지역별 관광시장 개척 활동

1) 중화권 시장

2021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대비 75.2%, 대만 및 홍콩 관광객은 각각 97.5%, 98.6%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한상품 판매 및 항공편 대규모 감편 등의 영향이 계속되었으며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져 온라인을 통한 바이럴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였다.

재한 중국인 SNS 기자단 ‘한유기’ 30명 및 재한 대만·홍콩 기자단 ‘코리아버디스’ 20명을 선발하여 중화권 잠재 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이벤트, 일상 취재 등 비대면·개별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중화권 기자단은 총 4,137건의 포스팅을 게재하여 도달수 약 232백만회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방한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류올림픽아드 연계 한국관광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중국 전역 소비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한국관광퀴즈 경연대회 및 한국여행일정 DIY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광퀴즈 참가자 수 225,649명, 여행일정 DIY 대회 참가인원 6,120명을 기록하였다.

디지털에 익숙한 방한 관광 잠재 수요층 MZ세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해당 영상을 기자단 SNS 및 중국지역 지사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관광도시를 집중홍보하였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해 중국 유력 온라인여행사(이하 OTA) 페이주 연계 방한상품 판매를 추진하여 호텔상품 3,137건 판매 및 노출량 2,428만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선제적 활용을 통한 홍보 방식은 메타버스 마케팅 트렌드에 적합한 마케팅 사례로 주목받았다.

단체 상품에 있어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한 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안심여행 홍보 및 광역지자체-중국 도시간 1:1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2개 지자체와 중국 3개 자매도시를 매칭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여행목적지’로서의 방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광역지자체 단위로 중국 도시 대상 방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였다.

당장의 국제관광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한 관광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본·지사는 현지 4대 OTA(씨트립, 페이주, 마펑위, 한요왕) 등과 연계하여 현지 프로모션을 추진하였다. 베이징 지사에서는 시·공간 초월을 테마로 얼리버드 상품과 주한중국인 대상 관광거점도시 1일상품, 중국 현지 한국체험 상품 등 30개 상품을 개발하여 3,212명을 모객하는 성과를 올렸다. 상하이 지사는 중국 최대 OTA 씨트립 내 한국관광 허브계정을 개설하여 호텔, 항공권 할인쿠폰 배포 등 사전판촉을 추진하였으며, 홍보노출 1,200만부, 할인쿠폰 1,870장 배포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선양, 우한 지사 등에서 동계관광, ESG 및 한식미식체험 등의 테마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추진하였으며, 홍콩지사에서는 항공시물레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제주 상공 가상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권 얼리버드 모객 115명을 달성하였다.

2) 일본 시장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020년 3월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시작으로 양국 간 입국이 제한되고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대외적인 악재가 지속되어 그 수가 급감한 이후 2021년 월 평균 1천명대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15,265명이 방한, 전년 동기 대비 96.5% 감소하였다. 통상적 마케팅이 불가능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방한 관광 잠재고객층인 MZ세대 집중 공략 및 안심안전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계별 관광 재개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형’ 홍보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일본인 방한 여행 시장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양국간 관광객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홍보마케팅 사업은 주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방한 관광 리커버리캠페인 코리아 페어(5.28.~29.)를 개최, 400여명의 일본인 참가 및 OTT 플랫폼 라이브 동시접속 2만 명 이상, 아카이브 시청자수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제4차 한류붐의 주역인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주요 OTA(익스피디아, 에어토리, 라쿠텐트래블 등) 및 여행사(HIS, JTB 등)와의 얼리버드 방한 관광 상품 선판매를 추진하였다. 한국 관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지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한국관광트렌드 체험관을 운영하고 시즌별 한국관광 홍보 축제를 개최하여 방한 관광의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9월에는 오사카 및 나고야에서 ‘코리아위크’ 기간을 통하여 ‘위드코로나’시대 방한 관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마케팅과 프로모션 연계 매체별 특집광고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관광 활성화 대비 및 한국관광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류소비층 변화를 이끄는 MZ세대 타겟의 K-팝스타 활용 지방관광 신규 영상 콘텐츠를 5대 관광거점도시(목포, 안동, 부산, 전주, 강릉)를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홍보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 시 거점도시 지역 특산품을 경품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본 유명 TV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관광 고부가 랜선 여행상품 소개 토크쇼는 생방송 시청응모 2,500여건, 아카이브 시청 약 3,100회, 국내·외 기사화 17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일간 관광교류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착안하여 일본여행업협회와 얼리버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안심안전 소규모 패키지상품을 공동으로 개발 및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한 랜선여행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우수 상품 5건을 대상으로 상품화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하고 416명 모객하였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케이션 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위케이션 시범상품 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2021 위케이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3) 아시아·중동 시장

2021년에 한국을 찾은 아시아·중동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약 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3%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관광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변화된 여행 트렌드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화전략을 수립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별 FIT 시장에 영향력 있는 항공사 및 온라인 여행사(OTA) 파트너 선정, 얼리버드 상품 판매 등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5천여건 이상의 얼리버드·랜선상품을 판매하였다. 방한관심층 유지를 위해 해외지사 현지 방한 상품취급 주력여행사와 공동으로 주재국 내 한국 관련 업체(한식당, K-뷰티아카데미, K-Pop학원 등)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 K-뷰티체험, 커버댄스, 한국문화 체험 등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윈데이 투어상품을 출시하여 1,615건을 판매하였다. 국내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신규 수익창출 모델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인바운드 업계 대상 '우수 방한 랜선 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동남아 우수 방한 랜선여행 상품 60개를 선정, 글로벌 OTA 등재, 온라인 상품판촉 및 모객지원,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활동을 실시하였다.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실시(11월)에 따라 싱가포르 방한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여행안전권역(VTL) 정보제공 및 방한 관광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VTL 인지도를 높이고 싱가포르 여행업자/언론인/인플루언서 대상 방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현지 기사화, 방한상품 개발을 촉진하였다. VTL 시작이후 약 한 달간 10개 단체 131명 방한을 지원하여 방한 관광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동남아·중동의 MZ세대를 타깃으로 혼행(혼자하는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인스타그램머블, K-pop, K-뷰티, K-드라마, 한식을 테마로 50가지 한국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동남아·중동 통합가이드북 '50 Best Ways to Travel Korea'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동남아와 중동지역 높아진 한류 인기를 활용, 한류 콘텐츠 주요 소비자 대상 한국관광 트렌드를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e-뉴스레터'를 제작하였다. 'e-뉴스레터'에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계절별 관광지 및 매력도 높은 숙소, 유행하는 음식,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등의 콘텐츠를 담았으며 해외지사를 통해 한류 관심층에게 배포되었다.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뉴미디어 공략을 위하여 메타버스(제페토) 내 한국관광 체험존을 구축하고 한류스타 활용 'Into the Korea-verse Tour' 이벤트를 개최하여 5.6만 명 방문, SNS 콘텐츠 도달 3천만 건, 관련 영상 조회 수 2천2백만 회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동남아중동 지역 외국인 대상 SNS 기자단을 선발, 팸투어, 개별미션 등을

통해 관광거점도시를 비롯한 주요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였다. SNS 기자단 활동으로 1,032건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120만 회의 도달을 기록하였으며 동남아중동 SNS 채널 이용객이 전년대비 74% 상승하였다.

국내 무슬림 친화 관광환경 조성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무슬림 친화 지역식당 발굴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심사 진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26개 증가한 총 373개 무슬림 친화식당을 확보하였다. 할랄 레스토랑 위크는 온라인 쿠폰 도입 등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하여 할인쿠폰 사용건수가 1,120건으로 전년대비 77.2%가 증가하였고 지역식당 이용건수는 147건으로 전년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할랄 레스토랑 위크 홈페이지를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홈페이지로 통합, '무슬림 친화 관광홍보' 채널을 일원화하였으며 식당, 기도실 외에도 추천관광 콘텐츠, 관광코스, 무슬림에게 유용한 앱, 문화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팬데믹 이후 재개될 국제관광에 대비하고 각국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하여 소비자 대상 설문, 국내·외 업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동남아 6개국 관광객 유치 전략과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을 보유한 아시아·중동지역 시장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관광 전문가 풀(Pool)을 유지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현지 여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한상품 개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4) 구미·대양주 시장

2021년 구미·대양주 관광객은 전체 방한객 97만 명 중 40.8%인 39만 명이 방문하였다. 장기화된 감염병 확산 기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방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외래객 유치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언택트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국내 거주 해외 전문 인플루언서 총 17개국 18명을 선발하여 생생한 한국관광정보를 전달하는 SNS 기자단 '어드벤처 코리아'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이동 제한 명령이 있었던 구미주 시장 맞춤형 '한국 간접여행 K-Box 마케팅'을 실시하여 음식, 뷰티, 영화 등 인기 한국 콘텐츠 관련 아이টে으로 구성된 K-Box를 총 9천명 이상에 배포, 관련 콘텐츠 43백만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또한 미국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와 메가 히트 한류콘텐츠 '오징어게임'을 활용한 한국관광 메타버스 맵을 구축하여 MZ세대 타깃 방한 관광 콘텐츠를 중점 홍보하였다. 한국 관심도가 낮은 유럽 남성 대상 방한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럽 최고

스포츠리그 정상급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한국관광 홍보 영상 3편을 제작하여 76백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2020~2022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 특별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상 속 한국 발견’을 테마로 한 ‘2021 스페인 한국관광주간(K-Week)’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 총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 오프라인 행사 참가자 총 34,225명을 달성하였고 스페인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홍보 효과를 제고하여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 기사화 총 90건, 조회수 122만 회 이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바이럴 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장 내 방한 관광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협업하여 ‘Taste of Korea’ 캠페인을 진행하여 음식관광을 집중 홍보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하여 글로벌 OTA 및 항공사, 여행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대상 방한 관광 회복 얼리버드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사전 예약자 1.6만 명 이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5개 테마의 양방향 한류 버라이어티쇼를 진행하여 콘텐츠 조회 370만 명, 시청자 95만 명, 기사화 125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참가자 설문 결과 만족도 97.2% 및 한국방문 의향 긍정변화 95.4%로 주류 소비자의 방한 관광 인지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코로나 시기 치유·웰니스 테마 여행캠페인 ‘Pause in Korea’를 진행하여 웹사이트 방문자 25만 명, 소비자 도달량 8만 건 이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고부가 유망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니어 관광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하여 미국 은퇴자협회(AARP) 및 미국장년층협회(AMAC)과 협업하여 웰니스, 역사·문화 등 시니어 주요 관심테마 위주 방한 관광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미국 시니어 대상 방한 관광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완화 이후 소비자 니즈 변화를 파악하고 고효율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도모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니어 관광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UNWTO와 협력하여 개최하였다. UNWTO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등 구미대양주 전문가의 시니어 관광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시니어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국내·외에 전파하였다.

외래객 유치가 어려운 시기에 국내 여행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비대면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12개사를 선발, 39개 상품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미대양주 방한 관광 전략 연구’를 통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러시아 등 구미주 주요 7개국 방한시장을 분석하고 3개년(2022~2024) 외래객 유치전략을 도출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세부시장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마케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다. 관광유치단 파견 및 관광 교역전 개최

중화권 시장에서는 러산 ‘쓰촨국제여유교역박람회(9월)’, 베이징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9월)’, 타이베이 ‘국제여전(ITF, 11월)’ 등 7여개 박람회에 참여하여 방한 관광 홍보와 방한상품 판매를 위한 현지 소비자 및 관련업계 대상 홍보를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일정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업계 현지 사무소 인원 등을 활용하여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신규 방한 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실질적 방한을 유도하였다. 현지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오프라인 참관객 감소상황을 대비하여 인플루언서 초청 현장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매년 참여하였던 ‘투어리즘엑스포’ 개최가 중지되는 등 현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여행업협회(JATA)에서 개최한 ‘제2회 JATA 온라인트래블마트(11월)’에 참가하였다. 한국의 코로나19 최신현황, 한국관광공사 주요사업 및 안심안전관광 소재를 소개하였으며, 국내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시장의 활로 개척지원을 위해 국내 지자체 등 총 5개 기관의 트래블마트 참가를 지원하여 일본 여행업계 639명이 참가한 가운데 B2B 상담 57건을 성사시켰다.

아시아·중동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박람회·소비자행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말레이시아 ‘코리아 페스트(Korea Fest 2021)’, 아랍에미레이트 ‘K-pop in Emirates’ 및 태국 ‘한국 콘텐츠 크리에이터 어워드(2021 Korea Contents Creator Award)’ 등을 개최하여 3백만명 이상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한국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구미·대양주 시장에서는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여 B2B·B2C 대상 방한 관광 홍보 및 상품관측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FITUR)’ 및 독일 ‘국제관광박람회(ITB)’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영국 런던 ‘국제관광박람회(WTM)’에 여행업계, 지자체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한국관광 홍보 및 방한상품 관측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 및

지자체와 현지 여행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 430건을 진행하여 여행업계의 해외판로 개척에 기여하였다.

〈표 4-1〉 관광유치단 파견 및 관광교역전 참가 실적

지역	기간	순회 도시	활동 내용
중 국	7.2.~7.4.	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련수출입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지자체(경기도, 청주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공동 한국관 운영
	9.2.~9.5.	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촨 국제여유교역박람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빈국 참가 - 5개 지자체 현지사무소(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공동 참여 한국관 운영 - 박람회 개최 현장 라이브 방송진행
	9.3.~9.7.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대사관 총괄, 코트라, aT, 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공동 참여하여 한국관 운영
	9.10.~9.12.	광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동 국제여유산업박람회(CITIE)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지자체(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공동 한국관 운영 - 참가국/지역40개, 업체 3000개, 관람객 20,000 명 참가 B2B교류 진행
	9.24.~9.29.	둔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둔황 실크로드 국제문화박람회 및 제10회 둔황 실크로드 국제관광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지자체 현지사무소(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공동 한국관 운영
	12.9.~12.12.	하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하이난 국제여유미식박람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공동 한국관 운영 - 참가국/지역17개, 업체수 1,600개 참여, 관람객 183,000명 동원
대 만 홍 콩	11.5.~11.8.	타이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베이국제여행전(ITF)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부산, 제주, 경기 등) 공동 참가 한국관 운영 및 36개 부스 운영
일 본	11.1.~11.26.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JATA 온라인 트래블마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세미나(11.16) 및 B2B 상담(11.25~26) * 참가지역 : 아시아, 호주, 미크로네시아 * 참가규모 : 주요 여행사, OTA 등 일본 여행업계 참가자 639명 - B2B 상담 매칭 건수 총 57건(한국측 참가기관 강원도, 제주관광공사, 대구광역시, 부산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 국내 백신접종현황, 관광교류 회복을 위한 정책, 안심안전 한국관광 소재 활용 상품개발지원 및 단체지원 정책, 신규관광소재 소개 등
아시아 중 동	10월~11월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태국 한국콘텐츠 크리에이터 어워드 「2021 KCCA(Korea Contents Creator Award)」
	10월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코리아 페스트 2021(Korea Fest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미디어와 SNS 등으로 홍보
	11월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in Emir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공연 이벤트 연계 한국관광 및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홍보

지역	기간	순회 도시	활동 내용
구미 대양주	3.9.~3.12.	독일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국제관광박람회(ITB Berlin)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28개 기관 참가 한국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 상담 - B2B 상담 총 163건
	5.5.~6.4.	스페인 (마드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LIVE CONNECT)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21개 기관 공동 참가, 한국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 상담 - B2B 상담 총 53건
	11.1.~11.3.	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관광박람회(WTM)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7개 기관 참가 한국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 상담 - B2B 상담 총 214건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라. 언론인·여행업자 방한 초청 및 지원

일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즈니스트랙 중단, 항공노선 휴항 등으로 직접적인 초청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상황에 적합한 뉴노멀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지자체·항공업계 공동 일본 여행업계 대상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설명회 2회 개최를 통해 일본여행사 담당자 총 353명이 참가하여 안심안전 한국관광 관리형 패키지 상품 개발 및 모객을 위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업계 대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일본여행업협회 등 업계 네트워크 활용 공동 랜선투어 상품 개발지원을 통하여 국내 지방 중소기업과 연계한 상생상품 4건을 개발하고 705명 모객하는 등 한국의 지방관광 소개 및 상품화 정보 발신에 주력하였다. 일본 현지 방송국(TV도쿄, 치바TV, 테레비아이치, 추쿄테레비, 간사이 아사히방송 등)과 협업하여 특집방송을 제작하고 디지털매체(아사히신문 계열 및 여행전문 디지털매거진 등)를 활용한 타겟별 관광콘텐츠 홍보 특집기사화 등 언론 홍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안심안전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가상 한국관광 라이브 팸투어에는 일본 주요 여행사, OTA, 랜드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18명이 참가하여 K-방역현황이나 방한 관광 주요 테마 및 관광벤처 상품 소개 등 관광지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전달하였다.

구미·대양주 시장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K-Pop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독일 Arte TV 취재진을 초청하여 K-Pop 산업 및 트렌드 취재를 지원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방한 관광 붐업을 대비하여 미국, 스페인 등 구미주 여행업자 40여명을 초청하여 트래블마트 및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하여 선제적인 방한 관광 홍보·상품개발을 유도하였다. 전미여행업협회(USTOA)는 최초로 회장단이 방한하였고,

Road Scholar 부회장 등 대형 여행단체·여행사 고위급이 방한하여 한국관광 콘텐츠 체험 및 방한 상품 개발·홍보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남아 증동시장은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합의에 따른 한국관광 재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싱가포르 여행업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30여 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팸투어 결과 21개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267명을 모객하였으며 15건의 기사화, VTL 집중 홍보를 통해 VTL 기간 주당 방문자수가 VTL 이전에 비해 44배 증가하였다(주 평균 126명→5,533명).

〈표 4-2〉 연도별 초청·지원 언론인 및 여행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대상	일본	중국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계
'07~'10년	언론인	1,398	504	463	400	2,765
	여행업자	357	1,563	1,518	825	4,263
2011년	언론인	300	178	95	93	666
	여행업자	113	581	380	129	1,203
2012년	언론인	198	247	71	119	635
	여행업자	167	741	207	178	1,293
2013년	언론인	320	229	159	63	771
	여행업자	161	1,521	202	291	2,175
2014년	언론인	271	306	157	96	830
	여행업자	1,221	285	137	167	1,810
2015년	언론인	290	350	259	107	1,006
	여행업자	694	663	292	223	1,872
2016년	언론인	221	244	196	107	768
	여행업자	327	235	346	371	1,279
2017년	언론인	168	160	346	173	847
	여행업자	280	343	44	198	865
2018년	언론인	266	128	248	79	721
	여행업자	107	208	132	184	631
2019년	언론인	191	130	234	57	612
	여행업자	211	401	176	181	969
2020년	언론인	-	-	-	-	0
	여행업자	-	-	-	-	0
2021년	언론인	-	-	18	6	24
	여행업자	-	-	10	40	50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마.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코로나19로 인해 중화권 지역의 아웃바운드 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중화권 청소년 방한 수학여행단을 직접 국내로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중화권 청소년 방한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중화권학교-한국학교 청소년 간의 온라인 학생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테마별 총 6개 가상교육여행코스(전통문화/IT·과학/미디어/생태·환경/음식/대중문화)를 개발하고 라이브 랜선투어를 진행하여 중화권 청소년들의 방한 관광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화권 청소년 방한이 중단되기 이전인 2019년 중국인 방한 수학여행 교류 규모는 20,609명으로 전년도 6,845명 대비 201.1% 증가하였으며, 방한 관광객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실적과 비교해도 25.3% 증가하였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국단체여행 금지조치(2017.3.)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방한 수학여행 시장은 2019년 산둥, 화동지역의 시장 회복 및 홍콩, 대만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큰 성장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방한 관광이 재개된 이후에도 중화권 지역의 방한 수학여행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인 방한 수학여행 교류 규모는 1996년 44,395명을 정점을 찍은 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한·일 외교 갈등 및 엔저현상, 2014년 세월호 사태 등 안전사고 여파 등의 요인으로 8,329명(한국관광공사 자체조사 기준)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수학여행을 통한 방문 규모는 2,667명(한국관광공사 자체조사 기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2016년까지 방한 수학여행의 상징적인 존재인 일본 치벤학원의 42년 연속 방한, 큐슈고등학교의 41년 연속 방한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이들 학교도 2017년 북핵 위기 발생으로 방한이 중단되었다.

2019년에는 평화, 한류관광 등 한국만의 특별한 소재를 발굴하고 일본 전국의 학교장 및 수학여행 관계자 26명을 초청하여 3박 4일간의 팸투어를 개최하였다. 이때 한국 교직원과의 교류회 및 교류교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국과 차별화된 한국만의 교육여행 코스를 선보였으며, 팸투어에 참가한 3개교가 팸투어 체험 코스를 활용해 수학여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수학여행 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K-팝 댄스 및 한복 체험 등 콘텐츠를 강화하여 총 44개교 2,245명(전년대비 +65.9%)의 방한 수학여행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2월에만 총 3개교 75명(전년대비 -96.6%)의 방한 수학여행 단체를 지원하였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적 여건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Z세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 온라인 수학여행 사업을 추진하여 잠재 방한 관광객 수요 제고에 기여하였다. 가상 온라인 수학여행은 서울 및 부산을 배경으로 실시하여 이틀간 총 2,318명이 참가하였으며 한·일간 온라인 학생교류

3건(207명 참가) 등 방한 수학여행 시장 침체에 대응하였다. 온라인 수학여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력으로 형성된 방한 수요와 연계한 어학연수 및 단기 유학 등 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질 방한객 116명을 유치하였다.

본격적인 관광재개 이후에는 일본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유치 프로그램 정상화를 위하여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한국학생과의 교류회 실시여건 개선, 체험학습 콘텐츠 발굴 및 다양화와 함께 일본 현지학교와 교육여행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판촉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 해외 홍보간행물 및 영상·홍보 시각물 제작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해외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 대상 방한동기 부여와 내실 있는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관광 홍보간행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기본 간행물인 한국관광 가이드북, 한국관광 화보집, 한국관광 포스터뿐만 아니라 테마 간행물(아름다운 한국의 건축물 순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사진부문) 수상작을 활용하여 한국의 사계절 관광지 사진집을 제작하였으며, 기존 간행물(2종)에 영상 및 고화질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북을 새롭게 선보여 인쇄간행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한국관광 홍보간행물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배포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국 관광안내소, 여행사·호텔 등 여행업계, 국제회의·대형 이벤트 등에 지원하고 있다.

〈표 4-3〉 해외홍보 간행물 발간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2021년 실적
기본 간행물	한국관광 가이드북	한국관광 트렌드, 주요 관광지, 여행 실용 정보 (한국 기본 정보, 전국지도, 지하철노선도 등) 제공 ※ 디지털북(영어) 제공	52,000부
	한국관광 화보집	한국에 와서 해야 할 일 이미지 위주 소개	80,000부
	한국관광 포스터(12종)	한국관광 대표 이미지 제공	82,000부
SIT대상 테마 간행물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물 순례	전국의 현대 건축물, 전통 건축물 등 총 56개소의 사진 이미지 및 정보 소개	14,600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세계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의 특징 및 정보, 코스 정보 등 ※ 디지털북(영어, 일본어) 제공	26,350부
	한국의 사계절 사진집	한국의 사계절 관광 사진 이미지 제공	12,000부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사. 테마시장 개척

1)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및 기대수명 연장,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량이 증가하여 세계의료관광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여 합법적인 의료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2009.9월)함으로써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및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의료관광 기반 구축과 해외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료관광 시장은 2009년 5월 의료관광객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연평균 23.5% 성장해왔으며, 2019년에는 497,464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방한 의료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이 16만 3천 명(32.7%)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인 6만 8천 명(13.8%)과 미국인 5만 8천 명(11.7%), 러시아인 3만 명(6%)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관광 해외 홍보마케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와 연계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타깃시장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의료관광 전문전시 박람회 및 콘퍼런스 등에 참가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였다.

특히 2013년 중국 광저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한국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5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6년 UAE 아부다비, 2017년 UAE 두바이,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9년 몽골 울란바토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20년 미국 뉴욕에 이르기까지 각국에서 방한 의료관광객 유치 및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신북방·신남방 의료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2019년도부터 해외 의료관광 전담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울란바토르, 알마티, 모스크바, 자카르타 지사에서 국가별 효과적인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연속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박람회(KMWTF)를 개최하여 포럼, B2B 상담회, 온라인 홍보전시관 등을 통한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 비대면 홍보 및 선제적 판촉을 이끌었다. 2021년 의료관광 마케팅

팅 최초로 한국 의료관광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 생태계의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마케팅 홍보 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의료관광 홍보책자 제작, 의료관광웹사이트(VK 내재화) 리뉴얼, 의료·웰니스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방한 의료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매출이 급감한 유치업체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21년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언론매체 등을 초청하는 오프라인 팸투어를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설명회, 웨비나 등을 개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웰니스 관광 서비스와 매력들을 소개하였다.

건강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며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웰니스 관광 동향과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웰니스 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016년 8월 정부, 지자체, 관련업계, 언론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한국만의 독특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최초로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하였다. 이후, 지역 중심 웰니스 시설 연계 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한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충하여 25개소('18)에서 50개소('21)로 확대하였는데, 그 중 39개소가 비수도권 소재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한다.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의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외국어 홍보물 제작, 외국어 안내 표지판 제작·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웰니스 관광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 진작 및 대국민 힐링 등 업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 대상으로 방역물품 및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방역관리를 지원하였다. 웰니스 관광 페스타 할인 캠페인(11월, 5,335명 참여) 및 의료진 치유 프로그램(추천 웰니스 관광지 9개소 대상, 594명 참여)을 실시하여 대국민 힐링 관광 제공 및 웰니스 관광업계 내수 진작 사업을 실시하였다.

하나투어·글로벌OTA와 협업을 통해 추천 웰니스 관광지 집중 프로모션(4,127건 판매)을 추진하여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내수시장 상품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2)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한 크루즈 시장은 2016년 785항차 크루즈 입항, 2,258,334명 입국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취소되어 크루즈 관광객이 2년 연속 감소하였다(2017년 505,283명, 2018년 217,944명). 2019년에는 크루즈 방한시장 다변화 추진 노력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한 276,130명이 입국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가 한시적 크루즈선의 국내입항 금지 조치(2020.2.10.)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크루즈선 국내 입항 금지 조치는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항만 중에서 크루즈 입항 실적이 있는 9개 항만 중에 크루즈선 전용부두가 갖춰진 항만은 부산, 제주, 여수, 인천, 속초 5개 항이며 그 외 4개 항만인 동해, 마산, 울산, 포항은 여객부두 또는 일반 화물부두에서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다.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도 2016년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였으나 아직 크루즈 입항 실적은 없다.

크루즈 관광산업은 각 항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 기항지에서의 쇼핑, 관광지 방문 등의 관광소비와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등의 항비 수입, 그리고 선박 운영 관련 서비스, 연료, 물품, 식자재 구매 등을 통한 국내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크루즈 관광객 1인당 국내 쇼핑지출액은 2012년 512달러에서 2014년에는 1,035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인 단체 크루즈객 감소로 2017년 110.5달러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8년 170.4달러, 2019년 159.7달러 등 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크루즈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개최, 해외지사 연계 해외 크루즈관광 설명회, 고객 점점 디지털마케팅, 크루즈 개별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RTO 및 업계와 연계하여 체험형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홍보하고 있다.

3) 공연관광 활성화

넌버벌(non-verbal) 공연 및 뮤지컬 등 한국 공연콘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무형의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공연관광 마케팅 전략을 개발·육성하고 있다.

뮤지컬 및 넌버벌 공연, 전통공연, 비보이 문화 등 타 장르를 한데 묶어 공연관광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사이트를 통하여 넌버벌 공연, 뮤지컬 등 한국 주요 공연관광 콘텐츠를 4개 언어(영어·일본어·중국어 번체·중국어 간체)로 홍보하고 예약·결제 사이트와 연동하여 개별관광객들이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공연관광 글로벌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관람이 어려운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해외지사 연계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인기 아이돌의 대학로 체험 영상을 제작하여 180여개국에 방영하였다.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대구 및 전남 2개 지역의 상설공연 발굴을 지원하고, 안동 및 정선 등 7개 지역의 관광거점 연계 공연 쇼케이스 122회를 통해 공연관광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학로를 글로벌 공연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로 공연관광 페스티벌 ‘웰컴 대학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학로 공연, 맛집, 관광지 등 대학로를 테마로 한 온·오프라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년별 공연 중심의 기존 콘텐츠에서 뮤지컬 공연 자막 지원 등 외국인 관람이 가능한 양질의 공연관광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공연관광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한류관광 활성화

한류문화(K-팝, K-드라마 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방한 관광시장 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잠재방한 수요 창출을 위하여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마케팅을 적극 추진했다.

글로벌 한류팬 대상 한류관광 테마 경연대회인 ‘한류 올림피아드’를 개최, 예선전에는 전 세계 101개국 총 29만여 명이 참가하여 온라인 콘텐츠 노출 2.2억 회를 달성하였으며, 예선대회 우승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SBS MTV와 연계한 한류올림피아드 특집 ‘더쇼’, 한류 성지순례 ‘K-투어그램’, 다국적 실시간 비대면 퀴즈쇼 ‘K-퀴즈쇼’를 제작 및 방영하였다.

제27회 드림콘서트, Mnet MAMA, 연말 가요시상식 등 K-팝 유관행사 온라인 개최 지원을 통하여 해외 한류팬 대상 다양한 볼거리 및 포스트 코로나19 방한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KTTP(Korea Total Tour Package, 지역완결형 관광모델) 선정지역인 대구와 전남지역 K-pop 콘서트를 지원하고 지역 연계 ‘덕후퀴즈’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관광 홍보에 기여하였다.

인기 한류 드라마를 활용, 지역 촬영지 연계 온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내 주요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의 협업을 통해 ‘빈센조’, ‘갯마을 차차차’, ‘어사와 조이’ 등 한류콘텐츠 연계 영상관광 실감콘텐츠를 제작,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류 및 한국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한류 관심층의 방한 관광 수요 견인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다.

5) 고급관광 육성

고급관광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에 따라 고급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고부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희소성 있는 고급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사이트 내 고급관광 홍보페이지(Luxury Korea)를 신설, 200개 내외 고급관광 콘텐츠·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한 고급관광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나아가 업계 대상 고급관광 콘텐츠 활용 개별 팸투어 및 상품화를 지원하여 신규 상품 7개를 발굴하고, 수도권 중심이었던 기존 고급관광 상품의 저변을 지방으로 확대하였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업계의 상호 교류를 위해 제 5회 고급관광박람회(KLTM 2021)를 개최, 국내 172개, 해외 37개국 471개의 기업·기관 간 총 416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ILTM Cannes, Pure Luxury 등 해외 고급관광 박람회에 도 업계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국내·외 업계 간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방한 고급관광 콘텐츠를 홍보하였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ignature(미주), Traveller Made(구주) 네트워크 역시 회원사 대상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고급관광 상품 개발 및 모객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 한국방문위원회

1) 조직 개요

한국방문위원회는 2008년 3월 '제1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그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한국방문의해 위원회)으로 조직을 설립하였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 2008년 9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 뒤 2009년까지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방문위원회가 캠페인 과정에서 구축한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을 지속 활용할 필요성과 한국방문의 해 기간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연속 추진 필요성, 그리고 2018년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관광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내기 위한 범국가적 관광캠페인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개편함을 확정하고, 2013년 7월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를 '한국방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또한 3단계별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1단계 기

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관광서비스 개선 및 관광콘텐츠 고품격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2단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계인이 다시 찾는 코리아’를 비전으로 ‘2016-2018 한국방문의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3단계 기간인 2019년부터는 다양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관광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조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공익 목적 사업을 실행하는 관광산업 내 유일한 민·관 협력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특히 정부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예산 및 사업규모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민과 관으로 구성된 위원사 뿐만 아니라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부문이 닿기 어려운 영역까지 한국관광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해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한국방문의해 캠페인은 민간 참여주도 확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도약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와 ‘2010~2012’, ‘2016~2018’년도에 추진된 한국방문캠페인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도출하여 관광산업 도약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방향을 잡고 있다.

2) 2021년 추진사업

주요 추진 사항으로 민간의 장점을 살린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빠르게 확장하는 관광수수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민간과 공공, 지자체간의 연결고리 역할로 긴밀한 협력 도출 및 융복합 사업을 통한 지역관광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코리아그랜드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투어카드’,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스마트헬프데스크)’으로 아래와 같이 세부사업들을 추진하였다.

①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1~2월), 쇼핑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쇼핑 혜택 제공으로 외래객 방한 유도과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된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2011년 첫 회 개최 이후, K-드라마나 K-팝으로 인한 한류 열풍은 코리아그랜드세일에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기업과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 및 비대면 콘텐츠를 강화한 ‘스페셜 코리아그랜드세일’로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46일간, 1,25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이슈로 외국인 방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메인 콘텐츠인 쇼핑문화관광을 소재로 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기획·운영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및 프로모션 홍보를 통한 향후 방한 유도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한류스타 오마이걸과 B1A4의 온라인 축하공연 및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주제로 한 미니토크를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막을 알린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에릭남이 소개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제영상 해외 송출을 시작으로 ‘한국관광상품 선구매 프로모션’, ‘온라인 쇼핑특별전’, ‘온라인 K컬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을 추진하였다.

항공, 숙박, 체험 등 방한 관광상품 사전 구매 시 할인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한 ‘한국관광상품 선구매 프로모션’은 한국행 항공권 등 방한 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구매가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방한 유도 및 위축된 관광산업 회복 기회를 마련하였다.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중 해외에서 매력적인 한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배송이 가능한 e커머스 플랫폼 및 면세점과 연계 추진한 ‘온라인 쇼핑특별전’에서는 K-뷰티, K-푸드, K-팝 굿즈 등 K-브랜드 상품 할인뿐만 아니라 왕홍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뷰티·패션 상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구매자 대상으로 한국관광 바우처 및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계 추진하여 외국인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K-브랜드 소비 촉진뿐 아니라 향후 방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추진하였다.

‘온라인 K컬처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에릭남이 소개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제 영상 및 분야별 국내 유명인이 직접 진행하는 ‘랜선 K클래스’ 등 다양한 비대면 체험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K-팝, K-뷰티, K-패션, K-푸드, K-윈터 등 매력적인 K-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등 한국 쇼핑문화관광에 대한 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쇼핑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최우선 방문지가 될 수 있도록 방한 유도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확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작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한국방문위원회 보유 온라인·SNS 채널은 물론, tvN Asia(아시아 9개국 1,970만호) 및 아리랑 TV(103개국 1억4천2백만호) 등 해외 방송 채널과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사의 해외 채널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송출하여 코리아그랜드세일과 한국의 쇼핑문화관광 매력을 적극 알렸다. 특히 온라인 행사 추진으로 기존 아시아권 중심에서 구미주 지역까지 타깃시장을 확장하는 등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계기로 K-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 경쟁력 회복 도모를 위해 참여기업들의 콘텐츠와 상품, 자사 물 등을 소개하고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 위축된 관광 산업 회복 기회를 마련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주요 실적은 <표 4-4>와 같다.

〈표 4-4〉 코리아그랜드세일 실적

구분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2021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업	1,103개	1,252개
대상	외국인	외국인
홈페이지 방문자수	총 141.3만 명 (일평균 29,452명/행사기간 중)	총 189.4만 명 (일평균 38,671명/행사기간 중)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외국인 소비 증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쇼핑) 중심 행사로 내외국인 소비 촉진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세일페스타 민간추진위원회와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된 행사에서 한국방문위원회는 외국인 대상 제공 가능한 편의서비스 및 해외 홍보를 담당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외국어 페이지 내 코리아투어카드, 스마트헬프데스크 등 외국인 대상의 편의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연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소개 및 외국인 대상 주요 혜택 포스팅으로 해외 홍보를 추진하였다.

② 코리아투어카드

‘코리아투어카드’는 전국의 교통결제편의를 비롯한 관광, 문화, 체험, 쇼핑, 식음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교통카드이다. 2021년 기준 총 181개 업체 2,101개 매장(쇼핑몰, 면세점, 미술관, 박물관, 공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2021년 연간 항공사와 편의점, 공항철도, 은행 등 전국 221개 판매처에서 1만 1천여 장의 코리아투어카드를 판매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도 손쉽게 코리아투어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운영 및 온라인에서 구매한 카드를 입국 시 수령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코리아투어카드 카운터(수령처)를 연중 운영하였다(영어·중국어·일본어 지원/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일시중단).

이용자의 편의와 필요에 맞추어 크게 기본·남해안·모바일의 3가지 형태로 출시되었다. 남해안 코리아투어카드는 테마별·지역별 맞춤형 카드 개발을 위해 실시한 전문 기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 카드에 남해안 지역의 특별혜택(2021년 기준 39개)을 추가로 담았고,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 관광에 발맞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 및 이용이 가능하다.

③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스마트헬프데스크)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인 스마트헬프데스크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개별관광객 대상 외국인 주요 접점 동선에서의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 등 실질적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관광교통접점(국제공항, KTX·공항철도 역사, 관광·숙박·쇼핑지 등)에서 총 50대를 설치·운영하였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의 5개 어권을 지원하며 5,000여 개의 전국 관광정보(관광지, 쇼핑, 전통시장 등) 콘텐츠를 활용한 이용자 위치기반 지도, 이동경로 검색, 맞춤형 여행코스 추천 및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의 다국어 음성검색 및 번역서비스 등 관광서비스를 비롯해 지하철 노선도, 실시간 교통스케줄(항공, KTX) 조회, 우수관광 식당·택시 예약 서비스, 관광통역안내 1330, 편의서비스(코리아투어카드, 응급상황, 환율·환전정보 등) 제공 등을 통해 2021년('21.7.1.~'21.12.31.) 총 83만여 회, 일평균 4,517회의 이용실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스마트헬프데스크에는 자가 발열 측정, 선불형 교통카드 잔액조회, 무료 와이파이 제공, 무료 스마트폰 충전 등 여행에 꼭 필요한 편의서비스를 신규 탑재하고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 신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2.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써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 2018년 6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시설 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관광식당업, 야영장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인증 가능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2019년 7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사업 및 관련 시설, 서비스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대상 시범인증사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목적에 따라 인증범위와 대상을 관광사업 및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기준 누적 인증업소 수는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관광면세업 사후면세 부문 포함) 등 4개 업종 총 528개소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구비 여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여부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인증기준으로 한다. 인증심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단, 인증대상별 필수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70점 이상 득점하더라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인증기간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 인증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명칭 변경), 인증서 발급, 인증취소, 인증지표 관리(인증표지에서 명칭 변경),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전문평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수요자 중심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사회환경과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행동 및 숙박시설 이용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광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주도적인 제도개선 제안, 숙박환경 개선, 수요자 선호 숙박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숙박 형태에 대한 고찰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업계와 지자체,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최근 숙박 수요 변화에 발맞춰 민박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합법민박(Safestay)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민박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합법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캠페인 실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온라인 채널 운영을 통해 합법 민박업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전국 민박업소 대상 온라인 안전·위생교육 및 불법숙박영업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민박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저가 숙박시설인 토종 호텔 브랜드 ‘베니키아(BENIKEA)’는 2006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비즈니스급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으로서 2021년 기준 32개 가맹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베니키아 체인사업은 2022년 민간이양을 목표로 2014년 12월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단계적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베니키아는 OTA 연계 프로모션, SNS 및 매체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베니키아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체인호텔별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였다.

한국관광도탈패키지(KTTP) 사업과 연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시범추진하였다. 전남 해남(우수영유스호텔)과 경북 봉화(분천분교)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숙박시설 자체가 매력있는 관광콘텐츠가 되도록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숙박시설 조성 및 연계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 음식관광 지원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에 리뉴얼한 외국어 메뉴판 사이트 'Foodtrip in Korea'를 통하여 음식점 대상 외국어 메뉴판 제작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연간 5,477건의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였고, 사이트 등재 DB 확충을 위하여 음식명 외국어 표기,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DB를 11,000여 건 이상 확충하여 총 22,700여개의 데이터를 로마자 표기 및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대상 소구력이 있을 만한 대구·경북, 전남 지역의 음식관광 기념품 5개를 선정하여 브랜딩 및 리패키징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와 패키지를 개선한 음식관광 기념품의 시장성 검증과 홍보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성수동 렌트 1호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관광 홍보 및 상품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김치전, 김치볶음밥, 떡배기불고기, 떡볶이 등 4종의 한식 밀키트 총 2,900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이벤트를 13개 해외지사에서도 실시하여 식도락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라. 쇼핑관광 지원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보급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총 404건의 상품과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으며, 3단계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최종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021년에는 수상작 사후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컨설팅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유통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관광기념품점 입점지원 지속 추진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한 자개소반 무선충전기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몰 입점 직후 품절대란을 일으키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해외시장 판촉을 통해 최초로 홍콩 현지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HKTV mall'에 수상작 12점을 입점 지원하였다.

〈표 4-5〉 연도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현황

연 도	전시기간	전시장소	입상내역
2011년	10.20.~23.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대상(대통령상) - 메모리북(서울)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3,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18, 특선 30, 입선 50, 총 110점
2012년	11.7.~10.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대상(대통령상) - 바다의 소리(전남)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4,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12, 입선 29, 총 54점
2013년	9.24.~27.	COEX 1층 A홀	대상(대통령상) - 전통문양 잔받침(전남)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4,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12, 입선 29, 총 54점
2014년	11.7.~23.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실	대상(대통령상) - 누비보따리(슬리퍼)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4,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12, 입선 25, 총 50점
2015년	11.6.~15.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실	대상(대통령상) - 다용도 구리차통
			금상(국무총리상) 1, 은상(장관상) 4,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8, 입선 19, 총 39점
2016년	11.22. ~12.8.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실	대상(대통령상) - 누비담(접이식 보관함)
			금상(국무총리상) 1, 은상(장관상) 2,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8, 입선 19, 총 37점
2017년	11.1.~19.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실	대상(대통령상) - 강릉자수보자기 안경달이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4, 동상(관광공사사장상) 5
			장려상(후원기관장상) 8, 입선 24, 총 44점
2018년	8.31.~9.9.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디자인 돌레길	대상(대통령상) - 경북궁 단청 연필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3, 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8, 입선 30, 총 50점
2019년	12.12.~1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대상(대통령상) - 광화문 & 광화문광장 조립 채색 키트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3,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장려상(후원기관장상) 8, 지역 특별상(관광공사사장상) 10
2020년	10.16. ~11.30.	연남방앗간(서울) 무명일기(부산)	대상(대통령상) - 부엉이곳간 간장카라멜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3, 동상(관광공사사장상) 4
2021년	9.10 ~10.6	성수낙낙(서울)	대상(대통령상) - 춘천 감자빵
			금상(국무총리상) 2, 은상(장관상) 3, 동상(관광공사사장상) 6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고도화 추진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쇼핑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대구시 동성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기존 100개였던 사업참여 가맹점 업체를 200개 추가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제공되던 웹 플랫폼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AR 도보 내비게이션, 스마트 핸드프리, 가맹점 추천서비스, 쇼핑정보 다국어 안내 지원 기능, 텍스리펀 계산기 등 스마트 기반의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구 동성로를 방문한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쇼핑관광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지역 내 분산된 관광지 간 이동 중심의 쇼핑관광 정보 획득 및 상품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무안공항 및 순천시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쇼핑관광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전라남도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다국어 상품정보 제공,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 주변 관광지, 상점 자동 안내 및 최적화된 이동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내에는 상설 판매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쇼핑 존을 구성하여 스마트 쇼핑관광 고객 접점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남 대표 지역 특산품, 공예품 등 대표 관광기념품 30종 및 순천 관광지 대상 체험상품 20종 등 전남형 쇼핑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체험을 통한 쇼핑관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6〉 국내 면세판매점 비교

구 분	사전면세		사후면세(사후 환급)	
	지정면세점 (내국인면세점)	보세판매장 (시내·출·입국장 ·외교관 면세점)	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종합보세구역
근거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55조, 조특법 제121조의 13	관세법 제196조, 제176조의 2	조특법 제107조	관세법 제197조, 제199조의 2
허가 (지정)기관	관할 세관장	관할 세관장	관할 세무서장	관세청장
면제대상 조세	관세, 내국세, 지방세	관세, 내국세, 지방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관세, 내국세, 지방세

구 분	사전면세		사후면세(사후 환급)	
	지정면세점 (내국인면세점)	보세판매장 (시내·출·입국장 ·외교관 면세점)	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종합보세구역
대상품목	Positive 방식 내·외국물품 중 지정품목(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등)	Negative 방식 내·외국물품 * 총포·도검, 마약류 등 제외	Negative 방식 내국물품 * 총포·도검, 문화재, 중독성 의약품 제외	Negative 방식 내·외국물품 * 총포·도검, 마약류 등 제외
이용자	내국인, 외국인	입·출국 내국인, 외국인	외환거래법상 거주자	외국인
면세한도	1회 미화 6백 불 (연 6회)	미화 6백 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 관세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제도 실시

주2) Positive 방식은 원칙금지/예외허용, Negative 방식은 원칙허용/예외금지

〈표 4-7〉 연도별 면세점 업체 수

(단위: 개)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32	40	43	47	49	48	57	60	52	48

자료 : 관세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제도 실시

〈표 4-8〉 연도별 내·외국인 면세점 이용현황 및 구매실적

(단위: 천 명, 천 달러, %)

구 분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계	
외 교 관 · 시 내 · 입 국 · 출 국 장 면 세 점	인 원	2012년	14,055	54	11,931	46	25,986
		2013년	14,368	54	12,352	46	26,720
		2014년	15,420	50	15,651	50	31,071
		2015년	19,044	54	15,932	46	34,976
		2016년	21,838	52	20,458	48	42,296
		2017년	24,410	62	15,009	38	39,419
		2018년	24,055	57	18,107	43	42,162
		2019년	22,809	53	19,932	47	42,741
		2020년	3,084	49	3,188	51	6,272
	2021년	829	57	621	43	1,449	
	금 액	2012년	2,034,871	39	3,233,314	61	5,268,185
		2013년	1,999,727	34	3,888,220	66	5,887,947
		2014년	2,077,413	28	5,437,974	72	7,515,387
		2015년	2,256,265	29	5,405,148	71	7,661,413
		2016년	2,493,790	25	7,602,959	75	10,096,749
		2017년	2,859,231	23	9,419,031	77	12,278,262
		2018년	3,104,328	19	13,627,493	81	16,731,821
		2019년	3,019,224	14	17,834,372	86	20,853,596
		2020년	381,215	3	12,411,791	97	12,793,006
2021년		156,472	1	14,846,278	99	15,002,750	

구 분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계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인원	2012년	2,779	98	71	2	2,850
		2013년	2,778	97	86	3	2,864
		2014년	3,137	96	115	4	3,252
		2015년	5,543	97	149	3	5,692
		2016년	6,086	97	172	3	6,258
		2017년	6,466	98	101	2	6,567
		2018년	5,883	98	91	2	5,974
		2019년	5,618	99	85	1	5,703
		2020년	4,298	99	41	1	4,339
		2021년	5,277	99	45	1	5,322
	금액	2012년	332,895	98	6,763	2	339,658
		2013년	343,162	97	9,406	3	352,568
		2014년	374,410	97	13,380	3	387,790
		2015년	469,402	98	10,730	2	480,132
		2016년	497,087	97	14,765	3	511,852
		2017년	517,292	98	7,928	2	525,220
		2018년	497,231	98	8,075	2	505,306
		2019년	456,784	98	7,586	2	464,370
		2020년	404,662	99	3,733	1	408,395
		2021년	565,255	99	4,775	1	570,030

자료 : 관세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2019년 5월 입국장 면세점제도 실시

〈표 4-9〉 연도별 사후면세 판매장 현황

(단위: 개)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장 수	3,303	5,520	8,918	12,077	15,981	17,793	19,150	20,340	19,187	18,301

자료 : 국세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2014년 기준 연차보고서까지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2015년 기준 연차보고서부터는 국세청 자료 활용

마. 출입국 절차 간소화

2021년 외국인 출입국자는 2,127,176명으로 전년도 5,530,350명에 비해 61.5% 감소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출입국자의 급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 감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특별입국절차, 91개국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등) 영향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접종을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입국허용 국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1. 9. 1.

EU 28개 국가 및 '21. 11. 8. 싱가포르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여 '21. 12. 31. 현재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는 5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간 불법체류자는 연평균 23.8% 증가하였고 2019년도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인 총 75,001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였다.

법무부는 입국 불허에 따르는 외교적 마찰을 감소시키고 불법체류, 범죄전력 외국인 등 고위험군 외국인과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며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였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19. 5월 제도 기획 및 해외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2019. 7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 2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후 2020. 10월 예산확보 및 시스템 구축 및 2021. 5. 3.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 9. 1.부 본격 시행되었다.

대상 국가는 사증 면제 협정 66개국, 무사증입국 허가 46개 국가·지역 총 112개국이며, K-ETA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여행정보, 범죄 및 감염병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웹: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입국신고서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K-ETA소지자 전용심사대를 마련하여 출입국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공헌자, 기업인, 참전용사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12월 개정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건부 고액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총 1,337건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였다.

출입국우대카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여 기업인 및 사회발전 공헌자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바.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1)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전 세계적으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여행정보 검색에 있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Visitkorea' 웹사이트·SNS·앱 운영을 통해 방한 관광 관심층에게 한국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 공식 웹사이트 'Visitkorea'는 영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아랍어·몽골어를 포함한 총 13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음식·숙박·쇼핑 등 한국여행에 필요한 기본정보, 축제·이벤트 등 관광뉴스, 관광지 취재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 관심사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등 통계 툴을 통한 고객 분석 및 주요 검색엔진(구글, 야후, 바이두 등)의 한국 관련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월평균 240만 명이 비짓코리아 사이트에 방문하였다.

'Visitkorea' SNS는 8개 언어로 15개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Visitkorea' SNS를 통해 310만 명의 회원에게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회원 대상 한국 여행의향 설문조사 결과 4.68점(5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Visitkorea' 앱의 경우, 효율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3개 언어 통합앱으로 개발하였다. 이 외에도 GPS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길찾기 등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관광 정보 제공 앱은 2021년까지 총 170만 명이 다운로드하였다.

2) 스토리텔링형 오디오 관광정보 서비스(오디)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및 개별관광객 중심으로의 여행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문 및 다양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서비스 중인 오디(Odi)는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스토리텔링형 오디오가이드 앱으로서 2013년에는 기 구축되어있던 11개의 개별 앱들을 1개의 앱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2015년에는 앱을 공유기반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리고 있어 앱을 사용한 내국인 84%, 외국인 95%가 관광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흥미가 생기는 등 관광지 체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애플, 안드로이드 등의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오디오를 공유기반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제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통합 서비스함으로써 앱 중복 생산 방지 및 운영·홍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에 오디오 콘텐츠를 등재하여 개방함으로써 정부 3.0 협업 및 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기획하고, 문화해설사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발간된 오디오 콘텐츠 자료집은 관광안내소 직원 및 프리미엄 가이드 등 관광해설사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됨으로써 관광·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로부터 “중·장기 신규 국가 DB구축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PATA(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및 UNWTO(세계관광기구)로부터 골드 어워드 및 WTO 어워드 올리시스 상을 획득함으로써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향후, 구축된 콘텐츠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예술 등 타산업과의 융·복합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개방·유통·관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9 굿콘텐츠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사.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1) 관광불편신고 접수현황

2021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의 불편사항 신고는 4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대비 229건(-84.2%) 감소, 2019년 대비 980건(-95.8%) 감소한 수치이다. 쇼핑 관련은 외국인 신고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2009년 이래 가장 신고가 많은 유형이었으나 관광 목적 방한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외국인 신고 비중 2위를 기록하며 1위 숙박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유형으로 순위 이동을 보였다.

〈표 4-10〉 연도별 외국인 관광불편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불편사항	불편 외 사항	총 접수건수
2011년	724	70	794
2012년	897	65	962
2013년	881	68	949
2014년	888	89	977
2015년	829	59	888
2016년	1,000	99	1,099
2017년	967	154	1,121
2018년	1,095	75	1,170
2019년	1,023	65	1,088
2020년	272	12	284
2021년	43	3	46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4-11〉 연도별/유형별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현황

(단위: 건, %)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불편 사항	숙 박	72	7.4	111	10.1	111	10.9	66	24.3	11	25.6
	쇼 핑	314	32.5	360	32.9	319	31.2	50	18.4	5	11.6
	택 시	151	15.6	149	13.6	193	18.9	31	11.4	5	11.6
	음식점	70	7.2	68	6.2	65	6.4	31	11.4	4	9.3
	공항 및 항공	87	9.0	120	11.0	95	9.3	23	8.5	3	7.0
	철도 및 선박	53	5.5	95	8.7	35	3.4	13	4.8	3	7.0
	버 스	31	3.2	35	3.2	32	3.1	11	4.0	2	4.7
	여행사	35	3.6	24	2.2	42	4.1	8	2.9	2	4.7
	분실 및 도난	32	3.3	37	3.4	22	2.2	8	2.9	-	-
	관광종사원	18	1.9	11	1.0	14	1.4	2	0.7	-	-
	콜 밴	5	0.5	7	0.6	3	0.3	-	-	-	-
	안내표지판	3	0.3	1	0.1	2	0.2	-	-	-	-
	기 타	96	9.9	77	7.0	90	8.8	29	10.7	8	18.6
소계	967	100.0	1,095	100.0	1,023	100.0	272	100.0	43	100.0	
불편 외 사항	감사내용	154	/	75	/	65	/	12	/	3	/
총계		1,121		1,170		1,088		284		46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아. 관광경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불법행위와 불편사항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로운 관광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3년 새정부 업무보고(2013.3.28.) 및 관광진흥확대회의(2013.7.17.) 시 안전 관광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관광경찰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의 관계자들이 태스크 포스(TF)를 조직하고 협업을 통해 2013년 10월 16일 관광경찰이 출범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101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은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7개 지역에 배치되었다. 현재까지 부산(2014.7.3.), 인천(2014.7.4.)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2021년 서울 69명, 인천 17명, 부산 22명으로 전국 108명의 관광경찰이 활동 중이다.

관광경찰은 주요 관광지의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불법행위 단속, 관광안내, 불편 사항 처리 등 관광 관련 치안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광불편사항 처리, 관광정보 제공 및 교통안내 등 관광행정 서비스를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명동·인사동·이태원·홍대입구·동대문·남대문 등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외국인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해운대, 광안리, 광복동 중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송도, 차이나타운 등 3개 관광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범 후 2021년 12월까지 총 27,106건의 단속·수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숙박업(추가), 무자격가이드 활동, 상점에서 가격 미표시 행위, 콜벤 불법 영업,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등이며, 지갑이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밤늦게 길을 잃어 곤란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편의를 돕고 있다. 정부는 관광경찰 제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그 활동 범위를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3. 국제협력 증진

개방화·국제화 사회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관광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관광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므로 각국은 이를 위해 많은 경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우리나라는 세계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관광기구(UN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3),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국제회의전문가협회(ICCA) 등이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여행관광협의회의(WTTC)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NWTO

세계 각국 정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 간 관광기구인 UNWTO(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는 IUOTO(International Union of Official Travel Organization: 국제관광연맹)가 1975년에 정부 간 협력기구로 개편되어 설립된 것이다. 현재 세계 160개국 정부가 정회원, 6개국 정부가 준회원으로, 500여개 관광 유관기관이 창조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총회와 연2회 개최되는 집행이사회, 7개 지역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UNWTO는 공신력을 가진 각종 통계자료 발간을 비롯하여 교육, 조사, 연구, 관광편의 촉진, 관광지 개발, 관광자료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서 UN 및 전문기구와 협력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시 IUOTO의 회원자격으로 1975년 자동적으로 UNWTO 정회원으로 가입되었고 한국관광공사는 1977년 창조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북한은 1987년 9월 제7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1983년 기간 중 집행이사국으로 처음 선임되었고, 1992~1995년, 2004~2007년, 2008~2011년, 2012~2015년 기간 중에 집행이사국을 역임하였다. 2015년 21차 총회에서 2016~2019년 기간 중 집행이

사국 연임이 결정되어 2004년부터 4연속 연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 기구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회원국 내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1995~1999년 기간 중 사업계획조정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Program and Coordination)의 위원국이었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당시 긴급 집행이사회를 소집, 주재하여 WTO 푸켓엑션 플랜을 채택하여 실천하였고 6월 집행이사회에서는 차기 사무총장 선출, ST-EP재단 설립 정관안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국제 관광분야의 새로운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8년 5월에는 UNWTO 산하 6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을 관장하는 UNWTO-CAP(Commission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UNWTO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를 서울(의장국)에서 개최하여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진흥 전략방안을 협의하였다. 1988~1989년 동안 임기 2년의 UNWTO-CAP 의장국을 맡게 된 한국은 동 CAP회의의 결정에 따라 의장국에 재선임되어, 1991년 4월 25~26일 양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1차 UNWTO-CAP 회의를 주재하는 등 아·태지역 관광 진흥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UNWTO의 회원국에 대한 기술 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안내체계개선을 위한 자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96년에도 우리나라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방안이 기술자문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999년 칠레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9.24.~10.1.)에서는 2001년 총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1년 9월 23~27일 5일 간은 서울에서, 2001년 9월 28일~10월 1일 4일 간은 일본 오사카에서 제14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UNWTO의 회원국, 관광장관 및 공식대표단, 기자단, 업계대표 등 118국 740명이 참가하였다.

UNWTO는 2003년 12월 7일 제58차 UN총회를 통해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 편입하여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UNWT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서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복구 등 세계관광 분야 주요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활발한 관광외교 활동을 벌였다. 2006년 6월 15일에는 아·태지역 내 관광진흥 활동지원을 통한 교류확대, 이해증진, 안전과 평화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UNWTO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였다. 양자 간 협력사업은 주로 아·태지역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UNWTO에서 실시하는 관광연수 프로그램인 ‘프랙티컴(PRACTICUM)’ 참가 지원, 지역 내 관광동향 연구, 역내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UNWT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 7개국 아웃바운드 시장분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제회의’, ‘The UNW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ropolitan Tourism' 등을 추진하였고, 2007년 11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7차 총회에서 2008~2011년 집행이사국으로 연임이 확정되었으며, 2008년 6월 제주도에서 제83차 집행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드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008년에는 '아·태지역 관광정책에 관한 고위공무원 연수' 및 '아태지역 관광노동시장 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친한 인사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8년 3월 청주에서 개최된 한국관광총회에서는 UNWTO의 후원으로 UNWTO 특별 세션을 운영하였다.

2011년 제19차 UNWTO 총회를 경주(2011.10.8.~14.)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동 총회 기간에는 기존의 총회가 1주일 이상 동 기구의 행정·재정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의제를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체육을 통한 경제성장 및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Fostering Growth and the Achievement of the MDGs through Tourism, Culture and Sports)'에 관한 '장관급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유엔(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좌장으로, 아사 로즈 미기로 유엔 부사무총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지난 10년 간 개최된 총회 중 가장 많은 관광장관(총 42명)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UNWT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3년에 1회씩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UNWTO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제10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의 아태지역 관광발전 기여 노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도 2014년 6월부터 UNWTO 공적개발원조(ODA)³⁰⁾ 실무그룹회의 회원국으로써 UNWTO의 ODA 활동인 '개발을 위한 관광 기금(TDF)' 조성 관련 논의에 참가하였으며, 2015년 4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UNWTO 실크로드 TF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9월부터 '관광과 경쟁력 위원회(CTC)' 회원국으로도 참가하는 등 동 기구 내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 제2차 UNWTO 산악관광회의를 유치하여 2015년 10월 13~15일 기간 중에 개최하고, 2016년에 서울특별시 지방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이 UNWTO 찬조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UNWTO를 활용한 국제 협력 확대에 관심을

30)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수원국의 명단에 속해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 또는국제기구에 공여한 재원의 흐름으로 증여율 25%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신용석, 2013)

기울였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부터 찬조회원 부회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찬조회원을 대상으로 ‘제1차 아태지역 미래관광 지역컨퍼런스(1st UNWTO Regional Conference on Future Tourism for Asia and the Pacific)’ 및 증견공무원 연수를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UNWTO와 협력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내 저개발 국가의 마케팅 및 관광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UNWTO 문화관광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접목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17~2018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동향 및 세계 관광시장 이슈 등 트렌드 공유를 위해 연 2회 UNWTO 아태지역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였으며, 2019년에는 ‘제13회 UNWTO 아태지역 증견공무원 연수(UNWTO Asia/Pacific Executive Training Program on Tourism Policy and Strategy)’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2020년에는 UNWTO 협력회원 뉴스레터에 공사 주요 사업을 게재하고 UNWTO 열린관광지 우수사례 발표에 참석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등 UNWT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아태지역에서의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2021년에는 제11회 UNWTO 최우수관광마을 공모사업에서 75개국 170개 마을 중 우리나라 고인돌·운곡습지마을, 신안퍼플섬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했다.

2) 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유럽경제협력기구를 모체로 하여 1961년 선진 20개국을 회원국으로 설립되었다.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자유무역 확대, 개발도상국 원조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 구성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보좌기구인 집행위원회 및 특별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는 25개의 분야별 위원회가 있다.

관광위원회는 관광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연구 및 관광진흥 정책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통계작업반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관광객 보호 정책개발,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 등이며 매년 총회, 통계작업회의, 전문가 특별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OECD 관광 프로젝트 등 관광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관광위원회에 대한 옵저버 참가자격이 부여되어 1995년부터 관광위원회 회의 및 통계 실무 작업반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선진국의 관광정책 및 통계

기법 등을 습득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1998년에는 OECD 관광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고, OECD 권고사업의 하나인 관광위성계정(TSA) 개발을 세계 5번째로 완료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스위스에서 개최된 OECD 관광회의에 참가하여 관광산업의 구조개혁 프로젝트 조정위원회에 선정되었고, 2005년 9월 광주에서 'OECD-Korea 국제관광회의(주제: '세계관광의 성장: 중소기업의 기회')를 개최하였다.

제80차 OECD 관광회의(2007.11., 프랑스 개최)에 참가하여 남이섬 한류관광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제81차 관광회의(2008.4.)에서는 한국의 템플스테이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간 문화와 관광 접목의 성공사례 공유를 위해 제작된 '관광에 있어서의 문화의 영향력(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간행물에 한국 문화관광 우수사례인 '템플 스테이'를 수록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의 전략 중 '우리 식문화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한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한식에 부여하기 위한 한식 세계화(Globalization of Korean Cuisine) 사업을 OECD 차원에서 진행시킨 것이다.

2009년 12월에는 '음식관광 선진화 및 한식의 세계화'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OECD 관광위원회가 공동으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한식의 매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그 결과물로 '음식과 관광경험(Food and Tourism Experience): The OECD-Korea Workshop' 책자를 국/영문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OECD 관광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한국이 활동하게 되면서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2012.9.24.~26.)를 유치하여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하였으며, OECD 관광위원회 공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된 '창조경제와 관광(creative economy and tourism)'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출판물을 발행하였다. 2015년에는 밀라노엑스포 기간 중 6.24 한국의 날을 맞아 밀라노 엑스포장 내 콘퍼런스홀에서 OECD와 공동으로 '한식문화와 미식관광'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99차 OECD 관광위원회(2017)에 참가해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매년 개최되는 관광위원회와 관광통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OECD 회원국의 관광정책 동향 파악 및 관광선진국과의 정책교류에 힘썼다.

더불어 2019년에는 OECD 회원국과의 관광협력 강화 및 관광 정보 교류 확대, 관광 분야 내 의제 주도를 위해 '2020 OECD 글로벌 관광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하였다. 다만,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OECD 사무국과 협의하여 개최 시기를 2021년 11월로 연기하고, 회의명을 제1차

OECD 국제관광포럼(1st Global Forum on Tourism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4년부터 15차례 개최된 관광통계 전문포럼을 관광정책 전반으로 확대한 첫 번째 회의라는 의미를 가진다. 2021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제관광포럼에는 코스타리카 관광부장관, 포르투갈 경제부 관광차관, 그리스 관광부 차관보 등 40여개국의 고위급 및 관광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미래 관광 준비, 빅데이터 등 시효성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미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 APE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발족되었으며, 역내 경제협력관계 강화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APEC은 11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있는데, 관광실무그룹회의는 1991년 하와이에서 회의를 가진 이후 역내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한조치 완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APEC 국가 간 관광활성화를 제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1999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4차 관광실무그룹회의에서 APEC 관광장관회의 창설이 합의되어 2000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제7차 APEC TWG(관광실무그룹)에서 제안, 2001년 5월 APEC BMC(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3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중소관광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전략의 적용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자의 교육훈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제22차, 23차에서 제안, 2003년 7월 APEC BMC에서 최종 승인된 ‘관광투자촉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중소관광기업의 전자상거래 적용 모범사례 연구’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2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1998., 제주도), 제24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2004.5., 진주)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부산에서 제4차 관광포럼 및 제26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관광홍보 및 APEC내 관광외교를 강화하였다. 제26차 회의에서는 2005 APEC 정상회의 국가로서 수임하게 된 TWG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관리대응(Emergency Preparedness) 관련 이슈를 회원국에 주지

시키고 APEC 차원의 결속과 협력방안을 도출해내는 등 역내 관광분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APEC 관광포럼의 성과를 TWG에 제안함으로써 2004년 칠레 파타고니아선언에서 합의된 '관광현장의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55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가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TWG가 APEC 내에서 독립적인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 2006년 공식 컨설턴트 지정을 통해 TWG 독립평가와 관광현장의 전략적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2007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회원국에 알리고 역내 관광분야 전략적 지위를 유지·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호주와 더불어 'Tourism and Climate Change'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관광업계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2008년 4월에는 페루 리마에서 제32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와 연계되어 열린 제5차 APEC 관광장관회의에서 한국은 2008년을 관광선진화 원년으로 지정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알리고 UNWTO 공동 협력사업을 소개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장관회의의 결과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 있는 관광을 향하여(Towards Responsible Tourism in Asia and Pacific Region)'를 주제로 한 「파차카막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서울선언」에서 채택된 4대 주요 정책 목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동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인 '토착관광',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문화관광', '항공 연계성' 등 책임관광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2년 7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7차 APEC 관광장관회의에서 APEC 관광장(차)관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체의 견고한 성장을 위한 관광도모'라는 주제 하에 아태지역 간 관광객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2012~2015 APEC 관광전략계획'을 포함하는 '하바로프스크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Rio+20(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결과문서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향후 전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6개 주요 행동과제에 포함시킨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단락이 선언문에 전격 포함(하바로프스크 선언문 제10조)됨으로써 국제관광계에 한국의 관광외교 역량을 널리 각인시켰다.

2014년 9월 마카오에서 열린 제8차 APEC 관광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APEC 역내 관광객 8억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마카오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이 목표를 위해 스마트관광, 저탄소 관광개발, 회원국 간 상호 연결성, 타 산업과의 연계 발전 촉진 등 아태지역 관광시장의 통합증진 및 여행장벽 제거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2016년 5월에는 “여행 활성화를 통한 아·태지역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제9차 APEC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결과문서로써 APEC 역내 관광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APEC 경제체 공동행동을 담은 리마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8년 10월 러시아와의 경합 끝에 제55차 APEC 관광실무 그룹회의를 유치하였으며, 2019년 11월 여수에서 개최하여 여수를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2021년 9월 관광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기술 우수사례 확산을 주제로 한 APEC 관광실무그룹(TWG) 화상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APEC 관광전략계획 2020-2024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였다.

4) PATA

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는 1951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진흥 활동, 지역발전 도모 및 구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가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차총회 및 관광 교역전 개최, 관광자원 보호활동, 회원을 위한 마케팅 개발 및 교육사업, 각종 정보자료 발간사업 등이 있다. 현재 95개 목적지(Destination), 항공·크루즈사, 교육기관을 포함 약 800여 개 관광기관 및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 36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등 총 13개 관광관련 기관 및 업체가 PATA 본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연차총회 및 교역전에 참가하여 세계 여행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관광 홍보 및 판촉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ATA 한국지부에는 총 114개 기관 및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 총회 개최, 관광전 참여, 관광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PATA 관련 국제행사로 1965년, 1979년, 1994년, 2004년, 2018년 PATA 총회 및 이사회, 1979년, 1987년 PATA 관광교역전, 1998년 PATA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04년 제주 PATA 총회에서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PATA 총회 사상 최대인 48개국 2,145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았다. 또한 2013년 PATA Hub City Forum Seoul을 개최하여 PATA 본부 CEO 마틴 크레이그 및 주요 국내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관광산업의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글로벌 관광목적지로서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5월 PATA 총회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하였으며, 최근 3년 이래 최다국가인 41개국 487명의 아태지역 관광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성과와 한국관광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였다.

한국의 PATA 관련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년 관광포스터와 마케팅 부문, 2007년 마케팅미디어 비디오 부문, 2009년 마케팅 캠페인 부문과 가이드북 부문, 2010년 영상부문, 2012년 마케팅 캠페인 부문, 2013~2016년 매년 마케팅 미디어 부문에서 PATA Gold Awards를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글로벌 캠페인 ‘Korea Visits You’가 사상 최초로 마케팅 캠페인 부문 PATA Grand Awards를 수상하였다.

2018년 5월에는 PATA 연차총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 강원도를 세계에 다시 알리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PATA 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냈다.

5) ASEAN

아세안은 1966년 8월 제3차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동남아연합) 외무장관회의에서 ASA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7년 말리크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태국 측과 아세안 창립선언 초안을 마련하였다.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아세안 창립선언을 통하여 결성되었다. 아세안은 창립 당시 5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1975년 월남전 종결을 계기로 동남아 평화 및 자유·중립지대 구상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의 대상범위를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 대두되었고,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8년)가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1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5월 26일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제7차 ASEAN+ 3NTO(한·중·일 + 아세안)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관광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관광장관회의 및 NTO회의에 참가하여 아세안 및 한·중·일 간 관광부문 공동마케팅 방안모색 및 각국의 관광 현안과 관련한 의견교류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구축해 가고 있다. 한·아세안 행동계획(Korea-ASEAN Action Plan)의 후속조치로 2006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관광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지도의 한국어판을 2만 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아세안 측의 공동요청사항인 아세안 관광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한국 문화·한국어 교육을 2006년

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세안지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 외교역량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관광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6년 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3 관광장관회의에는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ASEAN+3 관광협력 양해각서(MOC)를 체결하였다.

6) UNEP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은 2013년 9월 ‘지속가능한 관광’을 Rio+20 결과문서에 포함시킨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여 후속사업 공동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 관련 아태지역 컨설팅회의’를 2014년 4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10YFP(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UNEP은 2014년 9월 UNWTO, 모로코, 프랑스와 공동으로 한국을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공동 주도국(Co-Leads)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은 10YFP 사무국의 여러 기능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를 파견 중이며, 2016년에는 ‘10YFP 캠퍼터 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소비 및 생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UN 지정 지속가능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부산에서 ‘지속가능관광 포럼(Sustainable Tourism Forum 2017, 부산)’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지속가능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2019년 11월에 UNEP과 공동으로 “하나뿐인 지구(One Planet), 지속가능한 관광 아태지역 회의”를 여수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적 사례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대도 향유 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효율적 관광자원 개발,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관광 성장을 위한 토론을 주도하였다.

7) ICCA

ICCA(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 국제컨벤션협회)는 국제회의산업의 발상지인 구주 중심의 범세계적 국제회의 관련기구로서 1963년에 설립되어 현재 92개국 982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제회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많은 종류의 국제회의

산업분야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ICCA에는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0월 26~29일에 제7차 ICCA 총회 및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부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에서 ICCA Workshop을 개최하고, 2013년에는 ICCA와 공동으로 ICCA Bidding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ICCA Congress Hub Seoul 개최 및 지원, ICCA Best Marketing Award에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ICCA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 WTTC

WTTC(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세계여행관광협회)는 관광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100여 개 업계 리더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관광관련 민간 기구이다.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은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관광자문 제공 및 협력사업 전개, 'Tourism For Tomorrow Awards' 주관, 세계관광정상회의(Global Travel and Tourism Council) 개최 등이다. 특히 매년 5월 개최되는 관광정상회의는 개최국의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국의 관광장관, 호텔 및 항공사 CEO 등이 대거 참석하여 관광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회의로 정평이 나있다. 세계 관광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며 고용인원 2.4억 명, 세계 GDP의 9.2%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13년 WTTC 아시아 지역총회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9) SKAL

SKAL(Sundhet, Karlek, Aiderdom, Lycka 건강, 우정, 장수, 행복) International은 1934년 설립,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 본부를 둔 관광업계 중진들의 친선모임이다. 전 세계 관광업계 종사자 2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SKAL 한국지부를 포함한 90개국 500여 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Doing Business Among Friends'라는 SKAL의 모토대로 회원 간의 네트워킹이 가장 큰 목적이며 매년 World Congress 및 관광관련 포럼 개최, ECO Tourism Award 주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6년부터 총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2009 SKAL Asian Area Congress를 인천으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SKAL 서울지부에 이어 SKAL 인천지부도 조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2012년 SKAL 세계총회를 2012년 10월 2~7일까지 인천에서 개최하였다.

나. 국제회의 참가

정부는 국제관광기구, 문화체육관광부 및 컨벤션 관련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매년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한국관광 홍보활동은 물론 국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관광·컨벤션 관련 2021년 국제회의 참가실적 및 2022년 계획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관광 관련 국제회의 참가실적 및 계획

	회의명	기간	장소
2021 실적	제113차 UNWTO 집행이사회	1.18-19.	스페인 마드리드(온라인)
	제20차 ASEAN+3 관광장관회의	2.5.	캄보디아(온라인)
	2021 제1차 G20 관광실무회의	3.4.-5.	이탈리아(온라인)
	제107차 OECD 관광위원회	4.13	프랑스 파리(온라인)
	2021 제2차 G20 관광실무그룹 회의	4.29.	이탈리아(온라인)
	2021 G20 관광장관회의	5.4.	이탈리아(온라인)
	제57차 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	5.17.	러시아(온라인)
	제33차 UNWTO 아태·남아시아 공동 지역위원회	9.14.	스리랑카(온라인)
	제58차 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	9.15.	뉴질랜드(온라인)
	제15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10.5.-8.	몰디브(온라인)
	제108차 OECD 관광위원회	10.11.-12.	프랑스 파리(온라인)
	제24차 UNWTO 총회 및 제114-115차 UNWTO 집행이사회	10.12.-15.	모로코 마라케시(온라인)
	제14차 GTI 관광위원회	11.8-9.	대한민국(온라인)
	한일 관광장관진흥협의회의	11.17.	일본(온라인)
2022 계획	제21차 ASEAN+3 관광장관회의	1.19.	캄보디아(온라인)
	제2차 UNWTO 긴급 집행이사회	3.8.	스페인(현장)
	제109차 OECD 관광위원회	4.6.-7.	프랑스 파리(온라인)
	제59차 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	4.21.	인도네시아(온라인)
	제1차 UNWTO 긴급총회	4.27.	스페인(현장)
	2022 G20 제1차 관광실무회의	5.10.-11.	인도네시아(온라인)
	제116차 UNWTO 집행이사회	6.7.-8.	사우디 제다(현장)
	제34차 UNWTO 아태·남아시아 공동 지역위원회	6.14.-16.	몰디브(현장)
	2022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	6.24.-26.	대한민국(현장)
	제11차 APEC 관광장관 회의	8.16.-18.	태국(현장)
	제60차 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	8.16.-18.	태국(현장)
	2022 G20 제2차 관광실무회의	9.23.	인도네시아(현장)
	2022 G20 관광장관회의	9.26.	인도네시아(현장)
	제110차 OECD 관광위원회	10.4-5.	프랑스 파리(현장)
	제16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11월 중	대한민국(현장)
	제15차 GTI 관광위원회	미정	러시아 연해주(미정)
	제10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미정	미정
	제117차 UNWTO 집행이사회	미정	미정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의	12월 중	대한민국(현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6월 20일 기준

다. MICE 유치

1) MICE 유치 활동

① MICE 유치의 중요성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회의 기간 중 또는 그 전후에 국내관광과 쇼핑 등을 함으로써 일반관광객에 비해 많은 소비를 하므로 교통·항공·숙박·식음료 등 관광관련 사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제회의는 계절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관광비수기 타개책으로 활용되고, 관광업계의 마케팅 및 신시장 개척에도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반 경제·사회 분야의 국제화 및 국위선양에도 이바지한다. 국제회의 참가자는 대부분 해당국의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홍보효과 및 경제교류 촉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국제회의 개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미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아시아지역에서의 개최지 선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000년 ‘제1회 APEC관광장관회의’, 200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2004년 PATA 제주총회’, ‘2005년 APEC 정상회의’, ‘2006년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ANOC) 총회’, 2007년 ‘세계폐암학회학술대회’, ‘제46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 대회’, 2008년 ‘2008 제17회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대회’ 및 ‘제22차 세계철학자대회’, 2009년 ‘히벌라이프 아시아태평양 Extravaganza(2만 명)’,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제19차 UNWTO 총회’,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2013년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 2014년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 2015년 ‘2015 세계간호사대회’, ‘2015 세계 물포럼’, ‘2015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단체(17,556명), 중국 완메이 인센티브단체(6,160명), 2015년 베트남 4Oranges(1,500명), 말레이시아 AIA(1,750명), 2016년 국제로터리대회(44,607명), 아오란 인센티브 단체(5,295명), 2017년 인도네시아 MCI(1,143명), 대만 삼상인수보험(2,801명),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2018년 세계기생충학회총회, 2018년 인도네시아 Tupperware Indonesia(1,518명), 태국 PTT Public(1,037명), 2019 세계변호사협회총회(IBA), 2019 세계당뇨병총회(IDF), 2019년 싱가포르 Ucity International 인센티브 단체(3,184명)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역시 성황리에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아시아지역 주요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 목적지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② MICE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2018.5.28.).

동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은 2018년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23) 수립 과정에도 반영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③ MICE 유치증진을 위한 주요 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2007년 광주광역시, 2009년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 2011년 인천광역시, 2014년 강원 평창군, 경기 고양시, 경북 경주시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성장동력 중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꾀하고 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문회의장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전문진행요원, 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수용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ASEM’, 2001년 ‘세계관광기구(UNWTO)총회’ 개최와 더불어 2000년 5월 ‘코엑스’, 2001년 4월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001년 9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3년 3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05년 ‘킨텍스’,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원컨벤션센터’, 2008년 4월 ‘대전컨벤션센터’, 2008년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가 개관되었고, 고양 ‘KINTEX (2011.9.)’, 대구 ‘EXCO(2011.5.)’, 부산 ‘BEXCO(2012.6.)’가 확장을 위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 6월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센터’를 개관했으며, 2014년

7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2015년 3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2019년 3월 ‘수원컨벤션센터(SCC)’, 2021년 4월 ‘울산컨벤션센터(UECO)’가 개관되어 시설관련 수용태세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공연장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 MICE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의거, 2018년 최초로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지정되었다.

2017년 11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공모·접수, 평가를 거쳐 2018년 8월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내 3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되었으며, 2020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되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2019년 1월초 14개 시설이 지정되었고, 2020년 6월에는 12개 시설이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기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3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부터는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여 5개 지자체에 국비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 협회를 통하여 국제회의기획업체 등에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의 여건에서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내단체가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개최 자문과 홍보물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제회의 및 행사의 국내 유치와 개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윈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해외의 국제회의,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련단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세일즈 콜 및 해외지역 MICE 주요인사에 대한 팸투어 진행을 통하여 MICE 개최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으로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MICE 개최지로서의 한국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과 상담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해외 컨벤션 전문지 기사화 및 광고게재 등 다양한 방향의 해외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국제회의전문가 양성교육, 지방 국제회의 유치 촉진 설명회 실시, 국제회의 캘린더 및 개최현황 온라인 발간, 컨벤션 DB 구축 및 운영 등 국제회의 유치 촉진을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액 조사, 국제회의 개최계획·실적조사, 컨벤션관련 국제기구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각종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컨벤션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섯째,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회의 개최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관련기관, 지자체 및 컨벤션 업체 간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MICE 육성협의회(Korea MICE Alliance)를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컨벤션(C), 기업회의(M), 인센티브(I)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 국제전시회(E)의 국내 유치·개최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표 4-13〉 국제회의도시 지정현황

연 도	지정 도시	지정월	지정 도시 수
2005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005.10.	4개
2007년	광주광역시	2007.9.	1개
2009년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2009.3.	2개
2011년	인천광역시	2011.5.	1개
2014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고양시, 경상북도 경주시	2014.12.	3개
계			11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4-1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현황

연 도	지정 도시	지정월	지정 지구 수
2018년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2018.8.	3개
2020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020.4.	2개
계			5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4-15〉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현황

연 도	지정 도시	지정월	지정 시설 수
2019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2019.1.	14개
2020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2020.6.	12개
계			26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4-16〉 국제회의의 관련 간행물 발간실적

간행물	내용	발간 연도	발간부수
컨벤션 캘린더	국내개최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 국제행사의 개최일정, 주최기관, 참가현황 등 수록	2007~2008	-
국제회의 개최현황	국내·외 국제회의의 개최현황 분석	2017~2020	50부
MICE 캘린더	국내개최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 국제행사의 개최일정, 주최기관, 참가현황 등 수록	2009~2018	온라인 업로드 (K-MICE 홈페이지)
컨벤션 시설가이드	국내 호텔, 컨벤션 전문센터 등 시설 소개	2009	-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국내개최 MICE 행사 개최 실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2010~2020	120부
MICE 참가자조사	MICE 행사 참가자 대상 만족도 및 지출액 조사	2012~2021	120부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MICE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분석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2015~2020	100부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국내 행사 주최 및 운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미팅 테크놀로지 정보 수록	2019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④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국제협회연합(UIA)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총 6,473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2020년 4,242건), 한국은 473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순위 2위(A+B 타입 기준)를 달성하였다. 한국은 9년 연속 세계 5위권을 유지함으로써 국제회의의 주요 개최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세계 주요 국가별 개최실적을 보면 미국이 512건으로 세계 1위, 한국이 473건으로 2위, 일본이 408건으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벨기에가 385건으로 4위, 프랑스가 27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계 주요 도시별 개최실적으로는 브뤼셀이 319건을 개최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265건으로 2위, 도쿄가 258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 외 국내 도시별 개최실적은 인천이 52건으로 세계 15위, 부산이 44건으로 세계 22위, 대구 29건으로 세계 29위, 제주는 26건으로 세계 33위를 기록하였다. 그 뒤로 대전과 광주가 각 9건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표 4-17〉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건)

순 위 (2021)	국가명	개최건수	
		2021년	2020년
1	미국	512	438
2	한국	473	256
3	일본	408	225
4	벨기에	385	338
5	프랑스	273	141
6	영국	232	183
7	오스트리아	228	135
8	독일	223	162
9	이탈리아	176	62
10	스페인	174	96

자료 : 한국관광공사 (원자료: UIA(국제협회연합), 2022.6.28. 발표)
 주) 순위는 2021년 개최건수(A+B타입) 기준임

〈표 4-18〉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건)

순 위 (2021)	도시명	개최건수	
		2021년	2020년
1	브뤼셀	319	290
2	서울	265	150
3	도쿄	258	122
4	빈	195	109
5	파리	153	61
6	싱가폴	134	780
7	런던	101	101
8	리스본	94	20
9	제네바	87	77
10	바르셀로나	67	44

자료 : 한국관광공사 (원자료: UIA(국제협회연합), 2022.6.28. 발표)
 주) 순위는 2021년 개최건수(A+B타입) 기준임

〈표 4-19〉 국내 국제회의 개최 시설 현황

(단위: 개)

구 분	시설 수	회의실 수
전문회의시설	16	356
준회의시설	322	2,991
중소규모회의시설	321	1,167
합계	659	4,514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2). 「2020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주) 2020년부터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의 분류체계 및 중소규모회의시설 기준 변경

2)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관광공사(코리아MICE뷰로)를 국제회의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 활동 등 우리나라 MICE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MICE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 업계와 공동으로 MICE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개별 유치 추진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거나 국제기구 인사의 방한답사를 지원하고,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의 운영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회이나 인센티브 단체의 경우 유치대상 단체를 발굴하고 관광공사 및 지자체의 주요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행사 목적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마케팅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기사화, 인터넷 홍보나 컨벤션 관련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회의 관련 각종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한국 국제회의 개최현황, 컨벤션 시설 가이드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K-MICE(한국MICE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국가 간 이동 불가에 따른 국제회의 취소 및 연기, 인센티브 관광 중단 등 행사 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에서도 행사규모 축소, 내국인 위주 참여, 온라인 회의 개최 등 MICE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는 MICE 트렌드 변화 및 유관업계(PCO 등) 수요 조사(온라인 회의 전환 지원)에 따라 사업방향을 도출하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내 국제회의 지원 요건(참가자 수요건 완화 및 온라인 참가자 포함 지원 등)을 조정하여 고시 및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었던 기존 지원제도 변경을 통해 업계 지원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 MICE 산업 활성화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2022년 1분기까지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방한이 전무하였으나 위드 코로나 및 국제관광 재개에 따라 2분기부터 동남아와 일부 유럽국가를 시작으로 소규모 단체가 방한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기업회의, 인센티브 방한단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방한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 국제경제 악화 등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라. 국제관광 개발협력(관광 ODA)

관광산업의 성장 및 경제적 기여도 증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 ODA를 통한 빈곤퇴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WTO, 네덜란드 국제원조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관광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 ODA 확대 필요에 대한 인식 또한 확산 중에 있다.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의 관광ODA 지원 수요 증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 관광 ODA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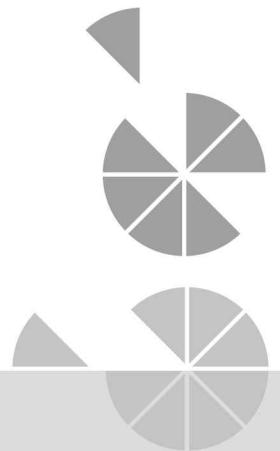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이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관광발전 경험을 적용·지원하는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KOPIST (Korea Partnership Initiative for Sustainable Tourism)’ 한국 관광 ODA 브랜드를 본격 출범하여 본 사업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정례화 및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KOPIST 연수사업은 매년 개발도상국 관광부처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관광개발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관광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한국관광 위상 강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KOPIST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관광 ODA 수요조사, 현지 심화컨설팅 등을 기반으로 관광 ODA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참가자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관광분야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 및 확대 중이다.

특히 2020년에는 국내 최초 관광 ODA 프로젝트인 ‘몽골 관광교육센터 건립 및 관광 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착수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관광산업 인력양성 노하우와 인프라를 수원국에 전파할 것이다.

제 5 장

관광자원 개발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_123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_171
2. 관광지	_146	7.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_176
3. 관광단지	_148	8. 문화관광자원 개발	_181
4. 관광특구	_152	9.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_203
5. 광역권 관광개발	_155	10. 관련부처 관광자원 개발	_208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가. 수립배경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관광의 여건변화, 국민관광의 질적·양적 성숙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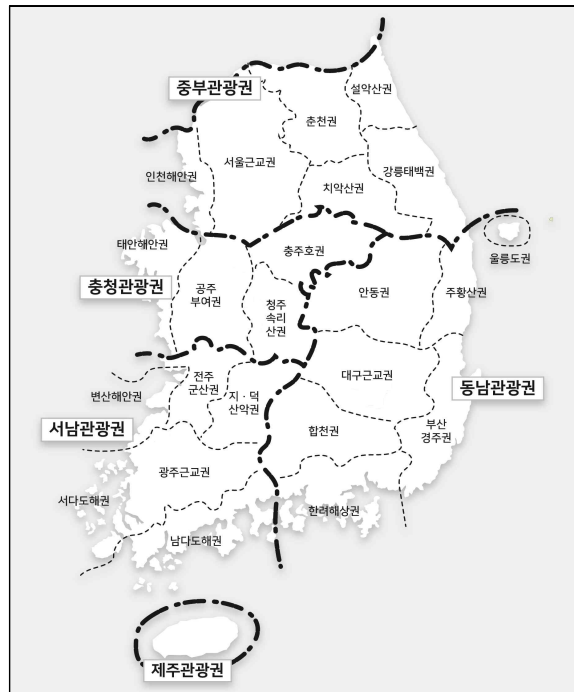
나. 추진경위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에 따른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992~1996)과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997~2001)을 수립·시행하였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에 따른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2~2006)과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시행하였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따른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2~2016)과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관광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19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였고, 1994년 6월 30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을 수립·시행중이다.

다.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보전하고 관광객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특성·교통권·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권역화하여 각각의 권역별 개발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루트를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활동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 관광지 또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표준화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육로 9개, 해상 3개, 항공 18개 등 모두 30개의 관광루트가 설정되었으며, 권역별로는 중부권 4개, 충청권 3개, 서남권 3개, 동남권 3개, 제주권 2개 등 모두 15개의 권역 내 관광루트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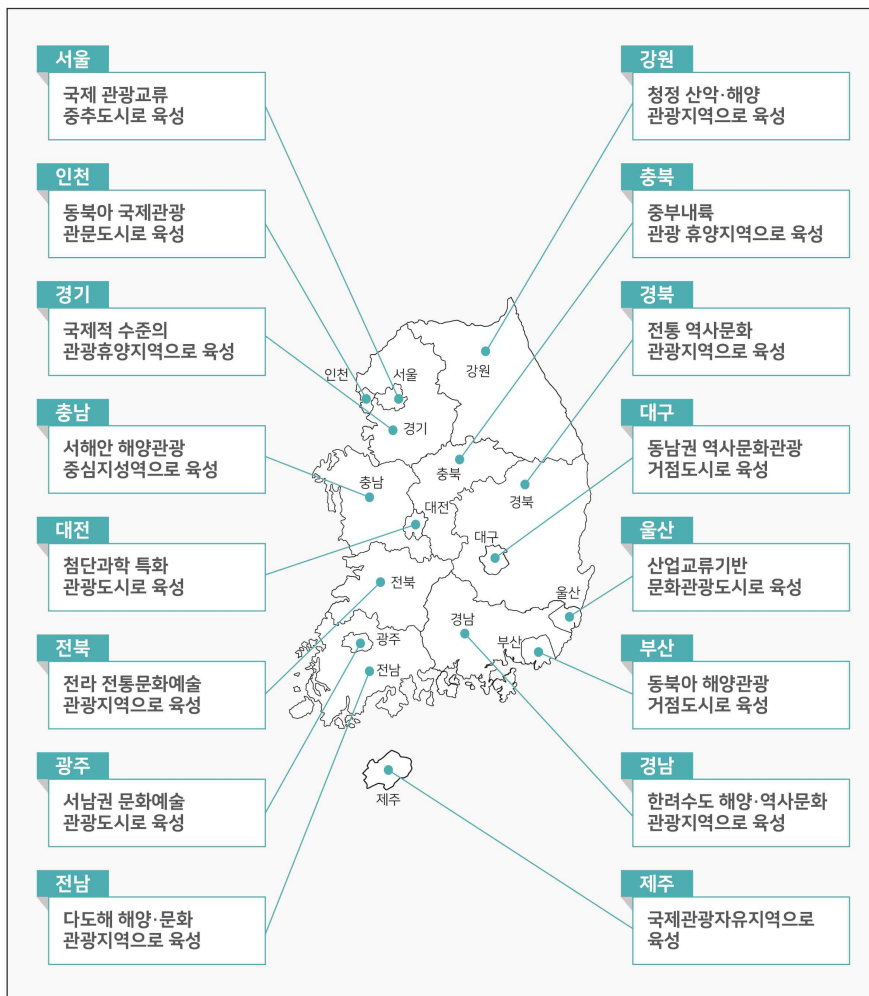


[그림 5-1]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하며, 시·도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당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촉진, 지역특성화와 연계화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관광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 추진,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체계 구축 등 7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5-2]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구분도

또한 기존 7대권 24개 소권 체제하에서 문제점 및 한계로 제기되어 왔던 관광권역과 집행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실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권역의 구분을 16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을 기초로 각 지자체별로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2~2006)과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당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1) 계획 개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수립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동 계획에서는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이라는 비전하에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 6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권역 설정에 있어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변화하는 행정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하여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계획 관광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안 관광벨트 등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다.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을 기초로 각 지자체별로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2~2016) 및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전략별 추진계획

[전략 1]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재생정책 추진
 - 관광지 리모델링, 관광단지 민자 유치 활성화
 -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관광자원 등급제 도입
- 관광개발 민간참여 확대
 - 민자 유치선도 프로젝트 개발·지원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공모절차 개선, 전문 인력 육성 등 관광개발 사후 운영·관리 활성화 정책 추진
- 관광 R&D 기능 강화
 - 내·외부적으로 개방적인 통합적 관광 R&D 지원시스템 구축
 - 안전사고,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체계 도입

[전략 2]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新 관광개발 영역 발굴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
 - 우주관광시대에 대비한 우주체험 관광지대 육성 및 인프라 확충
- 복·융합 관광개발 확대
 - MICE, 의료, 크루즈, 쇼핑, 음식 등 복·융합 관광개발 집중 추진
- 산업관광 활성화
 - 산업관광 전략 거점으로 잠재성 높은 지역 개발, 산업관광 벨트로 확대
 - 산업유산과 유휴문화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개발

[전략 3]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문화가 흐르는 도시 관광 구축
 - 도시 내 쇼핑시설, 역사문화자원, 교통시설 등 도시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 생태관광도시·문화 관광도시, 테마별 예술관광 특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신규 관광자원 개발
 - 농·산·어촌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마을 육성
 - 폐교, 폐광, 폐염전 등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

○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 한류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와 시설을 연계한 한류문화의 전당 조성
- 5대 고궁을 각각 특성화하고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자연·기록·무형 유산의 관광자원화

[전략 4]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

-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 및 선진화
- 관광 교통수단간 연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폰 기반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확충

○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TCB) 모델로서 국민 가족휴양촌 조성
- 리조트형 실버복합타운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 취약계층의 관광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

- 노인·장애인 등의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역 선정·지원
- 여행바우처 수혜대상 범위 확대 등 여행지원

[전략 5]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확산

○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관광자원의 특성과 수용력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관광 모델 선정·개발
- 관광사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시행
- 관광개발의 절차, 적용 가능한 친환경 공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감 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과 확산

- 생태관광거점지역을 국제 생태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
-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 관광지(carbon neutral area) 지원 및 육성
-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에너지원을 대체에너지로 단계적 전환 유도

[전략 6]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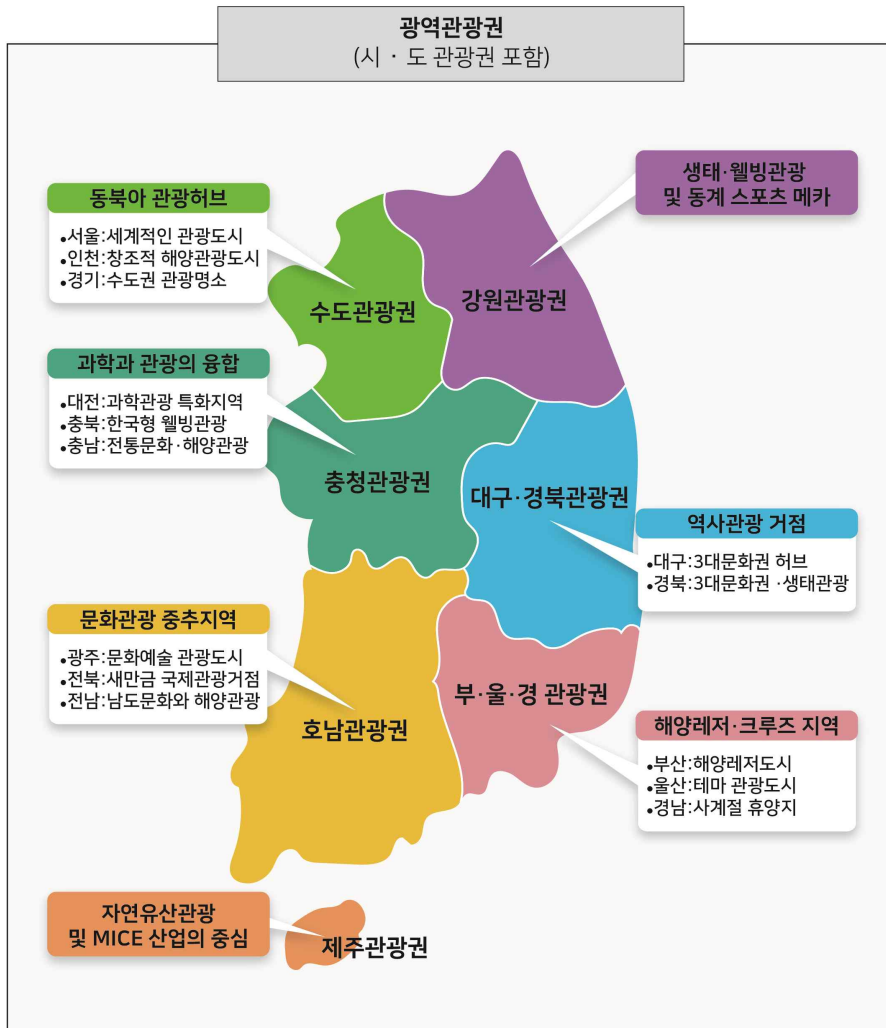
○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 구축

- 관광대표부 설치, 관광자원 공동조사 등 남북관광 협력채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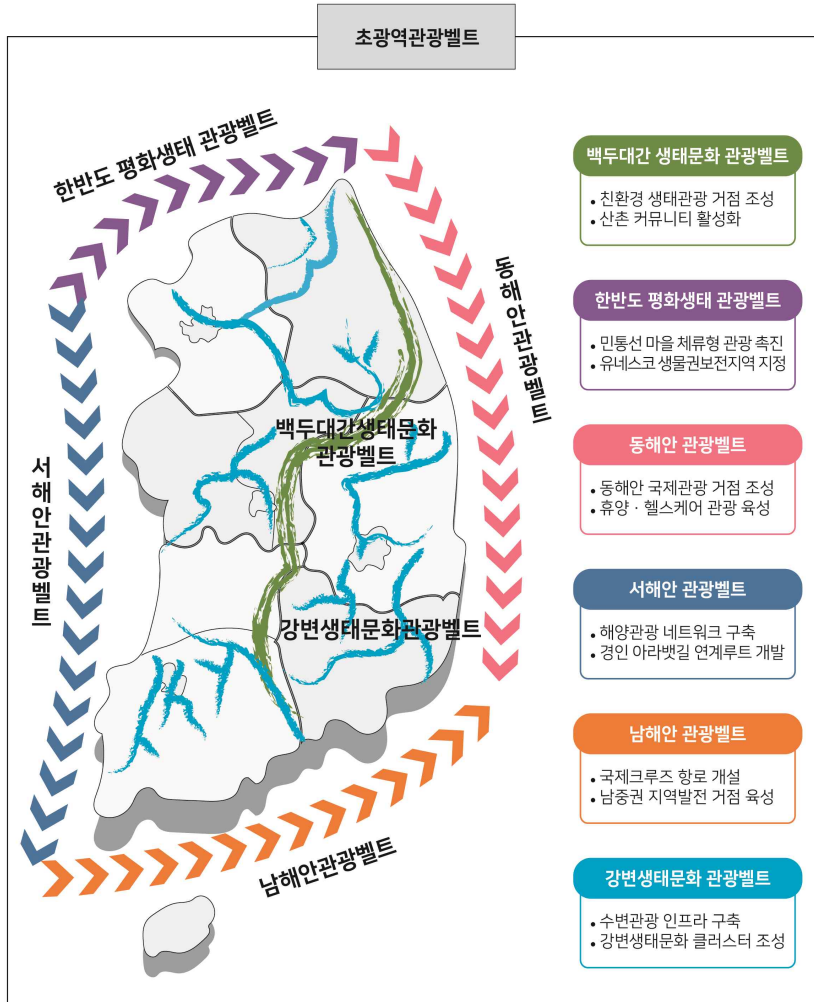
- 남북한 관광 주요거점과 중국, 러시아 등을 연계하는 초광역적 관광벨트 설정 등 북한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DMZ 국제 생태투어 프로그램, 남북 주요 관광지 연계코스 등 한반도 공동 관광상품 개발

○ 동아시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 동아시아 관광객 접근 편의성 개선, 관광 인적자원 교류사업 추진 등 역내 관광교류 촉진
- 동아시아 통합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공동 관광지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동북아 공동 R&D 프로그램 운영
- 동아시아 국가 간 관광협의회·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그림 5-3]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그림 5-4]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3)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2~2016)

① 수도 관광권

○ 서울특별시

- 비전 :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 서울
- 목표 : 세계관광경쟁력 Top 15
- 전략 : 열린 서울, 매력 서울, 만족 서울, 활력 서울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110,884천 명
(국내 관광총량 : 53,068천 명, 외래 관광총량 : 57,815천 명)

○ 인천광역시

- 비전 : “세계인이 교류하는 창조적 해양관광도시” Creative Marine Tourist City with World
- 목표 : 창조 관광도시, 해양녹색 관광도시, 관광교류 거점도시
- 전략 : 인천형 창조관광 진흥, 해양·도서 및 녹색관광 육성, 문화관광거점 조성 및 산업 육성, 국내·외 관광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 관광교통·안내체계 혁신 및 마케팅 활동 정비, 인천형 관광비즈니스 기획과 일자리 창출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21,753천 명
(국내 관광총량: 20,046천 명, 외래 관광총량: 1,707천 명)

○ 경기도

- 비전 :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창조관광 여건조성과 사업 창출
- 목표 : 경기도의 다양성을 응집하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관광구상, 수도권 관광의 허파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관광지역으로 육성, 동북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사업 구상,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창조적 관광 구상, 효율적 관광실행 체계의 구축
- 전략 : 지역별 공유된 자원을 테마화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이미지의 통합적 실현을 통한 차별화 실시, 삶의 숨골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공간의 제공, 동아시아 경제권의 확대 및 중국관광시장 급부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 신성장 관광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창조적 문화관광공간의 구상, 다양한 시설 및 제도로 인프라 개선, 관광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현성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효율적인 실행체계의 구축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91,960천 명
(국내 관광총량: 90,207천 명, 외래 관광총량: 1,753천 명)

② 충청 관광권

○ 대전광역시

- 비전 : 웰빙·창조관광을 선도하는 녹색 과학 관광도시 대전
- 목표 : 녹색웰빙 관광도시, 창조과학 관광도시, 체험문화 관광도시
- 전략 : 체험형 녹색관광환경 조성, 대전형 웰빙관광환경 조성,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첨단의료관광산업 육성, 도심관광형 복합치유벨트 조성, 유성복합 온천관광단지 조성, 첨단과학관광 테마파크 조성, 성북지구 관광단지 조성,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 확충, 관광홍보 및 안내기능 강화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9,934천 명
(국내 관광총량: 9,605천 명, 외래 관광총량: 329천 명)

○ 충청북도

- 비전 : 백두대간의 중심축, 중부내륙의 보석 테마형 관광충북 실현
- 목표 : 21C 친환경 녹색관광의 중심지, 충북관광의 대내·외적 경쟁력 제고, 창의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 전략 : 테마형 친환경 관광체계 구축,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특색 있는 관광 자원 발굴 및 관광 상품화, 효율적인 관광 지원체계 확립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23,541천 명
(국내 관광총량: 23,038천 명, 외래 관광총량: 503천 명)

○ 충청남도

- 비전 : 국민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愛鄉 충남
- 목표 : 국토중심 전 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랑인 '휴양관광', 구석구석 균형성장하는 '산업관광'
- 전략 :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관광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 국민관광지 조성촉진 및 관광루트 활성화, 소통과 만남의 연대공정여행 추진, 소외계층의 관광사업 강화와 유니버설 관광지, 지역문화권 관광사업화와 국제휴양관광명소 육성, 특색 있는 유무형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로 녹색 산업관광 육성, 지역정체성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 도모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39,521천 명
(국내 관광총량: 39,138천 명, 외래 관광총량: 383천 명)

③ 호남 관광권

○ 광주광역시

- 비전 :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창조
- 목표 : 국제적인 문화·예술 관광도시 환경조성, 3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호남권 관광 허브도시 구축, 관광추진시스템 구축
- 전략 : 도시 관광 거점명소 개발, 근교 녹색생태문화관광 자원개발, 관광명소를 연계한 도시 관광 「길」 조성, 예술 공연 및 전시 관광상품 개발, 축제 및 MICE산업 육성, 관광객 유치 및 관광마케팅, 호텔·음식·쇼핑 관광산업 육성, 홍보 및 관광마케팅, 호남권 관광연계 네트워크 구축, 관광 추진 거버넌스 구축, 공정관광 및 일자리 창출, 관광통계 및 관련 DB 구축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9,640천 명
(국내 관광총량: 9,548천 명, 외래 관광총량 91천 명)

○ 전라북도

- 비전 :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국형 관광수도, 전북
- 목표 : 관광자원의 폭 확대,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구축, 친시장환경체계 구축, 도 내 지역주민 여가활용 기회 확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전략 : 북·융합관광을 통한 관광시장 확대, 고부가 관광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친시장 관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32,906천 명
(국내 관광총량: 32,773천 명, 외래 관광총량: 133천 명)

○ 전라남도

- 비전 : 동북아 생태·해양관광 중심지 “전라남도”
- 목표 : 해안·섬·갯벌이 어우러진 해양휴양관광지대 조성, 청정자연으로 녹색의 힘이 느껴지는 녹색관광 추구, 남도의 맛, 온화한 기후와 북·융합화를 통한 웰빙관광 테마화, 고향의 정, 삶이 풍요로운 한국인의 고향 같은 생활관광지대
- 전략 : 해양도서자원의 휴양·여가지대 기반조성, 저탄소형 녹색관광 특화 및 콘텐츠 강화, 지역 간 연계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향토자원의 북·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매력 증진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46,012천 명
(국내 관광총량: 45,934천 명, 외래 관광총량: 78천 명)

④ 대구·경북 관광권

○ 대구광역시

- 비전 : 3대문화권의 지식관광 중심도시
- 목표 : 지역매력 발산, 삶의 질 제고, 자긍심 고취, 부가가치 창출
- 전략 : 대경권 지식관광 중심지화, 도심부 문화정체성 극대화과 대구 관광 중심지화, 생활관광 기능 강화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대구 관광 브랜드제고를 위한 스마트 마케팅, 지역관광 성장을 위한 관광 휴먼웨어 경영, 광역연계 협력으로 지역상생 기회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16,671천 명
(국내 관광총량: 16,411천 명, 외래 관광총량: 260천 명)

○ 경상북도

- 비전 :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
- 목표 :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 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
- 전략 :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3대 문화권 글로벌화, 시대 흐름을 대비한 관광(단)지 리노베이션, 재미와 감동을 주는 소프트 관광콘텐츠 개발, 新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경북관광 브랜드 발굴, 지역 특화산업 융·복합형 관광 비즈니스 기반 확충, 관광경북 실현을 위한 초광역 관광클러스터 구축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43,096천 명
(국내 관광총량: 42,552천 명, 외래 관광총량: 544천 명)

⑤ 부·울·경 관광권

○ 부산광역시

- 비전 : 글로벌 해양 엔터테인먼트 관광도시 부산
- 목표 : 강·바다 체험 해양 관광도시, 산업·콘텐츠 융합 창조 관광도시, 예술·축제 체험 글로벌 관광도시, 스마트 기반 U-관광도시
- 전략 : 해양레포츠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블루투어리즘 기반조성, 저탄소 녹색 생태 관광도시 기반조성, 신성장 관광산업(영상, 의료, 컨벤션) 기반조성,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기반 조성, 시민이 향유하는 여가·복지관광 추진, 4계절 관광 자원 및 상품 발굴·육성(쇼핑, 축제 등), U-Tourism 등 관광 수용태세 재정비 및 관광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목표시장 중심)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31,583천 명
(국내 관광총량: 29,601천 명, 외래 관광총량: 1,981천 명)

○ 울산광역시

- 비전 : 체험과 배움, 감동이 있는 감성체험 신관광도시 울산
- 목표 : 생태와 산업이 결합된 브랜드형 신흥관광도시, 울산 1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명소형 관광도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관광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스마트 관광도시
- 전략 : 고래 테마의 관광상품 체계화, 산업관광의 네트워크화, 태화강의 녹색관광 상품화, 기존 특화 관광자원의 상품성 강화, 신규 이야기 자원의 명소형 관광자원

육성, 울산 12경 관광상품화, 강동권 국제적인 관광기반 확충, 영남 알프스 산악 관광 활성화, 교통 관광상품의 다변화, 숙박시스템의 정비·구축, KTX 개통에 따른 관광시스템 개선, 관광 안내 및 홍보체계 선진화, 도심관광 지원체계 확충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8,758천 명
(국내 관광총량: 7,948천 명, 외래 관광총량: 810천 명)

○ 경상남도

- 비전 : 동북아 사계절 관광·휴양 중심지
- 목표 :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 창출, 꼭 한번 가고픈 경남 - Only One!, 매력과 활력 넘치는 경남관광, 신산업과 융복합된 관광 창출, 복지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전략 : 동북아 관광의 거점지 구축 외 3개 전략, 한려해상의 수려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 기반 구축 외 3개 전략,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외 3개 전략, 로봇랜드의 경남 관광랜드마크화 추진 외 3개 전략, 도민 생활체육 기회의 확대 외 2개 전략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52,389천 명
(국내 관광총량: 52,010천 명, 외래 관광총량: 379천 명)

⑥ 강원 관광권

- 비전 : 글로벌 생명·건강관광 메카(동북아 관광휴양거점)
- 목표 : 순환과 재생의 발전기반 구축, Emerging Sector 발굴을 통한 지역자원 가치화, 지역 어메니티를 살린 관광환경 조성,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 수요(2016년 기준) : 관광총량 71,320천 명
(국내 관광총량: 70,285천 명, 외래 관광총량: 1,035천 명)

⑦ 제주 관광권³¹⁾

-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확대 및 관광자원화
-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핵심 산업과의 복·융합
- 지역고유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쇼핑관광 육성

31)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4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관광개발계획 수립함

4)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

① 계획 수립의 의의

○ 5년간(2017~2021) 정책적 전략 확정

- 권역계획은 각 권역별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수단 마련과 시책의 체계화 등 관련 수단을 종합
- 사회·문화적, 정책적 현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확산하고 관광개발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총체적 추진전략을 확정

○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방안 정립

-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계획 수립 참여자로 유도하고 관광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권역계획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 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오그웨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획
-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권역계획 수립과 관광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분열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

○ 국토공간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관광개발정책 수법의 연속성 확보

- 지역관광개발정책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국토공간과 관련된 계획 체계의 변화와 제3차 기본계획(2012~2021)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 주민 주도의 맞춤형 관광과 지역공간에 대한 테마형 패키지(통합) 계획을 통한 종합적 시책 및 다핵화 전략을 마련

○ 지역관광경쟁력 강화와 국제관광시대의 기틀마련

- 권역계획은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적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서비스로 방문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관광의 기틀을 마련
- 국가 중심 경쟁패러다임에서 지역 또는 도시단위의 경쟁패러다임으로의 변화되는 시대적 조류를 수용하여 지역 중심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모색

② 시간적 범위

- 기준 년도 : 2015년
- 계획 기간 : 2017~2021년 (5년)
- 검토 및 조정 기간 : 2016.4.~2017.5.

③ 공간적 범위

-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도 8개, 특별자치시 1개로 구성되며, 총 6대권³²⁾ 16개 권역으로 설정
- 권역계획(16개 권역) 공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면적은 98,454km²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100,295km²)의 98%를 차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권역계획 수립과 검토·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주특별법」 제2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권역계획으로 같음

④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관광여건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 집행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8개 항목으로 구성됨
- ① 권역의 관광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② 권역의 관광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③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④-①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⑥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⑦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 관광여건에는 관광수요, 지역관광자원현황, 수급분석 등이 포함되며,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에는 관광지 조성·정비·보완 등에 대한 사항과 관광지 연계사항, 추진사항 등으로 구성

32) 1대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대권(강원도, 충청북도), 3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4대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5대권(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6대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1) 계획 개요

정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기간(2012년~2021년) 만료에 따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년~2031년, 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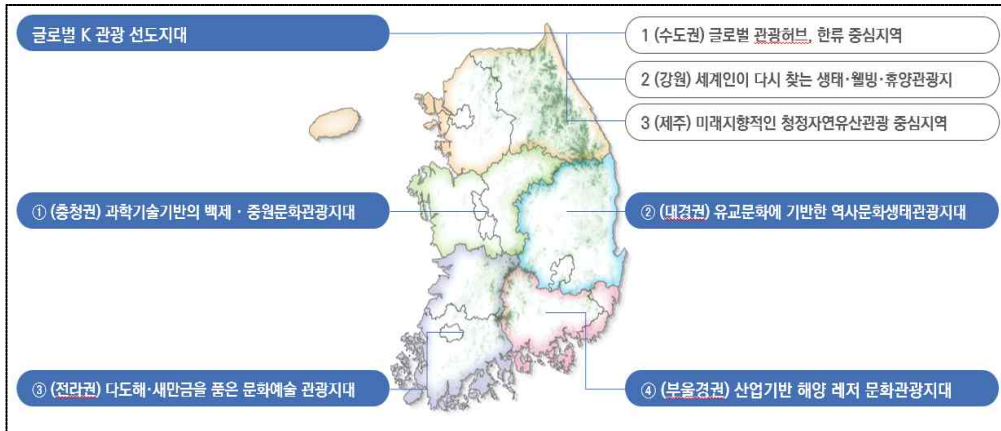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였고,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관광여건과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관광이 일상화되어 앞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플랫폼(OT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변화된 관광흐름에 맞게 지역관광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4차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능형(스마트)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강원·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나머지 4개 권역(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을 구분해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림 5-5]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개발 방향

2) 전략별 추진계획

[전략 1]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 미래유망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 발굴

- 실감콘텐츠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간접체험하는 관광상품 개발
- 관광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메타버스 관광지 조성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 테마공원 조성
- 비엔날레 등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궁궐, 사찰, 서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관광트렌드 주도형 관광개발 추진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위케이션 관광지 조성
- 저밀도·청정 관광지 중심의 비대면 관광 활성화 및 웰니스 관광거점 조성
-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전략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추진

- 관광지 조성 시 탄소중립 인증제 도입

- 관광지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조성
- 준공 후 10년 경과한 노후 관광지 그린 리모델링 추진
-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 생태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생태복원형 관광개발 추진
 - 유사한 테마를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광역루트 발굴
 - 환경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 유희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 디자인, 건축, 예술을 접목하여 지역관광명소 재생
 -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이 결합된 유희시설 관광자원화
 - 스키장 등 비수기가 뚜렷한 관광지에 유희시간 활용형 관광개발 추진

[전략 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광교통 체계 구축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연계형 관광교통체계 구축
 - 드론·해상택시, 관광트램 등 신개념 교통서비스 확충
- 안전·안심·안내 스마트관광 환경 구현
 - 관광지 방역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
 - 스마트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 숙박·식음·쇼핑시설 관광명소화
 - 마을형 숙박, 요트숙박, 트리하우스 등 이색 숙박시설 확대
 -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을 통해 식음·쇼핑시설 관광명소화

[전략 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
 - 주민사업체의 권역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관광두레 2.0' 추진
 - 지역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개발' 추진
 - 지역관광 전반에 대한 주민회의체계인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 자립형 지역관광 주체 육성
 -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 발굴 및 육성

- 다양한 지역활동가가 참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양성
-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 지역관광 성장 허브로서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설치(4개소→17개소)
 - 음식·쇼핑·체험상품의 집적을 통한 지역관광상권 활성화 추진
 - 6차 산업 중심 지역특화산업시설의 관광(단지 내 제한적 도입

[전략 5]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

- 지역관광거점 중심 관광개발 확산
 -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관광권(광역연합관광권) 개발 추진
 - 매력적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방관광축 구성
- 남북한 및 다자간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마을 조성 등 남북관광 연계 및 공동개발 추진
 - 관광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중·일 공동관광권 형성
-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 추진
 - 범부처 관광협력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 체류형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생태·산림·해양 치유관광 활성화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육상, 수상, 항공 등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

[전략 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 관광자원개발 법·제도 정비
 - 우수 관광지를 선정·지원하는 국가관광지 지정제 도입
 - 관광 유관계획 검증을 위한 관광개발계획평가 제도 도입
 - 체계적 개발체계 마련을 위한 독립적 관광개발 법률 마련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될 관광개발 표준지침 보급
 - 지역관광개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역관광 컨설팅 추진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
 - 지역관광발전지수 등 지역관광 진단지표 고도화
 - 빅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관광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 맞춤형 정보 및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3)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

① 수도·강원권

○ 서울특별시

- 비전 및 목표 : 고품격 글로벌 관광매력 도시 서울
- 전략 : 글로벌 관광경쟁력 확보로 관광목적지 이미지 개선, 서울시민 관광여가 기반 구축과 국내관광활성화,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환경조성 기반 구축, 디지털 전환으로 관광자원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개선, 관광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생태계 체질개선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40,847천 명
(국내 관광총량: 21,731천 명, 외래 관광총량: 19,116천 명)

○ 인천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
- 전략 : 지역 고유 특성인 '인천다움' 발굴 및 '인천다움'의 관광 콘텐츠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관광산업의 지역 내 산업 연줄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화 및 뿌리내림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135,830천 명
(국내 관광총량: 133,160천 명, 외래 관광총량: 2,670천 명)

○ 경기도

- 비전 및 목표 : 모두를 위한 관광, 글로벌 관광경기
- 전략 :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관광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64,876천 명
(국내 관광총량: 62,059천 명, 외래 관광총량: 2,817천 명)

○ 강원도

- 비전 및 목표 :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
- 전략 :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공간의 변용에 대응,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형 강원관광, 강원도의 개성을 드러내는 관광콘텐츠와 자원의 특화, 강원관광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강원도 중심의 관광분권 체계화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49,353천 명
(국내 관광총량: 47,867천 명, 외래 관광총량: 1,486천 명)

② 충청권

○ 대전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소확행 경험 가치를 실현하는 중부권 허브 관광도시, 대전
- 전략 : 역사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관광 숙원사업 공간 창출, 분포된 녹색 자원을 활용한 관광 클러스터 이원화 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력적인 거점형·테마형·맞춤형 대전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 매력성 확보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마케팅 이원화 계획 수립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17,438천 명
(국내 관광총량: 17,100천 명, 외래 관광총량: 338천 명)

○ 세종특별자치시

- 비전 및 목표 : 모두가 행복한 나들이, 관광행복도시 세종
- 전략 : 일상에서 떠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모두가 편리한 관광플랫폼 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마련, 합리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27,629천 명
(국내 관광총량: 27,620천 명, 외래 관광총량: 1천 명)

○ 충청북도

- 비전 및 목표 : 미래관광 재설계 융·복합 관광거점 충북
- 전략 :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도시관광 매력 확충 및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 충북 관광 브랜딩 및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9,498천 명
(국내 관광총량: 9,330천 명, 외래 관광총량: 168천 명)

○ 충청남도

- 비전 및 목표 : 일상을 선물하는 충남, 발길이 머무는 행복관광 충남
- 전략 : 해륙자원을 활용한 여가체험 휴양지역 조성, 찬란한 히스토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및 편의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기반 생태관광 및 에코관광환경 기반 마련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5,470천 명
(국내 관광총량: 5,100천 명, 외래 관광총량: 370천 명)

③ 전라권

○ 광주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문화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관광도시 광주
- 전략 : 킬리콘텐츠 확충을 통한 3향(예향, 의향, 미향)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 추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광주만의 생태관광환경 조성, 광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연계·협력·홍보 강화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5,620천 명
(국내 관광총량: 5,440천 명, 외래 관광총량 180천 명)

○ 전라북도

- 비전 및 목표 : 천년역사·문화여행 체험1번지, 전북
- 전략 :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3,470천 명
(국내 관광총량: 3,080천 명, 외래 관광총량: 390천 명)

○ 전라남도

- 비전 및 목표 : 해양·생태 관광중심, 블루투어 전남
- 전략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스마트형 블루투어 관광콘텐츠 발굴,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형 연계관광루트 개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연대기적 에듀테인먼트형 관광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3,410천 명
(국내 관광총량: 3,210천 명, 외래 관광총량: 200천 명)

④ 대구·경북권

○ 대구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미래혁신형 글로벌 관광도시, 대구
- 전략 : 대한민국 대표 내륙관광 중심도시, 디지털 관광 선도도시, 매력적인 에코관광 도시, 창의적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11,760천 명
(국내 관광총량: 11,230천 명, 외래 관광총량: 530천 명)

○ 경상북도

- 비전 및 목표 : 세례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 거점
- 전략 :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지역 기반의 새로운 관광매력 발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마케팅 전개, 지속가능한 관광혁신체계 마련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35,353천 명
(국내 관광총량: 34,812천 명, 외래 관광총량: 541천 명)

⑤ 부·울·경 관광권

○ 부산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모두의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부산
- 전략 : 해양의 열린 관광, 시대를 잇는 관광, 자연 속 하나되는 관광,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광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29,347천 명
(국내 관광총량: 26,438천 명, 외래 관광총량: 2,909천 명)

○ 울산광역시

- 비전 및 목표 : 어울림 생태관광도시, 울산
- 전략 :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체류도시 도약, 생태와 산업이 조화로운 관광특화도시 구축, 관광객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친화도시 조성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6,028천 명
(국내 관광총량: 5,848천 명, 외래 관광총량: 180천 명)

○ 경상남도

- 비전 및 목표 : 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거점
- 전략 :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도민의 삶과 문화를 연계한 경남형 생활밀착형 공간 창출
- 관광 수요(2026년 기준) : 관광총량 35,300천 명
(국내 관광총량: 34,860천 명, 외래 관광총량: 440천 명)

2. 관광지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휴양·오락시설 및 기타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력 단련장,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휴양·오락시설(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공공 또는 민간 투자를 통해 조성한다. 정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추어 관광지를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관광개발에서 선택과 집중, 네트워크화, 지방분권형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권한을 2005년 4월 17일자로 시·도지사에 이양하였으며, 동시에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 후 2년 이내 조성 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 현황은 총 227개소로 <표 5-1>과 같다.

〈표 5-1〉 관광지 지정 현황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	태종대, 금련산, 해운대, 용호씨사이드, 기장도예촌
인 천	2	서포리, 마니산
대 구	2	비슬산, 화원
경 기	14	대성, 용문산, 소요산, 신록사, 산장, 한탄강, 산정호수, 공릉,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궁평
강 원	41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흥천온천, 후곡약수, 어흘리, 등명,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아우라지, 유현문화, 동해 추암, 영월 마차탄광촌, 평창 미탄마하 생태, 속초 척산온천, 인제 오토테마파크, 지경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충 북	22	천동, 다리안, 송호, 무극, 장계, 세계미술공원, 충은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수옥정, 능강, 금월봉, 속리산레저, 계산, 괴강, 제천온천,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 구병산, 레인보우힐링
충 남	25	대전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마곡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종합휴양,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간월도, 난지도, 왜목마을, 남당, 서동요역사, 만리포
전 북	21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마이산회복, 모악산, 내장산리조트, 김제온천, 응포, 모항, 왕궁보석테마, 백제가요정읍사, 미륵사지, 오수의견, 벽골제, 변산해수욕장
전 남	28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 대구도요지, 불갑사,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 화산연꽃방죽, 홍길동테마파크, 아리랑마을, 정남진 우산도-장재도, 신지명사십리, 해신장보고, 운주사, 영암 바둑테마파크, 사포
경 북	32	백암온천, 성류굴, 경산온천,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울릉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청도온천, 치산, 용암온천, 탑산온천, 문경온천, 순흥, 호미곶, 풍기온천, 선바위, 상리, 하회, 다덕약수, 포리, 청송 주왕산, 영주 부석사, 청도 신화랑, 울릉개척사, 고령 부례, 회상나루, 문수, 예천삼강, 예안현
경 남	21	부곡온천, 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송산, 미금산온천,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송정, 벽계, 장목,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하동 목계(청학동), 거가대교
제 주	14	돈내코, 용머리,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봉개휴양림, 토산, 미천굴, 수망, 표선, 제주돌문화공원, 광지, 제주상상나라탐라공화국
합 계	22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관광단지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2020년까지 4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21년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가 신규 지정되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관광단지 현황은 총 47개소이며 <표 5-2>와 같다.

정부는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포함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세(25%, 조례에 따라 추가로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준보전산지) 및 대체초지조성비의 100% 면제 등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에서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관광휴양·오락시설)하였고,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50:50의 비율로 정하는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관광단지는 건강·교육·체험 등 다양한 관광수요를 특징으로 하는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특성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표 5-2〉 관광단지 지정 현황

지역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사업 기간	규모 (km ²)	실집행 사업비 (억 원)	개발주체	주요 도입시설
부산 (1)	오시리아 (舊동부산)	2005.3. (2006.4.)	2006 ~2023	3.662	11,589	부산도시공사	호텔, 콘도, 리조트, 복합쇼핑몰, 골프장, 테마파크, 녹지시설 등
인천 (1)	강화 종합리조트	2012.7. (2012.7.)	2012 ~2020	0.652	1,402	해강개발(주)	콘도미니엄, 루지코스, 전망휴게소 등
광주 (1)	어등산	2006.1. (2007.4.)	2005 ~2024	2.736	1,195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골프장, 경관녹지 등
울산 (1)	강동 관광단지	2009.11. (2014.12.)	2013 ~2023	1.367	1,756	울산시 북구청	콘도, 호텔, MICE복합센터, 워터파크, 수련시설, 오토캠핑장 등

지역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사업 기간	규모 (km ²)	실집행 사업비 (억 원)	개발주체	주요 도입시설
경기 (2)	평택호	1977.3. (1979.2.)	2009 ~2023	0.663	256	평택도시공사	관광호텔, 쇼핑몰, 워터레포츠, 테마파크, 수변공원, 캠핑장 등
	안성죽산	2016.10. (예정)	2014 ~2025	1.438	-	(주)송백개발, (주)서해종합건설	골프콘도, 휴양콘도, 워터파크, 캠핑장, 컨벤션센터, 힐링센터 등
강원도 (14)	델피노 골프앤리조트	2012.5. (2012.5.)	2010 ~2021	0.900	4,615	(주)대명레저산업	콘도, 호텔, 골프장 등
	설악 한화리조트	2010.8. (2010.8.)	2010 ~2025	1.333	2,266	한화호텔앤드 리조트(주)	콘도, 운천장, 레이크가든, 골프장 등
	오크밸리	1995.3. (1996.2.)	1995 ~2025	11.350	18,605	한솔개발(주)	가족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미술관, 에코파크, 수목정원 등
	신영	2010.2. (2010.5.)	2010 ~2023	1.695	1,997	신영종합개발(주)	골프장, 스키장, 콘도, 커뮤니티센터 등
	라비에벨 (舊무릉도원)	2009.9. (2009.9.)	2009 ~2022	4.844	5,985	코오롱글로벌(주)	한옥호텔, 콘도, 골프장, 세계풍물거리, 힐링&클리닉센터, 명품아울렛 등
	대관령 알펜시아	2005.9. (2006.4.)	2004 ~2028	4.837	16,644	강원개발공사	호텔, 콘도, 명품아울렛,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
	용평	2001.2. (2004.3.)	2002 ~2025	16.219	27,577	(주)용평리조트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유스호텔 등
	휘닉스파크	1998.10. (1999.3.)	1994 ~2023	4.233	9,769	휘닉스중앙(주)	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다목적운동장, 유스호텔 등
	비발디파크	2008.11. (2011.1.)	2007 ~2021	7.052	13,534	(주)소노호텔앤리조트, (주)대명소노, (주)대명티피앤이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스키장, 골프장, 승마장, 호수공원, 체험마을 등
	웰리 힐리파크	2005.6. (2012.7.)	1992 ~2025	4.831	7,473	신안종합리조트(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친환경놀이공원, 오토캠핑장 등
	더네이처	2015.1. (2015.1.)	2019 ~2025	1.444	309	경안개발(주)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골프장, 아이스링크, 야영장, 자동차극장 등
	양양 국제공항	2015.12. (2015.12.)	2013 ~2025	2.730	2,423	(주)새서울레저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생활숙박시설, 아울렛몰, 골프장 등
	드림마운틴	2016.3. (2017.6.)	2017 ~2023	1.797	5,300	(주)케이엔드씨	생활숙박시설, 가족호텔, 워터파크, 스키장, 동계스포츠체험장 등
	원주 루첸	2017.4. (예정)	2018 ~2022	2.644	240	(주)지프러스	콘도미니엄, 테마스토어, 골프장, 승마장, 스키장, 숲체험원 등
충북 (1)	증평 에듀팜특구	2017.12. (2017.12.)	2017 ~2022	2.623	1,892	(주)블랙스톤에듀팜 리조트	휴양콘도, 관광펜션, 루지, 골프장, E-레포츠, 농촌휴양테마파크 등

지역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사업 기간	규모 (km ²)	실집행 사업비 (억 원)	개발주체	주요 도입시설
충남 (2)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2011.12. (2013.6.)	2013 ~2020	1.692	1,157	(주)골드힐	콘도, 가족호텔, 골프장, 저수지 등
	백제문화	2015.1. (2015.1.)	2015 ~2020	3.026	6,211	(주)호텔롯데	콘도, 스파빌리지, 골프빌리지, 아울렛, 골프장, 전통민속촌, 에코파크 등
전북 (1)	남원 드래곤	2018.9. (2018.9.)	2018 ~2022	0.795	1,903	신한레저(주)	대중골프장, 가족호텔, 한옥호텔,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아트뮤지엄 등
전남 (6)	고흥우주 해양리조트특구	2009.5. (2009.2.)	2008 ~2020	1.158	150	고흥군, 동호(주)	콘도, 호텔, 골프장, 우주해양전망대, 종합해양레포츠센터, 미리내조각공원 등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2003.10. (2006.5.)	2003 ~2024	8.974	1,987	(주)아이제이 매그놀리아오픈 디오션호텔앤리조트	호텔, 콘도, 펜션, 골프장, 산악레저월드, 세계민속촌, 수목원, 복합힐링타운 등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2009.12. (2009.12.)	2017 ~2023	2.153	18,466	와이케이 디벨롭먼트(주)	호텔, 콘도, 레지던스, 골프장, 워터파크, 근린공원 등
	오시아노 관광단지	1992.9. (1994.6.)	1994 ~2018	5.073	3,022	한국관광공사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단지, 골프장, 마리나시설 등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2016.12. (2016.12.)	2016 ~2022	0.559	2,074	(주)소노호텔앤 리조트	호텔, 콘도, 산림체험학습관, 힐링파크, 진도전통문화체험관 등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2019.5. (2019.5.)	2018 ~2025	0.510	-	여수챌린지파크관광 (주)	호텔, 풀빌라, 컨벤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챌린지파크, 루지 등
경북 (6)	감포해양 관광단지	1993.12. (1997.3.)	1997 ~2025	4.019	2,997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장, 오션랜드, 씨라이프파크, 연수원, 수목원 등
	보문관광단지	1975.4. (1973.5.)	1973 ~2023	8.515	14,780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호텔, 콘도, 골프장, 놀이공원, 신라촌, 연수원, 관광야어장, 식물원 등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1994.3. (1994.5.)	1994 ~2022	6.419	3,274	(주)엠오디	콘도, 펜션, 상가, 야생동물방사공원, 캠핑장, 골프장, 루지 등
	김천온천 관광단지	1996.3. (1997.12.)	1997 ~2011	1.424	359	(주)우촌개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온천장, 스포츠센터, 골프장, 노인휴양촌 등
	안동문화 관광단지	2003.12. (2005.4.)	2002 ~2025	1.655	3,320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호텔, 콘도, 골프장, 테니스장,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
	북경주 웰니스 관광단지	2021.7. (미수립)	2019 ~2026	810	1,600	-	-
경남 (3)	구산해양 관광단지	2011.4. (2015.3.)	2009 ~2020	2.843	1,290	창원시	웰니스타운, 골프장, 승마장, 연수원, 캠핑장, 별빛카페촌 등
	거제 남부	2019.5. (미수립)	2021 ~2028	3.694	-	-	-
	웅동복합레저	2012.2. (2013.7.)	2012 ~2019	2.101	2,534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호텔/빌리지, 대중골프장, 스포츠파크, 수변문화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등

지역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사업 기간	규모 (km ²)	실집행 사업비 (억 원)	개발주체	주요 도입시설
제주 (8)	록인제주	2013.12. (2013.12.)	2013 ~2022	0.523	600	(주)록인제주	콘도미니엄, 테마상가, 연수원, 블로장생테마파크 등
	성산포 해양	2006.1. (2006.1.)	2003 ~2021	0.654	2,406	휘닉스중앙제주(주)	호텔, 콘도미니엄, 엔터테인먼트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전시관 등
	신화 역사공원	2006.12. (2006.12.)	2006 ~2021	3.986	21,571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호텔, 콘도, MICE 및 워터파크, 테마파크, 승마장, 테마거리, 항공우주박물관 등
	제주 헬스케어타운	2009.12. (2009.12.)	2008 ~2021	1.539	15,674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웰니스몰, 워터파크, 명상원, 전문병원 등
	중문	1971.5. (1978.6.)	1978 ~2023	3.562	201,553	한국관광공사	관광호텔, 콘도, 골프장, 중문랜드, 식물원, 야외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애월국제 문화복합단지	2018.5. (2018.5.)	2012 ~2023	0.588	4,934	(주)이랜드 테마파크제주	한옥리조트, 호텔, 콘도, 문화체험마을, 미술관, 테마정원, 공연장 등
	프로젝트 ECO	2018.5. (2018.5.)	2014 ~2022	0.699	1,903	(주)이랜드 테마파크제주	팜빌리지, 호텔, 승마장, 네이처플레이, 체험형농장, 도시농업센터 등
	묘산봉	1998.4. (2006.5.)	2006 ~2021	4.222	2,870	(주)제이제이 한라	콘도, 관광호텔, 골프장, 테마파크, 미술관, 식물원 등
계		47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5년 4월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역 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용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관광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광특구 평가 조항을 신설, 기존 관광특구 지정권자(시·도지사)의 자체 평가 이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관광특구 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관광진흥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특별시 50만 명) 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994년 8월 31일 관광특구로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해운대, 유성의 5개 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래, 2021년에 흥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새로 지정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13개 시·도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199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하던 관광특구 대상지역의 야간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자율화되면서 관광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2008년부터 지정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표 5-3〉 관광특구 지정현황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km ²)	지정 시기
서울(7)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일원	0.87	2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송인동 4거리)	0.54	2006.3.22.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3.15.
	강남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홍대 문화예술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고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1.13	2021.12.02.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1994.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2008.5.14.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8.31.
경기(5)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8.6.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장안구 일대	1.83	2016.1.15.
	파주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3.01	2019.4.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삼척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27	1997.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1997.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78.02	1997.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89	2007.9.28.
경북(4)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1.18.
	포항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2.41	2019.8.12.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	1997.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8.31.
13개 시·도 34개소			2,643.7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08년에는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부산 해운대특구 등 8개 우수 특구에 50억 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였고, 2009년은 주제 및 테마의 참신성, 개발 잠재력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강원 설악관광특구 등 5개 지역에 50억 원, 2010년에는 속리산관광특구 등 5개 지역, 2011년에는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등 5개 지역에 45억 원, 2012년도에도 월미 관광특구 등 5곳에 대하여 40억 원, 2013년도에도 명동 관광특구 등 5곳에 대하여 40억 원, 2014년도에는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등 7곳에 대하여 36억 원, 2015년도에는 종로 청계 특구 등 8곳에 28억 원, 2016년도에는 강원도 설악특구 등 5곳에 28억 원, 2017년도에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등 6곳에 26억 원, 2018년도에는 수원화성 특구 등 3곳에 대해 14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9년부터는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2개년도 지원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유성, 보은속리산 등 4곳에 11억 원, 2020년도에는 4곳 외에 통일동산, 포항 영일만을 포함하여 9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에는 월미 관광특구 등 5곳에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관광특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관광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 확대 및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관광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 광역권 관광개발

광역관광권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자연·문화·역사자원 부문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연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원의 개발·이용·관리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성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서해안,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및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에 시작하여 2009년 및 2010년에 완료되었고, 남해안권 및 경북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후속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해안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동북아 시대의 환동해권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2010년 시작하여 2021년에 완료하였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2010년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7년 시작되어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시작되어 2028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각 광역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관광관련 사업에 포함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3대 문화권이란 신라, 가야, 유교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3개의 문화권역을 지칭하며, 해당 지역은 3대 문화적 토양 위에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다양한 생태축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용역결과 총 50개 사업(타 부처 3개 사업 포함)에 약 4조 1,760억 원의 규모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조 5,473억 원(타 부처 3개 사업 포함)으로 대안이 제시되었다. 사업성과 조기 달성을 위하여 2010년 9개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이후 2011년 4월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업 착수 이후의 관광환경변화, 각종 제약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실시, 총사업비를 2조 1,150억 원(타 부처 기 추진 3개 사업 제외)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7월까지 추진한 2차 중간평가를 통해 관광진흥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며, 내역사업별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총사업비를 국비 1조 2,340억 원을 포함한 2조 1,086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2021년(12년 간)
- 사업지역 : 2개 시·도, 24개 시·군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안동, 영주, 문경, 상주, 경주, 김천, 영천, 경산, 구미, 포항, 봉화, 영양, 예천,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의성,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총사업비 : 21,086억 원(국비 12,340, 지방비 7,048, 민자 1,698)
- 사업내용 : 57개 사업(관광자원개발 46개, 광역연계사업 11개)

2) 계획수립 방향

- 3대 문화권의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풍부한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사업의 비전 및 목표 달성
 - 3대문화권(유교·가야·신라문화권)과 2대 생태축(백두대간, 낙동강)을 중심으로 자원의 정비, 활성화, 연계를 위한 공간체계와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도출

- 비전·목표·전략을 실현하고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우선 선도사업과 선도 사업 발굴
 - 사업선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외부 사업평가 위원회를 통한 사업 평가 실시

3) 추진현황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2008.9.)
- 3대 문화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협의회 개최(2009.4.)
- 3대 문화권 사업 설명회 개최(2009.6.)
- 선도 사업 계획 확정 통보 및 2010년 예산 집행(2010.12.)
-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완료(2011.4. 기획재정부/선도 사업은 2010.12. 완료)
- 3대 문화권 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추진(2013.9.~2014.8.)
- 3대 문화권 사업 모니터링 실시(2016.11.28.~12.16., 23개 시·군 37개 사업 현장점검 실시)
- 3대 문화권 2차 중간평가 연구용역 추진(2017.10.~2018.7.)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2010~현재)
 - 2010년 250억 원, 2011년 600억 원, 2012년 917억 원, 2013년 958억 원, 2014년 805억 원, 2015년 1,745억 원, 2016년 1,696억 원, 2017년 1,658억 원, 2018년 1,161억 원, 2019년 846억 원, 2020년 1,031억 원, 2021년 322억 원

〈표 5-4〉 2021년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추진기관명	국고지원액
대구	관광진흥사업	대구시	3,586
	낙동가람수변역사누림길	대구시	8,795
경북	관광진흥사업	경북도	3,728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안동시	2,661
	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시	2,330
	한국문화테마파크	영주시	4,018
	신라금속공예지국	경주시	4,445
	솔누리드림보세상	청송군	2,669
	8개 사업		32,2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향후 계획

-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 완료 및 사후 평가 실시

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출입이 제한된 세계 유일의 대치지역인 DMZ가 전쟁 및 냉전의 유산이란 기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확장된 평화·생명지대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50년 간 인위적 통제로 자연 생태를 간직하고 있는 민통선 출입 제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이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평화지대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6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서, 2009년은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해로 인천, 경기,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접경 10개 시·군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약 5,321억 원(민자 포함)을 투자하여 시·군별 독특한 테마성 부각, 콘텐츠 중심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비무장 인접 지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부처 간 중복사업 문제 제기 등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보고(2010.3.)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기본안이 마련되었다. 세부 실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77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1.4)를 통하여 세부 계획이 완성되었다. 최종안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86개 사업의 2조 3,681억 원(민자 1,889억 원 포함) 규모이며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3개 시·도 10개 시·군의 44개 세부사업(4,610억 원/민자 516억 원)으로 확정되어 추진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업 착수 이후의 관광환경변화, 각종 제약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실시, 총사업비를 24개 사업 2,466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후 2017년 개별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 낙찰차액 감액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2,391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1) 사업개요

- 목적 :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안보·역사 자원을 활용,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국토균형발전

- 대상지역 : 3개 시·도 10개 시·군
 - 인천광역시(2) : 옹진군, 강화군
 - 경기도(3)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도(5)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사업기간 : 2013~2022년(10년간)
- 사업비 : 2,391억 원(국비 1,056, 지방비 1,225, 민자 110)
- 사업내용 : 24개 사업(관광자원개발 16개, 광역연계사업 8개)

2) 계획수립 방향

- 통합 연계발전체계(Network) 구축
 - DMZ 일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발전 및 관광활성화 촉진
 - DMZ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기구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특화 녹색 관광명소(Hardware) 구축
 - DMZ 일원이 보유한 생태·역사문화·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하여 DMZ에서만 가능한 특화 관광명소 구축
- 특화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활성화사업
 - DMZ 일원을 국제적인 관광명소이자, 연중 다양한 체험거리가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 발굴
- 홍보·마케팅(Marketing) 다각화 사업
 - DMZ 일원의 관광명소로서의 인지도 및 매력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DMZ 일원을 통합적으로 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인 확대를 위한 마케팅

3) 추진경과

- PLZ 관광자원화방안 연구(2007.10.~2008.3.)
- PLZ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2008.8.~2009.10.)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보고(2010.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차 보고)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계획(DMZ 일원 관광활성화) 연구용역(2010.6.~2011.2.)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계획 수립(2011.3.)
- 제7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2011.4.)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중간평가(2016.8.)
- 강원도 2개 사업계획 변경승인(2017.9.)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 자율조정(2017.12.)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2019.5.~12.)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국비지원

- 2013년 3개 사업 1,500백만 원
- 2014년 6개 사업 8,500백만 원
- 2015년 6개 사업 12,035백만 원
- 2016년 8개 사업 15,093백만 원
- 2017년 10개 사업 10,674백만 원
- 2018년 8개 사업 10,129백만 원
- 2019년 9개 사업 15,205백만 원
- 2020년 8개 사업 7,515백만 원
- 2021년 5개 사업 6,502백만 원

〈표 5-5〉 2021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시·군	국고지원액
인천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강화군, 옹진군	20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강화군, 옹진군	198
경기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연천군	20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김포시, 연천군	198
강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철원군	1,671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인제군	1,516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철원군	1,465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5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04
	5개 사업(지역 3 + 광역 2)	계	6,5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향후 계획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2022년 3개 사업 3,316백만 원)

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부내륙권은 백두대간과 남한강·낙동강을 근간으로 하는 수려한 산악·수변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히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나 입지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청정자연을 보존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최근 녹색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중부내륙권이 새로운 관광목적지이자 녹색관광실현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관광권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충북, 강원 남부, 경북 북부지역의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년 간 총 사업비 3,970억 원, 38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 착수 이후의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간 평가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수 32개 사업(△6개) 총사업비 2,670억 원(△1,300억 원)으로 조정하였다. 2013년 5개 사업에 25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 11개 사업 및 1개 연계사업에 118억 원, 2015년 16개 사업에 145억 원, 2016년 16개 사업에 147억 원, 2017년 16개 사업에 147억 원, 2018년 8개 사업에 89억 원, 2019년 7개 사업에 86억 원, 2020년 11개 사업에 58억 원, 2021년 8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하였다.

1) 사업목적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광역관광권 구축을 통해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자, 통합 관광권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22년(10년간)
- 사업지역 : 3개 시·도 17개 시·군
 - 충북 : 충주, 제천, 음성, 단양, 괴산, 보은
 - 강원 : 원주, 영월, 횡성, 정선, 평창, 태백
 - 경북 :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상주
- 총사업비 : 2,670억 원(국비 1,199, 지방비 1,448, 민자 23)
- 사업내용 : 32개 사업(관광자원개발 30개, 광역연계사업 2개)

3) 추진경과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2009.9.~2010.10.)
- 연구용역 결과 관계부처 통보 및 협의(2010.12.~2011.2.)
- 사업계획 확정(2011.3.) 및 기획재정부 협의완료(2012.9.)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4.4.~8.)
- 중간평가 연구용역 실시 및 사업계획 재조정(2017.5.~12.)

4)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국비지원 현황

- 2013년 5개 사업 2,500백만 원
- 2014년 12개 사업 11,815백만 원
- 2015년 16개 사업 14,535백만 원
- 2016년 16개 사업 14,736백만 원
- 2017년 16개 사업 14,692백만 원
- 2018년 8개 사업 8,855백만 원
- 2019년 7개 사업 8,600백만 원

- 2020년 11개 사업 5,818백만 원
- 2021년 8개 사업 8,846백만 원

〈표 5-6〉 2021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시·군	국고지원액
강원	안흥진방 모락모락마을 조성	횡성군	300
	카르스트 지질테마 공원 조성	영월군	1,475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	정선군	1,800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	태백시	900
충북	익림지 수리공원 조성	제천시	1,109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충주시	1,496
경북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	영주시	506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문경시	1,260
8개 사업 합계			8,8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향후 계획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2022년 5개 사업 7,977백만 원)

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중심의 관광시장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이 요구되면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다.

2015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 충남, 전북지역의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40개 사업 6,167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9개의 관광개발사업과 11개의 관광진흥사업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 86.5억 원,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 86억 원, 2019년도에는 19개 사업 15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19개 사업 177억 원 지원, 2021년도에는 23개 사업 411억 원, 2022년도에는 19개 사업 27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 사업목적

-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관광 성장동력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2026년(10년간)
- 사업지역 : 3개 시·도 19개 시·군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 전라북도 :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총사업비 : 6,167억 원(국비 2,626, 지방비 3,456, 민자 85)
- 사업내용 : 40개 사업(관광자원개발 29개, 광역연계사업 11개)

3) 추진경과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2014.4.~2015.5.)
- 기본 구상 및 계획 관련 공청회(2015.4.)
- 관계부처 대상 의견수렴 및 협의(2015.4.~5.)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본격 사업추진(2017년 신규예산 반영, 10개 사업 86.5억 원)

4)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국비지원 현황

- 2017년 10개 사업 8,650백만 원
- 2018년 14개 사업 8,600백만 원
- 2019년 19개 사업 15,340백만 원
- 2020년 19개 사업 17,732백만 원
- 2021년 23개 사업 41,144백만 원

〈표 5-7〉 2021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시·군	국고지원액
세종(1)	김종서 호국충절공원	세종시	1,600
충남 (10)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논산시	3,135
	백제역사 너울옛길	부여군	3,715
	매운고추체험나라	청양군	2,562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예산군	5,000
	덕산온천 휴양마을	예산군	1,000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부여군	1,445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금산군	829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논산시	300
	호국문화 체험단지	논산시	250
	백제문화이음길	공주시	1,345
전북 (12)	한옥마을관광기반정비	전주시	2,000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전주시	600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정읍시	1,923
	옛다솜 이야기원	남원시	1,600
	삼례삼색마을 조성	완주군	1,000
	경천자연공감산수인마을 조성	완주군	1,000
	무주 태권마을 조성	무주군	1,825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무주군	1,900
	태조 희망의 조성	임실군	1,150
	필봉풍물 민속마을 조성	임실군	300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	순창군	750
	참살이발효마을	순창군	5,915
23개 사업	계	41,1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향후 계획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2022년 19개 사업 27,633백만 원)

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충청권의 유교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다. 충청권에는 백제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이나 증원문화, 내포문화 등 지리적 조건에 기반을 둔 문화자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유교문화는 중점적 개발대상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 활용 정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기호유학은 유학이 근간이었던 조선왕조의 주 집권층으로 오랜 기간 기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적·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유교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원, 향교, 고택, 누정 등 다양한 유교문화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등 저명한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당대 기호학의 주요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충청권의 유교문화자원을 소재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국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유교문화권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 연계와 관광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이다.

2016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전, 세종, 충북, 충남지역의 30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총 47개 사업 7,947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다. 당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 추진 가능한 시기를 조정하여 2019년 첫 예산 반영 후 2028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6개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7개 사업에 120억 원, 2021년도에는 24개 사업에 242억 원, 2022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 사업목적

- 충청권의 유교문화자원을 소재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국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충청유교문화권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 연계와 관광기반 여건을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2028년(10년간)
- 사업지역 : 4개 시·도 30개 시·군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총사업비 : 7,947억 원(국비 3,547, 지방비 4,400)

○ 사업내용 : 47개 사업(관광자원개발 34개, 광역연계사업 13개)

3) 추진경과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2015.5.~2016.6.)
- 지자체 제안사업(156개) 사업내용 검토 및 현장조사(2015.9.~10.)
- 선정위원회 운영(4회) 및 사업 선정 검토(2015.11.~2016.1.)
- 사업내용 및 콘텐츠 보완 등 사업계획 구체화(2016.2.~3.)
- 지자체 설명회(2016.4.) 및 지역토론회(2016.5.), 관계부처 협의(2016.6.)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반영 추진(2016.6.~2018.12.)
- 충청유교문화권 2019 신규 예산 지원(6개 사업 31.2억 원)

4)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국비지원 현황

- 2019년 6개 사업 3,120백만 원
- 2020년 17개 사업 11,988백만 원
- 2021년 24개 사업 24,178백만 원

〈표 5-8〉 2021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시·군	국고지원액
대전(2)	효(孝)문화 뿌리마을조성	대전시	1,390
	이사동유교전통의례관	대전시	1,500
세종(1)	금강누정선유길	세종시	200
충북 (9)	사주당태교랜드	청주시	3,800
	문화산수구곡관광길	청주시	100
	입신양명과거길	제천시	940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시·군	국고지원액
	문화산수구곡길	보은군	760
	송강문화장초마을	진천군	1,000
	초평 책마을	진천군	700
	옥아동천 유토피아	옥천군	350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괴산군	500
	자린고비 청빈마을	음성군	253
충남 (12)	담헌천문달빛마당	천안시	609
	암행어사 출두야	천안시	680
	충청감영생생마을	공주시	2,156
	토정비결체험관	보령시	1,300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아산시	420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아산시	145
	여민동락역사누리	당진시	1,115
	문헌사색원	서천군	1,000
	선비충의문화관	청양군	1,000
	홍주천년양반마을	홍성군	800
	추사서예창의마을	예산군	1,460
	사신들의바다순례길	태안군	2,000
	24개 사업	계	24,1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향후 계획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2022년 23개 사업 20,427백만 원)

바. 관광자원 기반조성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은 강변 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활용·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의 관광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개발의 기반조성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에 「강변 문화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강변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의 밑그림을 구상하였고, 2011년부터 창의적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11개 선도사업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등)을 선정하여 2015년 까지 지원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2015년에 「한강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한강과 주변관광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2018년까지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태종대 관광자원화, 오산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비 : 335억 원(2021년)
- 지원형태/조건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정률 50%), 민간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 사업내용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광투자유치 지원, 지역관광자원 개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최종평가 연구 등

(2021년도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내용)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전라남도, 충청남도) 130백만 원
-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직접수행) 692백만 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416백만 원
- 관광투자유치 지원(한국관광공사) 300백만 원
-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한국관광공사) 500백만 원
-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자체 보조) 20,637백만 원
 - 태종대 관광자원화(부산 영도구) 1,500백만 원
 -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경기 오산시) 2,130백만 원
 -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전북 고창군) 2,200백만 원
 -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강원 삼척시) 2,000백만 원
 - 평화테마파크 조성(강원 평창군) 3,000백만 원

- 금가 숲가마 공장 관광자원화(충북 충주시) 1,350백만 원
- 국제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대전 유성구) 800백만 원
-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서울 마포구) 6,257백만 원
- 한강공원~당인리 발전소간 보행연결로 조성(서울 마포구) 900백만 원
-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충남 금산군) 300백만 원
-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타당성 조사 등)(부산 강서구) 200백만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지자체 보조, 15개소) 4,500백만 원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한국관광공사) 5,438백만 원
-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한국관광공사) 700백만 원
-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최종평가 연구(직접수행) 200백만 원

2) 사업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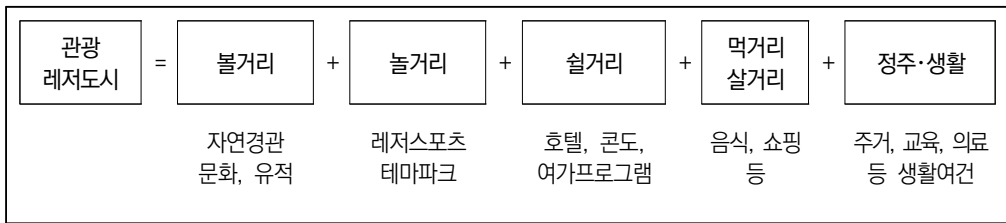
- 강변 문화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2010.3.~12.), 설계용역·본공사 추진(2011~2016)
-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2015)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2016~) *공유재산심의 부결로 잠정 중단/2018.10.~현재
- 태종대 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 지원(2016~)
-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양마을 조성 사업 추진(2018~)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사업’ 및 ‘지역관광개선 사업’ 이관(2019~)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2019~) *2019년(2개, 시범), 2020년(8개), 2021년(5개)

3)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간평가,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연구 시행, 기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 통합홍보 마케팅을 위한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2019~2021년 선정 지역(15개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연차별 투자계획 반영·지원 등 12개 내역사업 지속 추진(504억 원)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정지역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서 정주 기능이 없는 기존 관광단지과 달리 자족적 생활공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말한다.



[그림 5-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고 기존의 관광레저산업 개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법제가 필요하다는 시의성 때문에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타 유형과 함께 기업도시의 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2004년 11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추진방안이 마련되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2004.12.31.)·시행(2005.5.1.)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고시(2005.1.15.) 되었다.

2005년 4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6개 지역(충남 태안, 경남 사천, 전남 영암·해남, 전북 무주, 전남 광양, 경남 하동)이 신청하여 3개 지역(무주, 태안, 영암·해남)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태안은 2006년 12월 19일 개발계획 승인, 2007년 9월 14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0월 24일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 중 가장 먼저 착공되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07년 11~12월 개발계획이 승인 신청되어 2008년 1~2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08년 2~12월 농림부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개발계획 승인(삼호: 2009.11., 구성: 2010.1., 삼포: 2010.10.) 후 구성지구(2012.12.27.), 삼호지구(2014.5.14.)는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삼포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자를 확보 중에 있다. 한편 무주는 2007년 9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가 진행(75%)되었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 사업 포기로 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었다.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이 통·폐합(기업도시특별법 개정, 2015.6.22.) 되었으며,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및 법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중심 기업도시³³⁾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공동 권한 행사를 갖는다.

종 전			⇒	개 정
지식기반형 (R&D 중심)	산업교역형 (제조업 중심)	관광레저형 (관광·레저 중심)		유형 통합

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지속가능 발전을 전제로 한 환경·지역 친화적인 도시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최고 관광휴양 도시
-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휴양 도시

2) 계획 수립 방향

- 기본전략
 - 개발구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을 도입
 - 지구별(숙박, 레저, 오락, 휴양, 문화, 생활 등), 관광행태(단·장기), 이용계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설 배치
 - 역사, 문화, 생태 등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관광지, 문화재, 축제 등)
- 중점 개발구상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고품질, 미래형 관광레저 단지
 - 다양한 형태의 관광숙박 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확보
 - 지역 및 국내, 해외 관광객 등 이용자별 선호·행태 고려, 적정 시설 설치
 - 이용 계층별(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가족형 등)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33)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

3) 투자유치

-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 다양한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
-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감면 등 투자여건 개선
- 투자 안정성, 신뢰성을 위해 공기업 참여 검토

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개요

〈표 5-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개요

구 분	태안	영암·해남
위 치	충남 태안 태안읍, 남면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면 적	1,546만㎡	2,954만㎡
기 간	2007~2025년	2009~2025년
투자비	12,201억 원	19,917억 원
시행자	(주)현대도시개발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KAVO(주)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1)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적 : 15.464km²
 - 사업기간 : 부지조성(2007~2020), 시설공사(2011~2025)
 - 사업시행자 : (주)현대도시개발
 - 총사업비 : 1조 2,201억 원
 - 계획인구 : 1만 7,175명(6,870가구) / 목표관광객: 연 770만 명
- 추진현황
 - 시범사업 선정(2005.8.)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2006.12.)

- 부지조성공사 착공(2007.10.)
- 주 진입도로 착공(2010.2.)
- 주 진입도로 준공(2012.1.)
- 골프장 #1, 2 준공(2014.6., 대중제 36홀)
- 바이오농업단지내 화훼보존화센터 준공(2014.1.)
- 1-1단계 부지 준공(146만㎡, 2015.8)
- 골프장 #3, 4 준공(2016.9., 대중제 36홀)
- 관광숙박시설1 조성완료 및 운영(1.2만㎡, 2017.2.)
- 2-1단계 부지 준공 (170만㎡, 2018.6.)
- 부남교 연결도로 사업 착공(2019.6.)
- 1-2단계 및 3-1단계 부지 준공(204만㎡, 2021.12.)
- 향후 추진일정(2022년도 추진일정)
 -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준공(2022.6.)
 - 3-2단계(산업·연구단지 및 관련 기반시설 등) 준공(2022.12.)
 - 부남교 연결도로 사업 준공(2022.12.)

2) 영암·해남(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사업개요(개발계획 승인 신청서 기준)
 -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 면적 : 29.54km²
 - 사업기간 : 2006~2025년
 - 총사업비 : 1조 9,917억 원
 - 계획인구 : 4만 6,600명
 - 사업시행자 : 삼호지구(서남해안레저), 구성지구(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삼포지구(KAVO)
 - 주요 시설 : 골프장, 바이오산업단지, 테마파크, 호텔, 주택단지 등
- 추진현황
 - 시범사업 선정(2005.08.)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삼호지구: 2009.11./구성지구: 2010.1./삼포지구: 2010.10.)
 - 영암·해남 삼포지구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F1경기장) 준공(2011.09.)

- 영암·해남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2012.12.)
- 영암·해남 구성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2013.02.)
- 영암·해남 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2014.05.)
- 영암·해남 삼호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2014.06.)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착공(2015.12)
- 영암·해남 구성지구 1-1단계(공유수면 매립부분) 공사완료(2017.08.)
- 영암·해남 삼호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2018.7.)
- 영암·해남 삼호지구 골프장 1,2 준공(2019.10.)
- 영암·해남 구성지구 1-2단계(재생에너지산업단지) 사업준공(2019.12.)
- 영암·해남 구성지구 1-3단계(골프장 등) 공사완료(2021.07.)

○ 향후 추진일정(2022년도 추진일정)

- (구성지구) 동측진입도로 개통(2022.12.)
- (삼호지구) 1단계 부지조성 준공(184만㎡, 2022.06.), 2-1단계 부지조성 준공(138만㎡, 2022.12.), 골프장 3 준공(2022.12.)
- 영암·해남 진입도로 지원사업 준공(2022.12)

7.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가. 사업 개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어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역별 방문율) 서울 79.4%, 경기 14.9%, 부산 14.7%, 강원 9.7%, 제주 8.5%(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0~2024년) 새롭게 육성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발표(2019.4.) 하였다.

국제관광도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총 5곳을 도시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자체 공모 및 심사·평가를 거쳐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후, ‘20년 12월 도시별 기본사업계획 수립을 완료(2020~2024, 5개 도시, 총 5,785백만 원)하였다.

다만, 관광거점도시 총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1.2월~12월, KDI)」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22.2월 기본사업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2020~2025, 5개 도시, 총 5,638백만 원)하였다.

《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국제관광도시(1곳), 지역관광거점도시(4곳)
- (사업기간) 6년(2020~2025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 (사업규모) 도시별 1,000억 원 내외(국비 최대 500억/국고보조율 50%)
- (추진내용)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관광객이 도시를 관광하는데 필요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관광객이 도시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관광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우수한 관광자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집객하여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관문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1) 관광거점도시 선정

2020년 1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등 총 5곳이 선정되었다. 관광거점도시 공모 및 선정을 위해, 민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규정 및 도시·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2019.10.) 하였으며, 숙박, 교통 등 관광 인프라 역량과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구상의 우수성, 계획 실현가능성, 관련 사업의 연계 가능성, 관광산업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 구 분 〉		〈 수행 업무 〉	〈 수행 주체 〉
심사 준비 단계	심사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심사 계획 수립 및 관광거점도시 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개최 준비 (공모사업 설명회 등)	
심사 수행 단계	사전검토	서류 제출 여부 확인 등 사전 검토	관광거점도시 위원회
	심사 개최	1차(서면)·2차(현장)·3차(최종) 심사 진행	
	결과정리	평가 후 결과 정리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후속 단계	위원회 의결 및 결과 통보	평가 결과 확정 및 통지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5-7] 관광거점도시 심사 개요 및 단계별 절차

2)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도시 선정 후, 공동연수회 개최, 계획수립 조정·컨설팅 지원 및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비전 및 도시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시별 기본계획과 연계한 필수 준비사업(음식·숙박시설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도시 관광환경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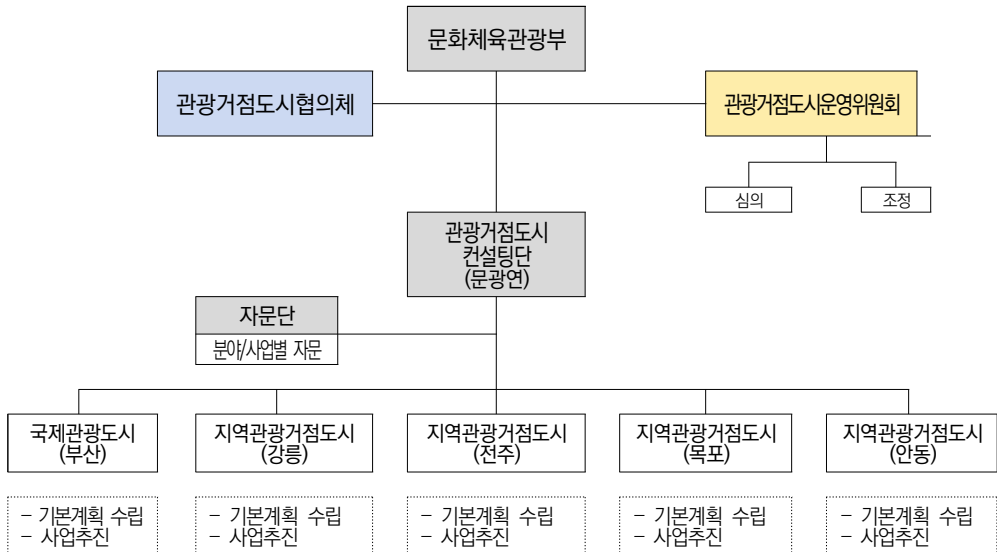
- ※ 지자체 공동연수회 개최(총 3회/2.5., 5.14., 6.23.)
- ※ '기본계획 수립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3.18.)
- ※ '관광거점도시 조정·컨설팅단' 구성 및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조정·컨설팅 지원(총 4회/ 6~9월)
- ※ 관광거점도시위원회(관광·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위원회) 심의·의결(12.11.)

비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매력,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추진 방향	부산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해양문화도시, 부산
	강릉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강릉
	전주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
	목포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안동	대한민국 대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
		
※ 추진전략 : ① 도시별 관광인지도 강화 ② 도시 관광접근성 향상 ③ 특색 있고 매력적인 즐길거리 개발 ④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그림 5-8]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비전 및 도시별 사업 추진방향

지역 전체 관점에서 도시관광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통·문화 등 타 분야 연계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컨설팅 및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심의·의결 등 별도의 관리 지침과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 12월 도시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였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체계〉



* 마케팅 홍보 관련 한국관광공사 참여 및 협력

※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업실행, 운영 등 전 주기에 전문가 그룹을 통해 △ 단계별 컨설팅 지원(계획-실행-평가), △ 계획 검토와 조정, △ 계획 심의 절차를 운영(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20.2.)

다만, 관광거점도시 총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1.2월 ~ 12월, KDI)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22.2월 기본사업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2020~2025, 5개 도시, 총 5,638백만 원)하였다.

한편, ’21년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으로 각 도시별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온라인 해외 홍보 중심으로 관광거점도시 통합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구미주 등 중점 홍보시장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유튜브, 메타버스(제페토) 등을 활용한 바이럴 유도 및 글로벌 홍보를 통해 각 거점도시별 관광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힙합과 민요, 음악, 춤사위의 조합, 5개 도시 소개(부산, 안동, 목포, 강릉,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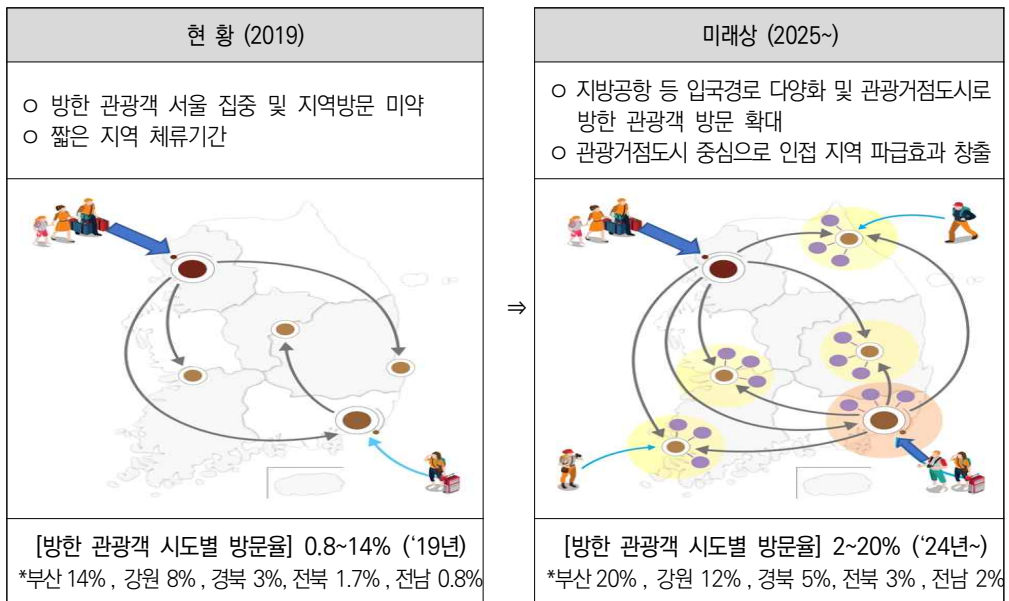
※ 거점도시 해외 홍보 영상 조회수 (1억 6,000만회 이상)

3) 향후 추진계획

관광거점도시는 '21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도시별 사업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22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각 도시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광거점도시 전반 및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시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사업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권역별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문화관광자원 개발

가.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지방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문화관광축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전국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방법은 각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2020년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체계 개선으로 등급제로 인한 축제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5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정 기간을 2년으로 하는 ①직접 재정지원 문화관광축제와 ②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체계를 개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 축제의 개최 취소에 따라 '22년~'23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정식평가는 미 실시하였다.

1999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전액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문화관광축제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정된 문화관광축제 34개 중 11개 취소, 7개 온·오프 혼합형 개최, 16개 온라인 개최로 제반지수 집계가 무의미하여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비롯한 관람객 수, 경제효과 등은 집계·산출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축제 정보제공 및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관광박람회, 전시회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부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인을 매혹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 활동의 제약과 일상생활의 변화는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문화관광축제를 비롯한 많은 지역축제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온·오프 혼합형 방식을 고안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환경의 변화는 축제에 디지털역량 강화의 필요성, ICT 기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한 축제로의 성장 모색 등 많은 과제를 남겼다.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한 문화예술콘텐츠이자,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 5-10〉 문화관광축제 지원현황

연도	선정개수	국고예산	총 관광객 수
1997	10개	-	-
1998	18개	-	-
1999	21개	-	950만 명
2000	25개	16억 5천만 원	1,170만 명
2001	30개	16억 5천만 원	1,325만 명
2002	29개	16억 5천만 원	1,354만 명
2003	30개	18억 4천만 원	1,610만 명
2004	37개	21억 6천만 원	2,282만 명
2005	45개	25억 3천만 원	3,274만 명
2006	52개	35억 원	3,520만 명
2007	52개	35억 원	3,649만 명
2008	56개	73억 원	4,023만 명
2009	57개	70억 원	2,966만 명
2010	44개	72억 5천만 원	3,113만 명
2011	44개	67억 원	2,686만 명
2012	45개	67억 원	3,011만 명
2013	42개	67억 원	2,942만 명
2014	40개	59억 원	1,729만 명
2015	44개	68억 원	1,786만 명
2016	43개	60억 원	1,547만 명
2017	41개	56억 원	1,485만 명
2018	40개	50억 원	1,155만 명
2019	41개	42억 원	1,075만 명
2020	35개	36억 5천만 원	-
2021	34개	10억 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주 1) 1999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전액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체제로 전환
 주 2) 2020년 등급제 폐지 및 지정 체계 개선에 따라 직접지원 예산을 줄이고 간접지원(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확대함

나. 템플스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결합된 숙박 및 체험시설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별 사찰 등)의 노력이 상호 결합하여 양적·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2021년 143개 사찰로 확대되었으며, 사찰의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8,118명(내국인 2,586,395명, 외국인 411,723명)이 참여하였다. 2021년 한해에는 119,967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 하였으나, 2019년 대비 60% 정도 감소한 수치로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지 또는 제한운영(휴식형)함에 따른 것이다.

〈표 5-11〉 시·도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사찰 수	13	4	2	2	3	-	-	1	22	14	8	10	9	22	16	13	4	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12〉 연도별 템플스테이 참가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내국인	229,264	23.1	233,319	1.8	247,783	6.2	111,197	-55.1	115,946	4.3
외국인	47,221	29.2	53,291	12.9	47,058	-11.7	4,760	-89.9	4,021	-15.5
계	276,485	24.1	286,610	3.7	294,841	2.9	115,957	-60.67	119,967	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순인원 기준

템플스테이는 특히 2009년 OECD로부터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5일 근무제, 체험관광과 에코투어리즘, 웰빙 및 명상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문화와 정신 문화, 음식(사찰음식), 체험콘텐츠 등이 결합된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도에 템플스테이를 통한 외래 방문객의 한국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외국인 구사 전담인력을 갖춘 16개소 사찰을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사찰'로 지정하였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특히 공익 템플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방역 관계자 및 피해 업계 종사자(여행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특별 치유 템플스테이를 추진하여 심신치유 기회를 제공(31,329명)하였다.

더불어 사찰음식을 통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사찰음식의 전통과 고유한 조리법 등이 유지·전승되고 있는 사찰 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찰음식 특강, 국내·외 홍보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찰을 선정하여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2개소 사찰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5개소의 '사찰음식 특화사찰'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다.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자주적 문화정신과 지혜가 담겨 있는 역사적 소산이며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며, 그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화재 중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이를 지정문화재라 하며, 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하여 관리하는데 이를 국가등록문화재라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는 총 5,153건으로 서울(1,290건)과 경북(787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하고, 시·도 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또한 문화재 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다.

문화재는 관광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관광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당수의 관광지가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상호 보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13〉 시·도별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68	6	3	1	2	1	2	-	13	12	12	30	8	22	56	14	-	-	350
보물	731	54	81	29	17	11	9	3	180	85	96	134	106	195	370	184	8	-	2,293
사적	69	6	9	20	2	1	5	-	69	20	19	51	41	45	102	55	7	-	521
명승	3	2	-	1	1	-	1	-	4	26	10	3	11	26	17	13	9	-	127
천연기념물	11	7	2	14	2	1	3	1	20	45	23	18	33	61	71	45	49	64	470
국가무형문화재	32	5	-	5	1	-	-	-	10	4	4	4	9	14	11	15	5	34	153
국가민속문화재	41	2	6	-	3	2	2	1	24	11	21	24	14	38	96	12	9	-	306
소계	1,055	82	101	70	28	16	22	5	320	203	185	264	222	401	723	338	87	98	4,220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465	208	85	70	30	57	37	17	321	177	345	205	256	243	490	900	37	-	3,943
시도무형문화재	52	25	17	29	20	24	6	3	68	32	27	55	62	53	48	41	23	-	585
시도기념물	40	51	18	63	24	47	47	11	187	80	138	165	128	194	156	267	128	-	1,744
시도민속문화재	35	19	4	2	9	2	2	-	14	4	20	28	36	42	155	21	82	-	475
소계	592	303	124	164	83	130	92	31	590	293	530	453	482	532	849	1,229	270	-	6,747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77	115	52	26	30	63	34	14	188	149	93	314	158	247	592	689	10	-	2,851
합계	1,724	500	277	260	141	209	148	50	1,098	645	808	1,031	862	1,180	2,164	2,256	367	98	13,818

자료: 문화재청 (202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1」.

〈표 5-14〉 시·도별 국가등록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수	235	22	13	9	22	22	6	2	89	46	31	74	89	115	64	68	26	-	933

자료: 문화재청 (202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1」.

1) 문화재 활용 촉진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문화재청에 문화재활용국과 활용정책과를 설치하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광산업의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2005년 5월 ‘문화재와 관광의 연계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재 활용을 위한 개념·범위·원칙의 정립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화재 활용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활용의 원리와 방법론, 문화재 활용의 다양한 분야, 국내·외 문화재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문화재활용 가이드 북’을 2007년 제작하여 지자체 문화재 활용 관련 부서와 정책입안자에게 배포하였다. 2010년에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재 활용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문화재 가치제고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및 실행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실시하여, 8개의 활용 가능한 문화재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실현가능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문화재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식·감성·창의력 등이 새로운 동력이 되는 문화콘텐츠 기반의 디지로그(Digilog) 시대에 문화콘텐츠 수준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의 효율적 접목 및 스토리텔링 기반 조성확대를 위하여 2012년 이후 문화유산을 활용한 여행길 75선을 단계적으로 발굴·보급(2012년 경상권·전라권 각 15선/2013년 충청권 15선/2014년 서울·경기권·강원권 각 15선)하여 EBS 문화유산 코리아 ‘문화유산 여행길’ 영상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문화재 활용이 곧 문화재 보존의 근본 방도’라는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생생문화재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다. 2008년 4개소(전남 신안군 증도 생생 소금밭 체험 등)로 시작하여 2012년 30개소(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2016년 88개소(서울 마포구 양화진 근대사 탐방 ‘뚝을 달다’ 등), 2018년 130개소(충남 논산시 ‘유유자적 사계고택체험’, 전남 강진군 ‘詩·愛 물든 영랑생가’ 등), 2019년에는 132개소(광주 광산구 ‘광산 가옥, 짓다’), 2020년에는 159개소(충남 금산군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순례길

따라 걷기 등), 2021년에는 160개소(제주특별자치도 ‘지켜지게 놀아봅주! 제주해녀문화’ 등)까지 확대 추진하였다.

2014년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에서 분리하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으로 수원향교 등 38개소에서 신규로 추진하여, 2015년 71개소(양천향교 등), 2016년 77개소(광주시 월봉서원 등), 2018년 95개소(전남 나주향교 등), 2019년 97개소(경북 옥산·서악서원 등), 2020년 113개소(인천 부평향교 등), 2021년 116개소(충남 홍성군 결성향교 등)로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사업은 2016년에 서울 정동야행 등 10개소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2017년 대전야행, 제주야행 등을 포함한 18개소, 2018년에는 경기 안성야행, 전북 김제야행 등 7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25개소, 2019년에는 중소도시(양주, 오산)로 확대하여 전국 36개소, 2020년에는 울산 중구야행, 강릉 원주야행 등 신규 10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42개소,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년 42개소의 규모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산사가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색다른 산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 월정사 등 25개소에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공주 마곡사·갑사 및 구례 화엄사 등을 추가하여 30개소, 2019년에는 정선 정암사, 영동 영국사 등을 추가하여 38개소, 2020년에는 군산 동국사, 고성 옥천사 등 8개소를 신규로 선정하며 38개소, 2021년에는 원주 구룡사, 아산 봉곡사 등을 추가하여 42개소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고택·종갓집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 정읍 김명관 고택 등 39개소에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40개소(충남 논산시 ‘명재고택’, 경북 영덕군 ‘갈암종가’ 등)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들은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재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0년부터 가장 한국다움이 넘치는 한국문화의 원형인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 재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문화유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해에 7개의 문화유산 방문길을 개발

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추가로 3개의 방문길을 개발하여 총 10개의 방문길 75개 방문거점을 운영 중에 있다. 캠페인은 방문 거점을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국내·외에 홍보하고 실질적인 방문 유도를 위해 문화유산에서의 공연, 스탬프 투어 운영, 문화유산 전시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자산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문화유산 복합 콘텐츠를 기획·육성하기 위한 '세계유산축전 사업'도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였다. 2020년 세계유산축전은 한국의 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상북도 3개소에서 개최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수원화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안동, 백제역사유적지구 4개소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및 역사적 특성과 연계된 전통문화·의식·공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2020년도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 등 13개소, 2021년도에는 부산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2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는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접목하여 그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수원화성 등 5개소에서 2021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궁궐 문화유산

① 조선왕궁 복원·정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사업(21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경복궁 복원정비 5단계 사업인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공사를 완료하여 고종당시 25%의 건축물을 복원 완료하였다. 특히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모습찾기 선포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광화문 복원사업은 기존 콘크리트 건물 철거와 원위치에 대한 유구조사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철저한 원형고증을 하였으며, 2010년 8월 15일에 광화문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2011년 5월에 주변시설물을 복원 완료하였다.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사업(36개년)의 총 5단계 중 1단계인 소주방 권역 복원사업은 2011년 9월에 착수하여 2015년 1월에 완료하고, 2015년 9월 흥복전 권역 복원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완료하였다. 또한 노후된 향원정과 한국전쟁 후 잘못 복원된 취향교는 제자리를 찾아 원형으로 복원하였으며, 2020년 왕세자의 중심건물인 계조당 복원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및 향유권 향상을 위해 2006년 신문문 권역 개방에 이어 2007년에는 약 100년

만에 복원된 건청궁 권역을 개방하였으며, 2015년에도 복원과 함께 소주방을 개방하였으며 2018년에는 흥복전을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복원을 통한 개방권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덕궁은 2004년 규장각 권역 복원·정비를 끝으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부터 2039년까지 연차적으로 덕수궁 복원·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덕흥전 용안문 및 행각, 함녕전 행각, 증명전 복원과 준명당, 즉조당, 광명문, 석어당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석조전 내부원형복원은 2009년부터 5년간의 사업을 완료하여 2014년 10월 13일부터 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된 돈덕전 재건 사업은 2023년에 완료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② 궁중문화 상설 재현 및 관광자원화

○ 2021년 추진실적

-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개최(4대궁 및 종묘, 5월, 10월, 56개 프로그램, 1,627,735명)
- 수문장 교대의식 및 입직근무(경복궁, 1~12월)
- 창덕궁 달빛기행(창덕궁, 4~6, 10~11월, 189회, 4,296명)
- 사회적배려대상자 초청 궁궐활용프로그램(경복궁·창덕궁, 4~11월, 18회, 475명)
- 궁, 바퀴를 달다(지역 방문, 4~12월, 58회, 1,823명)
- 경복궁 별빛야행(경복궁, 10월, 24회, 543명)
- 덕수궁 풍류(덕수궁, 5월, 8회, 240명)
- 밤의 석조전(덕수궁, 10~11월, 60회, 739명)
- 수라간 시식공감(경복궁, 5~11월, 68회, 1,336명)
- 고궁음악회(창경궁·창덕궁, 4~6월, 52회, 2,300명)
- 경복궁 생과방(경복궁, 4~12월, 108회, 16,093명)
- 경복궁 야간특별관람(경복궁, 9~12월, 80일, 34,249명)
- 창경궁 야연(창경궁, 10~11월, 10회, 240명)
- 궁중일상전시(창덕궁, 5~7월, 132일, 11,903명)
- 궁궐 일상재현(창경궁, 5월, 2회, 160명)

○ 2022년 추진계획

- 제8회 궁중문화축전 연2회 개최(5대궁 및 종묘, 5월, 10월)
- 수문장 교대의식 및 입직근무(경복궁·창덕궁, 1~12월)

- 궁궐 일상재현(창경궁, 10월/5일)
- 고궁음악회(4대궁, 4~11월)
-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덕수궁, 5월/8회)
- 창덕궁 달빛기행(창덕궁, 4~10월/256회)
- 경북궁 별빛야행(경복궁, 5월, 9~10월/40회)
- 종묘특화프로그램 묘현례(종묘, 5월/10회)
- 수라간 시식공감(경복궁, 6,10월, 24일)
- 생과방 다과체험(경복궁, 4~11월, 98일)
- 경북궁 야간특별관람(경복궁, 4~5월,9~10월/93일)
- 유희 전각 활용 궁중생활문화 전시(4대궁, 종묘, 사직단, 3~11월)
- 밤의 석조전(덕수궁, 5~6월/36일)
- 창경궁 야연(창경궁, 5월, 9~10월/20일)
- 궁온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7~11월)

3) 무형문화재

① 무형문화재 공예 관광상품화

○ 제4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개최 지원

우리의 전통공예를 계승·보존하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로 시작한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은 2021년 제46회째를 맞이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공동주최,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제46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은 12개 분과에서 총 289작품이 접수(9.2.~7.)되어, 1차 심사(9.14.)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9.15.~24.), 전문가 현장실사(10.4.~8.)를 거쳐, 본상 심사결과(10.20.) 127작품이 입선작 이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작품 심사 결과 대통령상에는 ‘바둑탕전(김경희)’가 선정되었으며, 개막식 및 시상식은 12.10.(금)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극장 ‘풍류’에서 개최되었다. 대통령상을 비롯한 입선작들의 전시는 12.11.~19.(9일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시관 ‘결’, ‘올’에서 진행되었으며, 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었다.

○ 202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은 국가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1973년 공예작품전시회로 시작해 1989년부터 보유자작품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공예 작품전이다. 이번 작품전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보유자 58명과 전승교육사 37명 등 95명의 작품 총 95종 180점이 출품되었다. 섬유공예, 금속공예, 도자·옥·석공예, 목칠공예, 종이·단청·불교공예, 악기 등 6개 분야의 장인정신이 깃든 작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였다. 이들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에서 구입하여 해외문화원 및 재외공관, 국내 기관 등에 대여하여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보급·선양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② 무형문화재 공연·전시의 상설화

○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행사 등 국내·외 전승활동 지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공개행사, 기획행사 등 다양한 국내·외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에 대하여 공개행사 179건, 기획행사 174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행사 102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굿(GOOD)보러가자 공연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국무형문화재주간 행사가 이루어졌다. 2022년에도 이러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의욕을 고취하고 전승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2021년 추진실적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79건(기능 : 73건, 예능 : 106건)
-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286건(기획행사 : 174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행사 102건, 해외행사 : 10건)
- 202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국립무형유산원, 10.8~10.17.)
- 2021 굿(GOOD)보러가자 공연(전북 부안 등 7회, 6~12월)
- 한국무형문화재주간 행사(주벨기에한국문화원 전시, 9.13.~10.15.)

○ 2022년 추진계획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84건 대상
-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행사 등 280건 대상)
- 2022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 2022 굿(GOOD)보러가자 공연(전남 해남 등 5회, 6~10월)
- 한국무형문화재주간 행사(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나전공예 전시 등)

4) 고인돌 문화유적 보존관리 체계화

문화재청 조사결과 전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인 2만 6,000여 개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고인돌 유적의 보호를 위해 우선 전국의 고인돌에 관리책임자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강화의 대표적 고인돌 군(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유적정비, 전시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의 박물관 전시보강, 지석묘의 보존처리를 위한 설계 및 권역 내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매입, 민묘이장의 시행 등 약 21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5)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의 유래·특징,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문화재 정보를 접하고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쉽고 바르게 전달하는 한편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우선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2,626백만 원을 투입,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부식으로 인해 녹슬거나 오·탈자가 많은 안내판의 정비와 신규지정·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미설치된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는 등 총 12,896건의 안내판을 정비하였다. 문화재 특성상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학생 수준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 문안을 개선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형태로 외양도 함께 개선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안내판 모형집을 발간·배포하였다.

2004년에는 ‘국민이 뽑은 우수 안내판 공모’를 실시하여 안내판 정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2005년도부터는 ‘문화재 안내판정비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 문안을 개선하는 한편, 디자인 및 설치에 있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당해 문화재 및 문화재 환경과 더욱 조화되는 형태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재)아름지기와 1 문화재 1지킴이 협약(2005년 체결)에 따라 궁궐 문화재안내판을 종합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복궁 및 창덕궁의 문화재 안내판을 신개념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2007년에는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의 안내판 정비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5대 궁궐의 안내책자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궁궐의 안내판 개선을 시범으로 전국의 문화재에 대해 주요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찰(화엄사)과 왕릉(동구릉)의 문화재안내판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주요 유형별로 개발된 문화재안내판 디자인은 송광사, 칠장사, 관덕정 등 해당 유형 문화재에 직접 활용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적극 홍보하였다. 2008년에는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을 대상으로 서원, 향교 유형의 문화재안내판 디자인을 개발·정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주)아모레퍼시픽과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하여 역사인물생활유적(다산초당), 사찰유형(해인사)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 설치하였다. 2009년에는 천연기념물, 명승, 나홀로 문화재의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산성·성곽(남한산성),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고창, 강화, 화순), 민속마을(하회, 양동마을), 여수시 안내판 등의 디자인도 함께 개발·설치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내외의 공공시설물이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룰 품격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 휴게의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배치,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12.)’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2011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하회, 양동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민속마을에 특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서원·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2014년에는 사찰형 공공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2012년에 제정하였고, 2016~2017년에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난해한 표현 및 표기 현실화 및 안내판 재질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하고, 2020년에 안내문안 작성 관련 중복 내용 삭제 등을 통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개정(예규 제224호/2020.11.2.)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를 위하여 안내판 디자인을 주요 유형별로 사례화하고 안내문안 작성 지침과 방법을 수록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을 발간(2010.3.)하였고, 유형별 안내문안 작성 매뉴얼 및 사례, Q&A 등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2018.12.)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등으로 중점 관리되었으며, 노후된 안내판의 「외관정비 중심의 개선」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개선하는 「안내문안 중심의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선정비가 필요한 고궁 및 고도 등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2018년에 약 190여개 안내판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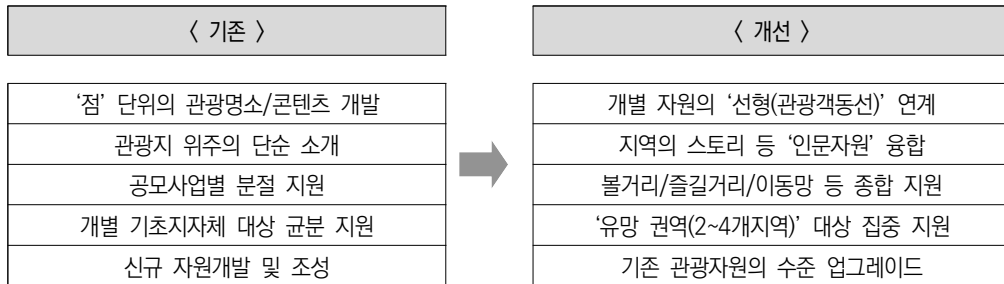
2019년에는 외국인도 읽기 쉽고 문화재의 성격이 잘 반영된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영어 안내문 작성 기준을 제시한 「문화재 영어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과 문화재 명칭에 대한 기준규칙을 제시한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등이 안내문안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 1,740건의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였고 그 중 972건은 당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비 우수 사례를 담은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020년에는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안내판 안내문안 집필진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내판 안내문안(초안) 작성을 지원하여 안내문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으며, 「문화재 영어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 877건, 2021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 792건의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누적 정비건수는 3,438건에 이른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2021년까지 매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집」을 발간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1) 사업 개요

핵심관광지 육성(‘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관광자원의 유사성을 가진 지자체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집중 지원하여 지역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국내관광객들을 분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방향도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들을 관광수요자 측면에서 촘촘히 진단하고 개선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행공간을 복수의 지자체로 연계 및 확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5-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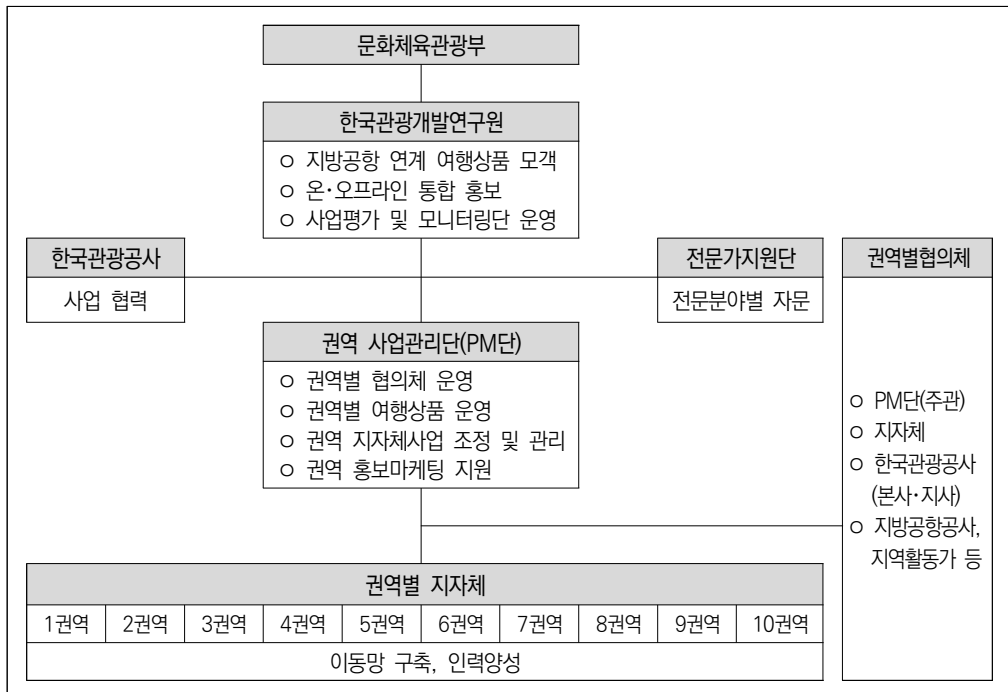
지원 분야로는 주요 관광지 환경개선, 지역 간 연계망 구축 및 관광 인력양성,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충, 홍보·마케팅 등 각 관광요소별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2016년 10개 권역의 39개 지자체를 선정한 이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관광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전반기 2017~2019년간 지역의 관광요소별 현황의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후반기 2020~2021년은 개발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공항 등 지역 교통거점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사업 추진 상 특징 중 하나는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테마에 대한 이해가 깊은 문화기획자 및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M(Project Manager, 총괄기획자)이 각 권역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관광사업을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전문가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표 5-1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 지자체 및 권역

권역	권역 명칭	지자체	PM(총괄기획자)	
1	평화역사이야기여행	인천, 파주, 수원, 화성	박선희	에스에이치네스크
2	드라마틱강원여행	평창, 강릉, 속초, 정선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3	선비이야기여행	대구, 안동, 영주, 문경	허영철	문화콘텐츠생산자협동조합
4	남쪽빛감성여행	거제, 통영, 남해, 부산	오성호	메타기획 컨설팅
5	해돋이역사기행	울산, 포항, 경주	정란수	프로젝트 수
6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이호열	문화마케팅연구소
7	시간여행101	전주, 군산, 부안, 고창	류인평	전주대산학협력단
8	남도맛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	전고필	전라도지도그래픽
9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정강환	한국문화관광포럼
10	중부내륙힐링여행	단양, 제천, 충주, 영월	엄태석	자작문화학교

2020년에는 지역 중심 관광생태계 조성 등 사업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전에 한국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역전문가(PM단 등)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총괄보조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을 선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림 5-1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체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2017~2019년 3년간 연 24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자체 관광자원 종합 개선과 관광콘텐츠 확충 등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2020~2021년에는 지난 3년간 발굴된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여행상품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였다.

〈표 5-1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

(단위: 백만 원/국비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24,000	24,001	29,300	14,660	10,2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사업 추진 경과

① 지자체 지원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39개 지자체 연계망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해 2021년 총 154개의 세부사업, 총 28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자체 연계망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은 광역투어버스 운영, 관광패스 운영, 여행자 플랫폼 조성 등 83건의 연계망 구축 사업과 해설사 육성, 관광기획자 양성 교육, 관광포럼 개최 등 71건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지방공항 연계 여행상품 운영 추진현황

2020년부터 지역 교통거점(지방공항·KTX)과 연계하여 각 권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등 테마여행 10선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10개 권역별 현장형 여행상품 172종을 개발·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상품의 운영 및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체험형 단체여행상품의 운영이 취소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이동 및 여행자체 권고로 인해 관광객들의 여행심리도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안전한 개별·자유여행 위주의 테마여행 10선 상품 126종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되었고 누적 이용자는 39,690명이었다.

※ '21.3.1.~12.31.간 상품 운영 기준 누적 이용자

〈표 5-17〉 권역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여행상품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권역	연번	상품명	이용	권역	연번	상품명	이용
1권역	1	파주여행로컬여행로컬체험	236	5권역	64	포항공대와 로봇만들기	6
	2	파주 생태탐조관광	25		65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69
	3	인천중구 리얼오리엔탈 감성여행	280		66	경주야경 자전거	45
	4	인삼체험 1박 2일	98		67	봉산권역 어드벤처 (숙박)	80
	5	인삼체험 당일	30		68	봉산권역 어드벤처 (반나절)	9
	6	평화누리트레킹 & DMZ개성인삼체험	2		69	남산등반	11
	7	평화 꽃반지 만들기 체험	244		70	봉좌마을	19
	8	파주 DMZ 평화관광 출판산업체험	29		71	세심마을	129
	9	수원공방거리 칠보공예체험	286		72	세심권역	37
	10	수원화성 한복으로 품다	160		73	하범곡 마을	5
	11	강화 약쑥전통자훈체험	400		74	신라의 별이 빛나는 밤에	733
	12	여행택시 + 평길만 미션투어	70		75	영일대게스트하우스	507
2권역	13	픽투어(강릉-속초)	134		76	양동마을 체험 (소주내리기)	22
	14	픽투어(정선-평창)	102		77	양동마을 체험 (전통주 만들기)	6
	15	퀸스기든 숙박체험	192		78	양동마을 체험 (술방 만들기)	2
	16	퀸스기든 목공체험	80		79	양동마을, 고택에서 머물다	18
	17	비람마을 치즈체험	1,274		80	오토투어	6
	18	랜선투어 (4편 제작)	69		81	패밀리보트	252
	19	핀 '정성 가득한 여행' 리멤버미	756		82	피크닉보트	198
	20	강위권역 미션투어 '신티어'	550		83	수상레저	608
3권역	21	갈롱학당 - 기획형	216		84	포항 Surfing-day	55
	22	문경 10선비 여행	102		85	포항 오토데이	673
	23	명대감의 풍류여행	103		86	영남알프스 9봉 (버스)	38
	24	문경 찻사발공방 상품권	371		87	영남알프스 9봉 (자차)	17
	25	영주 사운드테라피	27		88	영남알프스 9봉 (리무진)	32
	26	안동 사운드&포토테라피	61		89	문화유산양동마을&옥산서원 &약과만들기&트레킹패키지	323
	27	선비이야기여행 미션투어_문경	149		90	대릉원 첨성대 동궁월지 천마총 경주 트레킹 패키지	9
	28	선비이야기여행 미션투어_안동	163		91	대릉원 첨성대 동궁월지 천마총 경주 야경 트레킹 패키지	30
	29	선비이야기여행 미션투어_영주	159		92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 트레킹 패키지	58
4권역	30	2021 [남쪽빛 감성 [창작] 여행	654		93	시골 체험 및 트레킹 숙박패키지	4
	31	남쪽빛 감성 일상여행	331		94	프라이빗 이동수단 (KTX+리무진)	8
	32	통영 60분 투어	31		95	동해미행 주루마블	3

(단위: 명)

권역	연번	상품명	이용	권역	연번	상품명	이용	
5권역	33	나전칠기 체험키트	80	6권역	96	낭만과 힐링의 KTX+람바다 자유여행	216	
	34	미드나잇 인 서피랑	176		97	여수와 드림백 + 여행티켓	234	
	35	동피랑 시그널	12		98	랜선탈출 남도버드길 여행	14,808	
	36	공예감성 나전칠기여행	50	7권역	99	전주한옥마을, 1박 2일 시간여행	201	
	37	업사이클링감성	7		100	고창 조선시대 석기시대 1박 2일	422	
	38	플라워감성 메모리여행	303		101	인사이드 포토투어 1박 2일	15	
	39	남해감성 향기여행	232		102	슬로시티	322	
	40	버드애피쉬체험장	561		103	로스트군산(아외방탈출)	9	
	41	후기형 미션투어	136		104	메이드마켓 감성클래스	607	
	42	체험형 미션투어	64		105	메이드마켓 감성클래스	475	
	43	포항 택시투어 (6시간)	34		106	우리끼리 '꽃'처럼 '음악'처럼	157	
	44	포항 택시투어 (4시간)	10		107	허브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체험	4	
	45	포항 택시투어 (8시간)	11		108	누에가 봉 먹듯 놀고 쉬다가소	170	
	46	대왕암 역사해설 도보여행	2		109	See You Again 미션투어	841	
	47	공감여행 (1박 2일)	16		8권역	110	소셜처사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셜원	339
	48	추(秋)역여행	18			111	남도맛기행 미션투어 '권있는 그대를 위한 남도여행'	1,200
	49	울산에한바퀴	225			112	부여하늘날기일출여행	9
	50	어르신과 함께 힐링프로그램	25		9권역	113	1박 2일 열기구 체험	401
	51	아이와 함께 힐링프로그램(당일)	16	114		대청호에서 즐기는 도예체험	5	
	52	아이와 함께 힐링프로그램 (1박)	6	115		[철도연계] 투어차량 지원	82	
	53	포항 구룡마을의 전설 용의 승천	405	116		공주 공감도행	120	
	54	포항 구룡마을의 전설 용의 승천 + 마그넷 패키지	21	117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미션투어	1,886	
	55	진에어 울산/포항 해돋이 여행	17	118		공주 감성 도보여행 당일여행	30	
	56	괘릉과 감은사지	53	10권역		119	내국인 테마여행 (숙박형)	8
	57	대릉원 참성대 동궁월지	280			120	지역주민주도형 FIT 힐링투어	30
	58	불국사 석굴암	520			121	단양/제천 힐링코스	2
	59	양동마을숙박과 투어	46		122	꽃향기가 퍼지는 영월 향기투어	11	
	60	리화호텔과 엑스포	3		123	민화문패 그리기 체험	196	
	61	경주야경	179		124	동강래프팅	916	
	62	포항 요트	37		125	지역을 살리는 미션투어	974	
	63	울산 요트	4		126	스마트관광 스템투어	55	
	합계				39,6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랜선여행, 집콕여행꾸러미 등 비대면 간접여행 상품을 기획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랜선여행은 권역별 추천 관광지와 먹거리를 영상으로 소개하여 실제 여행하듯 일정에 따라 관광지를 방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1년은 외국인 대상 상품 10종을 기획하여 1,475명이 이용하였다. 집콕여행꾸러미는 집에서 여행이 주는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이 만든 특산품, 고유의 음식, 만들기 체험 키트 등 이용자들이 스스로 즐길거리와 여행지관련 안내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집콕여행꾸러미는 4개 권역 대상 총 5종을 개발하여 536개를 판매하였으며, 개별 단품은 8,178개를 판매하였다.

〈표 5-18〉 권역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비대면 간접여행 상품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개)

권역	상품명	이용	권역	상품명	이용
외국인 대상 랜선여행 (1,475명 이용)			집콕여행꾸러미 (536개 판매)		
1권역	Through the Eyes of a Foreign local : Incheon	29	5권역	일출에 일박 Eat	117
2권역	Showing you Korea in Small Cities : Gangneung	93		일출에 일박 Play	129
3권역	Sea-Sierra Korea : Mungyeong	209	6권역	라벤더 비치	77
4권역	Korean City Tales : Busan	71	7권역	뷰티풀모먼트	136
5권역	Korean City Tales : Gyeongju	277	8권역	봄날의 풍류, 남도의 한 상	77
6권역	Sea-Sierra Korea : Yeosu	19	여행꾸러미 단품 (8,178개 판매)		
7권역	Through the Eyes of a Foreign local : Jeonju	32	1권역	리얼홈투, 로컬딜리버리	152
8권역	The Journey to the Unexpected Times : Damyang	243	2권역	안방여행꾸러미 등 3종	101
9권역	The Journey to the Unexpected Times : Buyeo	260	3권역	선비 시리즈 등 16종	5,492
10권역	Showing you Korea in Small Cities	242	5권역	필름여행 패키지 등 5종	2,4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③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2021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홍보마케팅은 사업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성과를 종합한 단일 완성상품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여행상품 모객 등 실질적인 테마여행 10선 지역 관광객 유입 증대를 목표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 기반 여행상품 운영 침체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한편 여행상품 운영 역량 향상 교육, 상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각 권역의 사업관리단(PM단) 추진 사업을 지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5-1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구분	내용	
사업 브랜드 홍보	온라인 공식 채널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회원 1,224명, 블로그 구독자 959명, 페이스북 팔로워 8,752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7,145명, 유튜브 조회수 88,815회
	온/오프라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SNS 채널 콘텐츠 노출수 1,721,851회, 클릭수 35,997회 유튜브 채널 광고 노출수 5,273,358회, 클릭수 1,985,300회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수 18,909회, 클릭수 7,236회 네이버 파워링크 노출수 676,872회, 클릭수 6,685회 Viu 인스타그램 광고 (랜선상품) 노출수 597,449회, 클릭수 4,425회
	인플루언서, 인기 커뮤니티 등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틱톡 플래시몹 콘텐츠 9개 제작, 조회수 87,325회 모바일 여행가이드 '트리플'과 10개 콘텐츠 제작, 누적 노출수 751,083회, 클릭수 28,161회 사진작가 3명과의 콘텐츠 25개 제작, 조회수 878,157회 전문분야를 가진 인플루언서과의 협업 83개 제작, 조회수 1,728,811회
	민간기업과의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 및 링컨코리아) '#NewTravelNormal' 캠페인시행 각분야의 인플루언서 5명이 6개의 권역 6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며 콘텐츠 제작 총 노출수 4,206,500회 (21.12.20.기준) (SM C&C) <총천 100% 슈퍼트립> 슈퍼주니어 이특, 동해, 려욱 출연하여 총 10편 콘텐츠 제작, 조회수 1,514,686회, 좋아요 7,991,881개
	박람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6.24.-6.27.), 2021 내나라여행박람회 (11.18.-11.21.) 부스 운영 및 홍보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RT매거진 2021년 5월호부터 9월호까지 지면광고 1P, 기획기사 6p 노출 언론사에 6개 기사 25회 배포
	집콕여행 꾸러미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로컬여행플랫폼, 텐바이텐, 29CM, 핑굴마켓 등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매 파워블로거 (64건 블로그 콘텐츠 발행), 맘카페 (30곳 11,824,771 회원 노출) 등 바이럴 마케팅 진행 스마트 스토어 유입광고 (노출수 1,966,379회), 쇼핑검색 키워드광고 (노출수 78,222회), 구글 및 페이스북 배너 광고 (노출수 1,823,649회, 클릭수 18,256회) 등 집행 복순도가, 해태제과, 웨스턴조선 부산, 부여롯데호텔, 라한호텔, 놀이의 발견 등의 민간 업체와의 협업
〈Garak, The Moveme nt in Korea〉 영상제작	영상 기획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권역 9개의 지역에서 5개의 예술가 팀과 촬영 영상 조회수 <velocity> 3,222,985회, <Sail> 1,012,960회, <Layers> 2,132,578회, <Bloom> 3,473,787회
	홍보 및 광고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광고 (기간 12.12-12.17.) 영상 4편, 노출수 4,546,221회, 조회수 1,887,954회, 클릭수 18,854회 해외 OTT 인스타그램 광고 (기간 11.22.-11.28.) 노출수 743,972회, 조회수 652,413회, 클릭수 3,982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역, 서울프레스센터,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에서 옥외광고 집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향후 추진계획

2021년 사업 종료 후, 지난 5년간 발굴한 권역별 관광콘텐츠와 코스별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지역 내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기간 동안 구축한 권역별 관광사업 협의체 및 지역관광조직 등의 역량 강화와 지자체 간 협업 등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9.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 수요의 증대로 체계적인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정부는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생태·녹색 관광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03년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 분리해 추진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도보여행 수요 확산 및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이 지속 시행되고 있다.

걷기여행길 사업은 길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생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 및 관광콘텐츠화하는 사업으로,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걷기여행길 사업은 2008년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걷기여행길 사업이 길 조성 중심에서 정비 및 관리·이용활성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사업이 폐지되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이 신설된 것이다. 2016년도부터는 걷기여행길 정비 사업과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을 분리하여, 길 정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관광자원개발 생활계정 ‘탐방로 안내체계구축’)하고, 걷기여행길 사업의 중심축은 걷기여행길 관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로 본격적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장거리 걷기여행길 해파랑길(770km, 50코스) 개통, 전국 걷기축제 개최(‘해파랑길 770 걷기축제’, ‘바스락 걷기축제’ 등), 걷기·자전거 복합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문화학교운영 등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는 등 걷기여행길을 관광콘텐츠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해파랑길 싱가포르 단체관광객 241명 등 유치 등 64개 프로그램 운영, 46,682명 참여). 한편으로는, 걷기여행길 인프라 구축(관광개발기금, 6개 사업),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개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도 지원하였다.

2018년 1,923코스, 2019년 900여 코스 등 전국 걷기여행길에 대해 노선 및 안전관리, 안내체계, 편의시설 등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노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관광콘텐츠인 걷기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을 위해 전국 2,000여개 걷기길 정보를 제공하는 걷기 앱 「두루누비」 활용하여 여행과 재미를 결합한 국민참여형 이벤트로 ‘비대면 대구 걷기’*와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 등 2건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 비대면 대구 걷기: ‘20.7.24.~8.2. /대구 근대골목 및 서문시장 일원(1.5km 걷기길) / 4,400명 참가, 서문시장 안내여행 24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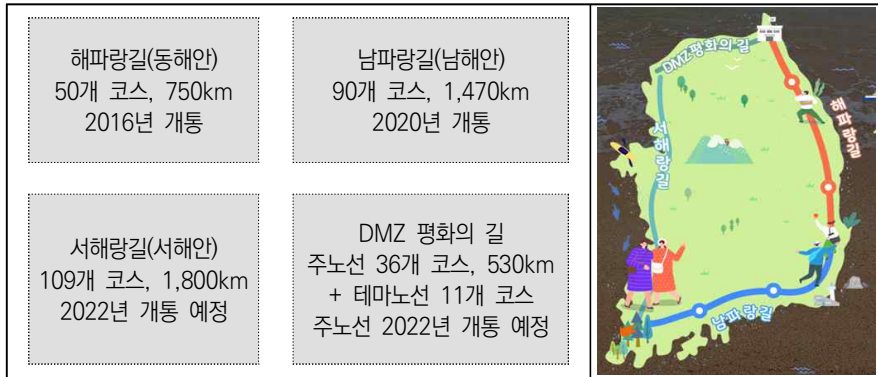
**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 ‘20.10.26.~11.23. / 3,002명 참가, 완주거리 총 42,930km, 완주코스 7,872개

2021년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2021.4.1.) 시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권고에 따라 걷기여행길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두루누비’ 전면 개편을 시작으로 걷기여행길 사업의 정책 방향*도 새롭게 구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걷기여행길 육성 지원 사업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21.11.12.)에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바로 이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2021.11.30.)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과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약 내용은 그간 국회, 공공데이터 등 관계기관의 권고·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지자체 공유사업 외 영역인 정부의 역할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 문체부 주관 걷기여행길 육성 지원 사업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에 집중

- △ 코리아둘레길 중심 통합정보제공플랫폼(두루누비) 개편 운영
- △ 코리아둘레길 여행 친화환경 조성
- △ 세계적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마케팅
-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지킴이, 자원봉사단, 원정대 등 국민 서포터즈 운영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장거리 걷기여행길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지역 체류관광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인식 확산에 따라 2016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코리아둘레길은 새로운 걷기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나라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약 4,500km)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림 5-11] 코리아둘레길 구성

2017년 1차년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코리아둘레길 사업이 걷기여행길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주도 및 지역 중심의 코리아둘레길 사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남해안(부산-순천)의 기존 걷기여행길과 주변 문화·역사·관광 자원들을 조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과의 만남을 주요 테마로 958.8km 62개 코스를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걷기여행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걷기여행길 실태조사를 통해 민관 협력형 관리운영모델을 도출하였다.

2018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남해안(보성-해남) 504.6km, 29개 코스, 서해안(해남-김포) 1,805km, 110개 코스에 대해 노선 조사·설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코리아둘레길 노선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걷기여행 매력력이 높은 단거리 구간을 발굴하여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3차년도 사업으로 DMZ 접경지역(강화~강원 고성) 768.6km, 47개 코스에 대한 노선(안)을 마련하였다.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주노선, 사전예약 및 인솔자가 동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 테마노선(244.8km, 11개 코스)으로 이루어졌다. DMZ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노선은 큰 제약없이 상시 이용 가능한 '상시이용노선(427.3km, 30개 코스)'과 일부 구간을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예약이용노선(96.5km, 6개 코스)'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등에 따라 지역 테마노선 중 고성('19.4.27.), 철원('19.6.1.), 파주('19.8.10.)지역의 DMZ 평화의 길을 시범 개방하게 되었다.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DMZ 평화의 길을 15,057명(고성 11,969명, 철원 2,387명, 파주 701명)이 방문하였다.

2020년에는 코리아둘레길 중 남해안 길인 남파랑길을 개통('20.10.31.)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남 해남, 경남 창원·통영에서 남파랑길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 해남('20.10.31.), 창원·통영('20.11.14.) 남파랑길 함께 걷기 총 490명 참가

2020년에 DMZ 평화의 길은 2019년도에 개방하였던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재개하고 7개 구간(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을 신규로 개방하고자 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순연되었다. 관광 재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한 후 파주 구간만 재개*하여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 2020년 파주 구간 재개 운영 실적 : '20.11.28.~12.13. / 신청 1,209명, 방문 179명

2021년에는 코리아둘레길 중 3번째 개통 예정인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해랑길 노선은 5개 광역 31개 지자체를 경유하며, 위험구간 최소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9월 최종 확정되었다. 안내체계 구축은 코스별 국비 10백만원이 지자체별로 지원되었으며 2022년 6월 개통 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은 코로나19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시점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10월에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되면서 11.20.~12.12.까지 약 3주일간 개방하였다. 10개 지자체 11개 코스 중 7개 지자체* 8개 코스가 개방되어 짧은 기간임에도 1,516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2개 코스) / (미개방) 연천, 철원, 인제

1) 사업목적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통한 세계적 명품 걷기여행길 브랜드 육성으로 걷기여행 수요 확산 및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을 코스와 연계시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계속
- 대상범위 : 코리아둘레길 4544km 경유 84개 기초지자체
- 2021년도 예산 : 3,339백만 원(관광기금)

3) 추진경과

-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국정과제로 선정(2008.3.28.)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2009.3.18.), 시행(2009~2014)
- “걷기여행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2013.10.8.)
-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koreatrails.or.kr) 서비스 개시(2013.10.10.)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사업 폐지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세부사업 내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편성, 운용(2015년 회계연도)
-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내역사업에서 걷기여행길 정비 관련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관광자원개발 생활계정 “탐방로안내체계구축”)로 이관(2016년 회계연도)
- 해파랑길 개통 행사(2016.5.~6.)
- 「문화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장거리 걷기여행길 “코리아 둘레길 사업” 발표(2016.6.17.)
- 전국 걷기여행길 모니터링 실시, 봄·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개최, “코리아 둘레길 기본 방향 수립 및 남해안(부산-순천) 노선 조사.설정” 등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한 저변 강화(2017)
- 2018 코리아둘레길 노선조사 및 설정(2018)
- 걷기여행길 관리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연구(2018)
- DMZ 평화의 길 3개 테마노선 개방(고성 '20.4.27. / 철원 '20.6.1. / 파주 '20.8.10.)
-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개통(2020.10.31.)
- DMZ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 수립·시행(2021.9.28. / 관계 5부처 합동)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 발표(2021.11.12. /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2021.11.30.)

10. 관련부처 관광자원 개발³⁴⁾

가. 생태관광자원 개발

1) 국립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93개소로, 이 중 국립공원 22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8개소, 지질공원 13개소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1960년대에 지리산·경주 등 4개소, 1970년대에 설악산·속리산 등 9개소, 1980년대에 다도해 해상 등 7개 공원, 2013년에 무등산국립공원, 2016년에 태백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다.

〈표 5-20〉 국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정 순위	공원명	위 치	공원구역		비 고
			지정일	면 적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483.022	
2	경 주	경북	1968.12.31.	136.550	
3	계 룡 산	충남, 대전	1968.12.31.	65.335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535.676	해상 408.488
5	설 악 산	강원	1970.3.24.	398.237	
6	속 리 산	충북, 경북	1970.3.24.	274.766	
7	한 라 산	제주	1970.3.24.	153.332	
8	내 장 산	전남·북	1971.11.17.	80.708	
9	가 야 산	경남·북	1972.10.13.	76.256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2.1.	229.430	

34) 본 보고서에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생태관광지역, 농어촌민박, 음식관광,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국유림 명품숲, 접경지역발전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음

(단위: km²)

지정 순위	공원명	위 치	공원구역		비 고
			지정일	면 적	
11	오 대 산	강원	1975.2.1.	326.348	
12	주 왕 산	경북	1976.3.30.	105.595	
13	태안해안	충남	1978.10.20.	377.019	해상 352.796
14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2,266.221	해상 1,975.198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1983.4.2.	76.922	
16	치 악 산	강원	1984.12.31.	175.668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1984.12.31.	287.57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1987.12.14.	322.011	
19	변산반도	전북	1988.6.11.	153.934	해상 17.227
20	월 출 산	전남	1988.6.11.	56.220	
21	무 등 산	광주, 전남	2013.3.4.	75.425	
22	태 백 산	강원, 경북	2016.8.22.	70.052	
계			22개소	6,726.298	주 참조

자료 : 환경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육지: 3,972.589, 해면: 2,753.709(2.7%), 국토면적의 3.96%(육상면적 기준)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726.298km²(육상기준 전 국토의 3.96%)로서 이 중 육지면적은 3,972.589km², 해면면적은 2,753.709km²이며, 해면이 포함된 공원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해면 1,975.198km²), 한려해상국립공원(해면 408.488km²), 태안해안국립공원(해면 352.796km²), 변산반도국립공원(해면 17.227km²)이 있다.

〈표 5-21〉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 리 산	3,067,190	3,308,833	3,005,498	2,669,076	2,864,374
경 주	2,948,636	2,887,634	2,999,547	1,836,948	2,389,314
계 룡 산	1,721,735	1,817,602	1,949,660	2,239,068	2,149,164
한려해상	7,157,772	6,439,653	6,328,709	3,700,609	3,252,991
설 악 산	3,693,991	3,241,484	2,868,098	1,947,361	1,918,390
속 리 산	1,349,381	1,244,854	1,285,804	986,092	987,504
한 라 산	1,001,437	891,817	848,279	699,117	652,706
내 장 산	2,102,467	1,948,616	1,907,905	1,518,415	1,525,174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 야 산	860,181	672,901	654,682	505,459	495,099
덕 유 산	1,731,939	1,501,306	1,222,691	991,175	1,036,941
오 대 산	1,510,658	1,399,119	1,360,966	1,178,420	1,115,400
주 왕 산	1,312,445	1,155,063	1,064,590	600,672	566,556
태안해안	1,059,775	1,049,974	1,014,462	711,332	660,113
다도해해상	2,338,866	1,987,762	2,260,407	1,862,664	1,883,904
치 약 산	670,880	738,368	759,346	870,934	826,134
월 약 산	1,055,621	1,014,793	1,000,518	827,593	841,135
북 한 산	5,955,251	5,518,508	5,574,539	6,561,211	7,362,704
소 백 산	1,224,129	1,193,986	1,158,325	972,423	953,829
월 출 산	508,118	408,930	493,538	328,155	316,813
변산반도	1,897,231	1,579,089	1,594,351	1,263,499	1,278,476
무 등 산	3,513,576	3,143,779	3,155,903	2,452,942	2,399,255
태 백 산	596,676	680,068	676,429	554,403	425,994
계	47,277,955	43,824,139	43,184,247	35,277,568	35,901,970

자료: 환경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려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바다 및 도서와 육지를 대표하는 해상공원이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해안절경과 육지를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경주국립공원은 사적공원으로 이들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도립공원

도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경관지로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후인 1970년 6월 1일 경상북도의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70년대에 13개소, 1980년대에 6개소가 지정되었고, 1990년대에 2개소, 2005년에 연인산 1개소, 2008년에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주조각공원 등 6개 군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 편입되었고, 2009년 수리산 도립공원을 지정하였다. 2011년에 제주조각공원을 폐지하고 제주꽃자왈 1곳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2016년 태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낙산도립공원이 자연공원 최초로 지정해제 되었으나, 별교곶별도립공원이 신규 지정되었고, 2019년에 불갑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현재 30개소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현황은 <표 5-21>과 같다.

도립공원은 남한산성과 같은 사적공원과 마라해양과 같은 해양공원, 신안갯벌과 같은 갯벌공원, 기타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1개소(팔공산), 경기도 3개소(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강원도 1개소(경포), 충청남도 3개소(덕산, 칠갑산, 대둔산), 전라북도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전라남도 7개소(조계산, 두륜산, 천관산, 신안증도갯벌, 무안갯벌, 별교갯벌, 불갑산), 경상북도 3개소(문경새재, 금오산, 청량산), 경상남도 2개소(가지산, 연화산), 제주특별자치도 6개소(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서귀포해양, 추자, 우도해양, 제주꽃자왈), 세종특별자치도 1개소(고북저수지)가 지정되어 있다.

〈표 5-22〉 도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
1	금 오 산	경북 구미, 칠곡, 김천	37.262	1970.6.1.
2	남 한 산 성	경기 광주, 하남, 성남	35.166	1971.3.17.
3	모 악 산	전북 김제, 완주, 전주	43.309	1971.12.2.
4	덕 산	충남 예산, 서산	19.859	1973.3.6.
5	칠 갑 산	충남 청양	31.059	1973.3.6.
6	대 둔 산	전북 완주, 충남 논산, 금산	59.993	1977.3.23.
7	마 이 산	전북 진안	17.220	1979.10.16.
8	가 지 산	울산, 경남 양산, 밀양	104.347	1979.11.5.
9	조 계 산	전남 순천	26.750	1979.12.26.
10	두 륜 산	전남 해남	32.910	1979.12.26.
11	선 운 산	전북 고창	43.683	1979.12.27.
12	팔 공 산	대구, 경북 칠곡, 군위, 경산, 영천	125.232	1980.5.13.
13	문 경 새 재	경북 문경	5.478	1981.6.4.
14	경 포	강원 강릉	1.689	1982.6.26.
15	청 량 산	경북 봉화, 안동	49.509	1982.8.21.
16	연 화 산	경남 고성	21.847	1983.9.29.
17	고 북	세종특별자치시	1.949	2013.1.17.
18	천 관 산	전남 장흥	7.936	1998.10.13.
19	연 인 산	경기 가평	37.691	2005.9.15.
20	신 안 갯 벌	전남 신안	162.000	2013.12.31.

(단위: km²)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
21	무안갯벌	전남 무안	37.123	2008.6.05.
22	마라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49.755	2008.9.19.
23	성산일출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16.156	2008.9.19.
24	서귀포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19.540	2008.9.19.
25	추자	제주도 제주시	95.292	2008.9.19.
26	우도해양	제주도 제주시	25.863	2008.9.19.
27	수리산	경기 안양, 안산, 군포	7.035	2009.7.16.
28	제주곶자왈	제주도 서귀포시	1.547	2011.12.30.
29	별교갯벌	전라남도 보성군	23.068	2016.1.28.
30	불갑산	전라남도 영광군	6.89	2019.1.10.
계	30개소		1,147.158	

자료 : 환경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시·군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경관지이다. 1981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21년 12월 말 기준 28개소에 걸쳐 총면적 254.528km²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은 <표 5-22>와 같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1개소(비슬산), 울산광역시 1개소(신불산), 부산광역시 1개소(장산), 경기도 2개소(천마산, 명지산), 강원도 3개소(아미산, 대이리, 병방산), 전라북도 2개소(강천산, 장안산), 경상북도 5개소(보경사, 불영 계곡, 빙계 계곡, 덕구온천, 운문산), 경상남도 13개소(상족암, 고소성, 거열산성, 웅석봉, 구천계곡, 입곡, 호구산, 봉명산, 기백산, 황매산, 화왕산, 방어산, 월성계곡)가 지정되어 있다.

<표 5-23> 국립공원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
1	강천산	전북 순창군 팔덕면	15.800	1981.1.7.
2	천마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천면, 호평면	12.388	1983.8.29.
3	보경사	경북 포항시 송라면	8.510	1983.10.1.
4	불영계곡	경북 울진군 울진읍, 서면, 근남면	25.595	1983.10.5.
5	덕구온천	경북 울진군 북면	6.275	1983.10.5.

(단위: km²)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
6	상 족 압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하이면	5.106	1983.11.10.
7	호 구 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2.839	1983.11.12.
8	고 소 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화개면	3.035	1983.11.14.
9	봉 명 산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2.645	1983.11.14.
10	거열산성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	3.271	1984.11.17.
11	기 백 산	경남 함양군 안의면	2.013	1983.11.18.
12	황 매 산	경남 합천군 대명면, 가회면	21.784	1983.11.18.
13	웅 석 봉	경남 산청군 산청읍, 금서·삼장·단성	17.960	1983.11.23.
14	신 불 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	11.585	1983.12.2.
15	운 문 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16.173	1983.12.29.
16	화 왕 산	경남 창녕군 창녕읍	31.258	1984.1.11.
17	구천계곡	경남 거제시 신현읍, 동부면	5.871	1984.2.4.
18	입 곡	경남 함양군 산인면	0.961	1985.1.28.
19	비 슬 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유가면	13.382	1986.2.22.
20	장 안 산	전북 장수군 장수읍	6.274	1986.8.18.
21	빙계계곡	경북 의성군 춘산면	0.880	1987.9.25.
22	아 미 산	강원 인제군 인제읍	3.159	1990.3.22.
23	명 지 산	경기 가평군 북면	14.027	1991.10.9.
24	방 어 산	경남 진주시 지수면	2.588	1993.12.16.
25	대 이 리	강원 삼척시 신기면	3.664	1996.10.25.
26	월성계곡	경남 거창군 북상면	0.650	2002.4.25.
27	병 방 산	강원 정선군 북실리	0.500	2011.9.30.
28	장 산	부산 해운대구	16.342	2021.9.15.
계	28개소		254.528	

자료: 환경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2012년 12월 27일 제주도와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21년 12월 말 기준 1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총 넓이 13,149km²로서 전 국토의 12.32%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고시일로부터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현황을 조사·점검하여 재평가한다.

〈표 5-24〉 지질공원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정순위	공원명	위치	면적	지정일
1	울릉도·독도	경북 울릉군	127.9	2012.12.27.
2	제주도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864.4	2012.12.27.
3	부산	부산 7개 자치구(금정구, 영도구, 진구, 서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	296.98	2013.12.6.
4	강원평화지역	강원도 4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829.1	2014.4.11.
5	청송	경북 청송군	845.71	2014.4.11.
6	무등산권	광주 2개 자치구(동구, 북구), 전남 2개군(화순군, 담양군)	246.31	2014.12.10.
7	한탄강	경기 2개시·군(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1,164.74	2015.12.31.
8	강원 고생대	강원도 4개시·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1,990.01	2017.1.5.
9	경북 동해안	경북 4개시·군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2,261	2017.9.13.
10	전북 서해안권	전북 2개군(고창군, 부안군)	520.3	2017.9.13.
11	백령·대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67	2019.7.10.
12	진안·무주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1,155	2019.7.10.
13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781.06	2020.7.27.
계	13개소		13,149.51	

자료: 환경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②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④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2021년 기준 국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리산 등 9개 지역(248.029km²)이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한강 밤섬 등 24개 지역(37.907km²)으로 총 33개 지역(285.936km²)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표 5-25〉 국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지역명	위치	면적 (km ²)	특징	지정일자
환경부 지정 : 9개소, 248.029km ²				
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미탄면 정선군 정선·신동읍 일원	79.259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2.8.9. (*19.12.23확대)
왕피천 유역	경북 울진군 서면, 근남면 일원	102.841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14. (*13.07.17확대)
소항사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독산리 일원	0.121	해안사구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28
하시동·안인 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0.234	사구의 지형·경관 우수	2008.12.17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일원	26.395	경관 및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종 서식	2010.09.09
거금도 적대봉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일원	8.365	멸종위기종과 특정야생동식물 서식	2011.01.07

자료 : 환경부, 2021년 12월 기준

주) ()는 변경일자

〈표 5-26〉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지역명	위치	면적 (km ²)	특징	지정일자
시·도지사 지정 : 24개소, 37.907km ²					
서울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79	철새도래지, 서식지	1999.08.10
	둔촌동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1	0.030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0.03.06 (*13.07.04확대)
	방이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9-2 일대	0.059	도시지역의 습지	2002.04.15 (*05.11.24확대)
	탄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151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2002.04.15
	진관내동	서울 은평구 진관동 282-1 일대	0.017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2.12.30
	암사동	서울 강동구 624-1, 659-1 일대	0.270	도시지역의 하천습지	2002.12.30. (*21.12.30확대)

시·도	지역명	위치	면적 (km ²)	특징	지정일자
서울	고덕동	서울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1일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하남시계)	0.320	다양한 자생종 번성 제비, 물총새 등 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서식	2004.10.20. (07.12.27확대)
	청계산원터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4-15번지 일대	0.146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낙엽활엽수군집 분포	2004.10.20
	현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일대	0.057	다양한 자생종 번성	2005.11.24
	남산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1-5일대	0.705	신갈나무군집 발달 남산 소나무림 지역	2006.07.27. (2007.12.27)
	불암산삼육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일대	0.204	서어나무군집 발달	2006.07.27
	창덕궁후원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일대	0.441	갈참나무군집 발달	2006.07.27
	봉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93-16	0.073	팔배나무림 군락지	2007.12.27
	인왕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0.258	기암괴소나무가 잘 어우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2007.12.27
	성내천하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6 일대	0.070	도심속 자연하천	2009.11.26
	관악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0.748	회양목군락 자생지	2009.11.26
	백사실계곡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 115-1 일대	0.133	생물다양성 풍부	2009.11.26
울산	태화강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 하류 일원	0.983	철새 등 야생종·식물 서식지	2008.12.24
강원	소한계곡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당리, 하맹방리 일원	0.104	국내 유일 민물김 서식지	2012.10.05
전남	광양백운산	전남 광양군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자연경관수려 및 원시자연림	1993.04.26
경기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	경기 가평군, 포천군	22.06	희귀곤충상 및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	1993.09.01
경남	거제시 고란초서식지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44-3	0.002	고란초 집단자생지	1995.10.02
부산	석은덤계곡	부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101-1	0.02	희귀야생식물 집단서식	2015.06.10
	장산습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	0.037	산지습지로서 희귀야생식물 서식	2017.08.09

자료: 환경부, 2021년 12월 기준
주) ()는 변경일자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점차 심화되는 도시화와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생태 탐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자원, 문화·역사자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해왔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조성 및 관리되고 있다.

「전국 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07.11)」에 따라 ’08년 퇴계 오솔길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가생태탐방로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생태탐방로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발굴·조성하고 탐방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복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표 5-27〉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실적 및 예산투자 현황

(단위: 개소, km, 억 원)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사업 수	174	9	13	15	12	12	14	13	18	15	17	12	11	13
조성 현황	1,982.7	60	536	2053	2634	2073	13.7	3638	201.1	45.4	1	60	7.2	18.5
예산	591.5	27.5	30	35	40	50	55	60	60	55.5	46.9	38.7	42.7	50.2

자료 :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http://www.eco-tour.kr/>)

7) 생태관광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자연환경보전법 41조)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생태관광자원 조사·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소득 창출 및 홍보방안 등 조기 정착 및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표 5-28〉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지역	지정일	개요
부산-낙동강하구	'13.12.9	연간 8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철새도래 지역으로 연간 170여종 철새들이 찾고, 380여 종의 식물이 서식
울산-태화강	'13.12.9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태화강, 야생생물보호구역, 태화강 하류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삼호대숲, 십리대밭 등
인제-대암산용늪	'13.12.9	DMZ,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천연보호구역 등 군면적의 33%가 보호지역
양구-DMZ	'13.12.9	전구간이 보호구역. 평화누리길, 두타연안보관광지, DMZ야생동물생태관, 편지불 돌레길, 산양증식장, 생태식물원 등
평창-어름치마을	'13.12.9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서식,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음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13.12.9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멸종위기 조류 49종, 천연기념물 조류 3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삿과 금개구리 서식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13.12.9	유부도와 금강하구갯벌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이며, EAAFF서식지로 등재
순천-순천만	'13.12.9	국내 연안습지 최초의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명승 제41호, 생태계보존지구인 순천만 일대
울진-왕피천계곡	'13.12.9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계곡과 불영사 계곡 문화재 보호구역
남해-앵강만	'13.12.9	국립공원, 군립공원 지역(금산, 호구산), 생태우수마을(두모마을, 가천마을), 국가명승(다랭이논)
창녕-우포늪	'13.12.9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2018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500여종 식물과 천연기념물 160여종 서식
제주-동백동산습지	'13.12.9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산림유전자원지역 등으로 지정
안산 - 대부도·대송습지	'14.12.29	연중 20만여마리 철새와 11종의 천연기념물, 9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수도권 대표적 철새도래지(대송습지)
강릉 - 가시연습지·경포호	'14.12.29	수달, 원앙, 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는 경포호(석호), 가시연습지, 순포습지 복원지,
과산 - 산막이옛길과 과산호	'14.12.29	산막이 옛길(4km)과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등산로(2개 코스 7.3km), 충청도 양반길 5개 코스(21km)
고창 - 고인돌·운곡습지	'14.12.29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자연적으로 산지저층습지와 소택지 등의 습지원형으로 복원과정을 거침
서귀포 - 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14.12.29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서귀포 바다로 유입되는 효돈천(13km)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
영산도(전남 신안)	'15.12.2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명품마을(면적 2.2km ² , 36가구 40명) 영산8경, 풍란, 석곡 등 자원 보유
상서마을(전남 완도)	'15.12.2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명품마을(면적 0.128km ² , 32가구 66명), 지방문화재 제279호인 마을 돌담길, 매봉산 탐방로, 다랭이논, 구들장논 등 자원 보유

지역	지정일	개요
평촌마을(광주 북구)	'15.12.28	무등산국립공원 명품마을(면적 0.245km ² , 43가구 94명), 무등산국립공원의 생물종 4,000여종 중 멸종위기종인 수달, 참매, 남생이, 구렁이 등과 반딧불 서식지역
철원-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18.1.25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18.1.25	전국 최고 저층형 산지습지인 월영습지 보유, 내장산 국립공원 위치, 화전민터, 천주교 성지 등 문화역사자원 우수
영양-밤하늘·반딧불이 공원	'18.1.25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최초, 2015.10, IDA국제밤하늘협회), 반딧불이 서식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김해-화포천 습지	'18.1.25	습지보호지역 지정('17.11), 황새, 독수리 서식지, 봉하마을
밀양-사자평습지, 재약산	'18.1.25	재약산 사자평 습지보호지역(고산습지), 진퍼리새, 복주머니란, 은줄팔랑나비 집단서식지
제주-저지리 꽃자왈과 저지오름	'18.1.25	저지꽃자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15)
인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마을	'21.5.27	맨틀포획암 문포지, 심청각, 끝 섬 전망대, 사곶사빈(천연비행장)
창원-주남저수지	'21.5.27	흰꼬리수리 등 21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지, 연간 121종 정도의 철새가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21.5.27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둔주봉(한반도지형 전망), 배바우공동체마을(체험, 숙박), 전통문화체험관, 장계관광지, 정지용 생가(박물관)

자료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2021.12월 기준)

나. 농촌관광자원 개발

1) 관광농원

관광농원은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농림수산물생산기반 등을 농촌체험·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전체 면적의 20% 이상(2,000m² 이상)이면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은 반드시 과수·화훼·가축사육장·양어장 등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수협·농어업법인 등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02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 중이며, 이들 관광농원은 체험시설 외에도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고구마·밤 등 농작물 수확체험, 순두부·인절미 등 전통음식 만들기, 연날리기·썰매타기 등 전통놀이체험, 야생화·반딧불이·메뚜기 관찰 등 자연학습(생태관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 도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광농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관광농원 개발에 따른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시설·개보수 자금 고정(2.0%)·변동 선택, 운영자금 고정(2.5%)·변동 선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5-29〉 시·도별 관광농원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수	-	1	1	38	-	-	2	-	239	142	56	109	37	81	139	136	47	1,0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의소득증대 등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비대면 체험꾸러미를 활용한 농촌체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 및 농촌관광 조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휴양·체험공간으로 2021년까지 1,17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받아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2007년 12월 제정하여 2008년 6월 시행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농촌체험·휴양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도농 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표 5-30〉 시·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수	-	-	-	8	6	1	5	3	117	213	78	136	145	174	133	130	26	1,1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설규모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 개축은 지원 불가)의 80% 이내 지원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단위민박단체를 법정교육 운영주체에 추가하고 민박 허위·유사 표시 및 사업장 내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였다.

〈표 5-31〉 시·도별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수	86	5	1,200	3	14	250	12	3,273	5,734	1,345	1,792	1,137	3,152	2,942	3,602	4,761	29,30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음식관광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한식진흥 기반강화,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 해외확산 지원 등을 통해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여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확산하여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식의 전시·홍보·체험·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식문화공간(종로구 재동, '이음'³⁵⁾)을 운영하고 국내 관광과 연계한 외국인 한식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35) 한식문화관,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전통주갤러리, 한식진흥원을 서울시 재동으로 통합 이전('21.12.)

〈표 5-3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경위

구분	주요 내용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韓食)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 결정 -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5) - 합리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민·관 합동 한식세계화 추진단 구성(‘09.5) - 한식세계화의 민간 집행기구인 한식재단 설립(‘10.3) -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한식재단 지정(‘12.5), 한식정책 발정부안 마련(‘14.1) - 한식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15.1), 한식진흥원 명칭 변경(‘17.12) - 한식진흥법 제정(‘19.8) 및 시행(‘20.8) -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확정(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20.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

〈표 5-33〉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세부계획(2021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음식관광상품 개발 공모	400	200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한식 확산 지원	700	500
지역 한식체험 산업육성	미추진	120
지역 공항 거점 한식관광 클러스터 구축	미추진	200
한식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1,609	1,189
한식복합문화공간 조성	미추진	2,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

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1) 어촌체험휴양마을

정부는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안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정비사업 중 해안접근로 정비, 해수관로 정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연안습지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한 등대시설에 국비를 투자하여 종합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항만친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 등 어업 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국 연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7개소에 61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지역당 1억 원 정도로 지원 금액이 제한되어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소에 188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식의 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 9개소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23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 지자체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2021년까지 118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표 5-34〉 연도별/시·도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8년	-	-	-	-	-	-	-	-	-	-	-	-	-	1	-	-	-	1
2009년	-	-	-	-	-	-	-	-	-	-	-	-	-	-	-	-	-	-
2010년	-	-	-	-	-	-	-	-	-	-	-	1	-	4	-	-	-	5
2011년	-	-	-	-	-	-	-	-	1	-	-	1	-	4	-	7	-	13
2012년	-	-	-	-	-	-	-	-	2	-	-	2	-	1	-	-	-	5
2013년	-	-	-	-	-	-	1	-	-	-	-	1	-	3	-	2	-	7
2014년	-	-	-	-	-	-	-	-	-	3	-	1	3	-	4	8	-	19
2015년	-	2	-	3	-	-	-	-	-	2	-	-	1	6	1	4	5	24
2016년	-	-	-	-	-	-	1	-	1	4	-	4	-	4	1	-	-	15
2017년	-	-	-	1	-	-	-	-	-	-	-	-	1	1	-	3	1	7
2018년	-	-	-	-	-	-	-	-	2	1	-	-	1	-	1	-	-	5
2019년	-	1	-	-	-	-	-	-	-	1	-	2	-	1	-	1	-	6
2020년	-	-	-	3	-	-	-	-	2	-	-	2	-	3	-	2	-	12
2021년	-	-	-	-	-	-	-	-	1	-	-	-	-	2	-	2	-	5
관리 제외	-	-	-	-	-	-	-	-	-	-	-	-	1	2	-	3	-	6
계	-	3	-	7	-	-	2	-	9	11	-	14	5	28	7	26	6	118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35〉 시·도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시·도	시·군	마을명	주요 체험 프로그램	2021년 체험객 수
부산 (3)	영도구	동삼마을	좌대낚시체험, 맨손물고기잡이, 곰피어묵만들기, 곰피비누 만들기 등	25,797
	강서구	대항마을	선상낚시체험, 송어들이 체험, 생태역사체험	562
	기장군	공수마을	후릿그물체험, 장아찌 만들기, 조간대 학습 등	4,074
인천 (7)	중구	큰무리마을	갯벌체험(동죽, 모시조개, 바지락, 낙지, 소라, 민꽃개 등), 갯바위체험, 휴양체험	4,650
		포내마을	갯벌체험(동죽, 모시조개, 백합, 낙지, 소라, 굴, 피조개 등)	11,541
		마시안마을	갯벌체험(동죽, 바지락), 갯벌마차체험, 맨손고기잡이	83,425
	서구	세어도마을	갯벌체험, 선상낚시, 분재만들기	1,908
	옹진군	이작마을	갯벌체험	887
		선재마을	갯벌체험, 낚시체험, 트랙터 체험	52,332
영암마을		갯벌체험(바지락/동죽/고동/소라 등)	7,296	
울산 (2)	동구	주전마을	해녀체험, 투명카누, 스킨스쿠버, 미역따기 체험 등	1,652
	북구	우가마을	투명카누, 스노클링 체험	-
경기 (9)	안산시	선감마을	갯벌체험, 망둥어 낚시, 소라화분/머드비누 만들기, 고구마/포도 수확체험 등	8,649
		종현마을	갯벌체험	6,100
		풍도마을	둘레길 탐방	540
		흘곶마을	갯벌체험, 포도농장, 맨손어업	16,595
	시흥시	오이도마을	동죽캐기, 갯벌체험	29,969
	화성시	제부마을	갯벌체험, 아쿠아캔들/바다비누 만들기	7,675
		백미리마을	조개캐기, 망둥어체험, 카약타기	29,478
		궁평리마을	바지락캐기, 모터/패들보트타기, 망둥어 낚시, 모래아트 체험	12,888
전곡리마을		독살체험, 망둥어낚시, 갯고동잡이	10,536	
강원 (11)	강릉시	심곡마을	운영준비중	-
		소돌마을	투명카누체험, 커피만들기체험, 물고기 맨손잡이, 액서사리 만들기	1,782
	속초시	장사마을	오징어 맨손잡기 및 시식, 오징어 해부 및 먹물 글씨 쓰기, 해조류 채집 및 표본 만들기, 오징어 요리하기	19,191
	삼척시	장호마을	선상낚시체험, 투명카누, 스노클링, 씨워킹	77,613
		갈남마을	투명카누, 동력보트, 스노클링	16,830
궁촌마을		투명카누, 스노클링	-	

(단위: 명)

시·도	시·군	마을명	주요 체험 프로그램	2021년 체험객 수
	양구군	진목마을	물고기 맨손잡이, 산나물 채취, 어선 승선, 어부 체험	373
	고성군	오호마을	오징어 맨손잡기	3,501
		거진마을	투명카누, 스노클링	23,060
	양양군	남애마을	선상낚시체험, 실내스쿠버교육	2,066
		수산마을	해초비누만들기, 투명카누, 요트승선체험, 문어방만들기체험 등	4,256
충남 (14)	보령시	무창포마을	관광열차, 바지락캐기	13,656
		장고도마을	갯벌체험, 선상낚시, 그물체험	520
		삼시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296
		군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19,734
	서산시	종리마을	갯벌체험(바지락, 낙지), 감태초콜릿만들기체험, 강통열차 타기	1,982
		웅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강통열차 타기	1,889
		왕산마을	갯벌체험, 굴까기 체험, 바지락전/바지락탕 만들기	356
	당진시	교로왜목마을	조개캐기, 해조류 채취, 낙지잡기	-
	서천군	월하성마을	갯벌체험(바지락)	2,389
		선도리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김급기체험 전동스쿠터,	31,105
	태안군	만대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설게 잡기, 축제식 낚시	7,500
		대야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선상 낚시, 바닷 속 미니액자 만들기	18,800
		용신마을	갯벌체험(바지락, 동죽)	4,284
		병술만마을	갯벌체험(바지락, 맛조개, 돌게),	9,372
전북 (5)	군산시	선유도마을	갯벌체험(조개)	3,630
		신시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개막이체험	108,870
	고창군	하전마을	갯벌체험(조개)	7,464
		만돌마을	갯벌체험, 염전체험, 어망체험	10,961
		장호마을	갯벌체험(조개), 후릿그물체험, 갯벌셀매	2,003
전남 (28)	여수시	외동마을	바지선낚시, 해상콘도낚시	2,782
		안도마을	좌대낚시, 갯벌체험(조개, 고동, 소라, 해초)	492
		개도마을	조개캐기, 전북따기, 통발체험	704
		낭만낭도마을	어부체험, 낚시잡기, 양식장체험, 방풍재료를 이용한 떡과 빵 만들기	5,504
		백야마을	요트체험, 선상낚시	4,785
	순천시	거차마을	짱뚱어잡기, 벌배타기, 머드팩체험	1,587

(단위: 명)

시·도	시·군	마을명	주요 체험 프로그램	2021년 체험객 수
	고흥군	풍류마을	갯벌체험(바지락, 낙지, 개불, 해삼 등)	222
		연흥도마을	조가비공예, 부자공예품만들기, 우무가사리 체험	891
	장흥군	신리마을	갯벌체험(참꼬막), 개막이 체험,	273
		사금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갯바위낚시	436
		수문마을	갯벌체험(바지락)	244
	강진군	하저마을	바지락캐기, 어선타기체험, 대나무낚시, 물놀이 체험	3,173
		서중마을	해상펜션 낚시체험, 바지선 낚시, 바지락캐기	1,211
		백사마을	바지락캐기, 칠게잡기, 고동잡기	358
	해남군	사구마을	독살체험, 개막이체험, 후릿그물체험, 사다리그물체험	-
		오산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굴, 꼬막), 생태문화기행	511
		산소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꼬막, 칠게), 후릿그물체험, 통발체험, 대나무낚시체험	75
	무안군	송계마을	운영준비중	-
	함평군	돌머리마을	개막이체험, 바지락캐기, 맨손물고기잡기, 소라다육이만들기체험 등	23,595
	영광군	창우마을	조개잡기, 방게잡기, 망둥어낚시	162
	완도군	북고마을	개막이체험, 전복잡기, 전복가두리현장체험	-
		도락마을	운영준비중	-
		보옥마을	멸치공정과정체험	562
	진도군	죽림마을	갯벌체험(바지락, 돌게, 동죽, 맛조개)	9,244
		접도마을	개막이 체험, 선상낚시체험	1,345
		초평해오름마을	운영준비중	-
창유마을		운영준비중	133	
신안군	둔장마을	백합캐기체험, 독살체험, 후릿그물체험, 삼각망체험	2,764	
경북 (7)	포항시	창바우마을	고동잡기, 통발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2,896
	경주시	연동마을	전통대나무낚시체험, 스노클링	1,491
	울진군	거일1리마을	낚시체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1,769
		나곡1리마을	낚시체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
		구산마을	갯바위낚시, 투명카누, 스노클링	1,456
		기성마을	통발체험, 갯바위 낚시체험, 붉은대게피자만들기체험	1,332
	해빛뜰마을	비누만들기체험	12,591	
경남 (26)	창원시	고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조개, 썩), 통발체험, 선상낚시체험,	508
		거북이행복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조개, 썩), 통발체험, 바지락 수제비 만들기 등	261

(단위: 명)

시·도	시·군	마을명	주요 체험 프로그램	2021년 체험객 수	
제주 (6)	통영시	주도마을	갯벌체험, 핸드드립 커피 내리기, 페브릭브로치 만들기, 소라향초 만들기	55	
		유동마을	바지선낚시, 해녀체험, 프리다이빙	1,798	
		연명마을	바다목장견학, 가두리양식장 낚시	2,286	
		궁항마을	바지락캐기, 해삼잡기	2,474	
	사천시	예곡마을	갯벌체험(바지락)	1,145	
		다맥마을	바지락 캐기, 썩잡이 체험	1,588	
	거제시	비토마을	해양낚시	560	
		도장포마을	선상낚시체험, 좌대낚시체험	4,331	
		계도마을	좌대낚시, 데크낚시, 선창데크낚시, 해상콘도낚시	22,839	
		쌍근마을	바지락캐기, 자망 및 통발 체험	1,554	
		다대마을	조개캐기, 맨손 물고기잡기, 조개공예체험	27,450	
		산달도마을	바지락캐기, 해삼줍기, 선상낚시	772	
	고성군	탑포마을	조개캐기	885	
		동화마을	바지락캐기, 해상콘도낚시, 햇불체험	4,998	
	남해군	룡대미마을	바지락캐기, 어죽만들어먹기, 멸치 주먹밥 만들기	1,254	
		지족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조개) 죽방렴 멸치잡기 체험	1,364	
		문항마을	갯벌체험(썩, 조개, 개막이)	14,650	
		냉천마을	갯벌체험(썩, 조개)	470	
		은점마을	문어통발체험, 선상낚시체험	9	
		유포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조개, 개막이), 후릿그물체험, 조개공예	405	
		이어마을	조개캐기, 썩잡이체험, 통발체험, 전어잡이체험	5,314	
		설리마을	유어장낚시 체험, 생활낚시체험, 통발체험, 카약, 스노클링	941	
	하동군	전도마을	바지락캐기, 썩잡기	16,820	
		대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선상낚시체험	745	
	제주 (6)	제주시	하도마을	해녀체험, 바룻잡이체험, 대나무낚시체험	12,880
			구엄마을	제트보트, 스피드보트, 투명카약, 제트스키 체험	6,004
		서귀포시	위미1리마을	스킨스쿠버, 갯바위낚시, 선상낚시	7,222
			강정마을	바룻잡이체험, 낚시체험	10,030
			사계마을	해녀체험	88
	법환마을	해녀체험, 낚시체험	195,502		
	계		118개	1,139,827	

자료: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더불어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 수요창출과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어촌관광 주체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3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지원 4개소, 바다해설사 양성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적하고 깨끗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국민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문객은 감소했고, 체험과 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 관광수익은 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향후 개별 마을의 특색과 차별점을 발굴하여 최근 관광소비 경향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과 마을의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 어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안전·위생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어촌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어촌주민들의 어촌체험마을 운영 역량을 향상시켜 어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어촌의 유·무형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 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어 2021년까지 총 11개소 유산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어업기술과 어촌의 다원적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어업의 가치증진과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5-36〉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어업유산 제1호 (2015년)	제주 해녀어업	제주도 전역(14,346ha)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존재
어업유산 제2호 (2015년)	보성 뽕배어업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km ²)	밭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 특성 때문에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어업유산 제3호 (2015년)	남해 죽방렴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해염 일원(537.2ha, 죽방렴23개소)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어업유산 제4호 (2016년)	신안 갯벌 천일염업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km ²)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어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
어업유산 제5호 (2017년)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358ha)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전통적 김 양식어업
어업유산 제6호 (2018년)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전남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118.35km ²)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어업유산 제7호 (2018년)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140ha)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
어업유산 제8호 (2020년)	통영·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	경남통영·거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63.6ha)	서식환경이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깨끗한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란 미역을 트릿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전통어업
어업유산 제9호 (2021년)	울진·울릉 돌곽 때배 채취어업	경북 울진·울릉 돌곽 채취 구역 (39.79km ²),	오동나무 등을 뗏목처럼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어업유산 제10호 (2021년)	부안 곰소 천일염업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대 (5.4km ²)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어업유산 제11호 (2021년)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 (6,901.4km ²)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흥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는 어업

자료 :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2~’26)」을 발표하며,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 경제 활력 제고 계획을 마련하였다. ‘해양치유’는 갯벌·소금·해양심층수·해조류·해양경관·해양기후 등과 같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고,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치유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는 완도에 들어설 예정으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4)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관광 권역별 (7개 권역_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로 관광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지정하고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해중경관지구 2개소(강원 고성, 제주)와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군산 무녀도 일대 등 총 3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19.7) 절차완료 후 23년 개원 목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 보성군, 경기도 시흥시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라. 산림관광자원 개발

1) 산림휴양시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숲에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2021년에 5개소(국립2, 공립3)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86개소를 조성하여 이용자 수가 약 1,401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 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말 기준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늘어나는 캠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숲속야영장 조성근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 말 기준 총 27개소를 조성하였다.

〈표 5-37〉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자 수	11,615	12,780	13,954	15,629	15,238	16,713	15,331	15,989	10,972	14,007
국립 자연휴양림	3,737	3,760	3,523	3,841	4,240	4,353	4,571	4,657	3,010	3,644
공립 자연휴양림	7,077	7,677	9,362	10,777	9,646	10,308	9,675	10,286	7,313	9,438
사립 자연휴양림	801	1,343	1,069	1,011	1,352	2,052	1,085	1,046	649	925

자료: 산림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38〉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조성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20년 조성	2021년 조성	2022년 이후
계	434	416	10	12
자연휴양림	190	181	5	4
숲속야영장	32	24	3	5
산림욕장	216	211	2	3

자료: 산림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39〉 연도별/시·도별 산림욕장 조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계	160	11	6	7	9	-	4	5	5	6	2	213
서울	-	-	-	-	-	-	-	-	-	-	-	-
부산	4	-	-	-	-	-	-	-	-	-	-	4
대구	7	-	-	-	-	-	-	-	1	1	1	10
인천	4	-	-	-	-	-	1	-	-	-	-	5
광주	-	-	-	-	-	-	-	-	-	-	-	-
대전	4	-	-	-	-	-	-	-	-	-	-	4
울산	-	-	-	-	-	-	-	-	-	-	-	-
세종	1	-	-	-	-	-	-	-	-	-	-	1
경기	17	6	-	4	7	1	-	3	1	2	-	41
강원	25	4	1	2	-	-	2	-	2	-	-	36
충북	13	-	-	-	-	-	-	-	-	1	-	14
충남	8	-	-	-	-	-	-	-	-	-	-	8
전북	16	-	-	-	1	-	-	-	-	1	-	18
전남	25	1	1	-	-	-	1	1	1	-	1	31
경북	14	-	4	1	1	-	-	-	-	1	-	21
경남	19	-	-	-	-	-	-	1	-	-	-	20
제주	-	-	-	-	-	-	-	-	-	-	-	-

자료: 산림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5-40〉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구 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 적(ha)
국립		46개소	106,469
국립자연 휴양림 관리소	유 명 산	경기 가평 설악 유명산길	867
	대 관 령	강원 강릉 성산 삼포암길	3,009
	신불산폭포	울산 울주 상북 역새별길	1,305
	중 미 산	경기 양평 옥천 중미산로	345
	청 태 산	강원 횡성 둔내 청태산로	401
	청 옥 산	경북 봉화 석포 청옥로	10,011
	삼 봉	강원 홍천 내 삼봉휴양림	2,139
	미 천 골	강원 양양 서 미천골길	12,427
	통 고 산	경북 울진 서 불영계곡로	15,030
	용 대	강원 인제 북 용대 연화동길	1,471
	가리왕산	강원 정선 정선 가리왕산로	11,332
	덕 유 산	전북 무주 무풍 구천동로	743
	회 문 산	전북 순창 구림 안심길	289
	칠 보 산	경북 영덕 병곡 칠보산길	10,867
	천 관 산	전남 장흥 관산 칠관로	833
	지 리 산	경남 함양 마천 음정길	142
	방 태 산	강원 인제 기린 방태산길	9,363
	검 마 산	경북 영양 수비 검마산길	7,830
	남해편백	경남 남해 삼동 금암로	226
	산 음	경기 양평 단월 고북길	2,131
국립자연 휴양림 관리소	속리산말티재	충북 보은 장안 속리산로	283
	운 문 산	경북 청도 운문 운문로	1,950
	북 주 산	강원 철원 근남 하오재로	2,956
	오 서 산	충남 보령 청라 오서산길	163
	운 장 산	전북 진안 정천 휴양림길	1,958
	방 장 산	전남 장성 북이 방장로	670
	희리산해송	충남 서천 종천 희리산길	143
	낙안민속	전남 순천 낙안 민속마을길	286
	용 현	충남 서산 운산 마애삼존불길	986
	백 운 산	강원 원주 판부 백운산길	856
	용 화 산	강원 춘천 사북 사여골길	2,088
	운 악 산	경기 포천 화현 하동로	151
	황 정 산	충북 단양 대강 황정산로	252
	두 타 산	강원 평창 진부 아차골길	220
	검 봉 산	강원 삼척 원덕 임원안길	749
	대 야 산	경북 문경 가은 용추길	814
	상당산성	충북 청주 청원 내수 덕암길	179
	변 산	전북 부안 변산 변산로	31
	아 세 안	경기 양주 백석 기산로	58
	진 도	전남 진도 임회 동령개길	143

구 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 적(ha)
	달 음 산	부산 기장 일광 화용길	40
	신 시 도	전북 군산 옥도 신시도길	119
	용 지 봉	경남 김해 대청	58
	무 의 도	인천 중 무의	137
제주	서 귀 포	서귀포 대포	255
	제주절물	제주 명림로	300
공립		116개소	22,498
대구 (2개소)	비 슬 산 화 원	달성 유가 용 달성 화원 본	219 71
인천 (1개소)	석 모 도	강화 삼산 석모	128
대전 (2개소)	만 인 산 장 태 산	동 하소 서 장안	185 81
울산 (1개소)	입 화 산	중 다운	38
경기 (10개소)	축 령 산 용 문 산 칼 봉 산 용 인 강 씨 봉 천 보 산 바 라 산 고 대 산 서 운 산 동 두 천	남양주 수동 외방 양평 양평 백안 가평 가평 경반 용인 모현 초부 가평 북 적목 포천 동교동 의왕 학의동 연천 신서 안성 금광 동두천 탐동가산로	779 120 264 172 980 116 208 31 83 68
강원 (13개소)	치 약 산 집다리골 가 리 산 안인진임해 태백고원 광 치 춘 천 숲 하 추 평 창 망경대산 송이밸리 동강전망 두루월	원주 판부 금대 춘천 사북 지암 홍천 두촌 천현 강릉 강동 안인진 태백 철암 양구 남 적 춘천 동산 군자 인제 인제 하추 평창 봉평 무이 영월 중동 연상 양양 양양 월 정선 신동 고성 철원 갈말 지경	170 4,603 304 115 140 51 80 88 54 45 43 44 186
충북 (18개소)	박 달 재 장 령 산 조 령 산 봉 황	제천 백운 평동 옥천 군서 금산 괴산 연풍 원풍 충주 가금 봉황	170 200 766 174

구 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 적(ha)
	계 명 산	충주 종민	362
	옥 화	청원 미원 운암	136
	민주지산	영동 용화 조동	180
	소 선 암	단양 단성 대잠	63
	수래의산	음성 생극 차곡	89
	문 성	충주 노은 문성	56
	충북알프스	보은 산외 장갑	90
	좌 구 산	증평 증평 울리	73
	백 야	음성 금왕 백야	37
	생거진천	진천 백곡 명암	221
	성 불 산	괴산 괴산 검승	58
	보 은	보은 속리 갈목	110
	소 백 산	단양 영춘 하리	189
	옥 전	제천 봉양 옥전	109
충남 (12개소)	칠 감 산	청양 대치 광대	75
	만 수 산	부여 외산 삼산	130
	용 봉 산	홍성 홍성 상하	190
	안 면 도	태안 안면 승연	135
	성 주 산	보령 성주 성주	456
	남 이	금산 남이 건천	316
	금 강	공주 반포 도남	183
	영 인 산	아산 영인 아산	123
	태 학 산	천안 풍세 삼태	101
	봉 수 산	예산 대흥 동서	96
	양 촌	논산 양촌 남산	40
	주 미 산	공주 수원지공원길	51
전북 (9개소)	와 룡	장수 천천 와룡	57
	세 심	임실 삼계 죽계	101
	고 산	완주 고산 오산	672
	남원흥부골	남원 동 인월	100
	방 화 동	장수 번암 사암	101
	무 주	무주 설천 청량	31
	데 미 샘	진안 백운 신암	230
	성 수 산	임실 성수 성수	135
	향 로 산	무주 무주 오산	268
전남 (13개소)	백 아 산	화순 북 노치	100
	유 치	장흥 유치 신유	100
	제 암 산	보성 웅치 대산	160
	팔 영 산	고흥 영남 우천	186
	백 운 산	광양 옥룡 추산	36
	가 학 산	해남 계곡 가학	50
	한 천	화순 한천 오음	148
	주 작 산	강진 신전 수양	168

구 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 적(ha)
	순 천	순천 서 율평	90
	봉 황 산	여수 돌산 신복	229
	신 안	신안 자은서부	30
	구례산수유	구례 산동 탐정	34
	완 도	완도 완도 대아	112
경북 (20개소)	청 송	청송 부남 대전	210
	토 함 산	경주 양북 장항	121
	불 정	문경 점촌 불정	275
	군위장곡	군위 고로 장곡	260
	구 수 곡	울진 북 상당	200
	성 주 봉	상주 은척 남곡	200
	계 명 산	안동 길안 고란	249
	금 봉	의성 옥산 금봉	376
	송 정	칠곡 석정 반계	63
	옥 성	구미 옥성 주아	153
	운주승마	영천 임고 황강	69
	안동호반	안동 도산 동부	59
	비 학 산	포항 북 탐정	227
	수 도 산	김천 대덕 추량	59
	미 송 산	고령 고령 신리	35
	흥 림 산	영양 일월 도계	64
	독용산성	성주 금수 봉두	146
	팔 공 산	칠곡 가산 금화	31
	문 수 산	봉화 봉성 우곡	257
	보 현 산	영천 화북 배나무정길	137
경남 (13개소)	용 추	함양 안의 상원	159
	거 제	거제 동부 구천	32
	금 원 산	거창 위천 상천	130
	오 도 산	합천 봉산 압곡	270
	대 운 산	양산 웅상 용당	214
	산 삼	함양 서상 금당	67
	대 봉 산	함양 병곡 광평	95
	한 방	산청 금서 특	137
	화 왕 산	창녕 고암 감	67
	구 재 봉	하동 적양 서	43
	하동편백	하동 옥종 돌고지로	3
	사천케이볼카	사천 실안길	39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 가조 의상봉길	48
제주 (2개소)	교 래	제주 조천 교래	230
	붉은오름	서귀포 표선 가시	190
사립		24개소	1,810
대구 (1개소)	포레스트12	달성 가창 냉천	40

구 분	자연휴양림명	위 치	면 적(ha)
인천 (1개소)	숲속의향기	강화 불온 삼성	32
울산 (1개소)	간 월	울주 상북 작괘로	60
경기 (3개소)	청 평 설 매 재 국 망 봉	가평 외서 삼회	31
		양평 옥천 용천	34
		포천 이동 장암	255
강원 (6개소)	둔 내 두 릉 산 주천강강변 횡 성 피노키오 삼척 활기	횡성 둔내 삽교	27
		홍천 서 팔봉	53
		횡성 둔내 영랑	229
		횡성 갑천 포동	49
		원주 신림 황둔	40
		삼척 미로 준경길	25
충북 (1개소)	동 보 원	청주 미원 구방2길	30
충남 (3개소)	대둔산자연 서대산약용 심천치유	금산 진산 목산	136
		금산 추부 성당	27
		금산 남일 신동길	158
전북 (1개소)	남 원	남원 갈치	32
전남 (2개소)	무등산편백 느렁이골	화순 이서 안심	70
		광양 다압 신원	33
경북 (2개소)	학가산우래 세 아	예천 보문 우래	132
		칠곡 석적 반계	63
경남 (3개소)	원 동 지리산마더힐 덕 원	양산 원동 내포	74
		산청 시천 중산	43
		하동 옥종 종화	137

자료 : 산림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또한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휴양 정책은 첫째 국가균형발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둘째, 산림체험·교육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셋째, 지역(산촌)과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넷째, 사회적 약자 전용시설 및 산림휴양 활동 지원 등 국민 맞춤형 산림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예약·결제를 통합하는 숲나들e(산림휴양 통합플랫폼)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에 맞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 외에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산림휴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2) 국유림 명품숲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하여 지역의 주요 산림관광 자원 및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국유림 명품숲을 선정하고 있다. 국유림 명품숲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경관형 숲, 희귀수종 등 연구적 가치가 우수한 보전·연구형 숲, 국민들이 편안한 휴양을 즐길수 있는 휴양·복지형 숲으로 구분하여 경영·관리하고 있다.

〈표 5-41〉 국유림 명품숲 선정 현황

유형	선정년도	명품숲 명	개소
경영·경관형 명품숲 (14)	2017	무왕리 낙엽송숲	경기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3
	2017	가리산 잣나무숲	강원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2017	대관령 소나무숲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외 2필
	2017	청옥산 생태경영숲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외 1
	2017	우구치 낙엽송숲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외 2
	2017	울진 금강송숲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외 2필
	2017	음성 원통산 자작나무숲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2017	죽령 옛길숲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4
	2017	덕유산 리기다 백년의 숲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외2
	2017	서기산 편백숲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83
	2019	상안리 낙엽송숲	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
	2020	오청산 소나무 숲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2020	문수산 편백 숲	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산100 외1
	2021	양평 잣나무 숲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95-1

유형	선정년도	명품숲 명	개소
보전·연구형 명품숲 (14)	2017	홍릉숲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외 7필
	2017	광릉숲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50
	2017	점봉산 곰배령숲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외 1필
	2017	방태산 아침가리숲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번지 외 1필
	2017	계방산 운두령숲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외 11필
	2017	적보산 씨앗숲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58-1 외 7필지
	2017	신불산 억새숲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2017	성인봉 원시림숲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외 5필지
	2017	천관산 동백숲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9-1 외1
	2017	사려니숲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외 1필
	2019	설악산 향로봉 숲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1
	2020	방하리 굴참나무 숲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 95-1 외
	2021	발왕산 생태숲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1
	2021	리기테다소나무 우량 숲	대전 유성구 계산동 산1-1
휴양·복지형 명품숲 (17)	2018	원대리 자작나무숲	강원 인제군 원대리 산75-22
	2018	함백산 하늘숲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외 5필
	2018	DMZ 편치불 숲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우리 산1외 242필
	2018	검마산 금강송숲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 산26
	2018	남해 편백나무숲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2018	희리산 해송숲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2018	황정산 바위꽃숲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2018	소백산 천동계곡숲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산9-1
	2018	운장산 갈거계곡숲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2018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 숲	인천 중구 무의동 산151-1외 50필
	2019	김천 단지봉숲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9-2
	2019	속리산 말티재 숲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5-1
	2019	삼봉산 금강소나무 숲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2020	태화산 경관 숲	강원 영월읍 흥월리 산38 외3
	2020	죽파리 자작나무숲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2021	대장동 편백 숲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9 외 1
	2021	축령산 편백 숲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7 외34

자료 : 산림청, 국유림 명품숲 선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

마. 안보관광지 개발

1) 안보관광시설

안보관광지의 개발 목적은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에 잘 보전된 자연경관 및 전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정부는 1987년에 강원도 구철원을 주변을 전적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2땅굴과 필승교회, 도피안사, 노동당사, 백마고지 위령비 주변과 월정역 등에 국고 10억 원과 지방비 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급수시설, 교량, 조경, 도로포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고석정 관광지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철의 삼각지 전적관을 건립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강원도 지역의 김화, 평화의 댐, 직연폭포, 파로호, 편치볼, 화진포, 건봉사 등 7개 지구에 대한 안보관광지 개발에 착수하여 도로의 개·보수, 주차장, 상·하수도 건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평화문화광장’ 조성과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건물 신축공사 등 강원도 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제1, 2 연평해전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전적지와 천안함 전시관이 있는 제2함대사령부 영내의 평택안보공원에 서해수호관을 신축하여 이곳을 관람하기 원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이 기습 자행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피격현장에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관이 세워져(2012.11.24 개관) 포격도발 상황과 해병대 연평부대원들의 투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는 영공수호 최초 결전부대인 방공유도탄부대의 60년 역사를 담은 철매역사관의 건립공사를 대구 수성기지에 완료하였다. 2014년 1월 개관한 철매역사관에는 부대 상징관, 야외 전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상승전망대는 DMZ 내부에 위치해 있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2013년 3월 14일 유엔사 정전위의 민간인 출입통제 조치에 의해 한동안 안보관광지로 활용할 수 없다가 2015년 1월에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동년 2월부터 재개관하였다. 이후 학생 및 일반인뿐만 아니라, 캐나다 참전용사 등 많은 방문객이 찾아가는 안보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군 박물관과 관련하여 기존 육군박물관, 해사박물관, 공군박물관 외에도 2015년 9월 국립전사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국립전사박물관은 육군부사관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사관역사실과 6.25전쟁실, 전통무기실 등 전시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사관후보생의 군인 정신 및 국가관 확립 등 교육기능과 지역 방문객들의 안보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접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기존의 군 지역 도라전망대를 평화·생태관광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10월 새로운 전망대를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도라산 정상에 신축, 이전 개관하였다.

김포시에서는 1978년 애기봉 전망대 설치 후 시설물 노후화로 관람객이 감소추세에 있어 김포시 주관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망대와 평화·생태전시관, 전망대 오름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2021년 하반기 개장하였다.

2019년 전쟁의 상흔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를 넘어 세계생태평화의 상징지대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MZ 평화의길 파주노선, 철원노선, 고성노선을 개방하였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안보관광지 출입이 통제되어 방문인원이 현격히 급감하였다.

〈표 5-42〉 안보관광시설별 내·외국인 방문 현황

(단위: 명)

관광지명	계	내국인		외국인
		학생	일반인	
도라전망대	17,789	178	17,543	68
제3땅굴	13,524	257	13,179	88
DMZ 평화의 길(파주노선)	325	15	310	0
JSA	3,731	155	2,331	1,245
오두산전망대	110,579	619	108,289	1,671
상승전망대	108	0	95	13
1·21 침투로	0	0	0	0
육군 승전전망대	32	0	32	0
임진강 평화습지원	0	0	0	0
두루미관찰대	0	0	0	0
연강갤러리	0	0	0	0
태풍전망대	1,427	0	1,427	0
백마고지전적비	0	0	0	0
열쇠전망대	0	0	0	0
DMZ 평화의 길(철원노선)	183	0	183	0

관광지명	계	내국인		외국인	
		학생	일반인		
제2땅굴	271	0	225	46	
월정리역	8,534	0	8,464	70	
평화전망대	8,534	0	8,464	70	
두루미전시관	0	0	0	0	
백골전망대	0	0	0	0	
DMZ 생태평화공원	448	16	432	0	
승리전망대	534	0	534	0	
칠성전망대	3,020	0	3,020	0	
제4땅굴	0	0	0	0	
두타연	0	0	0	0	
을지전망대	0	0	0	0	
통일전망대	604,798	237	604,301	260	
DMZ 박물관	163,055	244	162,551	260	
금강산전망대	1,397	0	1,357	40	
DMZ 평화의 길(고성노선)	647	0	617	30	
육군박물관	7,700	0	7,700	0	
국립전사박물관	2,352	0	2,352	0	
해군사관학교박물관	0	0	0	0	
평택 안보공원	4,730	0	4,633	97	
애기봉전망대	21,224	3,799	17,425	0	
강화도 평화전망대	14,921	643	14,278	0	
백령도OP	111	0	101	10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관					
포항역사관	2,200	50	1,950	200	
공군	공군박물관	2,977	0	2,957	20
	철매역사관	0	0	0	0
계	995,151	6,213	984,750	4,188	

자료 : 국방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접경지역 발전지원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계획 수립 이후 9년(2011~2019년)동안 3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후 2019년 2월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 제고 및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021년도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7개 부처 54개 사업 2,750억 원(국비 1,533, 지방비 1,045, 민자 172)을 투자하여 DMZ 평화의 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동서녹색평화도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43〉 접경지역 발전지원 주요사업

구분	주요 내용
평화누리길 조성	DMZ 인근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접경지역 이미지 제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동서를 잇는 자동차도로(지방도) 정비를 통해 횡적 중심교통축 확충 및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한탄강 주변 협곡과 주상절리 비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DMZ 평화의 길 조성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DMZ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DMZ·접경지역 일원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 제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간 도로연결을 통해 열악한 접경·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민통선 출입간소화 시스템 설치	민통선 내에 소재하는 관광지, 생태자원, 역사유적지, DMZ 등 출입 통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안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 행정안전부(2021)

바. 온천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국민의 심신휴양, 건강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귀중한 국가자원이다. 정부는 1981년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온천발견 신고수리,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일일 적정 양 수량에 의한 온천수이용허가 등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44〉 시·도별 온천 현황

구분	계 (이용업소)	신고 수리 (이용 업소)	보호지구지정			보호구역지정			연간 이용인원 (단위:천 명)	지정면적	
			계 (이용업소)	이용중 (이용업소)	개발중 (이용업소)	계 (이용업소)	이용중 (이용업소)	개발중 (이용업소)		보호지구 (단위:㎡)	보호구역 (단위:㎡)
서울	10 (9)	0 (0)	1 (1)	1 (1)	0 (0)	9 (8)	8 (8)	1 (0)	349	149,800	94,965
부산	44 (67)	0 (0)	4 (33)	3 (33)	1 (0)	40 (34)	36 (34)	4 (0)	6,039	3,592,389	266,862
대구	15 (13)	0 (0)	2 (1)	1 (1)	1 (0)	13 (12)	12 (12)	1 (0)	1,381	1,731,500	79,285
인천	12 (1)	4 (0)	4 (1)	0 (1)	4 (0)	4 (0)	0 (0)	4 (0)	35	5,229,723	45,972
광주	3 (2)	0 (0)	2 (1)	1 (1)	1 (0)	1 (1)	1 (1)	0 (0)	151	949,681	2,391
대전	4 (69)	0 (0)	1 (66)	1 (66)	0 (0)	3 (3)	3 (3)	0 (0)	1,244	938,854	18,221
울산	15 (18)	0 (0)	4 (11)	4 (11)	0 (0)	11 (7)	7 (6)	4 (1)	959	3,818,217	106,688
세종	3 (3)	0 (0)	0 (0)	0 (0)	0 (0)	3 (3)	2 (2)	1 (1)	1	0	13,421
경기	49 (26)	8 (0)	14 (9)	7 (9)	7 (0)	27 (17)	14 (15)	13 (2)	2,289	16,422,630	405,572
강원	56 (41)	15 (0)	16 (25)	10 (24)	6 (1)	25 (16)	16 (15)	9 (1)	1,764	17,066,205	400,139
충북	21 (45)	3 (0)	10 (38)	5 (38)	5 (0)	8 (7)	7 (7)	1 (0)	1,462	18,786,245	30,822
충남	27 (80)	12 (0)	11 (78)	7 (78)	4 (0)	4 (2)	2 (2)	2 (0)	5,991	10,601,375	5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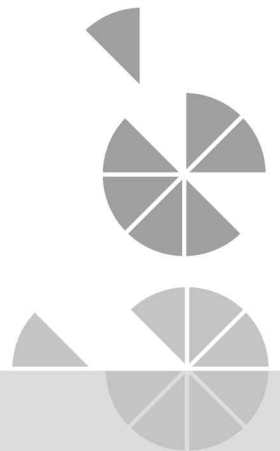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구분	계 (이용업소)	신고 수리 (이용 업소)	보호지구지정			보호구역지정			연간 이용인원 (단위:천 명)	지정면적	
			계 (이용업소)	이용중 (이용업소)	개발중 (이용업소)	계 (이용업소)	이용중 (이용업소)	개발중 (이용업소)		보호지구 (단위 :㎡)	보호구역 (단위 :㎡)
전북	13 (5)	0 (0)	8 (1)	1 (1)	7 (0)	5 (4)	4 (4)	1 (0)	327	10,713,575	31,983
전남	13 (33)	0 (21)	8 (2)	4 (2)	4 (0)	5 (10)	4 (10)	1 (0)	808	6,753,252	1,715,862
경북	99 (96)	11 (5)	31 (43)	15 (43)	16 (0)	57 (48)	48 (48)	9 (0)	5,785	46,336,319	521,612
경남	45 (67)	11 (0)	8 (48)	5 (48)	3 (0)	26 (19)	19 (19)	7 (0)	5,112	11,594,488	278,251
제주	12 (4)	2 (0)	2 (1)	1 (1)	1 (0)	8 (3)	3 (3)	5 (0)	660	1,867,747	126,250
합계	441 (579)	66 (26)	126 (359)	66 (358)	60 (1)	249 (194)	186 (189)	63 (5)	34,356	156,552,000	4,191,749

자료 : 행정안전부, 2022년 1월 1일 기준

제 6 장

관광산업 육성

1. 여행업	_247	7. 관광편의시설업	_270
2. 관광숙박업	_250	8. 관광인력 양성	_275
3. 관광객이용시설업	_258	9.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_285
4. 국제회의업	_264	10. 관광벤처 사업	_286
5. 카지노업	_265	11. 관광두레 사업	_291
6. 유원시설업	_269	12. 관광 관련 법령 개정	_294
		13. 관광진흥개발기금	_300



1. 여행업

여행업은 관광산업 발전의 동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행업의 종류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의 3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3.23.일부개정, 2021.9.24.시행)으로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었다.³⁶⁾

1991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의 대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여행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행사의 경영개선 유도, 서비스 향상에 의한 신뢰 회복, 여행업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05.4.22.)을 통하여 여행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시·도별 여행업체 등록 현황은 <표 6-1>과 같다.

〈표 6-1〉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서울	7,704	3,479	3,318	907
부산	1,460	278	754	428
대구	795	157	423	215
인천	529	150	219	160
광주	598	117	297	184
대전	497	103	265	129
울산	242	54	136	52
세종	81	18	38	25
경기	2,661	732	1,263	666
강원	573	117	216	240
충북	414	71	204	139

36)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였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총 남	562	44	267	251
전 북	839	134	384	321
전 남	776	99	330	347
경 북	678	73	335	270
경 남	809	126	434	249
제 주	1,120	341	142	637
계	20,338	6,093	9,025	5,220

자료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 종합여행업

종합여행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종합여행업체의 외국인 유치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입국제한 및 항공노선 중단 등으로 급감하였다. 2020년 1월~3월 종합여행업체의 외국인 유치실적은 약 33만 명으로 전체 방한객 중 16.0%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51.9% 감소하였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을 해외로 송출한 실적은 전년대비 61.3% 감소하여 약 96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출국자 수의 25.8%를 차지하였다.

〈표 6-2〉 연도별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단위 : 명, %)

연 도	전체 입국인원(A)	증가율	여행업협회 회원사 외래객 유치실적(B)	증가율	점유비 (B/A)
'01~'10	63,656,816	-	23,579,965	-	-
2011	9,794,796	11.3	3,776,171	5.2	38.6
2012	11,140,028	13.7	4,450,731	17.9	40.0
2013	12,175,550	9.3	3,841,528	-13.7	31.6
2014	14,201,516	16.6	4,808,074	25.2	33.9
2015	13,231,651	-6.8	3,515,600	-26.9	26.6
2016	17,241,823	30.3	5,427,891	54.4	31.5
2017	13,335,758	-22.7	2,561,218	-52.8	19.2
2018	15,346,879	15.1	2,371,246	-7.4	15.5
2019	17,502,756	14.0	3,112,740	31.3	17.8
2020	2,041,417	-46.9	326,299	-51.9	16.0
2020.01	1,272,708	15.2	237,093	29.7	18.6
2020.02	685,212	-43.0	86,624	-57.9	12.6
2020.03	83,497	-94.6	2,582	-99.1	3.1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1)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실적 집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020년 3월까지만 자료 제공함

주2) 2020년 수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합한 값임

〈표 6-3〉 연도별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의 내국인 해외 송출실적

(단위 : 명, %)

연 도	전체 출국인원(A)	증가율	여행업협회 회원사 내국인송출실적(B)	증가율	점유비 (B/A)
'01~'10	98,110,583	-	28,034,953	-	28.6
2011	12,693,733	1.6	3,970,425	-6.2	31.3
2012	13,736,976	8.2	4,192,338	5.6	30.5
2013	14,846,485	8.1	5,128,307	22.3	34.5
2014	16,080,684	8.3	5,678,807	10.7	35.3
2015	19,310,430	20.1	7,069,002	24.5	36.6
2016	22,383,190	15.9	8,334,155	17.9	37.2
2017	26,496,447	18.4	9,879,903	18.5	37.3
2018	28,695,983	8.3	9,436,597	-4.5	32.9
2019	28,714,247	0.1	8,045,092	-14.7	28.0
2020	3,703,175	-52.9	956,264	-61.3	25.8
2020.01	2,513,030	-13.7	726,066	-18.9	28.9
2020.02	1,046,779	-60.0	199,637	-75.5	19.1
2020.03	143,366	-93.9	30,561	-96.0	21.3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1)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실적 집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020년 3월까지만 자료 제공함

주2) 2020년 수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합한 값임

나.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업은 다양한 국민관광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1982년에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국내여행업 수는 282개에서 2021년 12월 말 기준 5,22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 경제발전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관광이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민관광이 증가한 결과이다.

다. 국내외여행업

정부는 국민의 해외여행에 따른 여권 발급업무 및 여권 수속대행업무 등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2년에 종전의 항공운송대리점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명칭을 여행대리점업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7월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알선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외여행업으로 변경하였고, 2021년 3월 국외여행업체가 추가적인 자본금 부담없이 국내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국내외여행업체는 9,025개사이다.

2.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과거 호텔업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달리 공유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가족호텔업에 한해서는 회원모집 허용)하였던 것을 2006년 2월 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호텔업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허용함으로써 호텔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였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07.11.13.), 2008년에는 2006년 2월 2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에 대해서도 회원모집을 허용하였으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08.8.26.), 2009년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호스텔업이 추가(「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09.10.7.)되었다. 201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제정/2012.1.26.). 2013년에는 숙박시설의 다양성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저가·부티크 호텔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였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3.11.29.).

2014년에는 등급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호텔업 등급제도 의무화(「관광진흥법」 개정/2014.3.11.), 등급구분을 성(星)급으로 변경(「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11.28.)하였다. 2015년에는 호텔업 등급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별 평가기준 도입 및 압행·불시평가 시행(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정/2015.2.13.), 등급결정업무를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문화체육관광부 공고/2015.1.1.), 호텔 등급표지 고시 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2015.5.8.)을 추진하였고, 관광숙박업 입지 확충을 위하여 유해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입지를 허용(「관광진흥법」 개정/ 2015.12.22.)토록 개선하였으며, 관광숙박업에 대한 한시적 인센티브를 연장시행(「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³⁷⁾」/2015.12.31.)하였다.

3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2012.1.26.에 제정되어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정상적인 등급평가 실시가 어려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0.4.28.)을 통한 호텔업 등급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총 4차례 연장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등급 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를 제정함으로써 2022.6.30.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⁸⁾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숙박업 외에도 다양한 숙박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표 6-4〉 시·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관광호텔업	5성급 특1급	23	6	1	5	-	-	1	-	1	4	1	-	-	1	2	2	14	61
	4성급 특2급	36	3	3	4	2	2	2	-	9	10	-	-	4	4	4	4	12	99
	3성급 1등급	74	11	4	8	4	6	4	-	20	10	5	4	4	7	9	18	21	209
	2성급 2등급	56	31	10	23	4	3	4	-	36	9	10	5	7	13	16	21	8	256
	1성급 3등급	42	10	1	25	1	0	4	-	18	1	1	1	1	9	4	13	4	135
	등급 없음	95	12	9	19	3	8	3	-	44	11	6	5	13	202	11	28	66	535
	소계	326	73	28	84	14	19	18	0	128	45	23	15	29	236	46	86	125	1,295
전통호텔업	-	-	-	2	-	-	-	-	-	1	-	-	1	1	1	-	1	7	
가족호텔업	20	1	-	3	-	1	1	-	15	16	1	4	6	12	1	26	62	169	
호스텔업	108	116	5	-	0	-	1	-	20	39	3	2	8	80	30	34	170	616	
소형호텔업	9	4	-	2	-	-	-	-	8	3	-	1	3	1	4	4	4	43	
소계 (관광호텔업 외)	137	121	5	7	0	1	2	0	43	59	4	7	18	94	36	64	237	835	
호텔업 합계	463	194	33	91	14	20	20	0	171	104	27	22	47	330	82	150	362	2,130	
휴양콘도업 합계	1	6	-	2	-	-	-	-	19	78	8	15	6	12	14	21	60	242	
총계	464	200	33	93	14	20	20	0	190	182	35	37	53	342	96	171	422	2,3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등급없음은 신규등록업체 및 등급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기준일 현재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임

38)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제·개정 3회(제정 '20.5.21./개정 '20.12.1, '21.6.23.)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개정 2회(제정 '21.12.31./개정 '22.6.24)

가. 호텔업

1) 관광호텔업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 현황은 전국 1,295개 업체에 137,432실로 2020년에 비해 4,366실이 증가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6개 업체 54,673실, 제주 125개 업체 16,059실, 경기 128개 업체 12,910실, 부산 73개 업체 9,889실, 인천 84개 업체 9,208실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등급별로 보면 5성급·특1등급이 61개 업체 25,303실, 4성급·특2등급이 99개 업체 23,071실, 3성급·1등급이 209개 업체 27,758실, 2성급·2등급이 256개 업체 17,942실, 1성급·3등급이 135개 업체 7,283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 6-5〉 시·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관광호텔업	5성급	업체수	23	6	1	5	-	-	1	-	1	4	1	-	-	1	2	2	14	61	
	특1급	객실수	10,501	2,327	325	2,484	-	-	200	-	826	799	328	-	-	311	754	332	6,116	25,303	
	4성급	업체수	36	3	3	4	2	2	2	-	9	10	-	-	4	4	4	4	4	12	99
	특2급	객실수	10,298	1079	354	995	325	510	403	-	1,982	2,343	-	-	469	541	1,022	664	2,086	23,071	
	3성급	업체수	74	11	4	8	4	6	4	-	20	10	5	4	4	7	9	18	21	209	
	1등급	객실수	13,634	1,502	211	970	339	608	1105	-	2,505	1,034	485	721	412	475	550	1485	1,722	27,758	
	2성급	업체수	56	31	10	23	4	3	4	-	36	9	10	5	7	13	16	21	8	256	
	2등급	객실수	4,827	2,741	694	1,964	271	159	478	-	2,386	460	683	249	411	626	612	979	402	17,942	
	1성급	업체수	42	10	1	25	1	0	4	-	18	1	1	1	1	9	4	13	4	135	
	3등급	객실수	2,239	460	44	1,316	59	0	159	-	1118	35	60	53	65	657	154	639	225	7,283	
	등급	업체수	95	12	9	19	3	8	3	-	44	11	6	5	13	202	11	28	66	535	
	없음	객실수	13,174	1780	990	1,479	151	775	252	-	4,093	1,110	187	391	832	3035	687	1631	5,508	36,075	
	소계	업체수	326	73	28	84	14	19	18	0	128	45	23	15	29	236	46	86	125	1,295	
		객실수	54,673	9,889	2,618	9,208	1,145	2,052	2,597	0	12,910	5,781	1,743	1,414	2,189	5,645	3,779	5,730	16,059	137,432	
	수상관광호텔업	업체수	-	-	-	-	-	-	-	-	-	-	-	-	-	-	-	-	-	0	
		객실수	-	-	-	-	-	-	-	-	-	-	-	-	-	-	-	-	-	0	
전통호텔업	업체수	-	-	-	2	-	-	-	-	-	1	-	-	1	1	1	-	1	7		
	객실수	-	-	-	74	-	-	-	-	-	16	-	-	20	21	16	-	26	173		
가족호텔업	업체수	20	1	-	3	-	1	1	-	15	16	1	4	6	12	1	26	62	169		
	객실수	2,997	37	-	492	-	80	35	-	850	1161	52	211	2,172	763	30	1,539	4,058	14,477		
호스텔업	업체수	108	116	5	-	0	-	1	-	20	39	3	2	8	80	30	34	170	616		
	객실수	3,586	3416	71	-	0	-	7	-	781	423	51	17	145	845	447	506	4,338	14,633		
소형호텔업	업체수	9	4	-	2	-	-	-	-	8	3	-	1	3	1	4	4	4	43		
	객실수	227	111	-	41	-	-	-	-	217	74	-	24	61	29	66	92	92	1,034		
의료관광호텔업	업체수	-	-	-	-	-	-	-	-	-	-	-	-	-	-	-	-	-	0		
	객실수	-	-	-	-	-	-	-	-	-	-	-	-	-	-	-	-	-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등급없음은 신규등록업체 및 등급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기준일 현재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임

〈표 6-6〉 연도별 관광호텔업 증가 추이

연 도	호텔 수		객실 수	
	업체수(개)	증가율(%)	객실수(실)	증가율(%)
2011년	644	2.2%	70,763	3.2%
2012년	683	6.1%	74,737	5.6%
2013년	740	8.3%	79,441	6.3%
2014년	837	13.1%	92,150	16.0%
2015년	907	8.4%	101,726	10.4%
2016년	971	7.1%	109,880	8.0%
2017년	1,026	5.6%	120,556	9.7%
2018년	1,044	1.7%	126,422	4.9%
2019년	1,049	0.5%	131,341	3.9%
2020년	1,071	2.1%	133,066	1.3%
2021년	1,295	20.9%	137,432	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6-7〉 관광호텔업 등급별 객실 운영현황

구분		판매객실 평균요금(원)	객실 이용률(%)	객실당 수입(원)
2019년	5성급(특1등급)	204,148	72.55	148,107
	4성급(특2등급)	112,881	71.22	80,398
	3성급(1등급)	84,100	70.33	59,147
	2성급(2등급)	66,447	59.58	39,590
	1성급(3등급)	61,196	54.25	33,196
	미등급	70,041	59.60	41,744
	계	118,898	68.22	81,791
2020년	5성급(특1등급)	198,258	39.31	77,939
	4성급(특2등급)	100,974	40.51	40,906
	3성급(1등급)	75,504	39.56	29,869
	2성급(2등급)	67,623	36.65	24,783
	1성급(3등급)	63,120	40.13	25,328
	미등급	76,813	38.31	29,430
	계	110,285	39.25	43,285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2020). 「호텔업운영현황」.

주1) 상기 통계치는 호텔업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에 한함

주2)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2021년 기준 통계는 2022년 9월 완료 예정임

〈표 6-8〉 호텔업 유형별 객실 운영현황

구분		판매객실 평균요금(원)	객실이용률(%)	객실당 수입(원)
2019년	관광호텔업	119,898	68.22	81,791
	한국전통호텔업	241,130	54.62	131,698
	가족호텔업	91,818	56.87	52,217
	호텔업	63,220	54.33	34,346
	소형호텔업	77,619	58.23	45,198
	계	117,102	67.05	78,519
2020년	관광호텔업	110,285	39.25	43,285
	한국전통호텔업	289,118	50.96	147,336
	가족호텔업	105,996	40.78	43,226
	호텔업	57,147	31.53	18,015
	소형호텔업	90,537	38.22	34,604
	계	108,464	39.1	42,412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2020). 「호텔업운영현황」.

주1) 상기 통계치는 호텔업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에 한함

주2)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2021년 기준 통계는 2022년 9월 완료 예정임

〈표 6-9〉 지역별 호텔업 객실 운영현황

구분	판매객실 평균요금(원)	객실이용률(%)	객실당수입(원)
서울	110,224	36.21	39,909
부산	130,447	32.9	42,912
대구	86,611	38.38	33,240
인천	137,366	44.21	60,735
광주	107,111	41.79	44,756
대전	84,481	44.11	37,261
울산	76,359	45.7	34,896
세종	-	-	-
경기	86,305	36.46	31,465
강원	127,876	50.44	64,505
충북	85,809	31.67	27,171
충남	81,614	48.43	39,525
전북	108,465	42.57	46,171
전남	119,965	49.23	59,063
경북	137,744	36.47	50,242
경남	86,192	30.44	26,239
제주	103,453	45.49	47,058
계	108,464	39.1	42,412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2020). 「호텔업운영현황」.

주1) 상기 통계치는 호텔업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에 한함

주2)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2021년 기준 통계는 2022년 9월 완료 예정임

〈표 6-10〉 관광호텔업 등급별 외국인 객실 운영현황

구분		판매객실 평균요금(원)	외국인 객실 점유율(%)
2019년	5성급(특1등급)	204,148	32.81
	4성급(특2등급)	112,881	35.51
	3성급(1등급)	84,100	40.20
	2성급(2등급)	66,447	28.96
	1성급(3등급)	61,196	26.04
	미등급	70,041	26.92
	계	118,898	32.98
2020년	5성급(특1등급)	198,258	11.89
	4성급(특2등급)	100,974	14.99
	3성급(1등급)	75,504	19.77
	2성급(2등급)	67,623	9.85
	1성급(3등급)	63,120	6.47
	미등급	76,813	11.04
	계	110,285	13.31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2020). 「호텔업운영현황」.

주1) 상기 통계치는 호텔업 운영실적 집계대상 업체에 한함

주2)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2019년 조사부터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총합으로 조사하므로 외국인 판매객실 평균요금 산정이 불가함

주4) 2021년 기준 통계는 2022년 9월 완료 예정임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숙박업종으로, 2000년 7월 20일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객실수 53실의 수상관광호텔이 등록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멸실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1991년 7월 26일 최초로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에 객실수 26실의 한국전통호텔이 등록되었으며 2021년 12월 말 전국 7개소 173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 6-11〉 시·도별 한국전통호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	-	-	2	-	-	-	-	-	1	-	-	1	1	1	-	1	7
객실수	-	-	-	74	-	-	-	-	-	16	-	-	20	21	16	-	26	1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가족호텔업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다수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가족단위 관광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증가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국민복지 차원에서 건전한 가족관광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호텔 내에 취사장, 운동·오락시설 및 위생설비를 겸비토록 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69개소 14,477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 6-12〉 시·도별 가족호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20	1	-	3	-	1	1	-	15	16	1	4	6	12	1	26	62	169
객실수	2,997	37	-	492	-	80	35	-	850	1161	52	211	2,172	763	30	1,539	4,058	14,4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호스텔업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종으로, 2009년 10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으며 2010년 12월 21일 최초로 제주도에 객실 수 36실의 호스텔이 등록되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616개소 14,633실이 운영되고 있다.

〈표 6-13〉 시·도별 호스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08	116	5	-	0	-	1	-	20	39	3	2	8	80	30	34	170	616
객실수	3,586	3416	71	-	0	-	7	-	781	423	51	17	145	845	447	506	4,338	14,6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6)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자로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고, 소형호텔업은 부띠크 호텔 등 객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색있는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에 신설되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소형호텔은 전국 43개소 1,034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관광호텔업은 아직까지 등록된 곳이 없다.

〈표 6-14〉 시·도별 소형호텔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9	4	-	2	-	-	-	-	8	3	-	1	3	1	4	4	4	43
객실수	227	111	-	41	-	-	-	-	217	74	-	24	61	29	66	92	92	1,0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957년 스페인에서 기존호텔에 개인의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하였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242개 업체 49,739실이 운영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이용계층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요 관광숙박시설이 되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전한 관광숙박시설로 유도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전한 가족단위 관광숙박시설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표 6-15〉 시·도별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	6	-	2	-	-	-	-	19	78	8	15	6	12	14	21	60	242
객실수	334	1,678	-	334	-	-	-	-	3,418	21,023	2,096	2860	714	1,651	3,106	3,436	9,089	49,7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일반현황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5년 「관광진흥법」 개정(2005.4.17.)을 통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으며,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7.16.)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4.12.31.)을 통하여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20.4.28.)을 통해 한옥체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현황을 보면 전문휴양업 103개, 종합휴양업 28개, 야영장업 2,863개, 관광유람선업 47개, 관광공연장업 10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874개, 한옥체험업 1,508개 등 총 6,433개 업체이다.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현황은 <표 6-16>과 같다.

<표 6-16>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서울	-	1	12	2	4	1,134	184
부산	1	1	12	7	-	136	4
대구	-	1	17	-	-	30	24
인천	1	-	90	3	-	74	12
광주	-	-	5	-	-	24	9
대전	1	1	10	-	-	5	-
울산	-	-	24	-	-	4	3
세종	-	-	7	-	-	2	5
경기	13	5	689	-	-	58	55
강원	9	8	579	3	2	80	40
충북	5	1	205	-	1	6	31
충남	8	2	246	2	-	8	54

구 분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아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전 북	4	1	133	5	2	155	278
전 남	3	1	157	5	-	36	300
경 북	12	1	343	-	-	64	442
경 남	4	2	293	10	1	58	66
제 주	42	3	41	10	-	-	1
계	103	28	2,863	47	10	1,874	1,5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한옥체험업은 2020.4.28.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됨

나. 업종별 현황

1)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에 따라 관광 적지 또는 관광자원으로서 운영되는 시설을 관광사업의 시설로 포함하여 진흥하기 위해 문화, 체육, 휴양, 관람시설 등 15개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전문·종합휴양업종에 포함하였다.

전문휴양업은 1987년에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과 함께 위의 15개종의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토록 하는 관광사업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다양한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03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에 있다.

종합휴양업은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1종 종합휴양업과 관광숙박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시설을 함께 갖춘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구분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28개 업체(제1종 20개 업체, 제2종 8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에 있다.

〈표 6-17〉 시·도별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계
서울	-	1	-	1
부산	1	1	-	1
대구	-	1	-	1
인천	1	-	-	-
광주	-	-	-	-
대전	1	1	-	1

(단위: 개소)

구 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계
울 산	-	-	-	-
세 종	-	-	-	-
경 기	13	5	-	5
강 원	9	6	2	8
충 북	5	1	-	1
충 남	8	-	2	2
전 북	4	-	1	1
전 남	3	-	1	1
경 북	12	1	-	1
경 남	4	2	-	2
제 주	42	1	2	3
계	103	20	8	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전문: 휴양시설1종, 종합1종: 휴양시설2종 또는 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 종합2종: 관광숙박업+종합1종 또는 관광숙박업+휴양시설1종+종합유원시설

2) 야영장업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1.29.)을 통하여 야영장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5.8.4.)을 통하여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부터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야영장업의 등록 현황을 보면 공공 야영장 497개, 민간 야영장 2,366개이며, 시·도별 야영장업의 등록 현황은 <표 6-18>과 같다.

<표 6-18> 시·도별 야영장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공공야영장	민간야영장
서 울	12	9	3
부 산	12	3	9
대 구	17	10	7
인 천	90	13	77
광 주	5	3	2
대 전	10	7	3

(단위: 개소)

구 분	계	공공야영장	민간야영장
울 산	24	11	13
세 종	7	3	4
경 기	689	54	635
강 원	579	76	503
충 북	205	33	172
충 남	246	40	206
전 북	133	42	91
전 남	157	52	105
경 북	343	70	273
경 남	293	65	228
제 주	41	6	35
계	2,863	497	2,3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관광유람선업

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광유람선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 선상시설(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 편의시설(식당·매점·휴게실), 수질오염방지시설(오수저장·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등록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4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크루즈업은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 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 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 체육·미용·오락·쇼핑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표 6-19〉 시·도별 관광유람선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2	7	-	3	-	-	-	-	-	3	-	2	5	5	-	10	10	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으로 1999년 5월 신설한 업종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0개 업체가 등록 운영 중이다.

〈표 6-20〉 시·도별 관광공연장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4	-	-	-	-	-	-	-	-	2	1	-	2	-	-	1	-	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다양한 형태의 숙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관광편의시설업에 신설된 업종으로 2016년 3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³⁹⁾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를 설치하고 있어야 등록 가능하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874개가 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사업체 중 60.5%인 1,134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표 6-21〉 시·도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134	136	30	74	24	5	4	2	58	80	6	8	155	36	64	58	-	1,87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및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6)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은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1,50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고자 2004년부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0년부터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이관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1년 전국 12개 지역, 4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옥체험업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020.4.28.)하고, 지정업인 관광편의시설업종에서 등록업인 관광객 이용 시설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표 6-22〉 시·도별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84	4	24	12	9	-	3	5	55	40	31	54	278	300	442	66	1	1,5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된다.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용역업’이라는 명칭으로 1986년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국제사회 발달에 따른 활발한 인적교류로 국제회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회의를 관광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둘째,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준비된 관광수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고자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였고 셋째, 국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제반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용역업체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6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1998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국제회의용역업’을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회의시설업’을 추가하여 ‘국제회의업’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5월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한 20대 과제를 도출하고, 2007년 본격적인 과제 시행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마지막 연도인 2012년에는 관광과 MICE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2012 Korea Convention Year’를 선언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2022년 UIA를 통해 발표된 ‘2021 국제회의 개최 통계’에서 한국은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ICCA 2021년 통계 보고서의 공식 순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0위를 기록하였다.

〈표 6-23〉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업체수	754	73	88	44	18	28	43	11	4	22	11	4	15	7	20	21	43	1,206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분기별 공표자료),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카지노업

우리나라 카지노는 카지노업 허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카지노의 설립 근거가 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며,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당초 카지노사업은 사행사업이라 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으나,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산업으로 전환되어 이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었다. 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제주지역 카지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지도·감독 기능을 갖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허가되어 2000년 10월 개장되었고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카지노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관광진흥법령,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23호, 2020.5.20.), 카지노전산시설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28호, 2018.8.16.), 카지노기구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카지노기구검사업무규정(2021. 7.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2018.9.7.,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시행) 제172조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5년 5월 1일 시행) 제30조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법률 제8667호, 2008년 6월 8일 시행) 제23조의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한 관광사업 3종류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2호, 2013년 9월 12일 시행) 제63조
 -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2호, 2015년 8월 4일 시행) 제11조
 - 국제순항 국적 크루즈선으로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세계적인 카지노 추세는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로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호텔에 부속된 단순한 영업형태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조성 중에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 카지노 개설을 시작으로 2005년 신규 허가 3개소를 포함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인천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제주 8개소이다.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강원랜드 카지노 1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1년 기준 카지노업 종사원 수는 6,688명(외국인전용 카지노 4,751명, 강원랜드 카지노 1,937명⁴⁰⁾) 등이다. 시·도별 카지노업체 운영 및 종사원 현황은 <표 6-27>과 같다.

2021년 카지노업체 총 매출액은 1조 1,799억 원(외국인전용 카지노 4,049억 원, 강원랜드 카지노 7,750억 원)이고 입장객은 155만 명(외국인전용 카지노 71만 명, 강원랜드 카지노 84만 명)이며, 2021년 말 기준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외국인 관광객 대비 카지노 이용객 점유율은 73.3%이다.

<표 6-24>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비율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시	총 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 매출액이 10~100억 원	1천만 원 + 총 매출액 중 10억 원 초과금액의 5/100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 시	4억 6천만 원 + 총 매출액 중 100억 원 초과금액의 10/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표 6-25> 연도별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외국인전용 카지노(16)	117,155	128,639	129,674	116,504	120,071	112,519	154,755	137,238	53,868	35,427
내국인출입 카지노(1)	120,393	127,363	141,660	155,575	162,221	151,770	139,468	147,615	43,815	76,960
계	237,548	256,002	271,334	272,079	282,292	264,289	294,223	284,853	97,683	112,38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40) 호텔 및 리조트 직원을 제외한 순수 카지노업 종사자임

〈표 6-26〉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발전과정

시 기	주요 내용
1961년 11월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 법률 제정(북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62년 9월	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음이 인정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립 근거 마련
1967년	최초로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 개설. 그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인 워커히호텔 카지노 개장
1970년대	주요 관광지에 확산.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1971년), 제주칼호텔 카지노(1975년),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카지노(1978년), 코오롱 관광호텔 카지노(1979년)
1980년대	설악파크호텔 카지노(1980년)가 강원도에 최초 개설,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1985년), 1990~1991년에 제주그랜드호텔 카지노, 제주남서울호텔 카지노, 제주서귀포칼호텔 카지노, 제주오리엔탈호텔 카지노,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순으로 개장
1991년 3월	‘북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등 규제법’으로 개정
1994년 8월	‘관광진흥법’ 개정(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상변화)
1994년 말	행정개편으로 관광의 주무부서가 교통부(현 건설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카지노업은 문화체육부 관공국에서 허가 및 운영, 감독을 맡게 됨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해 폐광진흥지구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의 완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 허용
1997년 12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를 통해 카지노 영업종류에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빙고게임이 신설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
1998년 6월	폐광카지노 법인인 (주)강원랜드 출범
1999년 6월	관광사업(카지노업 포함) 외국인 및 외국인 사업자에 개방
2000년 10월	최초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개장
2003년 3월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폐장 및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개장
2004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1.28) 제55조의 2 신설 - 제주지역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2005년 1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3개 카지노 신규허가(서울 2, 부산 1)
2005년 5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5.5.1 시행) 제30조 개정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특례
2006년 7월	제주지역 카지노 인허가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
2007년 9월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출범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2호, 2013년 9월 12일 시행) 제63조 -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2014년 3월	LOCZ 코리아,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
2015년 8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2호, 2015.8.4. 시행) 제11조 신설 - 국제순항 국적 크루즈선으로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특례
2016년 3월	Inspire-IR,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표 6-27〉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단위:명, 백만 원, m²)

시·도	업 체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종사원 수(명)	'21매출액 (백만 원)	'21입장객 (명)	허가 면적(m ²)
서울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5성)	740	144,158	144,454	2,694.23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907	31,880	84,650	2,158.32
	세븐럭카지노 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551	47,977	132,253	1,728.42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356	9,722	29,505	1,583.73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78.10.29	임대 (5성)	296	17,008	39,971	1,483.66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직영 (5성)	613	86,860	99,164	8,726.80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5성)	5	0	0	632.69
대구	호텔인터볼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5성)	171	18,558	61,601	1,485.24
제주	공즈카지노 【길상창회(유)】	'75.10.15	임대 (5성)	19	988	9,907	1,604.84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5성)	168	1,894	25,610	1,195.92
	아람만카지노 【(주)청해】	'91.07.31	임대 (5성)	73	0	0	1,175.85
	제주오리엔탈카지노 【(주)건하】	'90.11.06	임대 (5성)	101	0	0	865.25
	드림타워카지노(제주드림타워) 【(주)엘티엔터테인먼트】	'85.04.11	임대 (5성)	333	29,545	44,841	5,367.67
	제주션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5성)	106	0	0	1,509.12
	랜딩카지노(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90.09.01	임대 (5성)	256	16,374	36,615	5,646.10
	메가력카지노 【(주)메가력】	'95.12.28	임대 (5성)	56	0	0	800.41
12개 법인, 16개 영업장(외국인 전용)			직영:2 임대:14	4,751	404,964	708,571	38,658.25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	'00.10.12	직영 (5성)	1,937	775,006	844,140	15,485.99
13개 법인, 17개 영업장(내·외국인)			직영:3 임대:14	6,688	1,179,970	1,552,711	54,144.24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종사원수 : 수시변동, 면적 : 전용영업장 면적

6.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종전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사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사설업이 「관광진흥법」의 개정(1999.2.8.)에 따라 관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유원시설업은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종합 유원시설업은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일반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이며, 기타 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확인받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유원시설업 관련 주체는 유원시설업의 운영자인 유원시설업체,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및 안전상태를 지도·점검하는 지자체, 유원시설업 관련 법 등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기술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21년 기준 유원시설업체 현황은 종합 유원시설업 48개, 일반 유원시설업 353개, 기타 유원시설업 2,144개 등 총 2,54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표 6-28〉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서울	212	3	9	200
부산	76	-	12	64
대구	97	2	15	80
인천	171	-	19	152
광주	59	1	5	53
대전	59	1	3	55
울산	73	-	8	65
세종	24	-	-	24
경기	641	10	56	575
강원	143	10	41	92
충북	120	-	17	103
충남	183	4	29	150
전북	100	-	24	76
전남	116	5	30	81
경북	181	3	32	146
경남	209	5	31	173
제주	81	4	22	55
계	2,545	48	353	2,1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휴업 업체 포함

7. 관광편의시설업

가. 일반현황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6-29〉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유흥 음식점업	-	2	1	-	-	-	1	-	1	1	1	1	1	-	-	-	1	10
관광극장 유흥업	17	3	2	12	2	8	2	-	25	4	5	5	3	1	6	13	3	11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3	15	15	2	1	-	25	-	179	4	1	4	19	1	24	42	4	339
관광식당업	453	156	96	89	43	52	46	6	422	28	12	21	139	15	14	64	160	1,816
관광순환버스업	3	1	3	3	-	-	1	-	6	12	-	2	8	3	4	10	2	58
관광사진업	8	2	1	-	-	-	-	-	2	-	-	-	2	-	-	-	3	18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	-	-	-	-	-	-	-	-	-	1	-	-	-	1	-	-	2
관광펜션업	-	4	-	25	-	-	5	-	77	91	6	99	43	74	70	98	109	701
관광궤도업	-	2	2	1	-	-	-	-	3	3	2	-	1	3	1	1	-	19
관광면세업	18	11	2	9	-	-	1	-	2	22	1	1	1	2	-	1	7	78
관광지원서비스업	100	21	3	4	1	2	-	1	26	24	5	4	3	9	18	39	33	293
기타관광 편의시설업(제주)	-	-	-	-	-	-	-	-	-	-	-	-	-	-	-	-	17	17
계	602	217	125	145	47	62	81	7	743	189	34	137	220	108	138	268	339	3,46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7.10.부터 신설됨

주2) 한옥체험업은 2020.4.28.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함

2019년부터 관광연관 업종을 포괄할 수 있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되고, 2020년부터 한옥체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어 현재 「관광진흥법」으로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2021년 12월 말 기준)은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제주) 총 12가지가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3,462개소이다.

나. 업종별 현황

1)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건물의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이고,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0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2) 관광극장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어야 하며,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로 들리지 않도록 해야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11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3)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이다.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해야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339개가 운영 중이다.

4)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이다.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으로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정 외국의 전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거나,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고,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816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5)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으로,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6) 관광사진업

관광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사진 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으로,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어야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8) 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로 객실이 30실 이하이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비큐장·캠핑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하고 있어야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701개(제주특별법 상 휴양펜션업 제외) 업체가 운영 중이다.

9) 관광궤도업

관광궤도업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광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안내 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19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10) 관광면세업

관광면세업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이다.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지정 가능하며, 2021년 12월 말 기준 7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11)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여 관광산업의 범주를 확장하고자 관광편의시설업의 하위 업종으로 2019년 7월 10일 신설 시행되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① 총 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②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 ③ 한국관광품질인증 받은 사업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공모 등의 방법으로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되지 못했던 렌터카 업체, 기념품점, 항공사, 환전소, 관광벤처기업 등이 관광진흥법령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293개 업체가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12)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사륜형 자동차(ATV), 카트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은 제주에 2021년 12월 말 기준 1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8. 관광인력 양성

가. 교육 및 훈련기관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광분야 전문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교육기관은 관광인력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전문적인 관광인력의 공급 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주로 관광관련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 관광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1) 관광관련 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특성화고등학교로서 2000년에 개교하였다. 관광관련 고등학교(학교명에 관광이 들어간 학교) 현황은 전국에 15개교 5,624명으로 세부전공으로는 관광경영과, 관광조리과, 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관광레저과, 관광외국어과, 국제항공여행과, 관광컨벤션과, 국제의료관광간호과 등이 있다. 기타 관광관련 고등학교(학과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항공서비스, 레저, 외식, 조리가 들어간 학교)는 경기 남양고등학교 등 87개교 14,241명이 있다.

〈표 6-30〉 전국 관광계열 관련 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1	특성화고	강호항공고등학교	6	115
2	특성화고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3	34
3	특성화고	경기경영고등학교	6	128
4	특성화고	경기관광고등학교	12	268
5	특성화고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9	200
6	특성화고	경남관광고등학교	31	581
7	특성화고	경남산업고등학교	7	118
8	특성화고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9	200
9	특성화고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6	133
10	특성화고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6	147
11	특성화고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6	133
12	특성화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15	340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13	특성화고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6	130
14	특성화고	경주정보고등학교	6	122
15	특성화고	계성여자고등학교	6	128
16	특성화고	고령고등학교	3	55
17	특성화고	고명외식고등학교	10	228
18	특성화고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6	112
19	특성화고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7	148
20	특성화고	남원제일고등학교	2	31
21	특성화고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12	210
22	특성화고	대구관광고등학교	25	544
23	특성화고	대일관광고등학교	19	335
24	특성화고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6	115
25	특성화고	덕암정보고등학교	15	294
26	특성화고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3	58
27	특성화고	서울동산고등학교	9	194
28	특성화고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8	182
29	특성화고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4	98
30	특성화고	명인고등학교	3	66
31	특성화고	목포성신고등학교	4	71
32	특성화고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6	154
33	특성화고	병천고등학교	9	213
34	특성화고	부산관광고등학교	24	487
35	특성화고	부산마케팅고등학교	4	84
36	특성화고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6	102
37	특성화고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24	497
38	특성화고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9	188
39	특성화고	분당경영고등학교	10	194
40	특성화고	삼량고등학교	8	157
41	특성화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3	63
42	특성화고	삼일상업고등학교	4	100
43	특성화고	상서고등학교	16	345
44	특성화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15	344
45	특성화고	서울관광고등학교	22	511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46	특성화고	서울신정고등학교	13	220
47	특성화고	서울컨벤션고등학교	22	535
48	특성화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17	244
49	특성화고	선명여자고등학교	6	120
50	특성화고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6	126
51	특성화고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15	299
52	특성화고	성남금융고등학교	7	118
53	특성화고	성보경영고등학교	18	394
54	특성화고	성환고등학교	9	159
55	특성화고	세종장영실고등학교	4	79
56	특성화고	송곡관광고등학교	14	318
57	특성화고	순천효산고등학교	15	335
58	특성화고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6	126
59	특성화고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15	317
60	특성화고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	34
61	특성화고	영산고등학교	6	119
62	특성화고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27	565
63	특성화고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6	114
64	특성화고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14	282
65	특성화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11	217
66	특성화고	은평메디텍고등학교	6	134
67	특성화고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6	124
68	특성화고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8	151
69	특성화고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11	228
70	특성화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4	78
71	특성화고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7	135
72	특성화고	일산고등학교	6	136
73	특성화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17	299
74	특성화고	일죽고등학교	3	65
75	특성화고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10	179
76	특성화고	제주고등학교	32	764
77	특성화고	중문고등학교	6	141
78	특성화고	증평정보고등학교	3	64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79	특성화고	진성여자고등학교	6	93
80	특성화고	춘천한샘고등학교	3	72
81	특성화고	평촌경영고등학교	21	427
82	특성화고	학산고등학교	3	55
83	특성화고	한국관광고등학교	9	237
84	특성화고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3	69
85	특성화고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12	299
86	특성화고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8	732
87	특성화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2	38
88	특성화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10	200
89	특성화고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18	398
90	특성화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16	326
91	일반고(종합고)	남양고등학교	6	157
92	일반고(종합고)	삼가고등학교	3	36
93	일반고(종합고)	석정여자고등학교	3	17
94	일반고(종합고)	양동고등학교	3	71
95	일반고(종합고)	파주여자고등학교	6	94
96	일반고(종합고)	하성고등학교	6	46
97	일반고(종합고)	한국전문통화고등학교	3	57
98	기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6	116
99	기타	서울산업정보학교	1	0
100	기타	아현산업정보학교	4	0
101	기타	인천산업정보학교	3	41
102	기타	종로산업정보학교	7	108
합계			955	19,86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학교알리미 2021년 기준

주) 학급수, 학생수는 전체 학과중 관광계열 학과(학과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항공서비스, 레저, 외식, 조리, 베이커리 포함)에 한함

2)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1964년 경기대학교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 관련 학과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2021년 현재 159개 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년제 정규과정의 대학에서는 주로 관광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은 관광에 관한 이론과 실무·실기교육을 위주로 실시하여 관광산업의 전문 종사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서로 결합되어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따라 관광이 외국어·경영·문화·정책 등 다른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 영역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은 <표 6-31>과 같다.

〈표 6-31〉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학교 수	입학정원	입학생 수	재적학생 수			졸업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전문대학(4년제)	5	411	145	525	337	-	258
전문대학(3년제)	33	3,010	2,865	6,511	2,077	9	2,407
전문대학(2년제)	32	2,891	2,334	5,146	2,478	7	2,599
대학교	50	3,549	3,498	13,315	3,297	157	2,621
방송통신대학	1	1,820	169	2,102	647	-	521
산업대학	1	60	112	369	55	3	61
사이버대학(대학)	3	-	162	551	58	-	116
전공대학	1	660	187	737	550	-	545
일반대학원	19	-	299	526	63	-	194
전문대학원	-	-	-	5	1	-	-
특수대학원	14	-	166	571	71	-	196
계	159	12,401	9,937	30,358	9,634	176	9,51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4월 기준

주1) 2021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 분류집의 소계열이 관광/관광학인 경우에 한함

주2) 학교 수는 입학자가 있는 학교에 한하며 본교 기준임

주3) 입학자는 2021년 3월 기준이며 졸업생은 2020년 8월 및 2021년 2월 졸업자가 포함됨

주4) 2019년부터 학사학위취득유예생(고등교육법 제23조의5)이 조사됨

나.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현관, 객실, 식당)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업계의 발전에 부응하여 이러한 관광종사원의 자격관리 업무를 민간 부문에 점진적으로 위탁한다는 방침 하에 1984년에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였으며, 1987년에는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하였다. 그러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200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자격검정 시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표 6-32〉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호텔서비스사	86	126	93	87	46	169	160	121	118	94
호텔경영사	1	1	4	-	-	-	1	-	3	3
호텔관리사	10	12	14	15	11	8	15	14	20	17
국내여행안내사	1,002	1,142	990	856	308	789	1,256	748	642	421
관광통역안내사	1,164	1,674	3,198	2,522	2,145	1,610	1,251	1,428	1,327	881

자료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한국관광공사, 2022년 6월 기준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1년 12월 기준

1) 관광숙박업 종사원

관광숙박업 종사원은 호텔경영총괄업무와 종사원 지휘·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호텔경영사, 호텔 각 분야의 업장별 관리와 종사원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호텔관리사와 관광호텔의 현관, 객실, 식당의 업무를 담당하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제도가 있다.

2) 관광안내사

관광안내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안내사와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 여행객에게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2가지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① 국내여행안내사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국내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관광을 홍보하고 충실한 관광안내를 통하여 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여 197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총 88,308명이 배출되었다.

② 관광통역안내사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관광통역안내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였다. 1962년부터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2021년 기준 총 35,426명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배출되었다.

〈표 6-33〉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타언어	계
	배출인원	증가율	배출인원	증가율	배출인원	증가율						
1962~2010년	4,876	-	9,048	-	2,954	-	161	102	89	93	4	17,327
2011년	156	-25.00	357	10.53	370	89.74	2	2	1	5	6	899
2012년	166	6.41	278	-22.12	698	88.64	2	3	2	3	12	1,164
2013년	238	43.37	244	-12.23	1,160	66.19	3	4	3	4	18	1,674
2014년	379	59.24	266	9.02	2,468	112.76	3	1	4	6	71	3,198
2015년	344	-9.23	137	-48.50	1,963	-20.46	7	3	4	5	59	2,522
2016년	464	-34.9	153	-11.7	1,418	-27.7	6	3	3	6	92	2,145
2017년	529	14.00	186	21.57	739	-47.88	7	1	4	8	136	1,610
2018년	512	-3.2	208	11.8	416	-43.7	7	4	6	10	88	1,251
2019년	678	32.4	269	29.3	335	-19.5	9	2	12	7	116	1,428
2020년	617	-9.0	204	-24.2	343	2.4	14	0	7	16	126	1,327
2021년	456	-26.0	134	-34.3	194	-43.4	6	3	9	6	73	881
계	9,415	-	11,484	-	13,058	-	227	128	144	169	801	35,4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6-34〉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정부위임·위탁사무	자체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증 시험관리	-
한국관광공사	합격생 자격증 등록/발급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통계·연구조사 FLEX 특별 시험 주관 취업·복지증진·도서발간·홍보사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2009.3.25.)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여 관광안내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시험 업무는 자격증 홍보, 원서접수·관리, 출제 시험관리 및 합격생 배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시험 합격생들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포탈시스템 '관광인(academy.visitkorea.or.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국가자격증을 신청·수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안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및 개별여행 트렌드에 맞춘 안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관광업계 활동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 및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실무교육, 신입 관광통역안내사 보수교육 및 소수언어권(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어학능력검정시험(FLEX 특별 시험)을 주관하여 여행업계 수요에 적합한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 관광인력 교육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그 외에도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으로 교육주관기관을 다변화해 왔다. 2021년도 관광업계 관광종사원 교육실적은 〈표 6-35〉와 같다.

〈표 6-35〉 2021년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명	교육실적	교육기간	교육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개별여행객 맞춤형 교육 (슬기로운 가이드 생활) - 관광산업 취업멘토링 -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점검 실무교육 	2,934 47 595 231 260 512	온라인 교육(3개월) 9일 온라인교육 3.5시간 온라인 교육(7시간) 온라인 교육	상시 2 상시 8 10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실무) -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85 129 204 133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1 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면접회화) -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FLEX반) - 관광통역안내사 신입실무교육 - 디지털 관광마케팅 교육 - 관심특화분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관광지 해설기법 양성교육 	36 22 43 124 48 358 179	60시간 192시간 270시간 41시간 16.5시간 5.3시간 1일~3일	1 2 3 1 2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온라인교육) -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심리상담) -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현장교육) - 유원시설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종합·유원시설업자) - 숙박종사원(호텔, 콘도) 교육 	2,379 28 36 560 94	온라인 교육 1시간 2~3일 1~2일 1~2일	1 6 2 7 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6-36〉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교육생 수
2011년	1,315
2012년	2,578
2013년	2,339
2014년	2,273
2015년	2,249
2016년	2,932
2017년	1,705
2018년	2,235
2019년	2,038
2020년	2,628
2021년	1,405

자료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공사, 2021년 기준

9.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과 기대가 함께였던 한해였다. 관광업계는 팬데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국내 유명 여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의 실적 공백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중소 여행업계의 휴업과 폐업 건수는 지속 늘어났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트래블버블을 주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에 디지털을 결합하여 기존 오프라인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예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객의 지역별 이동, 소비유형, 여행 흐름 등의 데이터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메타버스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행자는 가상공간에서 여행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고 업계 종사자는 관광객의 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하였으며, 관광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과 여행자의 여행 편리성, 안전성,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중이다.

관광서비스 변화와 업계의 위기극복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과제 ‘맞춤형 관광 큐레이션을 위한 관광 수요 및 혼잡도 예측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사전에 원하는 국내 관광 지역의 해당시간 혼잡도를 예측하고 개인이 원하는 지역, 테마 등 성향 맞춤형 관광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계속과제 3개(5G 기반 다차 실감형 관광 체험 가이드 기술개발, IoT 기반 유원시설 모니터링 및 체험확장 서비스 개발, 야간 문화관광을 위한 플렉시블 LED 조각보 기반 감성문화 콘텐츠 개발)를 지원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이는 디지털 융합 관광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업의 성장과 신서비스 모델발굴을 위해 현재 ‘관광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내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글로벌 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10. 관광벤처 사업

관광벤처사업이란 다양한 사업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관광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말에는 한국관광공사에 관광벤처팀이 신설되었으며,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 및 고용창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업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관광창업지원팀과 관광기업육성팀으로 조직을 확대·분리하였다.

가. 관광벤처사업 발굴

2011년 말 시범사업으로 「제1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었으며, A그룹(예비창업자) 및 B그룹(창업 5년 이내 기존사업자) 대상 163건이 접수되어 그룹별 5건씩 총 10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관광벤처사업의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실행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제2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및 「제1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8개 관광벤처사업의 유형(고부가가치 창출, 녹색성장, 사회통합, 연계시너지, 감성만족, 체험창조, IT창조, 기타 형)에 따라 총 8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013년부터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으로 단일화하여 「제3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4개 유형(체험창조형, IT창조형, 시설기반형, 기타형) 총 80개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였다. 2014년에는 「제4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시설기반형, 체험창조형, IT창조형, 기타형 4개 유형으로 8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015년에는 관광벤처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2014년까지 시행하던 아이디어 부문을 폐지하고 예비관광벤처(구.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과 관광벤처(구.창조관광)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5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시행하여 총 47개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제1회~제4회 예비관광벤처(구. 예비창조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통해 26개 기업을 관광벤처(구. 창조관광)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단계 기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6년 「제6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지역 유망 관광 초기기업 선발을

위하여 지역할당 분야를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관광벤처(구. 예비창조관광)기업 45개 및 관광벤처(구. 창조관광) 기업 22개를 발굴 지원하였다. 2017년 「제7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각 부처별 통합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광벤처·푸드테크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해양관광벤처 부분을 처음 신설하여 관광벤처기업 19개, 예비관광벤처기업 48개(해양관광벤처기업 10개 포함) 등 총 67개의 기업을 발굴·지원하였다. 2018년 「제8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지역 소재 기업 발굴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울산광역시)와의 협업체도를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관광벤처기업 51개(해양관광벤처기업 7개 포함) 및 관광벤처기업 28개를 발굴·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광벤처사업공모전을 총 2회 추진하여, 상반기에 제9회, 하반기에 제10회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제9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70개, 관광벤처 19개, 해양관광벤처 7개 등 총 96개를 발굴·지원하였다. 「제10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는 관광분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예비관광벤처 70개, 관광벤처 10개, 재도전벤처 18개 등 총 98개 기업을 발굴·지원하였다. 2020년 「제11회 관광벤처(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을 예비관광벤처/초기관광벤처로 나누어 참가부문을 세분화하였고,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55개, 성장관광벤처 19개, 재도전벤처 20개 등 총 119개를 발굴·지원하였다. 2021년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는 재도전 부문을 예비관광벤처/초기관광벤처 부문에 통합 선발하였으며,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75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 총 140개 기업을 발굴·지원하였다.

〈표 6-37〉 연도별 관광벤처사업 발굴 건수

(단위: 건)

구 분	접수건수	선정건수	예비 관광벤처	초기 관광벤처	성장 관광벤처	재도전	해양관광 벤처
2011년	163	10	-	-	-	-	-
2012년	공모전	903	70	-	-	-	-
	경진대회	245	10	-	-	-	-
2013년	1,004	90	-	-	-	-	-
2014년	1,470	90	-	-	-	-	-
2015년	749	73		44	29	-	-
2016년	640	67		45	22	-	-

(단위 : 건)

구 분	접수건수	선정건수	예비 관광벤처	초기 관광벤처	성장 관광벤처	재도전	해양관광 벤처
2017년	406	67		38	19	-	10
2018년	405	79		44	28	-	7
2019년(9회)	658	96	70	-	19	-	7
2019년(10회)	384	98	70	-	10	18	-
2020년	960	119	25	55	19	20	-
2021년	1,159	140	25	75	40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다. 관광벤처사업과 공모전 인지도 확립을 위하여 주요 경제지 인쇄매체 광고 및 지하철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대량노출 광고와 파워블로거 등의 바이럴마케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및 지방 중소기업 참가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전국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의 다양한 민·관 유관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다각화하였다.

나. 관광벤처기업 육성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도에 1, 2차 공모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시장 진입을 위한 본격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모전 순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상금의 90%를 실제 창업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실제 창업 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창업 및 경영 분야 전문가 10여 명을 담임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전담 관리하는 담임 컨설턴트 제도 도입, 관광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협약사업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는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단계별 가속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예비관광벤처기업과 관광벤처기업으로 성장단계를 분화하여 선발, 육성,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초기 단계에는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성장단계에는 시장 내 연착륙을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지속 성장 투자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 관광벤처기업 육성 펀드 결성에 따른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관광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의 가속화 및 수혜업체 확대를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관광벤처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형별 컨설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컨설턴트를 섭외하여 기업별 밀착 관리를 강화한 랩어카운트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관광 학계와 업계 종사자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관광벤처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벤처포럼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7년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관광벤처기업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4개의 지속 가능한 협업 프로젝트(8개 기업 참여)를 발굴하였으며, 관광벤처포럼 운영(4회)과 정례 네트워크 행사(월 1회) 등을 통해 기업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9년에는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지사 및 타기관과 협업하여 관광벤처 사업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다각화 하였으며, 테마특화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육성하였다. 벤처사업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성과를 제고하고 관광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대응을 위하여 관광벤처사업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선집행 후정산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화자금 지원체계를 개선,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시장반응조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 등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관광재개를 대비한 업계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업종 전환 컨설팅,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상품개발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DX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DX 온라인 클래스 및 실습형 부트캠프, 1:1 그로스해킹 마케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관광업계 회복을 지원하고 판로개척과 관광벤처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최초로 개최하였다. 지자체·여행업계 데모데이, IR 피칭 및 글로벌 투자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통과 혁신기업, 대중소 기업 간 협업, 타 산업 등과의 연결의 장을 마련하였다.

〈표 6-38〉 연도별 관광벤처사업 창업 및 고용성과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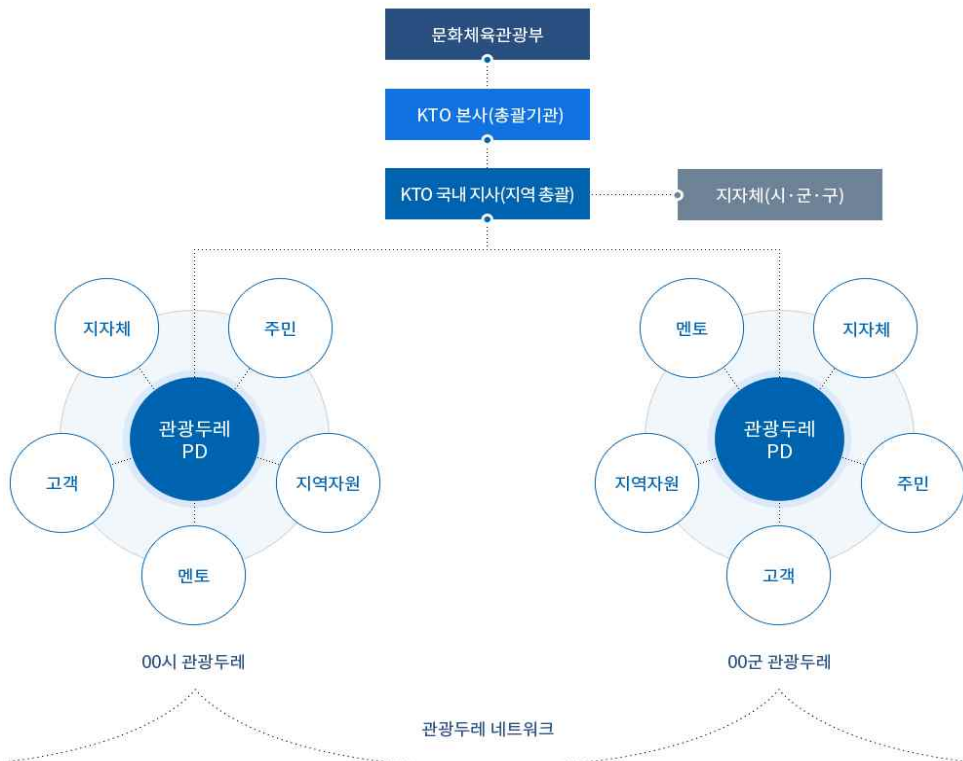
연 도	창업	고용인원
2012년	53	150
2013년	60	169
2014년	57	182
2015년	35	255
2016년	41	323
2017년	31	327
2018년	35	360
2019년	112	385
2020년	79	497
2021년	92	501
계	595	3,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부터는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기업 대상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혁신활동,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분야별 성장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초기 관광기업의 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관광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혁신바우처 지원,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사업 TIPS와 연계한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 규모를 100여개에서 140여 개로 확대하였고,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업 규모를 기존 8개사에서 35개사로 확대하였다.

11. 관광두레 사업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체험,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두레 주민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에 기초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두레 PD는 주민사업체의 육성 및 창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며, 지자체는 관광두레 사랑방 제공, 공동 홍보마케팅, 부분적 예산 지원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림 6-1] 관광두레 사업 추진체계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사업체별로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관광두레 사업대상 지역 선정(관광두레 PD 선발 포함) 및 지역관광콘텐츠진단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2차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사업체 육성지원(역량강화, 네트워크 조성,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한다. 주민사업체는 매년 진단평가 등을 거쳐 성장단계 평가 및 이에 따른 지원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며, 최장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역이나 그 사업이 종료된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를 통해 사후관리 및 지역협력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7월에 착수한 관광두레 사업은 2013년 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4년 20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 2016년 8개 지역, 2017년 7개 지역, 2018년 10개 지역, 2019년 12개 지역, 2020년에는 14개 지역, 2021년 22개 지역을 신규 선정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지역 305개 주민사업체의 1,409명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6-39〉 전국 관광두레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1차년 사업대상지(2021년 선정)	• 경기 광주시, 대전 유성구, 충남 천안시, 전북 임실군, 고창군, 전남 목포시, 장성군, 강원 강릉시, 고성군, 충북 음성군, 청주시, 대구 북구, 경북 영덕군, 영천시, 고령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양산시, 창원군, 부산 영도구, 울산 울주군, 중구 등 22개 지역
2차년 사업대상지(2020년 선정)	• 경기 용인시, 포천시, 강원 평창군, 세종시, 대전 동구, 충남 부여군,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고흥군, 순천시,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 등 14개 지역
3차년 사업대상지(2019년 선정)	• 대전 대덕구, 경기 안산시, 안성시, 파주시, 강원 정선군, 충북 괴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남 산청군 등 11개 지역
4차년 사업대상지(2018년 선정)	• 대구 동구, 경기 고양시, 강원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보성군, 경북 문경시 등 9개 지역
5차년 사업대상지(2017년 선정)	• 인천 강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장수군, 전남 강진군 등 4개 지역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광두레 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조성 위주의 관광개발에서 탈피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미 조성한 공공시설(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사업화 함으로써 지역 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공동체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과 교육훈련 등 주민맞춤형 지원, 경영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파일럿 사업,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정 성장과 자립 경영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주민공동체에게 해당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특히 관광두레 PD라고 불리는 각 지자체의 관광두레를 만들어가는 활동가를 선발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과 함께 현장밀착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전국대회와 다양한 홍보마케팅 및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외부에 알리는 한편, 상품 경쟁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체험, 기념품, 식음, 주민여행, 숙박 등 사업아이템별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체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상품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는 효과를 도모한다.

2021년에는 한국관광공사로의 관광두레 사업 이관 이후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관광두레 사업의 질적 성장 및 중앙(본사)-광역(국내지사)-기초(PD) 체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내지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본사와의 빠른 소통체계를 갖추므로써 기획과 실행력 양자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사업체의 연간 성과 및 성장 단계를 평가하는 진단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관광두레 사업성과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2021년 제10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공공기관 정책상 수상, PATA GOLD AWARDS 2021 CBT(Community Based Tourism, 지역기반관광) 분야 수상, 국무총리실 표창 등을 수여하며 관광두레 정책의 우수성과 긍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12. 관광 관련 법령 개정

관광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등 5개이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가.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 관광진흥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①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으로부터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7704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

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등이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8377호, 2021.8.10. 일부개정, 2021.8.10. 시행).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6조의2 신설).

- ③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 18248호, 2021.9.16. 일부개정, 2021.6.15. 시행).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제47조의8, 제80조제3항 제6호의2 신설).
- ④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보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법률 제1800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 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5항 신설 등).
- 나.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3항 신설).
- 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제4항).
- 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48조의3제5항).

- 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에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8조의 3제6항 및 제7항 신설).
- 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제48조의3제8항 신설).
- 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제73조제2항).

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①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의 시설과 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되지 않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대통령령 제31938호, 2021.8.10. 일부개정, 2021.8.10. 시행).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대통령령 제31543호, 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
- ③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내용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을 생략하고 변경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대통령령 제32044호, 2021.10.14. 일부개정, 2021.9.24. 시행).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 2021.6.23. 일부개정, 2021.6.23. 시행).
- ②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격증 앞면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뒷면으로 옮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 2021.4.19. 일부개정, 2021.7.20. 시행).
- ③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중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실시된 텡스(TEPS) 점수는 더 이상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 2021.9.24. 일부개정, 2021.9.24. 시행).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의 운영·관리 계획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5호, 2021.10.12.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 ⑤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현재는 등급결정 기관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등급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시행).

나. 관광기본법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①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면서, 감염병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03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기금의 보조·대여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8008호, 2021.4.13. 일부개정, 2021.7.14. 시행).
- ②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법률 제18376호, 2021.8.10. 일부개정, 2021.8.10. 시행).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8248호, 2021.6.15. 일부개정, 2021.9.16. 시행).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도모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가 겹쳐지면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05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

13.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재원으로서, 「관광기본법」 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1972.12.29. 법률 제2402호)에 근거를 두고 조성·운용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3년 설치와 동시에 2억 원의 국고 출연을 시작으로 2021년 말 현재 순조성 규모가 1조 4,216억 원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육성재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숙박업, 휴양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의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용자 지원되고 있으며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수행과 국제회의 유치,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표 6-39>과 같다.

<표 6-39>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	총조성액					사용액				순조성액	조성액 누 계
	정부 출연금	전입금	법정 부담금	운 용 수 입	계 (A)	관광진흥 개발사업	기금 관리비	기타	계 (B)	(A-B)	
1973	200	-	-	0	200	-	-	-	-	200	200
1974	180	-	-	11	191	-	-	-	-	191	391
1975	-	-	-	23	23	-	-	-	-	23	414
1976	-	-	-	22	22	-	-	-	-	22	436
1977	5,200	-	-	20	5,220	-	-	-	-	5,220	5,656
1978	10,000	-	-	92	10,092	-	2	-	2	10,090	15,746
1979	8,000	-	-	766	8,766	-	3	-	3	8,763	24,509
1980	8,752	-	-	2,320	11,072	-	2	-	2	11,070	35,579
1981	7,343	-	-	3,482	10,825	-	2	-	2	10,823	46,402
1982	475	-	-	4,730	5,205	-	1	-	1	5,204	51,606
1983	-	-	-	4,015	4,015	-	1	-	1	4,014	55,620
1984	-	-	-	4,262	4,262	-	1	-	1	4,261	59,881
1985	-	-	-	4,706	4,706	-	1	-	1	4,705	64,586
1986	-	-	-	5,393	5,393	-	1	-	1	5,392	69,978
1987	-	-	105	5,846	5,951	-	1	-	1	5,950	75,928
1988	-	-	-	6,384	6,384	-	1	-	1	6,383	82,311
1989	-	-	100	6,768	6,868	-	1	-	1	6,867	89,178
1990	-	-	5,419	7,333	12,752	-	1	-	1	12,751	101,929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총조성액					사용액				순조성액	조성액 누 계
	정부 출연금	전입금	법정 부담금	운 용 수 입	계 (A)	관광진흥 개발사업	기금 관리비	기타	계 (B)	(A-B)	
1991	-	-	3,140	8,112	11,252	-	1	-	1	11,251	113,180
1992	-	-	5,457	10,649	16,106	-	1	-	1	16,105	129,285
1993	-	-	3,249	11,006	14,255	-	1	-	1	14,254	143,539
1994	-	-	-	11,527	11,527	-	1	-	1	11,526	155,065
1995	-	-	1,233	12,241	13,474	-	58	-	58	13,416	168,481
1996	-	-	17,900	13,382	31,282	600	116	111	827	30,455	198,936
1997	-	-	24,187	15,415	39,602	2,000	154	114	2,268	37,334	236,270
1998	-	-	28,757	19,426	48,183	8,620	408	0	9,028	39,155	275,425
1999	-	40,000	56,347	18,337	114,684	34,702	19	698	35,419	79,265	354,690
2000	-	-	66,091	21,411	87,502	19,146	9	-	19,155	68,347	423,037
2001	-	-	84,684	22,509	107,193	16,170	27	-	16,197	90,996	514,033
2002	-	-	132,730	24,152	156,882	16,988	34	-	17,022	139,860	653,893
2003	-	-	134,127	25,321	159,448	21,664	34	-	21,698	137,750	791,643
2004	-	-	187,999	25,990	213,989	97,106	38	-	97,144	116,845	908,488
2005	-	-	236,287	47,585	283,872	134,091	527	-	134,618	149,254	1,057,742
2006	-	-	255,223	40,970	296,193	134,905	847	-	135,752	160,441	1,218,183
2007	-	-	273,271	52,573	325,844	198,845	651	941	200,438	125,406	1,343,589
2008	-	-	297,197	58,172	355,369	290,240	1,464	19,887	311,591	43,778	1,387,367
2009	-	-	309,312	53,929	363,241	321,520	468	(3,281)	318,707	44,534	1,431,901
2010	-	-	367,500	57,642	425,142	363,164	455	6,142	369,761	55,381	1,487,282
2011	-	-	394,520	52,955	447,475	363,464	517	19,188	383,169	64,306	1,551,588
2012	-	-	401,399	59,038	460,437	442,377	456	-31,708	411,125	49,312	1,600,900
2013	-	-	457,541	62,666	520,207	433,312	527	15,766	449,605	70,602	1,671,502
2014	-	-	479,660	71,198	550,858	429,048	470	(847)	428,671	122,187	1,793,689
2015	-	-	518,618	67,262	585,880	519,704	485	5,830	526,018	59,862	1,853,551
2016	-	(50,000)	575,851	75,523	601,374	489,837	453	2,116	492,406	108,968	1,962,519
2017	-	(50,000)	615,607	96,041	661,648	562,630	645	14,466	577,741	83,907	2,046,426
2018	-	(25,000)	637,983	96,557	709,540	537,200	526	15,739	553,465	156,075	2,202,501
2019	-	19,559	649,946	96,235	726,622	560,703	610	16,265	587,578	139,044	2,341,545
2020	-	(20,441)	326,940	94,895	401,394	650,117	604	17,714	626,034	(224,640)	2,116,905
2021	-	(37,750)	107,120	120,436	189,806	854,985	545	29,501	885,031	(695,225)	1,421,680
계	40,150	(123,632)	7,655,500	1,499,328	9,032,228	7,503,138	11,169	128,642	7,610,548	2,127,26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2005년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액으로 집계하지 않음

주2) 2016년부터 발생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비교환수익의 부의 계정으로 전입금에서 차감함

주3)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기금의 지원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되는 용자사업과 국민 여행수요의 충족을 위한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마케팅 수립 등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과 이자수익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문화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표 6-40〉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수입	법정부담금	633,240	634,960	647,668	362,666	99,281	431,418
	출국납부금	364,832	384,131	400,591	92,996	13,439	350,517
	카지노납부금	268,408	250,829	247,077	269,670	85,842	80,901
	이자수입	9,116	11,088	8,475	13,335	8,584	11,254
	기타경상이전수입	23,809	15,287	32,069	9,324	17,812	18,935
	징계부과금	-	-	-	-	18	-
	용자원금회수	293,691	389,876	519,609	283,636	370,638	590,800
	정부내부수입	220,125	25,000	30,441	300,441	1,278,415	810,950
	여유자금 회수	408,472	18,065	8,338	364,111	9,688	10,000
지출	관광사업체용자지원	610,000	492,044	432,523	640,000	441,706	649,000
	관광진흥기반확충	73,057	31,205	33,202	34,234	33,255	50,446
	국내관광활성화	158,241	158,530	170,618	233,890	249,311	267,804
	외래관광객유치	196,517	194,649	219,368	215,204	253,982	233,649
	관광산업 활성화	83,550	90,571	100,364	132,377	195,190	204,775
	기금운영비	634	516	600	604	545	641
	정부내부지출	63,472	65,804	66,262	67,515	26,637	371,016
	여유자금 운용	402,982	60,957	223,663	9,688	583,810	96,026
운용규모	1,588,453	1,094,276	1,246,600	1,333,513	1,784,436	1,873,3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1년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기금 주요 사업비는 1조 1,734억 원이다. 이 중 용자사업비는 4,417억 원(37.6%)이며, 관광시설확충에 2,281억 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2,136억 원을 용자 지원하였다. 경상 사업비는 7,317억 원(62.4%)으로 관광진흥 기반 확충 사업에 333억 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에 2,493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에 2,540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1,952억 원이 집행되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상 주요 사업비는 1조 4,057억 원이다. 이 중 용자사업 예산은 6,490억 원이며, 관광시설 확충에 2,290억 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4,2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상사업 예산은 7,567억 원으로 관광진흥 기반 확충 사업에 504억 원,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에 2,678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에 2,336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2,048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용자사업과 경상사업(보조사업)이 상호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관광산업의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표 6-41〉 연도별 기금사업비 구성비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경상사업비 (A)	511,365	45.6	474,955	50.9	523,552	54.8	615,706	49.0	731,738	62.4	756,674	53.8
용자사업비 (B)	610,000	54.4	492,044	49.1	432,523	45.2	640,000	51.0	441,706	37.6	649,000	46.2
계	1,121,365	100	966,999	100.0	956,075	100.0	1,255,706	100.0	1,173,444	100.0	1,405,674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1) 용자사업

〈표 6-42〉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관광시설 확충	388,600(228)	373,203(246)	333,998(221)	223,616(162)	228,127(236)	229,000(153)
관광사업체 운영	221,400(524)	118,841(405)	98,525(518)	416,384(2,722)	213,579(1,074)	420,000(2,333)
계	610,000(752)	492,044(651)	432,523(739)	640,000(2,884)	441,706(1,310)	649,000(2,48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는 업체 수

2) 보조사업

- 국외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사업
- 관광상품·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등

나. 기금의 지원효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수요 증대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광사업체의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는 관광수요 증가율과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업체 매출 증액 등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외래관광객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관광숙박 객실수 및 업체 매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의 사업계획과 관광사업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¹⁾ 즉,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국민관광여건을 마련하였다. 관광시설 건설 시 초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체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고 관광진흥 발전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등 관광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09년 개정·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숙박시설, 호텔업 등에 기금을 추가 지원하고, 최대 1.25%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증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41) 김덕기 (2013).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 기금 조성을 위한 출국납부금 부과제도 시행

정부는 1996년 7월 10일 대통령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관광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재원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외여행자대상 기금부과 방안을 확정하였다. 1단계로 공청회 개최, 여론 조사, 선진국의 제도 사례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출국자 전체를 기금부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기금 부과 대상을 관광목적 국외여행자로 한정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97년 1월 13일 공포되었다. 이어서 2단계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1997.6.28. 공포)하고, 여행업계에 대한 사전교육, 대국민 홍보 등의 세부시행 준비를 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관광목적 국외여행자에게 1만 원(선박이용 시 1,000원)의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여행객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하는 국외여행자는 당해 여행사에,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국외여행자는 공항과 항만 소재 은행에 동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표 6-43〉 연도별 출국납부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국 납부금	187,543	224,951	237,754	262,302	295,996	364,832	384,131	400,591	92,996	13,4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다시 개정(1998.9.17.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도 개정(1998.11.13. 공포)하여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부과대상을 종전의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에서 국외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 1월 26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국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자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2004년 1월 29일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2004. 7.1. 시행)되어 국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자로 하였으며, 납부방식을 항공권에 포함 징수하여 탑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종전의 면제 대상자였던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등 재외국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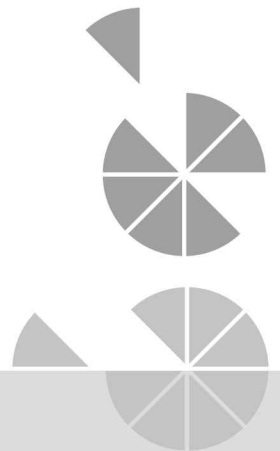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다. 또한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자사업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담자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인천공항환승투어 활성화사업, 외국인 전통체험 한마당, 여행정보센터운영 등 공항 연계사업 부문까지 지원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 7 장

관광교통 발전

- 1. 철도 _309
- 2. 육운 _314
- 3. 해운·항만 _318
- 4. 항공 _324



1. 철도

한국철도는 1899년 9월 18일 제물포~노량진 간에 33.2km의 경인철도를 개통한 이래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철도와 건전한 국내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04년 4월 1일 개통된 고속열차인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소요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앞당겨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었고, 개통 5년 8개월 만인 2009년 12월 이용객이 2억 명을 돌파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대구~부산 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완전 개통되어 서울~부산 간을 2시간 8분으로 소요시간을 앞당겼으며,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2011년 10월 5일 전라선 KTX, 2015년 4월 2일 호남선 KTX 영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여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정비,接客직원 외국어 교육,接客서비스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개발은 물론 선박연계 및 해외상품, 계절요인을 반영한 상품, 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한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행업체가 참가하는 관광협력 세미나, 지역축제와 연계관광 체제 구축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창출과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코레일 패스(KORAIL PASS)는 외국인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교통 편의를 도모해 왔다. 이용방법은 레츠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 한국철도 주요역 여행센터 또는 해외 판매처에서 코레일 패스를 구입 후 패스의 유효기간 동안 모든 열차(수도권 전동열차, 임시관광열차, SRT 제외)를 구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지역단위 관광으로 분산시켰다.

코레일 패스는 1999년 9월 18일 한국철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품 운영이 개시되었으며, 2007년 한국철도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코레일 패스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졌다. 더욱이 2015년 6월부터

5대 관광벨트 관광전용열차(동해산타, V, S, DMZ, A, G-train)까지 이용대상열차가 확대되었으며 2017년 8월부터 패스발권 후 좌석지정권의 온라인 사전확보(탑승일로부터 30일 전부터)가 가능해져 철도를 이용한 국내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7년도부터 FIT 중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하여 수도권·제주지역 위주의 관광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고 한국 주요 관광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철도연계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5대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철도관광벨트는 속도 경쟁력이 있는 간선 및 신설 노선은 KTX 중심으로, 대표적인 적자 노선으로서 낙후되었지만 자연경관이 빼어난 간선철도 노선은 독특한 지역문화와 융합하여 관광전용열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관광전용열차는 단순 이동수단으로서의 열차 개념을 탈피하여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광이 되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특화된 설비를 갖추고 정기 운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콘텐츠의 신개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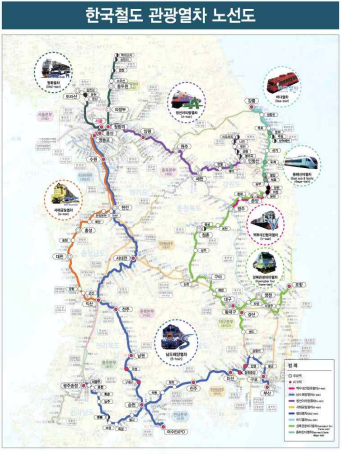
한국철도의 신개념 기차여행은 패키지 및 자유여행 고객에게 “관광전용열차 이용(열차 내 이벤트 시행) → 관광테마역 → 연계교통(카셰어링, 셔틀버스) →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트레킹·먹거리·재래장터·숙박” 등으로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윈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이용고객에게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활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대 벨트 관광전용열차는 전국의 간선철도 노선을 테마별로 설정하여 △ ‘동해산타열차’는 강릉~정동진~동해~철암~분천 간 △ ‘백두대간협곡열차 V-트레인’은 분천~철암역간 △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은 부산~광주송정역, 서울~여수엑스포역간 △ ‘평화열차 DMZ-트레인’은 용산~도라산역간과 서울~백마고지 간 △ ‘정선아리랑열차 A-트레인’은 청량리~제천~민동산~정선~아우라지역간 △ ‘서해금빛열차 G-트레인’은 용산~익산 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하는 각양각색의 테마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철도는 5대 철도관광벨트와 관광전용열차 조성사업을 통해서(2015~2021년 말) 632만 명이 이용했으며, 생산유발 1조 3천억 원, 취업유발 17,035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분천, 양원, 철암역 등에 하루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재래장터(분천, 철암 등)와 반짝장터(연천, 양원 등)가 활기를 찾는 등 낙후된 지역을 창조관광의 지역으로 만드는 기적의 관광열차로 사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길이 끊어졌던 산간오지 간이역 분천역은 산타마을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겨울 대표여행지로 부상하였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연계관광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는 2015년 1월 22일 정선아리랑열차(A-train), 2015년 1월 29일 서해금빛열차(G-train)를 운행하는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관광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나아가 분천역과 같은 특화된 관광테마역을 추가로 개발하고 간선노선과 연계한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표 7-1〉 전국 철도관광벨트 운영 현황

구 분		열차명	개통일	철도관광벨트
강원 및 중부내륙	강릉~동해~분천	동해산터열차	'20.8.19.	 <p>한국철도 관광열차 노선도</p>
	영주~분천~철암	V-train	'13.4.12.	
남도해양	부산~광주송정(경전), 서울~여수엑스포(전라)	S-train	'13.9.27.	
평화생명	용산~도라산(경의), 서울~백마고지(경원)	DMZ-train	'14.5.4. '14.8.1.	
강원청정	청량리~민동산~아우라지	A-train	'15.1.22.	
서해골드	용산~온양온천~익산	G-train	'15.1.29.	

자료 : 한국철도, 2021년 12월 기준

그 밖에도 국악와인열차, 바다열차, 교육열차,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팔도장터열차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전용열차를 개발하여 한층 고급화 된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부터는 최고급 호텔급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전용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행하여 철도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에는 계절별, 지역별로 문화축제, 이벤트열차 등 열차의 멋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많은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고객의 승차권을 더욱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05년 4월 1일부터 홈-티켓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에서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게 하였다. 2009년 1월부터는 휴대폰으로 승차권 One-stop서비스인 조회·예약·결제·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차권을 시행하고, 2010년 12월부터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마트폰에서 예약·결제·발권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손 안에서 모든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 7월부터는 고객이 직접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좌석선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월 강릉선 KTX가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어 동해를 비롯한 정동진, 묵호 등 동해권의 당일여행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강릉선 KTX와 연계하여 동해산타열차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분천 등 중부내륙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표 7-2〉 철도 관광열차 현황

관광열차명	운행개요
동해산타열차	강릉~정동진~동해~도계~철암~분천 1왕복, 월·화요일 운휴
V-train	분천~철암 2왕복, 월·화요일 운휴
S-train	서울~여수엑스포 : 월·화요일 운휴 부산~광주송정 : 토·일 운행
DMZ-train	용산~도라산(경의)/서울~백마고지(경원)
A-train	청량리~아우라지 1왕복, 토·일 및 2/7일 장날 운행
G-train	용산~장항선 경유~익산 1왕복, 월·화요일 운휴
레일크루즈 해랑	전국일주(2박3일), 동부권/서부권(1박2일) 운행
바다열차	강릉~삼척해변 2왕복(주말 3왕복) 운행
충북영동국악와인열차	서울~영동 외 임시코스
팔도장터열차	전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연계
에코레일열차 (MTB자전거열차)	자전거 전용객차를 포함한 관광열차
E-train(교육열차)	교육+문화+여행+IT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세계최초 교육전용 열차

자료: 한국철도, 2021년 12월 기준

〈표 7-3〉 외국인전용 철도상품 이용 현황

(단위: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37,329	53,406	72,146	74,739	51,799	2,929	497

자료: 한국철도, 2021년 12월 기준

고속철도 주요 역(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광주역 등)에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렌터카 업체와 제휴하여 철도이용고객에게 렌터카 이용 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멤버십라운지(서울, 용산, 대전, 동대구, 부산역)를 설치하여 휴식(커피 등 음료, 파워더룸)과 비즈니스(인터넷, 무인복합기, 회의시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였고,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8개 역(서울, 수원, 오송, 익산, 광주송정, 순천, 동대구, 부산역)에 인터넷 PC, 복합기, 충전기 등을 갖춘 비즈니스 존을 조성하여 철도역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시대를 열었다.

국가철도망 구축 및 준고속열차 운행 확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광명역도심공항 터미널 및 KTX공항버스 운영, KTX셔틀버스 운행 등 철도교통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춰 철도가 중심이 된 철도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고객에게 단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관광(여행)의 ‘허브’로서 변모를 도모하는 역 중심의 토탈여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여행과 관련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된 역에서 제공함에 따라 고객만족의 원스톱 여행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주요 16개역에서만 운영 중이던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을 전국 18개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열차 이용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실시간 뉴스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KTX영상방송,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는 트레인숍,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열차카페,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선 및 전객실 좌석 충전시설(콘센트식 및 USB포트) 설치, 사회적 약자의 열차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자축지도, 점자안내판 및 시각장애인 점자형 시각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해 2017년 12월 경강선(서원주~강릉) 고속열차를 운행하면서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내의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2021년 1월에는 중앙선 준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청량리부터 제천까지 1시간 및 안동까지 2시간이 소요되어 이전 대비 중부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중부내륙선(부발~충주)이 개통되어 경기·충북 지역의 주요 연결 교통망이 구축되었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철도 여행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열차 운행조정, 안내설비 확보,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 육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은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한 도로 건설이 착수되었다. 최근 새로운 고속국도 건설사업과 기존 고속국도 확장사업 추진 등으로 물류비 절감,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 관광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12월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충북 제천과 단양을 비롯한 충북 북부권 관광개발이 크게 촉진되었고, 강원도지역도 피서철은 물론 겨울철 중부이남 지역의 스키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춰 잠재력이 풍부하나 교통이 불편해 소외되었던 서산·태안 해안국립공원과 안산 시화방조제 및 태부도·시흥·월곶·인천 소래포구 지역의 관광 개발을 촉진하였다.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선이 완전 개통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고속국도 301호선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 의성 등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개발이 촉진되었다.

2018년 2월 고속국도 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해돋이,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의 교통 흐름이 한결 여유로워졌으며, 부산·김해 지역의 관광수요가 늘어났으며, 같은 해 12월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되어 울산, 경주, 영천 등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속국도 건설 연장은 총 4,866km로, 향후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국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국 반일생활권을 실현하여 국가물류비 절감 및 산업지원 강화, 균등한 국토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관광교통 수단으로서의 육상운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노선 버스는 민영체제로 운영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 확대와 불량업체 등을 퇴출하여 우량업체로 하여금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시내버스의 경우 지하철과의 연계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노선수와 운행횟수가 적어 고속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중소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009년 11월 노선이 교차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정안, 횡성) 2곳에 환승정류소를 설치하여 중소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

모하였고, 현재는 6곳(정안, 황성, 선산, 인삼랜드, 섬진강, 낙동강)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일 평균 721여 명이 고속버스 간 환승으로 요금과 시간을 절약하며 이동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매번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우선 수도권 지하철과 공항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M-Pass)를 발행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안내소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간 수도권 지하철과 공항철도만으로 이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수도권 시내버스까지 이용·환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을 이용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었지만 행정관청이 불분명한 광역교통의 특성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교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하여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시외·고속버스 현황,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현황은 <표 7-4>, <표 7-5>, <표 7-6>, <표 7-7>과 같다.

〈표 7-4〉 시외버스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4	7	5	5	5	5	7	19	-	67
면허대수	1,696	612	490	665	435	483	629	1,415	-	6,425
보유대수	1,507	581	359	653	434	463	629	1,043	-	5,669
일반	-	-	-	-	-	1	30	50	-	81
직행	1,507	581	359	653	434	462	599	993	-	5,588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22). 「2021 버스통계편람」.

〈표 7-5〉 고속버스 현황

(단위: 대)

업체명	금호	동부	동양	삼화	속리산	중앙	천일	한일	계
면허대수	523	97	280	91	75	271	152	123	1,612

자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 7-6〉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체 수	등록 대 수
서울	102	2,840
부산	62	1,979
대구	55	1,889
인천	43	1,754
광주	33	912
대전	35	775
울산	24	849
세종	-	-
경기	460	12,993
강원	68	1,183
충북	96	1,995
충남	129	2,815
전북	99	2,009
전남	95	2,074
경북	143	2,480
경남	138	2,820
제주	52	1,800
계	1,634	41,167

자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21년 12월 기준

〈표 7-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공영 터미널	-	-	-	-	-	-	-	1	5	7	5	6	2	8	2	11	-	47
공용 터미널	5	3	5	3	1	3	2	2	26	29	14	13	31	44	53	20	2	256
계	5	3	5	3	1	3	2	3	31	36	19	19	33	52	55	31	2	303

자료: 국토교통부 (2022).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표 7-8〉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 분	업체 수	등 록 대 수		
		승용	승합	계
서울	273	911,733	20,102	931,835
인천	32	3,871	254	4,125
대전	46	7,807	265	8,072
대구	58	5,686	403	6,089
광주	58	5,984	187	6,171
울산	11	1,252	87	1,339
부산	46	30,064	450	30,514
세종	5	944	53	997
경기	220	24,032	1,451	25,483
강원	20	2,130	350	2,480
충북	24	4,324	268	4,592
충남	62	4,577	330	4,907
경북	32	2,752	292	3,044
경남	65	6,019	489	6,508
전북	22	34,753	487	35,240
전남	51	4,014	273	4,287
제주	105	21,677	819	22,496
계	1,130	1,071,619	26,560	1,098,179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 해운·항만

해상운송은 대외무역 증대에 따른 수출입 화물운송 수단 뿐만 아니라 해상관광자원 개발 및 해안도서지방의 교통수요에 따라 여객 및 관광객 운송수단으로서도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세계 간선항로상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부산항 신항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1월에 3선석을 개장하고, 2021년까지 총 23선석이 운영 중이며, 광양항도 총 20개 선석을 완공하였다. 항만배후단지는 부산항 신항 469만㎡와 광양항 387만㎡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 허브 가속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울산, 인천항 등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권역별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광역권의 산업·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항만별 주요 기능을 부여한 지역별 특화항만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으로 총 60개 항이 항만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표 7-9〉 국내 여객선 수송 현황

지 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명)	일반		도시민	
			실적(명)	구성비	실적	구성비
총 합 계		11,464,345	8,497,877	74%	2,966,468	26%
부산 (일반)	부산-제주	26,758	26,758	100%	0	0%
	부산합계	26,758	26,758	100%	0	0%
인천 (일반)	대부-덕적	74,998	68,530	91%	6,468	9%
	대부-소이작	43,980	42,781	97%	1,199	3%
	백령-인천	52,568	24,788	47%	27,780	53%
	삼목-장봉	99,270	81,818	82%	17,452	18%
	외포(선수)-주문	107,614	75,539	70%	32,075	30%
	인천-덕적	196,327	140,472	72%	55,855	28%
	인천-백령	212,470	144,986	68%	67,484	32%
	인천-연평	92,123	45,432	49%	46,691	51%
	인천-이작	195,182	147,351	75%	47,831	25%
	장봉-삼목	415,815	333,438	80%	82,377	20%
인천-제주	2,222	2,222	100%	0	0%	

지 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명)	일반		도서민	
			실적(명)	구성비	실적	구성비
인천 (보조)	인천-풍·육도	17,492	12,136	69%	5,356	31%
	진리-올도	40,283	33,209	82%	7,074	18%
	하리-서검	23,456	16,667	71%	6,789	29%
	인천합계	1,573,800	1,169,369	74%	404,431	26%
여수 (일반)	녹동-거문	51,407	40,940	80%	10,467	20%
	녹동-거문(부)	445	386	87%	59	13%
	녹동-동송	79,484	37,376	47%	42,108	53%
	녹동-성산포	65,249	65,249	100%	0	0%
	녹동-신지	63,807	37,521	59%	26,286	41%
	녹동-제주	95,855	95,855	100%	0	0%
	돌산-오동도	-	-	-	-	-
	백야-낭도	105,731	91,230	86%	14,501	14%
	백야-직포	58,993	50,182	85%	8,811	15%
	신기-여천	328,916	272,411	83%	56,505	17%
	여수-거문	70,737	27,221	38%	43,516	62%
	여수-둔병	9,503	1,193	13%	8,310	87%
	여수-연도	80,972	33,652	42%	47,320	58%
	여수-제주	97,258	97,258	100%	0	0%
	여수-함구미	42,361	10,913	26%	31,448	74%
여수 (보조)	손죽-광도	3,116	736	24%	2,380	76%
	여수합계	1,153,834	862,123	75%	291,711	25%
마산 (일반)	가오치-사랑	243,426	195,146	80%	48,280	20%
	삼덕-국도	3,234	3,115	96%	119	4%
	삼덕-육지	471,546	416,929	88%	54,617	12%
	저구-소매물도	62,610	62,138	99%	472	1%
	중화-육지	81,564	71,108	87%	10,456	13%
	통영-능양	0	0	0%	0	0%
	통영-당금	113,915	96,921	85%	16,994	15%
	통영-진촌	52,984	44,859	85%	8,125	15%
	통영-육지	183,557	158,965	87%	24,592	13%
	통영-용초	39,121	21,030	54%	18,091	46%
	통영-한산도	335,182	221,751	66%	113,431	34%
	삼천포-제주	49,470	49,470	100%	0	0%

지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명)	일반		도서민	
			실적(명)	구성비	실적	구성비
마산 (보조)	통영-두미	25,734	18,283	71%	7,451	29%
	통영-삼천포	6,785	4,056	60%	2,729	40%
	통영-추도	19,129	13,439	70%	5,690	30%
	마산합계	3,080,474	2,268,753	82%	811,721	18%
동해 (일반)	강릉-울릉(저동)	189,107	185,813	98%	3,294	2%
	묵호-울릉(도동)	-	-	-	-	-
	묵호-울릉(사동)	-	-	-	-	-
	울릉(도동)-독도	6,051	5,967	99%	84	1%
	울릉(사동)-독도	48,524	48,234	99%	290	1%
	울릉(저동)-독도	56,720	56,375	99%	345	1%
	동해합계	389,635	340,037	99%	49,598	1%
군산(일반)	격포-위도	168,247	118,823	71%	49,424	29%
군산 (보조)	군산-개야도	19,972	8,167	41%	11,805	59%
	군산-어청도	26,930	23,055	86%	3,875	14%
	군산-말도	24,644	15,806	64%	8,838	36%
	군산합계	239,793	165,851	69%	73,942	31%
목포 (일반)	남강-가산	215,669	134,347	62%	81,322	38%
	도초-목포	108,783	35,937	33%	72,846	67%
	목포-가산	160,182	89,002	56%	71,180	44%
	목포-상태(동리)	237,576	107,798	45%	129,778	55%
	목포-상태(서리)	120,331	43,948	37%	76,383	63%
	목포-외달	83,277	53,595	64%	29,682	36%
	목포-제주	467,393	467,393	100%	0	0%
	목포-홍도	307,148	195,183	64%	111,965	36%
	송공-신월	34,591	25,876	75%	8,715	25%
	송공-흑산	13,496	11,351	84%	2,145	16%
	송공-병풍	50,250	39,683	79%	10,567	21%
	송도-병풍	97,673	62,044	64%	35,629	36%
	쉬미-가사	22,318	11,365	51%	10,953	49%
	울목-팽목	124,436	71,572	58%	52,864	42%
증도-자은도	21,684	21,675	100%	9	0%	

지 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명)	일반		도서민	
			실적(명)	구성비	실적	구성비
	진리-점암	58,451	29,322	50%	29,129	50%
	팽목-서거차	57,642	39,032	68%	18,610	32%
	하의-도초	12,262	5,260	43%	7,002	57%
	향화-송이	10,218	8,609	84%	1,609	16%
목포 (보조)	계마-안마	13,196	9,197	70%	3,999	30%
	목포-우이	15,321	7,410	48%	7,911	52%
	목포-울목	19,418	7,207	37%	12,211	63%
	진리-재원	17,219	7,244	42%	9,975	58%
	북강-북강	2,432	887	36%	1,545	64%
	웅곡-웅곡	5,785	1,047	18%	4,738	82%
	팽목-죽도	10,234	5,242	51%	4,992	49%
	향화-낙월	19,674	11,895	60%	7,779	40%
	목포합계	2,306,659	1,503,121	65%	803,538	35%
완도 (일반)	노력-가학	65,803	38,679	59%	27,124	41%
	당목-서성	120,585	77,725	64%	42,860	36%
	당목-일정	139,524	72,945	52%	66,579	48%
	일정-당목	125,294	63,309	51%	61,985	49%
	땅끝-산양	466,624	260,891	56%	205,733	44%
	완도-청산	311,437	210,118	67%	101,319	33%
	화흥포-소안	459,093	227,339	50%	231,754	50%
완도 (보조)	완도-덕우	12,992	5,399	42%	7,593	58%
	완도-모도	17,808	6,590	37%	11,218	63%
	완도-여서	9,256	5,220	56%	4,036	44%
	이목-남성	13,371	3,352	25%	10,019	75%
	이목-당사	3,453	1,154	33%	2,299	67%
	이목-서넙	38,040	5,240	14%	32,800	86%
	완도합계	1,783,280	977,961	55%	805,319	45%
포항 (일반)	울릉(부정기)-독도	30,319	30,086	99%	233	1%
	포항-울릉(도동)	33,868	21,965	65%	11,903	35%
	포항-울릉(사동)	163,519	124,573	76%	38,946	24%
	포항-울릉(저동)	121,030	92,361	76%	28,669	24%
	후포-울릉(사동)	106,697	100,982	95%	5,715	5%
	포항합계	11,636,839	8,662,704	81%	2,974,135	19%

지역 (항로구분)	항로명	수송계(명)	일반		도서민	
			실적(명)	구성비	실적	구성비
대산 (일반)	대전-선촌	66,703	30,002	45%	36,701	55%
	대전-외연	57,593	41,136	71%	16,457	29%
	대전-장고	117,312	76,821	65%	40,491	35%
	도비도-대난지도	50,312	37,684	75%	12,628	25%
대산 (보조)	구도-고파	14,499	10,026	69%	4,473	31%
	안흥-가익	29,256	23,311	80%	5,945	20%
	오천-선촌	12,167	8,163	67%	4,004	33%
	대산합계	347,842	227,143	65%	120,699	35%
제주 (일반)	모슬포-가파도	500,598	481,723	96%	18,875	4%
	모슬포-가파도-마라도	294,713	290,188	98%	4,525	2%
	산이수동-마라도	280,495	275,700	98%	4,795	2%
	제주-완도	418,421	398,223	95%	20,198	5%
	제주-우수영	94,060	76,151	81%	17,909	19%
	제주합계	1,588,287	1,521,985	96%	66,302	4%

자료 :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제 여객선 정기운항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한-중 간 15개 항로, 한-일 간 5개 항로, 한-러 -일 간 1개 항로, 총 21개 항로가 운항되고 있다.

〈표 7-10〉 연도별 국제 여객선(정기) 여객수송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 ↕ 일	합계	949	1,172	1,166	998	1,133	1,200	1,398	1,426	933	60	0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85	99	91	63	94	95	111	97	48	4	0
		관부훼리	74	76	74	55	81	83	94	80	52	3	0
	부산/하카다	카멜리아라인	176	185	176	160	198	179	172	186	120	13	0
		구주여객철도	245	217	187	169	162	171	183	182	145	14	0
		미래고속해운	174	168	151	119	100	77	52	-	-	-	-
		대아고속해운	-	62	71	14	-	-	-	-	-	-	-
	부산/대마도	대아고속해운	65	134	154	183	185	236	319	277	155	8	0
		구주여객철도	15	92	60	54	141	149	145	128	97	7	0
		미래고속해운	14	78	134	143	112	141	256	161	68	0	0
		한일고속해운	-	-	-	-	-	-	-	92	31	-	-

(단위 : 천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스타라인	-	-	-	-	-	-	-	166	143	8	-	
	다이신	-	-	-	-	-	-	-	6	41	-	-	
	부산/오사카 등	팬스타라인닷컴	68	58	68	38	60	69	66	52	33	3	0
	광양/시모노세키	광양훼리	33	1	-	-	-	-	-	-	-	-	-
합 계		1,708	1,660	1,506	1,594	1,441	1,524	1,267	1,500	2,004	108	0	
한 ↕ 중	인천/웨이하이	위동항운유한공사	148	145	147	157	132	139	137	126	140	6	0
	인천/칭다오	"	128	117	128	108	70	76	41	76	95	4	0
	인천/톈진	진천국제객항운	103	104	10	31	66	73	27	74	102	1	-
	인천/다렌	대인훼리	111	94	103	101	53	91	41	38	76	3	0
	인천/칭황다오	진인해운	63	42	47	37	46	51	16	25	12	0	-
	인천/엔타이	연태중한운도	97	81	73	94	76	88	49	70	86	3	0
	인천/단둥	단둥국제항운	131	146	164	174	148	154	90	104	120	8	0
	인천/스다오	영성화동해운	145	148	145	149	122	150	144	172	201	9	0
	인천/잉커우	범영훼리	50	48	46	59	53	50	13	9	48	3	0
	인천/렌윈강	연운항 훼리	66	59	56	57	48	50	43	114	148	11	0
	평택/릉청	대룡해운	200	175	188	168	131	12	-	-	73	14	0
	평택/르자오	일조국제훼리	122	135	18	76	80	98	97	105	109	5	0
	군산/스다오	석도국제훼리	157	156	157	135	132	168	184	239	352	19	0
	평택/렌윈강	연운항 훼리	72	59	65	36	26	1	99	54	58	3	0
	평택/웨이하이	위해교통집장상	113	148	159	151	128	172	115	116	194	10	0
	평택/엔타이	연태발해국제운도	-	-	-	61	130	151	171	178	190	9	0
	합 계		45	49	65	54	43	49	63	53	34	-	-
	한 ↕ 러	동해/블라디/ 마이주르	두원상선	-	-	-	-	-	-	-	-	-	0
		동해/블라디/ 사카미미나토	디비에스크루즈	45	49	45	39	43	49	63	53	34	-
속초/자루비노/ 블라디		스테나대아라인	-	-	20	15	-	-	-	-	-	-	-
총합계		2,702	2,881	2,737	2,646	2,617	2,773	2,728	2,980	2,969	168	0	

자료 :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2) 코로나19로 인해 한·중 항로는 '20.1.29부터, 한·일, 한러일 항로는 '20.3.9부터 여객수송 중단

4. 항공

항공운송은 가장 중요한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고 있어 국제관광 및 무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항공운송시장 환경은 세계화·자유화·민영화의 큰 축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에 의한 시장원리가 강조되고 있고, 항공자유화 및 항공사 간의 전략적 제휴, 지역 간 통합운송시장의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50 Net Zero,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친환경 항공기 개발 등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21년도에도 지속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에어 택시, eVTOL(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등 UAM(도심항공교통) 시장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향후 항공업계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워라밸 가치관 확산 등에 따라 항공운송 공급 및 수요가 증대되어왔다. 그러나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선 수요가 감소하면서 ‘21년 항공여객은 ‘20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집계(국제선 -77.7%)되었다. 항공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내 노선 개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무착륙 관광비행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최선의 노력을 했고, 방역 우수 국가인 싱가포르와 사이판과 트라블버블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속 돌파구를 모색했다.

국내선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김포-제주, 김포-김해 노선 등을 중심으로 국내여행 수요(제주 24.2%, 내륙 65.6%)가 늘어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한 3,315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였다.

〈표 7-11〉 연도별 항공수송실적

(단위: 천 명)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선	21,602	22,353	24,648	27,980	30,913	32,406	31,600	32,980	25,164	33,147
국제선	47,703	50,986	56,779	61,434	73,001	76,956	85,925	90,386	14,240	3,209
합계	69,629	73,340	81,426	89,415	103,914	109,362	117,526	123,367	39,404	36,356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출발, 유입여객 기준

〈표 7-12〉 연도별 국내선 운항 현황

(단위: 천 편)

노선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김포 - 제주	70	75	81	88	93	91	88	88	76	87
김포 - 김해	19	19	18	19	19	21	20	21	24	35
김포 - 울산	5	5	5	5	5	5	5	4	3	5

(단위: 천 편)

노선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김포 - 광주	5	5	5	4	3	2	1	1	3	4
김포 - 여수	6	6	5	5	4	3	3	3	4	6
김포 - 대구	-	-	-	-	-	-	0.5	0.4	0.5	0.4
김해 - 제주	18	18	20	23	24	24	23	22	19	22
제주 - 대구	6	6	9	10	11	11	11	12	10	13
제주 - 광주	6	6	7	8	8	11	12	12	10	10
기타 노선	21	22	20	21	24	29	30.5	31.6	22.5	30.6
계	156	162	170	183	191	197	194	195	172	213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편 국제선의 경우는 1952년 3월 자유중국과 최초로 항공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표 7-13>과 같이 2021년 기준으로 유럽 30개국을 비롯하여 총 110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45개국 114개 도시에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다.

<표 7-13> 항공협정 체결국가 현황

지역	복수제	단수제
미주 (13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가이아나, 바하마, 과테말라	
러시아/CIS (10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서남아 (6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동북아 (6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동남아(10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다루살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리카(18개)	가봉, 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리비아, 모로코,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알제리,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케냐, 튀니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지부티
대양주 (5개)	뉴질랜드, 호주, 피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유럽(30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북구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舊 체코슬로바키아 승계),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몰타, 루마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유럽연합(HA), 이탈리아 * 북구3국을 각각 카운트	스위스
중동(12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터키, 이란,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계 110국	102개국	8개국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기준

주) 가서명 국가 포함

〈표 7-14〉 연도별 국제선 운항 현황

(단위: 회/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적사	1,925	2,051	2,124	2,287	2,629	2,892	3,176	3,334	992	701
증감(%)	13.3	6.6	3.5	7.7	15.0	9.9	9.8	5.0	-70.3	-29.3
일본	530	551	547	621	757	954	1,070	1,018	177	60
중국	463	510	543	565	622	528	558	576	166	127
아시아	520	555	596	643	769	896	1,009	1,193	369	243
미주	175	175	176	176	175	179	182	176	152	195
유럽	127	131	139	142	140	148	172	182	80	62
대양주	98	114	110	127	153	177	175	179	45	9
기타	12	15	13	13	13	10	10	10	3	5
외항사	1,092	1,208	1,399	1,443	1,590	1,504	1,604	1,745	618	564
증감(%)	9.4	10.6	15.9	3.1	10.2	-5.4	6.6	8.8	-64.6	-8.7

자료 : 한국항공협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전체를 포함하며 아시아는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권으로 구분함

아시아나항공의 출범으로 복수항공사 체제가 시작된 1988년 당시 국적항공사 운항규모인 15개국 24개 도시 39개 노선, 주 174회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이전 국적항공사의 운항규모는 운항 횟수 기준으로 약 19배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항공부문 협력의 중요성이 지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혹은 부분적 항공자유화를 합의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운송산업의 발달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패턴에 따라 여행의 패턴도 변화하는데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은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는 안전운항과 관련된 비용 외에 모든 비용을 절감하여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는 항공사로 항공자유화와 항공교통 대중화에 부응하여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항공요금 상승과 세계적인 LCC 확대 추세에 따라 한성항공이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2021년 기준 총 8개(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의 LCC가 운항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전 세계 항공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년 우리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트래블버블·무착륙 관광비행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 했으나, 델타·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선 여객운송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선 수송실적을 보면 <표 7-15>에서와 같이 2021년에는 국제항공 여객 수송이 3,210천 명을 수송하여 전년대비 -77.5%를 기록하였다.

〈표 7-15〉 연도별 국제선 여객수송 실적

(단위: 천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본	11,517	10,947	10,776	12,169	15,114	19,043	21,351	18,864	2,221	148
중국	10,790	12,583	15,940	16,476	19,857	13,941	16,111	18,434	2,248	425
아시아	15,481	16,927	18,789	20,424	24,572	28,896	32,650	36,442	6,032	708
미주	3,986	4,116	4,270	4,558	4,827	5,168	5,346	5,544	1,535	1,036
유럽	3,178	3,397	3,890	4,327	4,591	5,331	6,020	6,587	1,170	498
대양주	2,022	2,184	2,225	2,605	3,067	3,586	3,450	3,494	733	80
기타	729	834	888	876	972	990	997	1,021	301	315
합계	47,703	50,988	56,778	61,435	73,000	76,955	85,925	90,386	14,240	3,210

자료 : 한국항공협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1) 출발+도착기준, 유임여객 기준

주2)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전체를 포함하며 아시아는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권으로 구분함

제 8 장

관광관련 기구와 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_331
2. 한국관광공사 _336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350
4. 관광사업자 단체 _362



관광관련 기구와 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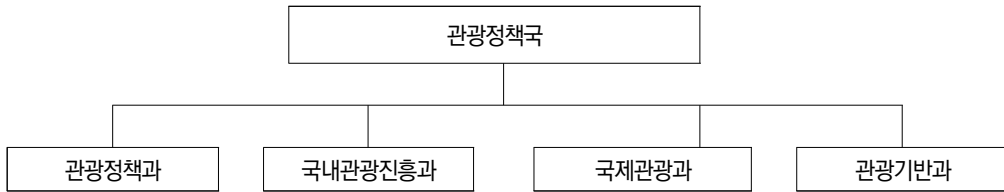
가. 일반현황

우리나라의 관광행정은 1954년 2월 17일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를 설치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광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1963년 3월 11일 관광공로국에서 관광국이 분리되었으며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국의 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부로 개칭, 관광이 정부부처 명칭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005년 3월 31일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추진기획단 직제가 신설되었고, 2008년 2월 29일 자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직제가 개정되었으며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이 관광레저도시기획관으로, 2009년 5월 4일에는 관광레저도시 기획관이 다시 관광레저기획관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 기능변경에 따라 종래 관광산업국 명칭을 관광국으로 변경하고 관광레저기획관을 중심으로 일부 소속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였다. 2014년 10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차관 소관으로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이 신설되었고 관광국을 관광정책관실과 관광레저정책관실로 분리·개편하였다. 2015년 1월 6일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이 체육관광정책실로 조직 개편되었다. 2016년 4월 4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실이 신설되었고,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관실과 국제관광정책관실을 두었다. 2017년 9월 4일 직제 개정에 따라 관광정책실을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으로 개편하였다.

1) 조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을 두었다. 관광정책국에는 관광정책과, 국내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 관광기반과 4개의 과를 두고 있다. 관광산업정책관에는 관광산업정책과,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3개의 과를 두고 있다(2017.9.4.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 조직도(관광정책국)



○ 조직도(관광산업정책관)



※ 2017년 9월 4일 직제 개정에 따름

2)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00,250	748,777	919,194	908,085	1,000,948	903,904	917,161	799,317	900,968
국 고	401,196	373,771	461,764	461,940	493,035	439,532	412,464	176,241	170,596
관광진흥 개발기금	399,054	375,006	457,430	446,145	507,913	464,372	504,697	623,076	730,372

주) 국고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융자, 기금운영비, 내부거래 등은 제외)

나. 주요 활동

관광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민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유산 등을 콘텐츠로 하는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북아 관광 중심국으로서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을 추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관광산업 내실화 추진 및 국가 전략산업 기반조성

○ 관광진흥계획 수립·추진 및 법·제도 정비

- 민관합동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2017.11.3.),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에 관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2017.11.28.),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관광진흥 기본계획 발표(2017.12.18.),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2018.7.11.),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발표(2019.4.2.),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전략 발표(2019.12.12.),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2020.5.26.),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및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2021.11.12.)

○ 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선진화 도모

- 호텔등급결정 제도 개선 및 부가세 환급, 민박 활성화, 전통한옥 확충, 야영장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관광벤처·관광두레 등 신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인력양성·취업지원 등을 통한 관광 일자리 창출, 국내 및 해외 네티즌 대상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활성화 및 콘텐츠 확충 강화, 시의성 있는 관광 관련 행태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광마케팅 선진화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무장애 여행’ 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 개별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개별여행 상품 개발 및 방한상품 판매 촉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통한 정보제공 강화로 방한 만족도 제고

○ 정부의 재정지원규모 확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기금조성액 : 14,319억 원(‘09) → 14,217억 원(‘21), 융자 및 보조 사업 지원액 5,602억 원(‘09) → 11,734억 원(‘21))

○ 관광 기술력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사업, 다부처 협업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술 개발 등(23억 원 지원), 스마트관광도시 세계 최초 출범('21.8월, 인천) 및 3개소 조성 중이며,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통해 외래객의 지역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 광역관광개발사업: 서부내륙권(세종, 충남, 전북) 및 충청유교문화권(대전, 세종, 충남·북) 광역관광개발
- ※ 관광거점도시: 국제관광도시(광역)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4곳 공모·선정 및 집중 육성 추진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자생적 관광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주민사업체 발굴실적(개, 신규) : ('17) 48 → ('18) 68 → ('19) 113 → ('20) 126 → ('21) 215
-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명, 누적) : ('17) 3,049 → ('18) 3,182 → ('19) 3,228 → ('20) 3,366 → ('21) 3,541

○ '17~21년간 글로벌 상품 개발(총 2,902개) 및 외래관광객(35만명 이상) 유치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총 2조 7,725억 원 지원(~'21.10월)

- ※ 금융지원(1조 7,155억 원), ▲재난지원금(1,243억 원), ▲고용·일자리 등(7,095억 원), ▲세금·부담금 감면(701억 원), ▲방역·소비진작(1,531억 원) 등

3) 관광여가 사회 실현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 관광여건 조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기여, 근로자휴가지원을 통한 관광참여 확대, 휴가문화 개선 등 대표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

- ※ 지원대상(만명): ('18) 2 → ('19) 8 → ('20) 9.6 → ('21) 10

○ 물리적·제도적 장애 제거 등 관광지 환경 정비와 조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제약 없는 무장애 관광환경 제공

※ 조성현황(개소, 누적): ('17) 17 → ('18) 29 → ('19) 49 → ('20) 72 → ('21) 92

※ UNWTO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 선정('21.5.31)

4) 안전한 관광 재개 및 홍보를 통한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고부가화

- 3대 전략시장(非중국 중화권, 일본, 아시아·중동) 방한객 지속 증가 및 한국관광 홍보 통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 유도

※ 3대 전략시장 방한객 현황(천명) : ('17) 6,600 → ('19) 8,567 (↑29.7%)

-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회의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관광명소 발굴을 통한 코로나 이후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 마이스 디지털 전문인력 고용지원('21년 400명) ▲마이스 기업 디지털 전환 자금지원('21년 54개)

※ 고부가 관광명소 발굴현황(개, 누적) : ('17) 45 → ('18) 51 → ('19) 70 → ('20) 84 → ('21) 90

- 관광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관광기업 대상 클라우드펀딩(컨설팅, 등록 수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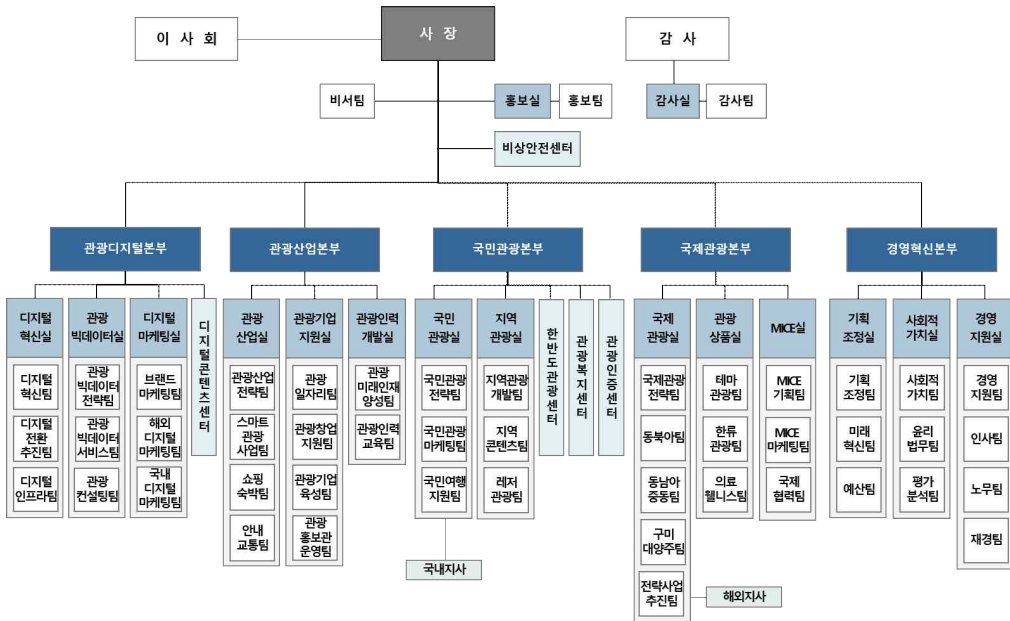
※ 지원현황(개) : ('17) 121 → ('18) 75 → ('19) 91 → ('20) 136 → ('21) 117

2. 한국관광공사

가. 일반현황

1) 조직

한국관광공사(KTO)의 조직은 관광디지털본부, 관광산업본부, 국민관광본부, 국제관광본부, 경영혁신본부 5개 본부와 16실, 54센터·팀, 34개 해외지사, 10개 국내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62명이다.



2)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2,336	2,546	2,895	3,751	4,509

주) 매출액 예산에서 용지매출액 부문 예산 제외함

나. 주요 활동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전 세계적 ‘위드 코로나’ 움직임 및 변이 바이러스 상존, ESG 경영 트렌드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속화 등의 주요한 경영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기관 역할을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사례 제시’ 및 ‘관광산업 ESG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토대 마련’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광생태계 디지털 전환 선도, 관광산업 혁신 성장 주도, 지역관광 확대, 한국관광 브랜드 강화, 한국형 관광 ESG 실현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관광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고객을 최초로 非관광 분야까지 확대하여 관광 외 산업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 발굴에 주력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관광시장 침체가 지속됨과 동시에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관광산업 내 생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확산 및 업계 디지털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국면을 맞아, 관광기업 혁신 및 해외진출 지원, 종사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엔데믹을 대비하여 쇼핑·안내·교통 등 관광 주요 접점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였다.

더불어, 엔데믹 대비 관광객이 여행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편리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매력을 더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여, 지역의 디지털관광 혁신을 지원하고 스마트관광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여 국내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침체된 여행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안전여행 캠페인을 통하여 방역우수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여행특화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관광종사원 대상 방역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여행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공사(RTO), 지역컨벤션뷰로, 지역관광협회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현장 중심의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ESG경영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인바운드 분야에선 방역 안전국 대상의 사업 등 중요 목적 출입국 재개, 국가별 오프라인 행사 허용 등 코로나 1년차 대비 다소 개방된 환경 변화를 적시 확인하여, 싱가포르와의 트레블버블 체결 전인을 통한 국가 간 국경 개방, 주요국 관광업계 대상 방한초청 및

얼리버드 등 대안상품 판촉을 통한 유통채널 재건, 일반 소비자 대상 현지 행사 재개를 통한 방한고객 범위 확대 등 국가, 업계, 국민 대상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1)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개발·진흥 컨설팅

한국관광공사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관광 사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컨설팅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활용 데이터의 한계로 시의성이 부족한 기존 전통적 컨설팅 방식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등 최신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여행 행태 변화를 감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사업’ 등 총 12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26개 ESG 사업 포함 142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도출하였고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광벤처기업과의 사업매칭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공의 관광자원개발 사업대상 상품성 진단, 매력도 강화, 트렌드 반영 사업 개선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 및 공공부문·투자유치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0년에는 2017년 구축한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모형’을 개선하여, 공급자 시각의 지표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상생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치를 반영한 골목관광상권·관광위기·관광콘텐츠(지역축제) 주제별 지역관광 상생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단순비교를 지양하고 관광객·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관광으로서의 주제별 신규분석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는 골목관광상권 주제모형을 활용하여 전국의 골목관광상권의 유형화 및 상권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관광빅데이터를 활용, 8개 지역의 골목관광상권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관광빅데이터의 활용 증대에 따른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시범 컨설팅 및 관광유형 도출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범주화 기준을 선정하고, 빅데이터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9개의 관광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를 접목하여 관광유형에 대한 네이밍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통신·카드·소셜 등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국내여행 트렌드를 진단하였고, 빅데이터의 한계점을 설문조사, 좌담회 등의 스몰데이터를 통해 보완하여 분

석을 진행했다. 2022년 국내여행 트렌드 HABIT-US를 비롯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 워케이션, 세대별 여행행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여행 트렌드를 분석·전망함으로써 국내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광안내·정보 서비스 제공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TourAPI 3.0(OpenAP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관광정보를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개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TourAPI 3.0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어(9개 언어 약 7만8천여 건 DB, 이미지 약 43만여 건) 관광정보를 개방, 2021년 702개(누계)의 관광정보 서비스가 제작되어 국내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정보 DB와 인터넷과의 연동시스템, VR/동영상/파노라마 기법이 혼합된 가상관광안내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복합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광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통계, 지도정보 등 각종 관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대상 관광 실감형 VR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업로드를 통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3) 관광 수용태세 개선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및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센터, 인천국제공항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센터를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 또한 총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로 구축하였다('21년 오픈). 관광통역안내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경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대상 긴급통역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 문의가 폭증, 2021년 한해 16,163건의 코로나19 관련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019년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330 안내 인력을 활용한 긴급재난문자의 영어·중국어 번역 발송 서비스도 제공한 바, 2021년 연간 130,627건을 지원하였다.

〈표 8-1〉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이용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콜 수	구성비	콜 수	구성비	콜 수	구성비	콜 수	구성비	콜 수	채팅수	구성비	
한국어	68,686	32.7	110,467	43.4	53,094	27.2	28,882	34.6	36,474	15,902	49.5	
외 국 어	영어	74,196	35.3	64,456	25.3	57,598	29.5	31,666	38.0	29,297	5,760	33.1
	일본어	14,391	6.8	17,514	6.9	18,985	9.7	3,958	4.7	1,060	1,386	2.3
	중국어	52,902	25.2	53,303	20.9	57,837	29.7	13,018	15.6	7,112	2,005	8.6
	러시아어	-	-	4,549	1.8	3,586	1.8	3,268	3.9	4,139	-	3.9
	베트남어	-	-	1,657	0.7	1,555	0.8	1,388	1.7	1,239	-	1.2
	태국어	-	-	1,712	0.7	1,475	0.8	738	0.9	1,029	-	1.0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	-	1,041	0.4	804	0.4	445	0.5	513	-	0.5
	소계	141,489	67.3	144,232	56.6	141,840	72.8	54,481	65.4	44,389	9,151	50.5
계	210,175	100.0	254,699	100.0	194,934	100.0	83,363	100.0	80,863	25,053	100.0	

주) 2021년 구성비는 콜 수와 채팅 수의 합계로 산출

또,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식관광 홍보사이트 'Foodtrip in Korea' 내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기능을 개선하고 음식 관련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이트 전반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음식관광 홍보사이트를 활용하여 연간 5,477건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DB를 11,000여 건 이상 확충하여 총 22,700개의 데이터를 로마자 표기 및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21.12.31. 기준). 또한 외래관광객 대상 소구력이 있을 만한 대구·경북, 전남 지역의 음식관광 기념품 5개를 선정하여 브랜딩 및 리패키징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와 패키지를 개선한 음식관광 기념품의 시장성 검증과 홍보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성수동 렌트 1호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관광 홍보 및 상품화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김치전, 김치볶음밥, 떡배기불고기, 떡볶이 등 4종의 한식 밀키트 총 2,900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이벤트를 13개 해외지사에서 실시하여 식도락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외래관광객 지역방문의 편리성 제고 및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완결형 관광모델(KTTP)'를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 등 교통거점에서 지역·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지인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관광교통 개선을 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관광교통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

는 지하철과 연계한 관광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가이드북,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개별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의 개별관광객의 증진을 위하여 위치기반 실시간 길안내 서비스 및 증강현실(AR) 기반 길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택시 탑승 시 관광지 해설 등에 대한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택시 운영 지자체 중 춘천, 속초, 양양 지역에 오디오 서비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전국 관광택시 통합브랜드 'TAPXI(Korea Tour Taxi)'를 구축하여 관광택시 사업의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관광택시 기사 대상 서비스를 제작하여 외국인 관광객 응대 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도 실시하였다.

4)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RTO(지역관광공사) 직원 등 관광분야 종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여행업 종사자와 예비 여행업 종사자(학생), 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13개 주제, 총 40편의 온라인 이러닝 콘텐츠를 '슬기로운 가이드생활'이라는 교육 브랜드로 제작하여 관광통역안내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최초로 여행업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 데이터 활용/온라인여행상품 판매/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과정들을 맞춤형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5월부터 7월에 걸쳐 역사, 예술, 리더십, C/S스킬 등 총 20개 과정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고, 전국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2,93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은 총 6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2회 운영, 총 48명 중 47명이 수료하였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교육 이벤트를 통한 자율적 참여로 안전한 관광, 열린 관광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항균 마스크를 제작·배포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홍보를 위하여 총 4주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기획기사 게재 및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2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관광해설사

20주년 기념백서' 발간 및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22명에 대한 표창수여를 지원하였다. 나아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한편 온라인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구축, 약 145개 과정 949차시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20,847명, 과정수료 18,851건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4.4점(5점 만점) 이상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관광 교육과 관련한 정책지원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광 종사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관광안내 종사원 활성화 연구', 그리고 '개별관광 유망테마 교육과정 설계 연구'의 연구용역 3건을 실시하였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산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교육 체계를 수립하였다. 관광 분야 현직자 대상으로 관광-ICT 융합역량 향상을 위해 시장별 디지털 관광마케팅 과정, 관광-ICT 문해력 배양과정을 운영하였고, 관광 분야 예비 취업자의 관광기업 탐색을 위해 관광기업 연계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교육 이수인원은 총 475명이며 관광기업 연계 교육과정 이수자 38명 중 3명(약 7.9%)이 해당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되는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요구에 의거 관광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16일, 17일 양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오프라인 박람회 또한 개최되었다. 박람회에는 대표 관광업종(호텔, 여행업 등) 및 관광벤처, ICT융복합 기업 등 8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총 96,094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였다. 더불어, 관광일자리센터와 관광전문인력포털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업컨설팅 1,995건 제공, 구인구직매칭 1,945건을 지원하였다.

취업 취약계층인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적합직무 발굴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연간 4회 운영하여 100명의 교육생을 양성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료생 중 3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호텔관광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역량강화 교육으로 우수 호텔리어를 육성하는 우수호텔 아카데미 육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에는 3개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총 81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57명의 교육생이 취업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관광인력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광특성화고교 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현직자 토크콘서트, 온라인 서류클리닉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각 과정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설계하였다. 교육인원은 취업역량 강화교육 210명, 온라인 서류클리닉 5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더불어

지자체·강원지역 10개 대학과 협업하여 오픈캠퍼스를 운영하며, 도내 대학생 대상 관광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관광인재 양성 및 관광산업분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5) 국내관광 재개 기반 조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국민여행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국내관광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였다. 또한 신규시장 개척 등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여행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방역관리와 함께하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78개의 안심관광지를 발굴·홍보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박, 비대면 DIT여행, 걷기여행 등의 안심여행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여행, 워케이션, 친환경여행 등 트렌드 대응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침체된 국내여행시장 재개 및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달’을 실시하였다. 교통, 체험, 숙박 등 여행단계별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여행 참가자 1.7만명, 전통시장 매출 유발효과 10.4억 원, 할인혜택 이용자 37.1만 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과 국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47개 국내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숙박할인쿠폰 배포사업,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숙박할인권 사용 78만 건, 업계 매출창출 944억 원, 여행소비 3,108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10개 광역지자체 공동 ‘대한민국숙박대전 지역편’을 추진하며, 숙박할인권의 지역편중 완화 및 지역 체류여행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무장애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장애유형별 맞춤형 ‘열린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국내여행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관광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쉽고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공의 관광자원개발 사업대상 상품성 진단, 매력도 강화, 트렌드 반영 사업개선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 및 공공부문 관광개발·투자유치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6) 지자체 및 업계협력/남북관광교류 촉진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지역관광공사(RTO), 지역컨벤션뷰로, 지역관광협회 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공사와 14개 지역관광공사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의 공식 출범 이후 상호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ESG경영 이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에는 충청권협력단(대전, 충북, 충남), 강원권협력단(강원, 인천, 경기) 외에 기존의 영남권협력단을 동남권협력단(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경북권협력단(대구, 경북)으로 분리·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존 호남권협력단을 광주전남권협력단과 전북권협력단으로 분리·확대하였다. 또한 2014년 6월 직제 개정을 통하여 협력단을 협력 지사로 승격하였고, 8월에는 세종충북협력지사를 신설하고 2015년 10월 경상권본부, 경남지사를 신설하며 9개 지사 통합개편 및 명칭을 '지사'로 통일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전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2018년에는 부산-울산 지역의 효율적인 사업 실행 및 구체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하여 경상권본부를 부산울산지사로 지역관할 및 업무를 구체화 시켰으며, 원주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관광사업 집중력 저하를 극복하고,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경기지역 방한 관광객의 효과적인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천에 경인지사를 설립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여행 안전을 우선 고려한 비대면·안심 여행 상품개발 및 판촉, 힐링 비대면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으며, 국민참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관광 브랜딩을 강화하였다. 주민사업체 발굴·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두레사업의 인지도 확산 및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광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지역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강화하였고, 홍보 주제 및 매체 다양화를 통한 매력적 관광콘텐츠를 확산시켰다. 위축된 여행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조기 회복 캠페인을 하였으며, 웰니스 관광인력 양성지원 및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으로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발굴·홍보하여 지역 관광 수요를 창출하였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소규모 지역 여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박, 카크닉 등 차량을 활용한 D.I.T. (Drive-In & Thru) 여행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SNS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국관광기관협

의회 ‘친환경 경영 공동결의’ 선포 이후 친환경 여행지 공동 선정, 전국 친환경 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주도하여 저탄소 관광 생태계 전환에 기여하였다.

지사별 주요 실적을 보면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인천관광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관광기업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대아울렛과 공동으로 전국 최초 메타버스 기반 관광상품 기획전인 인천트래블마켓을 개최하여 약 2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인 안성맞춤랜드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인 공연관광 개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20% 이상의 방문객 증가(54,122명)를 달성하였다.

강원지사는 위드코로나 강원 특화 여행 테마 콘텐츠 284개(비대면·트렌드 166개, ESG 118개)를 확충하고 트렌드 맞춤형 강원 SIT, FIT 특화여행 상품을 개발·판촉하여 9건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방역 안전, 일과 휴가를 결합한 강원형 안심(安心) 위케이션 상품을 개발하고 총 388명의 장기숙박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종충북지사는 친환경 추천관광지 선정 홍보 및 착한여행 상품개발 판촉, 지역환경개선 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 공동 충북지역 ESG 관광환경을 조성하였다. 충북 지역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T맵 내비게이션 연계 ‘충북 아름다운길’ 드라이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하여 드라이브 코스 주행 13,911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전충남지사는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광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였으며 대청호오백리길 브랜드 강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대전·세종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 7개사를 발굴하고, 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대전·충남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22개소를 발굴하고, 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전북지사는 반려견 동반 안심걷기길 ‘눈치보지마시개 길’을 선정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하여 전북지역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전북도, 로얄캐닌, JTV전주방송등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캠핑/차박 여행 상품을 운영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ESG 캠페인 및 전북 안심관광지 상품화를 추진하여 친환경·안심 관광지로서의 전북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광주전남지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을 통해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신규 관광두레 PD를 발굴하였다. 또한 지역맞춤형 관광두레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연매출액은 전년 대비 466% 증가한 316,609천 원을 달성하였다. 광주 충장축제를 활용한 건보공단 지역본부와의 협업형 ESG 사업으로 타 공공기관과의 협업 사업모델을 발굴하였다.

부산울산지사는 부산야간관광 브랜드 ‘별바다부산’을 개발하고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부산 야구데이 패키지, 야간미션워킹 투어 등 관광기업 신규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핵심콘텐츠로서 부산 야간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산 관광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부산기업지원센터와 투 트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기업의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구경북지사는 영주시, 코레일, 여행사, 관광두레, 관광사업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북 영주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신규상품 7건을 개발하고 1,109명을 모객하였다. SNS 및 TV 인쇄매체, 영자신문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영주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영주 관광 최신 DB 콘텐츠를 구축, 배포하여 영주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DGB대구은행과 대구경북 55선 관광지 방문 시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출시하여 8,961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며 대구경북 주요관광지 11,808건 방문 인증을 달성하였다.

경남지사는 저탄소 친환경 관광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남생태관광협회, 창원대, KNN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저탄소 관광 협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여행사, 생태관광 협회와 ‘탄소 없는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투어 및 정기/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 시대 안심 관광지 15선을 발굴하고 연계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경남지역 4개 지자체(경남, 통영, 남해, 하동)와 공동 SNS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제주지사는 제주 관광 거점으로서 중문 고유 특화 마케팅을 통해 중문 브랜드를 재구축하였다. MZ세대를 타깃으로 중문단지 여행콘텐츠를 발굴, 홍보하고 16개 입주업체와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였다. 지역 사회 행사와 이벤트를 지원하고 중문관광단지 봉사활동을 통해 상생 관광을 도모하였다. 중문관광단지 안전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중문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였다.

2019년부터 실시된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새로운 지역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본사·국내지사·기초지자체의 유기적인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2021년에는 10개 국내지사에서 공모 및 광역지자체 협의를 통해 총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 컨설팅으로 성장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육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을 시행하였다. T맵 데이터 기준, 강소형 잠재관광지 방문 차량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고 관광지별 자체 집계 방문객 수는 연간 2,626,759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남북관광 교류시대에 대비하여 1989년부터 남북연계관광을 위한 자료 조사와 관광개발 전략 및 단계별 추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해 왔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여 년간 북한의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현대아산과 금강산사업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금강산 관광객의 쇼핑편의 증진을 위해 금강산면세점을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남북관광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에는 향후 북한관광 재개 이후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북한관광을 위한 ‘금강산·개성 안전관광 가이드’ 제작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PLZ(평화생명시대)와 경기도, 강원도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남북연계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 밖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기존의 금강산, 개성관광 외에 백두산, 평양 관광 등 더욱 다양한 북한관광 상품 확대를 위해 2007년 ‘관계기관 합동 백두산 현지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GTI 관광협의회’ 참여, 2009년 ‘백두산관광객 수요조사연구’, 2010년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및 북중접경지대의 남북관광 활용방안’, 2011년 ‘개마고원 및 주변지역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조사’, 2012년 ‘신의주-황금평지역 연계 관광상품화 방안 기초조사’, ‘나선-칠보산 지역 연계 관광상품화 방안 기초조사’, 2014년 ‘북한 주요 지역 관광자원 분포현황 기초조사’, 2015년 ‘북한관광 인식 및 상품 선호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DMZ 통일안보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광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관광포럼(2019년, 2020년)’ 개최하는 등 평화관광 기반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한반도 관광 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접경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201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접경 3개 광역지자체(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10개 기초지자체(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와 ‘DMZ 평화관광추진협의회’를 발족, DMZ 일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설립, 공연콘텐츠 제작 등 평화관광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평화관광 정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7)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별로는 코로나19 확산상황, 방역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관광재개시점이 불투명한 중국 시장의 경우, 연말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와 연계하여 얼리버드 방한상품을 판매하여 3천 명의 관광객을 사전 확보하였다. 관광비자 발급 중단으로 ‘도한놀이 봄(아베마 타임스 선정, 일본 Z세대 대표 문화)’이 발생한 일본 시장의 경우, AR 한국문화 게임 제작과 후쿠오카 시내 한국 문화 체험관 운영으로 현지에서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류 드라마 인기가 높은 동남아·중동 시장의 경우, 한류스타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한 한국 주요도시 맵을 제작하여 한류스타의 1:1 온라인 투어, 인증샷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맵 방문 7만 명). 타 시장 대비 높은 백신접종률로 관광 재개 우선시장으로 떠오른 구미·대양주 시장의 경우 유럽 최고 스포츠리그 정상급 선수인 ‘손흥민’ 활용 한국관광 홍보영상 3편 제작(조회수 76백만 회) 등 온라인 홍보와 함께 가족·친지 방문객 11,737명 유치, 비건·시니어·불교 등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방한 잠재고객 범위 확장에 기여하였다.

8) 마케팅 지원활동

해외관광객 마케팅 지원활동 사업으로서 홍보간행물·영상물 제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현지 소비자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한 동기부여 및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홍보간행물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영상 및 시각물 제작 사업으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물과 관광 사진 및 포스터 등의 시각 홍보물을 현지인의 감각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목적 외래객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추진으로 한국관광 신드롬을 조성하였다. 한국관광 인지도는 61.7%(전년대비 +1.3%p), 한국관광 선호도는 65.1%(전년대비 +1.4%p), 추천의향도 81.8%(전년대비 +1.3%p) 등이 크게 증가하여 방한 잠재수요 발굴에 기여하였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국민관광 활성화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관광통계(제 314004호)」를 연보 및 월보 형태로 공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현황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로 보는 한국관광(구.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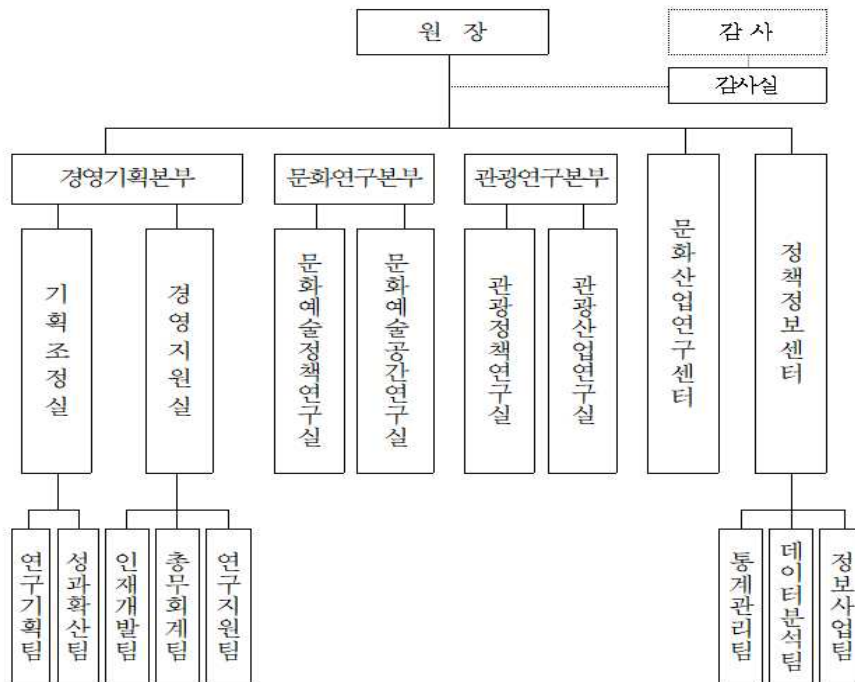
2021년부터는 잠재 방한여행객의 해외여행 및 한국여행 의향, 방문 예상 시기, 희망 방한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MICE 산업 규모 및 참가 실태를 파악하는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MICE 참가자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정부, 지자체, 학계, 업계 등 유관기관에 간행물 등의 형태로 배포하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datalab.visitkorea.or.kr)에도 등재함으로써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중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 결과 종합·분석결과를 간행물로 제공해온 '방한 관광 시장의 모든 것'은 2022년부터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웹보고서로 제공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 일반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관광 및 문화 분야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3본부 2센터(경영기획본부, 문화연구본부, 관광연구본부, 문화산업연구센터, 정책정보센터)와 각 본부·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6실(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문화예술공간연구실, 관광정책연구실, 관광산업연구실) 및 8팀(연구기획팀, 성과확산팀, 인재개발팀, 총무회계팀, 연구지원팀, 통계관리팀, 데이터분석팀, 정보사업팀), 감사실로 조직되어 있다. 정원은 기관장 포함 총 141명이며, 현원은 기관장, 연구직 68명, 통계직 11명, 행정직 21명, 운영직 28명 및 별도정원 2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 활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과 수탁연구사업 등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관광 관련 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책동향분석 자료발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사업, 『한국관광정책』 발간사업,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및 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은 정부의 관광 분야 정책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에 시의 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2021년에는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관광개발 분야 등 총 20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요 수행과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연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방한시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 행태 변화 분석’ 연구 등이 발간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시장을 분석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과 정책대응 방향’ 연구, ‘비대면 관광서비스의 활용현황과 대응방향’ 연구,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방향’ 등 관광을 둘러싼 거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수탁연구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외부의 위탁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21건(2021.12.31. 종료된 연구과제 기준, 일부 실태조사 과제 예외)의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추진하였다. 주요 수행과제로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등 정부의 관광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 수립 연구’, ‘관광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 ‘국내·외 카지노산업 동향 및 운영 사례조사 연구’ 등 관광산업의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등이 추진되었다.

3)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은 관광부문의 정보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한 국가관광정보화 추진 전략 계획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관광·콘텐츠 시대의 선도적 의제 개발과 문화·체육·관광 통계의 체계적 조사, 분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정보, 통계 등 지식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여, 관광산업의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광통계, 관광정책·연구자료, 관광자원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국·입국 관광통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국민여행조사, 관광산업조사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 및 서비스한다. 이와 함께 관광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하여 자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한 관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관광통계의 효과적인 전달 및 다양한 분야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의 시각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핵심서비스인 관광통계의 경우 국제관광통계, 관광객통계, 조사통계, 구성되어 있다. 국제관광통계는 세계관광지표, 국가별 관광통계,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 국가별 여행수지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객 통계에서는 출/입국관광통계(국민 해외/방한외래객), 관광수지, 국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등을 나타낸다. 조사통계에서는 국민여행조사, 관광산업조사, 외래관광객조사의 설문지 및 코드북, 데이터, 그리고 결과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관광자원 통계를 통해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관광축제, 안보관광지, 관광통역안내사, 유관시설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통계 및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관광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해외관광인사이트 등을 작성 및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통계 및 정보들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의 시각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이해관계자(정부, 공공기관, 관광학계 및 정책수요자)에게 관광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을 위한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블로그 및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운영이 그에 해당한다. 또한 2017년부터 개최 중인 ‘카드뉴스 공모전’, 2020년에 신규 추진한 인포그래픽 공모전 등 참여형 콘텐츠 실시를 통해 관광 관련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시대 관광 분야의 새로운 지식정보를 발굴하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신규 이용자 증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with 코로나 시대, 국내관광의 변화와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광의 미래’ 각각을 주제로 인포그래픽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2021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통계에 대한 시각화 기능을 추가 및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문의글 등록시 시스템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일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문의에 대한 응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사용자와 소통 강화의 발판으로 삼았다. 보안과 관련하여 플래시(FLASH) 활용 기능을 제거 후 HTML 기반으로 개발함으로써 보안 취약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웹/보안 취약점,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사용자 니즈에 부합한 양질의 이슈리포트 발행 및 콘텐츠 확산 증대,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중심의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보 생산과 소비의 중간매개체 역할

[그림 8-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개념도

4) 지역문화관광포럼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의 관광 현안에 대응하여 선도적 지역관광정책을 모색하고, 지역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들과의 협의회인 ‘지역문화관광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지역관광에 대한 주요 이슈와 변화하는 환경과 현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지역

문화관광포럼은 지난 2009년 11월 ‘지역관광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첫 포럼이 개최된 이후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모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지역 문화·관광진흥의 중·장기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개최된 2회 포럼부터는 ‘지역문화관광포럼’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지역 문화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광주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2년부터 지역 연구기관들과의 MOU 체결 후속사업으로 지역문화관광포럼을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대구경북연구원과 MOU 체결 이후 10월 19~20일 양일간 ‘신정부의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비전과 핵심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부산발전연구원과 MOU 체결 이후 5월 30~31일 양일간 ‘지역과 상생하는 창조관광’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9~20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분산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2015년에는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12월 3일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6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에 대한 기조 강연을 비롯해 ‘지역관광의 2015년 회고와 2016년 전망’과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 수립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과 관광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의 기술 동향,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2017년에는 ‘글로벌 메가이벤트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발전에 부합하는 지역관광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에는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3월 29~30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지역관광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관광이슈와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0~21일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국가관광 혁신과 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관광산업의 혁신과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광역지자체 연구기관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연구기관들도 참여해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당초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 정책방향’을 주제로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큐세미나(자료집 발간 방식)로 전환하였다. 2021년에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25~26일 양일간 충남 공주 한옥마을에서 지역문화관광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10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 정책방향’을 주제로 미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및 지역관광 정책과 지역별 중장기 관광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처럼 지역문화관광포럼은 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로 지역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연구기관들과 지속적·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5) 관광산업포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현안과 이슈 전망 등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관광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관광산업포럼은 업종별 협회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네트워크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른 관광산업의 도전과 기회, 가치창출’을 주제로 4차에 걸쳐 세부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대응전략, 정부정책 발굴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차 포럼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관광산업의 영향, 비대면 서비스모델과 정책과제, 관광산업의 시사점 등 2가지 세부주제로 시장의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관광산업 정책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포럼은 ‘메타버스, 랜선투어 등 디지털 기술의 관광활용 사례 및 발전 전망’을 주제로 디지털 활용 기술과 관광분야 적용 사례 등에 대해 관광업계 전문가들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였다.

3차 포럼은 ‘스마트관광도시를 통한 관광편의성 구현의 사례와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스마트관광도시 사례와 통합모빌리티 모델 구축을 통한 관광편의성 구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포럼은 ‘관광산업 업종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이슈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디지털 수용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관광산업포럼은 관광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관광기업,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광산업정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방향을 전망하는 등 관광산업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6) 국제관광수요예측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방한 관광시장의 주요 국가별 인바운드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제관광수요예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계 관광시장은 글로벌 경기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2021년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71% 감소한 4억 2,700만 명을 기록하였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약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나 2021년에는 96.7만 명으로 2019년 대비 9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관광수요예측 사업은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는 국제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서 인바운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

2021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관광 시장 동향 분석,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국제관광 시나리오 예측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광시장 회복 시점 예측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는데,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료·정보 공유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이 지속되면서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2021-2022년 방한 관광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자 단체,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광수요예측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방한 관광시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동향을 전망하는 등 국제관광 수요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7)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정부의 관광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 및 기금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8,896억 원('10) → 14,949억 원('21), 168% 증가)하고 지자체 주도형 사업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하에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는 국내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다양한 재원과 유형의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지표 및 매뉴얼의 구축, 전문가 인력풀의 관리,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설계·중간시행·완료 등 단계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성과(실적)의 효과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관한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2021년 기준 총 539건(2014~2021년)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향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규 평가영역의 발굴 및 확대, 그리고 현재까지 평가가 이루어진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추적 등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전주기적 평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 계간 『한국관광정책』 발간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부, 업계, 개인 등 관광정보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간 『한국관광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1999년에 창간된 계간 『한국관광정책』은 2021년 말 기준 제86호를 발간했다. 계간 『한국관광정책』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관광정책 방향 설정, 관광정책 대안 제시 등 관광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여 왔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분야 위기 및 대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게재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과 관광정책 방향, 관광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등 시의성 있는 관광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관광정책 방향, 한반도 관광정책, 지역관광 거버넌스 등 선진국 진입에 따른 관광정책에 대한 전망을 게재하였다.

〈표 8-2〉 2021년 『한국관광정책』 주제

구 분	내 용
제83호 (봄호)	2021 관광정책의 방향
제84호 (여름호)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제85호 (가을호)	선진국 진입에 따른 관광정책, 기틀을 마련하자
제86호 (겨울호)	한국관광정책의 회고와 전망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국제협력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여유연구원·일본 교통공사·베트남 관광개발연구원 등 해외 관광정책 연구기관과 세계관광기구(UN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T-20 관광장관회담 등 관광 관련 국제회의 참여 등의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제관광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보 공유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국제협력사업으로서 국제관광협력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7월에는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에 대해, 그리고 12월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관광부문의 위기 대응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 수행한 국제관광기구 의제분석 및 확산사업에

서는 두 차례에 걸쳐 ‘관광동향 및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0월에는 ‘APEC 역내 관광부문 관광 촉진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 12월에는 ‘관광분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다루었다. 2017년 국제관광 협력사업에서는 ‘국제관광 동향 및 향후 관광 산업 전망’을 주제로 국제관광 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제관광 협력정책 포럼으로서 코로나19 공존시대의 국제관광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화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크게 3부로 나누어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1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안전관광’, 2부는 ‘여행시장 및 산업기술 변화’, 3부는 ‘제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제관광 협력정책 포럼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본 포럼 행사의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1부-관광과 디지털 혁신, 2부-관광과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국제관광 교류에 있어 아시아 시장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세미나 개최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① 일본 협력 사업

2005년 12월 15일 일본교통공사(JTBF)와 연구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일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 6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과 한·중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간 공동연구, 관광정보 및 지식공유, 연구회의 및 세미나 초청,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일본교통공사 간 공동연구로 ‘관광목적지로서 제주도와 오키나와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7년 9월에는 UNWTO와 공동으로 대도시 관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2008년에는 ‘한·일 관광교류시장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4~25일에는 전년도에 이어 ‘한·일 국제관광콘퍼런스’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다. 본 콘퍼런스에서는 한-일 관광교류 현황과 실태와 한국 및 일본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일본교통공사는 지역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검토, 지역관광의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제 만들기, 지역 내 관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향후 더욱 많은 연구결과를 교류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18일에는 다시 서울에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제4기 MOU를 체결하며 연구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콘퍼런스에서는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관광정책, 관광자원평가, 메가이벤트 개최 등 양국의 관광연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에는 일본교통공사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여행 동향과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의 관광연구의 교류협력을 이어갔다. 2019년은 양국가간 관광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특히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일본의 ‘비즈니스 트래블(Bleisure: Business+Leisure)’과 한국의 ‘문화유산 활용 지역 관광활성화’ 등 한일 간 관광 경향과 트렌드에 관해 논의하고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양 기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는데, 코로나 19에 따른 한일 양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와 국내관광에 관하여 양 기관이 공동 조사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2021년 11월 19일 개최된 한일 국제관광세미나는 2020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한일 관광동향: Travel trends after COVID-19’, ‘한일 휴가문화의 전환: Work and Life Balance’ 등의 주제 하에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양국 국내 관광의 회복 추세 확인과 함께 양 기관의 공동조사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을 평가하고, 세션 2에서는 한국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일본의 워케이션(Workation)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 소개 및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② 중국 협력 사업

2012년 4월 25일 서울에는 중국여유연구원(中國旅遊研究院)과 한·중 MOU를 체결하고 이어 제1회 한중관광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중국의 관광정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제2회 한중관광세미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는데, 한·중 인바운드 시장과 관광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한·중 관광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3년부터는 양해각서 내용에 의거하여 매년 1회씩 한·중 관광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5월 21일 서울에서 제3회 한중관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의료관광 및 비자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그리고 중국여유연구원에서는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과 중국인 방한 관광, 중국 관광객 보호 정책과 한·중 관광 투자 합작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4회 한중관광세미나는 2014년 6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중 관광교류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그리고 중국여유연구원은 관광목적지 브랜드자산 제고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 1에서는 중국 여유법 시행의 한·중 관광업에 대한 영향을 그리고 토론 2에서는 스마트관광 및 목적지 마케팅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제4회 한중관광세미나는 한·중 연구기관 간 국제 연구교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양국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심도 깊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5월 29일에 제5회 한중관광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분야 연구 동향과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전망’에 대해 그리고 중국여유연구원은 ‘중국의 쇼핑 면세정책이 관광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관광객 만족도 관점에서 본 한중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 7월 15일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여유연구원에서 제6회 한·중 관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매스투어리즘 시대 관광통계와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개별관광객 시대 어떻게 관광통계를 잘 생산할 것인가와 관광 빅데이터의 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7년부터는 사드로 인한 한중 간 외교 갈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한중관광세미나가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한중 간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7차 한중관광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본 세미나는 대면회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영향 및 관광 대응방향을 주제로 총 6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양국의 연구원 외에 민간업계 관계자도 참여하는 장으로 마련하였다. 2021년 9월 9일에는 제8차 한중 국제관광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한중 국내관광 회복 동향과 한중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③ 베트남 협력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베트남관광개발연구원(ITDR)은 2004년 하노이(1기), 2014년 서울(2기), 2019년 서울(3기)에서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을 통해 ITDR 관계자들이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으며, ITDR에서도 자체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7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창조관광’을 주제로 ‘한-베트남 관광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듬해인 2018년 11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ITDR의 전문가 두 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2차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국제관광 최근 동향과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베트남 관광세미나” 행사가 열렸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정책연구기관 간 정례적인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에 ITDR의 응우옌 안뚜안(Nguyen Anh Tuan) 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방문을 맞이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3차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한-베트남 관광세미나’는 양 국가의 관심 주제에 관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재체결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인적 교류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ITDR의 최신 관광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번역 자료집으로 전환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양 기관의 MOU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후속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과 베트남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응한 양국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ITDR 간의 4차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팬데믹 상황 속의 관광객 안전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관광산업 회복”이었으며, 양 기관 뿐 아니라 베트남관광청, 하노이여행사 등에서도 주제발표에 참여하였다. 본 행사 개최 시 한-베트남 양국의 관광업계, 학계, 지자체 등에서 총 150명 이상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현지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4. 관광사업자 단체

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 일반현황

1963년 「관광진흥법」 제39조(현재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업계전반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사업체의 권익 및 관광종사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와 11개 업종별협회, 3개 업종별위원회, 45개 특별회원 등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책현안을 발굴하고 종합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종합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행정부·국회 등 관광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정상연합⁴²⁾’을 사명으로 관광업계 권익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① 규제 발굴 및 개선 사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해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신속하게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광산업 회복과 관광업계 지원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지역·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관광업계 지원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방역수칙,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안심 여행 캠페인, 코로나19 확산 국내·외 시장 동향 등의 자료를 지역·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하여 관광업계에 안내하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변하여,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 인력구성 추천, 사후면세점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의, 업계 애로사항 개선을

42) 전국적으로 조직된 하나의 유력한 단체가 어떤 분야에서 이익집단을 통합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한 단체를 정상단체 또는 정상조직이라 함.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63년 「관광진흥법」 근거 설립, 관광산업 이익집단들의 정상연합으로서 관광산업의 다양한 업종별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함.[출처: 관광정책학(이연택, 2012)]

위한 건의 등을 하였으며, 국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 회의 개최 등으로 관광산업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76조의 2(재난에 따른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을 하였으며, 민·관 협력형 지역관광추진체계와 지역관광협회의 역할 연구용역 사업 진행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였다.

②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1년 9월 ‘제48회 관광의 날’ 관광 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진행하였다.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관광진흥탑 총 6개의 부문에서 23명의 수상자가 대표로 상을 받았으며 유공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제고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전한 국내 여행 문화 조성과 국내 관광 정상화 도모를 위해 ‘여행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행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방역물품 배포, 국내 관광 접점지 점검 및 국내관광 회복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 활동을 하였다. 중앙회를 비롯한 지역관광협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국내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관광산업포럼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관광업계 주요 현안과 침체된 관광 시장 타개를 위한 지역관광 정상화에 대해 관광분야 민·관·학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포럼에는 지자체,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도형 관광 추진, 지역관광 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한 지역관광협회의 발전방안 모색 및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여 지역관광의 역량과 궁극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독려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2021 내 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여행문화 트렌드를 제시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국관광장학재단은 관광관련 논문 및 제안서 공모전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관광인재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과 관광R&D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관광진흥을 도모하였다.

지방공항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SNS 홍보와 점점별 인력교육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지방공항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고 유치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능력 개선 교육을 통해 디지털 문해 독해 능력 개선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 도출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을 통해 자격증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관광, 장애, 고령분야의 13명의 민간위원과 정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무장애 관광 정책 지원과 민·관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관련 세부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투어케어 인력 서비스 영역을 발굴 및 교육(기획자, 동행자)하여 무장애 관광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무장애 관광 멘토단을 운영하여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과 관련, 중앙회 내 '관광기금 용자상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용자관련 상담, 선정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이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기초자료인 관광업체 현황파악을 위해 연 4회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관광사업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였다.

③ 호텔업 등급결정 사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에 의거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호텔업등급관리국'을 신설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호텔업등급관리국'에서는 등급결정 업무와 이에 따르는 평가요원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위탁사업(사후 모니터링, 등급결정 표지 모니터링, 컨설팅 등) 운영, 평가지표 개발 등의 업무를 통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이용자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④ 교육사업

관광객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점점 중의 하나인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소 안내사 직무기초교육, 관광안내소 안내사 직무심화 교육, 관광안내소 안내사 직무실무교육,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등 4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별 관광안내소 근무자뿐만 아니라 관광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자 등 관광안내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의식 및 자긍심 고취, 실천적인 지식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활동적 장년의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하여, 활동적 장년이 주도적으로 테마가 있는 국내여행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심화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동년배들의 여가 공백을 해소하고, 테마별 여행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궁극적으로 활동적 장년의 주증 국내여행 비율 증대, 나아가 국내 관광산업의 성·비수기 문제 해소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⑤ 수익사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공적 기능의 확대에 따른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관광명품점과 국민관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명품점은 1999년에 개설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한국전통문화를 지켜온 장인들의 정신이 깃든 공예품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이 반영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 등 ‘Made in Korea’ 제품만을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사동 매장 운영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수익증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통문화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관광 활성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국민관광상품권을 보급해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고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⑥ 홍보활동사업

격주에 걸쳐 회원사 및 관련기관 등에 뉴스레터를 발송함으로써 관광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관광전의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사업체의 권익 대변 및 국내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 홍보하였다.

⑦ 관광공제사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87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제사업의 허가를 득하였고, 2019년 5월 1일 여행업에 한정되었던 공제사업을 관광업계 전반으로 확대·개편하여 관광사업자에게 다양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자 관광공제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여행업자의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기획여행보증,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급/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등 관광사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보증보험 상품과 타 보증회사 대비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관광사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는 1996년 9월 12일에 관광호텔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업종별 협회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개발기금(호텔업 운영자금) 업체 선정, 관광진흥유공자 추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증 발급업무, 관광호텔산업 정책지원 및 현황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정책자문, 호텔업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호텔업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향상, 호텔 종사원 교육훈련, 호텔리어 양성과정, 회원 권익증진 및 상호 친목도모, 정부 보조사업 등이 있다. 또한 호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관광진흥을 위한 공동 판촉행사 참가 및 지원 등 호텔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방한 외국인의 관문인 인천·김포 국제공항 내에 호텔종합안내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호텔예약 및 안내, 국내·외 호텔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 국제 관광기구 및 세계 호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 등 국제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주요 추진업무로는 코로나19로 국회·정부부처·유관기관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2020년 3월 16일부터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및 연장(‘22년 12월말)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용자 및 상환기간 유예, 관광숙박업 방역비 지원사업 추진 및 방역지침 안내 및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예(‘22년 12월말), 서울시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업계의 지원 대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호텔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외래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2년 연장(2022년 12월까지), 호텔업 재산세 감면건의서 제출, 공중위생교육기관 추가 지정 요청,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 및 공유숙박업 도입에 우려 등의 호텔업계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1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공동개최(온/오프라인)하였으며, 호텔리어 양성을 위해 우수호텔아카데미·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재능기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업체 선정, 관광진흥유공자 추천, 또한 2020 호텔업 운영현황발간, 회원사 온라인 법정교육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온라인 교육, 노무/법률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다.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는 1991년 12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회로서 정회원(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업체)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여행 서비스 개선 및 조사·연구·홍보활동으로 여행업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여행 산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관광진흥회의(KATA Congress) 개최,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 및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 참가 등 국제협력 활동에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대만관광협회(TVA)와 관광교류회의를 재개하였고, 2002년 이후 일본여행업협회(JATA)와 인·아웃바운드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관광교류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년도로 연기하게 되었다.

회원사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전여행 상품 개발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추천, 우수 경영주 및 종사원 정부포상 추천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바운드 시장 개척을 위하여 여행관련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에 홍보유치단을 파견하고,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연수사업으로 여행업체 경영주 워크숍, 여행사-지자체 지방관광 활성화 워크숍, 여행사 임직원 대상 여행불편처리 교육, 여행사 임직원 대상 안전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관광조직, 항공사, 호텔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특별회원으로 영입하여 여행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여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부처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1호)을 근거로 2006년부터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여행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중재처리하고 있다. 여행정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각종 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건전 여행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부터 전국 12개 주요관광지에 관광통역안내소(영어, 일어, 중국어 안내사 배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복궁 및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중국어 전담안내사를 배치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경쟁력 제고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한 해외홍보 판촉지원, 중국 인바운드 시장개선을 위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산업의 경영 정상화 및 비대면 기술 수요 증가에 따른 여행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통한 여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행업 종사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여행업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통해 여행서비스 분야 5개 직무(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를 개발하였다.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여행사 국제관광객 유치·송출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공표하고 있다.

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1995년 3월 설립된 카지노 분야의 업종별 관광협회로서, 카지노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 관광통계 업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이론교육, 해외 연수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계한 ‘카지노 리조트 아카데미’(연2회), ‘제주지역 카지노 종사원 전문교육’(연2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카지노고객 수요창출 및 중국인 등의 우수고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 등과 업무협력·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카지노 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 종사자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에 중요함을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지노산업의 학술적 연구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연구조사, 학술세미나 개최, 카지노 관련 출판물 간행·보급과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고객 창출과 외화획득 등 관광수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마.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휴양콘도미니엄업계를 대표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조정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콘도미니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1993년 ‘콘도미니엄 협의 위원회’를 모태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으로는 사무국 이외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콘도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콘도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콘도 종사자 교육훈련 및 연수, 콘도사업 지도·감독 및 홍보, 콘도사업 자율규제 업무 등이 있다. 국가위탁사업으로는 콘도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콘도미니엄 회원증에 대해 회원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나눔관광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여행향유권 증진을 통하여 복지관광을 실현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 종사자 대상으로 직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종사자 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회원증 확인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강화와 소비자의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회원권 문화조성을 위하여 이바지 하였다. 차후에도 콘도미니엄 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콘도미니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985년 2월에 설립된 유원시설업 단체로서 유원시설 업체 간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원시설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검사·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유원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업, 정기간행물·홍보자료 편찬 및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홍보사업, 국내·외 관련기관 단체와의 제휴 및 유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유원시설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안전교육사업, 유원시설에 대한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및 컨설팅 사업, 신규 유원시설 및 주요 부품의 도입 조정 시 검수사업, 유원시설업 진흥과 관련된 유원시설 제작 수급 및 자금지원, 시설 운영 등의 계획 및 시책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렴·건의 사업,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우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유원시설의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 공간 마련으로 최적의 인공관광자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유원시설 사업자 안전교육, 안전 관리자 교육,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안전교육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안전교육사업, 중소 유원시설업체 기술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기초 현황조사 및 유원산업 기초통계 조사(입장객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단체보험, 회원 방문증사업(본인+동반3인), 방역물품 지원,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 하였으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업계 네트워크 강화(권역별 회원사 운영발전위원회, 업종유형별 간담회 등), 회원방문증 사업, 유원시설 안전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 유원시설 중장기발전 방안 제안, 유원시설 안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1964년 6월에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주로 미군기지 주변도시 및 항만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을 회원사로 관리하며, 정부의 관광진흥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 및 상호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업소 진흥을 위한 정책의 품신 및 자문, 회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 공동 구입 및 공급, 회원업소의 지도육성과 종사원의 자질 향상, 주한 미군·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과의 친선 도모, 외국 연예인 공급관련 근로자 파견사업 등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지부소속 회원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 외국인 및 외국 연예인에 대한 한국 소개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유적관광 프로그램 제공 등 한국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의 분야별 추진업무는 회원업소 육성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면세주류 공급, 해외 사업 개발로 연예인 공급 프로그램 지속 추진, 외국인 여성연예인 인권옹호 결의대회 활성화, 지부순회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영업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 모색과 정책개발 추진, 컴퓨터 유기기구 설치 계속 추진, 지부별 자율방범(선도)위원회 활성화, 서비스 개선으로 종사원 등의 대외 경쟁력 강화, 관광특구 및 지부내의 환경개선 활동으로 지역주민 및 주둔 외국군과의 관계개선, 한미친선 사업(유공

외국군 장병에게 감사패 및 상품증정, 주한외국군 모범장병초청 산업시찰 및 유적지 탐방으로 전통문화 소개, 효율적인 한미친선 사업으로 상호문화이해추구), 외화획득 사업(외화획득 증대사업으로 제반 법률혜택제도 지속화, 사업장 주변의 직·간접 부동 외화 흡수, 외화관리 계몽활동으로 외화 보국관 고취), 실천적 선도 산업(지속적인 업소주변 범죄예방, 업체주변의 환경개선 추진, 무절제한 소비풍조 근절 운동 전개, 면세주류 유출 방지, 행정관청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이 있다.

아. 한국MICE협회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는 2003년 8월 20일에 설립된 국제회의 전담기구로서 대한민국의 MICE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협회는 기획사(PCO, PEO 등), 전시컨벤션센터, 지원서비스기업(시스템, 기자재, 통역, 관광, 숙박 등), 학계, 공공기관(CVB, RTO 등), 지자체 등 민·관·학을 대표하는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MICE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외 MICE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회원사간 교류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정부 건의 활동을 수행한다. 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원권익위원회, 사업발전위원회, 지역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혁신교육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매달 협회 임원 및 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국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PCMA, JCMA, SACEOS, TICA, GVB, MACEOS, TAITRA 등 아태지역 마이스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된 MICE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MICE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종적으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둘째, 협회는 업계 입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입문자 대상으로는 MICE 교육 프로그램인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직자의 역량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 ‘글로벌 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센티브 관광 분야의 위기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였다. 이 외에 기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경영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들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2018년부터 MICE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온라인 MICE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강하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 실무를 기반으로 개발한 ‘MICE 기본과정’과 ‘회의 기획 과정’, ‘전시기획 과정’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벤트 기획 과정’도 추가 개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온라인, 하이브리드 MICE 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 행사 기획, 온라인 참가자 관리, 온라인 행사 현장 조성 및 연출,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MICE 과정’도 신규로 개발하였다.

〈표 8-3〉 2021년 MICE업계 인력양성 사업

교육명	대상	과정	주요 내용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입문자	-	MICE 분야별 특강, 멘토링 팀 프로젝트, 기업 설명회 등
MICE 재직자 전문가 양성과정	재직자	기본과정	MICE와 Martech, 코로나와 MICE산업, 콘텐츠 기획, 메타버스, 디지털 마케팅, 해외 패널 세션 등
		심화과정	기획 전략, 게더타운 실습, MICE 기업 경영전략, 2022 트렌드 등
		글로벌과정	해외 MICE 교육 참가 (PCMA, ASAE, UIA Round Table 등)
인센티브 역량강화 교육사업		-	스마트관광, 트렌드, 뉴노멀시대 인센티브 시장 대응 방향 등
MICE 기업 맞춤형 교육 및 경영상담 지원		-	SNS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씽킹, 업무툴 메타버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무 교육 및 회계, HR, 계약서류 등 경영 상담 진행
온라인 MICE 연수원	입문자/재직자	MICE 전시기획 과정, 디지털 MICE 과정, 공통 소양과정	

협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벤션분야 개발기관으로서, NCS기반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활동으로 MICE 기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CS기반 업계 직무 분석과 재직자의 역량체계를 개발하는 ‘산업별역량체계(SQF)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사업’ 공모로 MICE산업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되어 2020년도부터 청년취업 준비생, 재직자 대상 교육 및 취업 매칭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협회는 MICE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MICE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사 효율성, 그리고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MICE기업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기술 개발, 사업화 비용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52개의 MICE 기업이 온라인 행사 관리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원격 통역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또한 업계 종사자와 취업 희망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실습 위주의 강의장, 디지털 스튜디오가 마련된 ‘MICE 인재원’을 개관하여 저작권 전문가 과정, 개발자 과정, 디지털 기획 전문가 과정, 데이터 전문가 과정 등 ‘MICE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아울러 MICE 인재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방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All-in-One 과정 개최로 참가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교육 외에도, ‘미팅테크놀로지 컨설팅’ 사업을 2020년도에 이어 2차로 수행하여 70여 개 MICE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연계하였다.

넷째, 협회는 MICE 업계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MICE 지식 재산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문서용 ‘MICE 고딕’ 글꼴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글꼴과 음원 활용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www.micecontents.or.kr)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기금 용자지원, 관광진흥 유공자 포상 추천 업무도 수행한다. 홍보 사업으로는 다변화하는 업계 동향과 지식 확산을 위해 ‘The MICE Plus’를 발간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하여 협회 소식과 업계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MICE 행사 입찰 정보를 사전규격 단계에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해외 MICE 동향 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MICE 산업 홍보 및 정보공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PMBF)’을 기획, 운영하여 업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산업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자. 한국PCO협회

사단법인 한국PCO협회는 2007년 1월 급변하는 세계 컨벤션산업 환경에서 국내 컨벤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사 간의 상호 정보교류 친목, 컨벤션 국제표준 도입,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협회 회원사는 현재 69개 사(2021.12.31. 기준)로,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컨벤션기획을 전업으로 영위하고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PCO만을 대상으로 한 자격 심사를 거친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컨벤션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 컨벤션산업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유관기관, 학계,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 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건의 및 요청사항 의견 개선, 관련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킹 기회 부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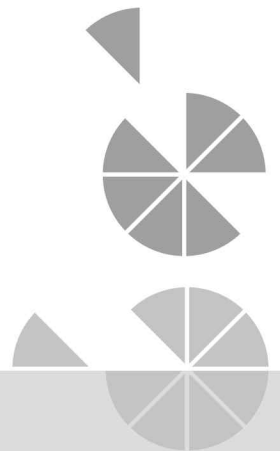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2021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컨벤션산업 및 PCO에 대한 지속적 홍보,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작한 MICE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자문 및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산학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턴십 활성화 프로그램과 대학 재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인재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MICE 산업의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MICE산업 디지털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자로서의 PCO 역량강화, 국내 기반 컨벤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안정적 국제회의의 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K-컨벤션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희망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 제공 및 업계, 학계, 유관기관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PCO의 전문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컨벤션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업계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 각종 건의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컨벤션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 9 장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1. 서울특별시	_377	9. 경기도	_463
2. 부산광역시	_387	10. 강원도	_471
3. 대구광역시	_410	11. 충청북도	_478
4. 인천광역시	_424	12. 충청남도	_485
5. 광주광역시	_433	13. 전라북도	_494
6. 대전광역시	_443	14. 전라남도	_502
7. 울산광역시	_449	15. 경상북도	_509
8. 세종특별자치시	_456	16. 경상남도	_522
		17. 제주특별자치도	_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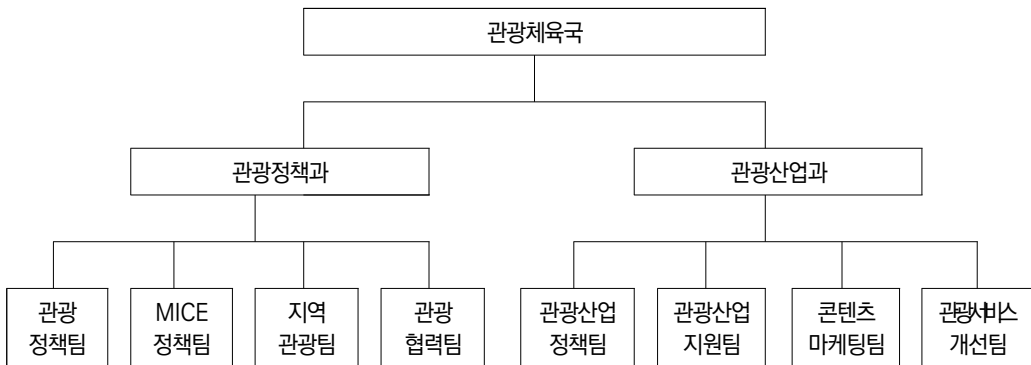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1. 서울특별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정원	1		2	10	13	9	9	1	44
현원	1		2	10	11	12	8	1	44

주1) 관광체육국장 포함

주2)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2명) 별도 운영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75,270	67,781

주) 20221년 결산기준, 2022년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1)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

① 관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광업계 단계적 지원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관광·MICE(8개 업종) 소기업
- 지원절차 : 소재지·업종·규모 등 적격요건 확인 후 지급
- 지원결과 : 1,145개사, 1,145백만 원 지원(업체당 1백만 원)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관광·MICE(전 업종) 소상공인
- 지원절차 : 소재지·업종·소상공인 여부 등 적격요건 확인 후 지급
- 지원결과 : 4,519개사, 9,038백만 원 지원(업체당 2백만 원)

○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지원

-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개발 지원
- 뉴노멀 관광콘텐츠 시장성 제고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② 뉴노멀 MICE 산업지원을 통한 MICE 도시 경쟁력 제고

○ 혁신 MICE 육성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지원

- (국제회의) 비대면 행사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 (전 시 회) 글로벌 혁신 전시회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 서울형 뉴노멀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시행

○ 안전한 MICE 행사 운영을 위한 “서울형 안심 마이스 모델 운영”

- 서울 MICE 세이프 존 운영 지원
- 서울 MICE 안심케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점검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운영

- 인사·노무/ 회계·세무/경영·법무 전문 상담 → 심리상담 추가
- 관광·MICE 종사자 대상 5대 법정 의무교육 지원(총 82개사, 1,228명 교육)

③ 관광생태계 혁신을 위한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

- 관광스타트업 신규 발굴 및 육성 지원(2~11월)
 - 총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사 선정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20 ~ 50백만 원)
 - 스타트업 전문육성기업(엑셀러레이터) 활용 창업육성 프로그램 무상 제공
 - 선정 기업 대상 기업별 1:1 멘토링 및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진행(4~11월)
- 우수 관광스타트업 지속적인 후속 지원(3~11월)
 - 기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 28개 선별, 서비스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서울관광플라자 내 입주·공유 스타트업 및 관광업계(90개)간 네트워크 지원
- 서울 관광 스타트업 워크 개최(11.22~11.25)
 - 신규 선정기업 최종결과보고회(데모데이), 온라인 창업아카데미(4회, 총 546명), 신규·기존 CEO 워크숍 등 관광스타트업 관련 행사 통합 개최
- 스타트업-기존 관광분야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10~12월)
 - 기존 외국인단체관광객 보험 활용, 서울시 내 PM* 공유서비스 안심보험 개발
 - * PM(Personal Mobility) : 1인용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 여행업 종사자 대상 테마상품 개발교육 및 온라인 기획전 개최
- 국내·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VisitSeoul 內 다국어 웹페이지 제작 및 기획 기사 등록
 - 기업별 개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노출(사진, 영상, 웹기사)
 - 국내·외 언론보도 총 173건 (지면 기사, 온라인 기사, 취재 방송 등)
-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 및 유관기관 협업 사업 발굴 확대
 - 노매드헬('20년, 5천만 원), 스타트립('21년, 1억5천만 원) 직접투자
 - 비앤씨테크('21년)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사업 선정 지원(3억 원, 경제정책과)

④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 관광환경 조성

- 서울 아시아-중동 관광객 관광 활성화
 - 할랄관광 친화 인프라 정보제공을 위한 다변화 관광 여건 마련(5~12월)
 - 'Salam 서울 앰버서더' 운영을 통한 할랄 관광 인프라 홍보(6~11월)
-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
 - 주거지역 내 관광객 밀집지역 유형별 개선대책 시행(3~12월)

- 서울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수행(4~12월)
 - *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22~'26) :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4개 전략·12개 과제·36개 단위사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운영으로 로컬관광 활성화

- 최우수 자치구 마을관광상품 3개 선정 및 집중지원(6~11월)
 - * 종로구 '봉제마을 창신동을 두드리다', 성북구 '성북동감', 강북구 '우리 동네 역사·문화 힐링투어'
- 신규 민간단체 마을관광 콘텐츠 5개 발굴 및 확산(6~12월)
 - * 동작구 '다크투어리즘', 동작구 '별 헤는 숲', 종로구 '성균관 유생과 반촌의 하루', 중구 '인현동 인쇄골목 투어', 도봉구 '타임캡슐 쌍리단길 투어'

2) 뉴노멀 관광수요 창출 및 서울관광 질적 도약

① 서울만의 매력을 지닌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기존 관광특구(6개) 운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특구별 사업수행 지원
- 신규 관광특구(1개) 추가지정(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21.12.2.)
 - * 마포구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21.12.3.~) 등 특구 특화사업 발굴·추진

○ 지역별·관광특구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 추진

- 동대문패션타운 특구 중심 패션관광 거점화 추진('21.9~12월)
- 송파 일대 역사·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21.8~12월)

②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 수요회복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및 수용태세 강화

- 외국인 중증환자 자가격리비 지원을 통해 의료관광업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여
- 서울관광플라자 내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의료관광 환경기반 유지
- 서울의료관광협의회 제2기('21~'23) 구성 및 의료관광 협력기관 신규 선정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웰니스 분야로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
- 코로나19로 무너진 해외관광 네트워크 재건 및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최(10.26~11.5.)
- 국가별 SNS채널(일·중·러·영)을 통해 협력기관 소개, 웰니스 70선, 의료정보 등 지속적 콘텐츠 제공으로 의료관광 잠재시장 발굴 및 시장 확대

○ 고소비층 타깃 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 뷰티, 전통문화, 웰니스, 미식 등 영역의 지속가능한 프리미엄 콘텐츠 전략적 고도화(8~9월)
- 서울 프리미엄관광 브랜드(My SEOUL INSIDER*) 강화 마케팅(8~10월)
 - * My SEOUL INSIDER : 나에게 서울만의 매력을 속속 들려주는 서울(현지인) 전문가
- 서울에 오래 거주한 권위 있는 외국인을 프리미엄 서울관광 앰버서더로 섭외하여 홍보
-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지털 미디어 활용 기획 기사 확산

③ 서울관광 매력 증진을 위한 서울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 서울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은 한류관광 콘텐츠 확충

- 케이팝·드라마·영화 등 인기 한류 테마 속 서울 촬영지 랜선여행
- 일상 장소(핫플레이스)를 여행하는 MZ세대 여행 트렌드(인증샷) 소개
-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 중심의 감성 콘텐츠 뷰(View)티플 멋과 맛 발굴
- 서울 한류관광정보 온·오프라인(홈페이지, OTA플랫폼, 가이드북) 접근성 강화

○ 서울의 숨겨진 스토리 콘텐츠 발굴 및 관광자원화

- 서울 동남권 일대 오래가게 선정 및 랜선투어 여행상품 시범 운영
- 콘텐츠 공모전 및 서울스토리 워크 운영 등 민간협력 캠페인 추진

○ 체험형 서울도보해설 관광코스 개발

- 뷰티 크리에이터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서울 뷰티로드*」개발(8~9월)
 - * 티퍼런스 - 익선동 - 북촌한옥마을 - 이니스프리
공병공간점 ▶ 서울숲 ▶ 아모레성수 ▶ 성수 카페거리 ▶ 논픽션
- 테마가 있는 「온라인 도슨트 코스」개발 및 영상 제작(9~10월)

○ 서울관광 명소와 태권도 공연을 연계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2021 서울시 비대면 태권도 공연 시리즈 영상 제작(7편), 총 누적 조회수 511,051회
- 나노 인플루언서 섭외 및 챌린지 이벤트 개최 등 국내·외 서울 태권도 관광 홍보

○ 관광객 선호도와 관심사를 반영한 서울 관광 M.V.P코스 확산

- 서울 방한 관광객 수 1위인 중화권 맞춤형 뷰티테마 개발(4개)
- 여행 인플루언서(Key Opinion Leader)의 나만의 서울 여행 스토리 확산
- 씨트립 본사와 민·관 협력으로 온라인 캠페인 등 통합 마케팅 추진

④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고**

-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 대체숙박업 숙박 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체 숙박업 운영자 역량 강화 지원
- 다국어 관광안내체계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편의 증진
 -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 향상(4~12월)
 - 디지털 안내표지판 콘텐츠 제작 및 트래블버블 시기에 싱가포르 표지판 광고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7,237	7,608	5.1
	기타여행	5,532	5,651	2.2
	총계	12,769	13,259	3.8
외래관광객 수		1,189	558	-5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1) 서울관광의 대표 콘텐츠 발굴·육성

① **서울 페스타 2022(8월)**

- 다채로운 행사 집중 개최로 서울 페스타 개최 효과 극대화
 - 서울페스타 기간 중 세계적 메가이벤트인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E-Prix) 동시 개최로 서울 페스타에 대한 관심 유도
 - E-Prix외에 市 주최·주관 각종 행사, 페스타 기간 중 집중 개최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서울페스타 2022 브랜딩 및 서울대표 축제로 전략적 홍보·마케팅
 - 서울페스타 2022 브랜드화 → 행사내용 및 서울의 매력을 압축한 영상 제작
 - 市·서울관광재단·KBS 보유 매체 활용 '서울 페스타 2022' 전략적 홍보
 -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체부·KTO 등과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 ② **서울뷰티로드 페스티벌(9월)**
 - Key비주얼 개발 및 글로벌축제 브랜드화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2~10월)
 - 민간 뷰티 총괄디렉터와 전문가 협업으로 서울형 뷰티축제 브랜드
 - 한류기반 글로벌 뷰티트렌드 B2C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뷰티산업 연계 강화
 - 기존 공공·민간 주도의 대형 컨벤션 전시형 뷰티행사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 스타일 진단 → 추천 → 체험 → 소비'까지 연결하는 뷰티축제 개최
 - 산업중심의 '뷰티산업주간' 연계 개최로 뷰티관광-산업간 선순환 체계 강화
- ③ **민·관 협력을 통한 대표 MICE 육성**
 - (대상 선정) MICE 체계적 유치·발굴을 위한 'MICE 빅데이터' 구축
 - MICE 개최·유치 정보 수집, 참가자 성향, 경쟁도시 현황 자료 조사
 - 서울형 MICE 유망 산업 데이터 분석, 국제 MICE 트렌드 분석 등
 - (네트워크 구축) MICE 전략적 유치·발굴을 위한 SMA 등 네트워크 강화
 - SMA(SEOUL MICE ALLIANCE : 유관업체 300개 참여)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해외도시 거점 구축(전문 에이전트 활용), 국제협회연합(UIA) 등 국제기구와 교류 강화
 - (체계적 지원) MICE 단계별 육성·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국제회의 : 유치단계(컨설팅·유치활동비) → 개최 단계(개최지원비)
 - 전 시 회 : 성장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MICE의 국제화 추진
 - 국제이벤트: 글로벌 이벤트社 제휴·협력 / 국내 단체 유치 신규 지원
 - 하이브리드 행사 컨설팅·기술 지원, 업계 법무·세무·노무 통합 지원, 안심 MICE 운영

2)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생태계 혁신

①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 (여행사) 디지털 콘텐츠 개발·마케팅 지원(20~30개사, 최대 2천만 원)
 - 관광업계에 디지털·신기술 등 접목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팅비 등 지원
- (MICE) 콘텐츠 및 행사 개최의 신기술 도입 지원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면행사(하이브리드 포함) 기술 비용 지원(최대2.5억 원)
 - 신기술 활용한 뉴노멀 MICE 콘텐츠 공모·지원(10개사, 2천만 원)

② 기술융합형 스타트업 육성

- 끊임없는 관광혁신 동력의 원천, 관광 스타트업 발굴·육성
 - 첨단기술(AR·VR 등)과 뷰티 등 감성콘텐츠 융합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12개사, 30~70백만 원)
 - 서비스 고도화·마케팅 지원(22개사),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 지속적 성장 지원
- 스타트업 혁신 - 관광업계 노하우 결합, 상생프로젝트 지원
 -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력과 기존 관광 업계의 노하우를 접목한 '상생협력'으로, 기존 틀을 깨는 관광서비스 발굴·확산(5개사, 6천만 원)
 - 관광현장과 스타트업의 디지털이 결합, 온·오프라인 서비스(O2O) 유기적 연계

③ 플랫폼 기반 제공

- (관광객) 메타버스(민간 협업) 내 서울 대표 관광지 구현, 체험·소통
 - 민간과 협업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서울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1개소 시범 추진
- (여행사) 중소여행사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서울 365 여행 B2B 플랫폼」 구축
 - 국내-해외 여행사가 온라인 상에서 관광상품 소개·상담·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MICE) 서울시 가상 MICE 인프라(3종) 통합, 뉴노멀 MICE 지원
 - 개별 운영된 버추얼 MICE 플랫폼(3종) 통합관리, 이용자 DB구축·맞춤형 홍보
- (맞춤형 서비스) 서울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서울관광지식정보시스템」 오픈
 - 시민·업계·학계 등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운영

④ 관광생태계의 비합리적 관행 근절 유도

- 뉴노멀 관광 환경에서 관광업계의 고질적·비합리적 관행은 경쟁력 약화 주요 원인
- 관광스타트업 육성, 디지털기술·서비스 확산 등 혁신을 통해 관광생태계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민·관 거버넌스(협치) 통해 업계 자발적 자정노력 유도

비합리적 관행	개선방안
저가 관광업체 난립 문제 관광지 주변의 저가 관광업체 난립	(혁신)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관광 정보 공유 (협치) 업계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저가 관광근절 노력
커미션(옵션관광) 문제 가이드·식당·인솔자 비용 낮춘 대신, 옵션·쇼핑 강요	(혁신) 플랫폼 기반 관광상품 거래로 비용 절감 (협치) 커미션 없는 관광, 차별적·다양한 관광개발
해외자본의 생태계 파괴 해외 자본설립 여행·쇼핑·식당 등에 의한 국내 기여 없는 관광	(혁신) 다양한 뉴노멀 관광콘텐츠 확보로 경쟁력 강화 (협치) 민간 상품경쟁력 강화노력
글로벌 OTA의 횡포 OTA 수수료 부담, 최저가 정책으로 덤핑 여행 유발	(혁신)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거래수수료 절감 (협치) 공동의 디지털 홍보·마케팅, 협력 강화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서울특별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16.01.07	22.03.10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0.05	21.09.30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01.04	21.09.30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 관광 발전에 이바지	20.05.19	-	관광정책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18.10.04	-	관광산업과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17.01.05	-	관광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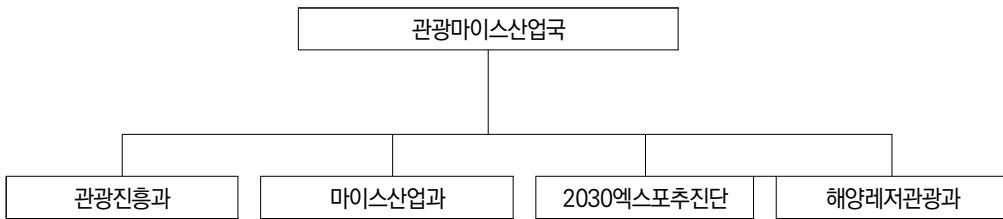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2조 (정의)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시장의 책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15조제1항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스마트관광산업을 규정함
		제8조제3항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 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그 밖의 오기 사항 등 정비 	제8조제1항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제15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운영)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관광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제15조제2항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3개월”을 “2개월”로 변경

2. 부산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정 원	1	4	15	35	28	8	91
현 원	1	4	15	34	35	2	91

주) 관광마이스산업국장 포함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78,948	58,258

주) 2021년 결산 기준, 2022년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2021년 코로나 위기극복 관광·마이스업계 재정지원

-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1,930개소, 업체당 50만원, 총 8억 원)
-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00억 원 조성(연간 20억 원, 5년간 적립, '21. 20억 원 확보)

- 여행업 및 국제회의업 1,091개소, 업체당 200만원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코로나19 위기극복 관광업계 체질개선 및 정책지원

- 여행상품 선결제 프로젝트 시즌1, 2 추진(총 4.9억 원 237개 업체 참여)
- 부산관광 스타기업 육성(5개 선정) 및 역량강화 교육
- 마이스업체 앱개발 및 서비스고도화 지원(20개사),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신규 발굴 및 지원(7억 원), 청년 일자리창출(47개사, 지역청년59명), 마이스행사 방역물품 비용 등 지원(업체당 300만원)
- 관광업계 위기극복 일자리 지원
 - 관광모니터링 점검단(관광업계 종사자 105명, '21.4~11, 2.9억 원)
 - 방역수용태세 지원(관광업계 휴직(실직)자 등 270명, '21.8~'22.3, 23억 원)
 - 부산대학생 관광창업 스몰 등 관광인재 육성, 0.6억 원

○ 국제관광도시 1차년도 사업 마무리 및 2차년도 사업추진

- 국제관광도시 추진 기반 조성 ▸ 기본계획 수립 완료, 1차년도 이월사업 마무리
-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민간 중심의 열린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
 - 시민보고회(1.21), 세미콘서트(6.29) 개최, 관광진흥위 국제관광도시분과위원회 개최(9월, 12월)
 - 글로벌 시민자문단(8개국 14명),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2.9억, 105명)

○ 사계절 명품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 신규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6월, 용역완료)에 따른 우선순위사업 추진
 - 천마산 전망대 및 모노레일('21.12. 착공), 태종태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21.12. 실시설계)
- 용두산공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선정(5월) ▸ VR·AR 등 첨단시설 유치
- 다대소각장 장기표류사업 제1호 정책결정(6월) ▸ 서부산권 문화관광 핵심 인프라

○ 글로벌 부산관광 브랜드 마케팅 강화

- 부산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타깃 시장별 특화 마케팅 추진
 - 관광BI개발, 주요 타깃시장(중화권, 신남방 등) 대상 맞춤형 영상 제작 등 브랜드 마케팅 착수(10월)
- 브랜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활용 디지털 바이럴 마케팅 추진
 - 국제관광도시 홍보 영상 제작 완료(10종 12편), 홍보대사 고효주 등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2회)

- 국내·외 관광설명회(온·오프라인) 참가 및 관광수요 회복 프로모션 추진
 - B2B 상담회 부산관광 네트워크 컨퍼런스(7월, 85개사), 부산국제트래블마트(10월, 24개국·330개 기관·업체) 개최
 - 중국 현지 B2C 행사 및 씨트립 연계, 대만 라인 트래블 및 설명회, 일본 온라인 B2C 행사 개최 등
 - 안심관광지 선정 및 홍보(10개소), 특화콘텐츠 연계 관광 수요 회복 프로모션(4회, 13억 원) 등

○ 차별화된 부산관광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 강화

- 부산관광 웰결제 프로젝트 추진(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8.1억 중 4.9억)
 - 市·BTO·관광업계(기획사, 관광시설사, 중소기업) 협업, 여행업계 상품기획력 및 비즈니스 역량증대
-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 추진(공통 4, 동부산 1, 중부산 4, 서부산 2, 북부산 2, 총13개 사업/4억 원)
- 부산형 관광콘텐츠 공모전(3건) 추진 및 산관학 비즈니스 모델 발굴(3건)

○ 지속가능한 축제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코로나19 상황단계별 축제 콘텐츠 발굴·시도, 하이브리드형 축제 개최 등
 - 유채꽃축제(유채정원, 유채버스 등), 국제록페스티벌(하이브리드), 바다축제(발코니 콘서트 등)
- 북극곰 축제('21.6.) ESG개념 도입, 지역축제 현장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21. 8.)
- 청년축제전문가 양성('21.6. ~, 10명), 축제관련 사전 직무교육, 현장연수 등

○ MICE 성장기반 조성

-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 행안부 타당성조사 완료('21.5), 지방재정투자심사통과('21.10)
- 2021 마이스산업육성계획 수립(4월),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개최(4월)
- 부산 MICE 페스티벌(4월) ▶ 명사특강, 청년마이스캠프, 공정거래워크숍, 마이스인의 밤

○ MICE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차산업형 MICE 강소기업 육성(5억 원)
 - 기업지원(92개사 137건), 인력양성(118명), R&D(3건), 시민아카데미(20명), 홍보영상 제작(10건)
-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개최지원(7억 원)
 - 12건(25~50백만 원/건, 행사장 임차료, 마케팅비, 재직자 교육, 컨설팅 등)
- MICE 전문인력육성 및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21년 신규채용 47개사 59명('18~'21 63개사 157명 고용유지관리)

○ MICE 대외경쟁력 강화 및 유치개최 활성화

- '21년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공모 사업(10.8억 원) 추진
 -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상품화사업, 복합지구내 유니크메뉴 특화사업, 유치설명회 개최
- '24년 국제우주연구위원회총회(3,500명) 등 국제회의 30건 유치 ▷市, 뷰로, 백스코 협업마케팅 전개
 - '23년 세계단백체학회총회(45개국 2,000명) 등 70건 유치 추진 중
- 부산국제교류재단 UIA(국제협회연합) 국제기구로 신규등록 (6.8.)
 - UIA A타입(등록된 국제기구가 주최, 후원하는 국제회의) 국제회의 개최실적 증대
- 코로나19 극복, 지역업계와 함께하는 국내 주요인사 초청 유치설명회(3회, 지역 특급호텔)
- IBTM World(바르셀로나, 12월)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이스 도시 부산 홍보

○ 부산형 의료관광 글로벌 신성장 프레임 구축

- 의료관광 유치기반 강화 ▷ 의료관광특구(서구)육성, 의료관광 특화거리(SMS)지원, 해외거점확대(4→9개소)
-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 온·오프 전시회/상담회(23회), 인센티브 및 통역·컨시어지 지원(888건) 등
- 민간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인재 매칭(20명), 통역 전문인력 양성(81명)
- 의료도시 부산브랜드 마케팅 ▷ 온·오프 해외홍보(20회), 의료관광 매거진 제작(5개어권)
- 지역특화 의료기술육성 ▷ 중증치료 특화상품 및 토탈케어 표준모델 개발, 원격진료 센터 개소(2개소)
 - '21 보건복지부 공모평가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부산 1위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 마련

- 주제개발 등 5개 분야* 기본계획수립 ▷ 지역전문가 참여(12명), 중간 보고회 개최('21.7.)
 - * 주제개발, 수요예측 및 자원분석, 회장 조성 및 교통·숙박, 전시연출·이벤트, 홍보
- 지역성 반영 유치계획서 작성 ▷ 지역전문가 자문단 구성(6명), 자문수행(11월~)

○ 2030부산세계박람회 본격 유치활동 계기 마련

-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 ▷ 국제박람회기구 방문(6.23, 시장·정부대표), 대시민 보고
- 유치신청 비전 발표 ▷ BIE 총회(6.29, 온라인), 개최도시 소개 및 유치의지 표명(시장 영상)
- 유치 신청국* 1차경쟁 PT 발표 ▷ 국제박람회기구 총회(12.14., 온라인)
 - * 5개국 : 대한민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국가유치추진체계 구축 완료

- 민간유치위원회 출범('21.7.) ▷위원장 김영주 前한국무역협회장, 10대기업, 언론계 등 100여명
- 정부유치지원위원회 구성('21.11.) ▷위원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19명
- 국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21.12.) ▷국회의원 18명 구성 합의

○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국민적 유치 공감대 확산 및 해외홍보 본격추진

- 국내 온·오프라인 홍보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민·관 협력 유치역량 결집
 - (홍보물·매체홍보) 브로셔·포스터(10종), 미디어아트(2종), 도서발간, SNS, 언론, 전광판 광고 등
 -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위촉(이정재), 인기 유튜버 활용(조승연, 알베르트, 다니엘 등)
 - (시민참여) MZ세대, 일반시민 등 시민 주도 홍보 추진, 축제연계홍보 및 설명회 개최
 - ※ 액티버 30명, 대학생 336명, 시민결의대회(9월, 12월), 국제콘퍼런스(10월), 국제영화제(11월) 등
 - (찾아가는 설명회) 서부산권 포럼 등 각종 행사 및 부산대 등 대학특강(시장, 국장 등 10회)
 - (기업동참) 기업보유 매체 활용 홍보, 기부금 후원 등
 - ※ 제품연계(대선주조, 부산우유 등), 기업광고(세정, BNK 등), 기부금(고려제강, 넥센 등), 대기업(LG로봇 무상임대) 등
- 본격 해외홍보 추진 ▷두바이 엑스포 연계 및 해외인사 대상 홍보 등
 - (두바이 엑스포) VIP실, 홍보부스 등 활용, 주요인사 교섭활동, 미디어아트 홍보 등(10월~)
 - (해외인사 홍보) 주한 외국대사 엑스포 개최지 시찰(11월), 외교인사 대상 설명회(11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노력

- 2021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행 : 26개 사업, 192억 원
-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업무협약 체결('21.7.)
-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구역(서핑) 확대 : 160m → 270m('21년 한정)
- 해양안전체험관 부산 건립 추진 : 타당성 검토용역 국비 2억 원 확보
- 2021 부산국제보트쇼 개최(4.23.~4.25.), 92개사 972부스, 9천여명 참가
- 2021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5~6월, 9~10월, 다대포, 광안리, 송정, 해운대해수욕장)
 - 프로그램 : 해변 노르딕워킹, 선셋 필라테스 등 406명(만족도 95.1점)
- 2021 지역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 추진(5월~), 6개구 서핑 등 9개 사업
-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10.21~10.25.), 11개국 34팀, 294명 참가
- 제14회 부산항축제 개최(6.19.~6.20.), 개막·체험행사 등 약5천명 참가
- 제12회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 개최(6.19.~6.20.), 400여명 참석

○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반 구성, 현장점검 실시
 - 해수욕장 월례회, 구·군 관계기관 운영보고회, 현장점검 및 코로나19 대응반 구성(5개반)
-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안전개장('21.6.1.)에 따른 관리 강화
 - 안전요원 배치(파라솔 미설치, 개장식 미실시), 해수욕장 거리두기 집중 홍보물 설치(91개소)
-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책 수립·시행
 - 전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및 안심콜 운영, 근무자 체온스티커 도입(5개소)
 - 미 독립기념일 외국인(주한미군) 방역수칙 관·경·군 합동단속(7.2.~7.4.) 실시

○ 유람선 및 크루즈·마리나산업 활성화 추진

- 크루즈 입항 재개 대비 선제적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정비
 - 기항관광지 점검(교통편, 전용식당 등), 자원봉사단 구성 등 관광 수용태세 강화
- 마리나 산업의 원스톱 체계구축을 위한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21.8. 조달청), 총사업비 조정('21.10. 기재부, 해수부)
- 원도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항 유람선 선착장 그늘막' 설치
 - 실시설계 용역('21.6월), 설치 완료('21.11월), 시설 관리(남항관리사업소)
-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호만유람선 선착장 일원 경관개선 및 시설물 정비
 - 부두 입구 간판 설치('21.1월), 경관조명 설치('21.5월), 디자인 펜스 교체('21.6월)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7,741	8,544	10.4
	기타여행	2,649	1,408	-46.8
	총계	10,390	9,953	-4.2
외래관광객 수		265	159	-4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³⁾

1)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① 국제관광도시 육성 3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성과 제고

○ (총괄 지원)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총괄 대응

- 단계적 일상회복기,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춘 '22년도 사업 세부내용 조정·변경
 - 세부사업 변경·조정사항에 대한 문체부(관광거점도시위원회) 승인
-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이월된 '21년도 사업 상반기 내 신속 추진
 - 월별 집행액 등 추진상황 자체 점검, 성과관리 등
-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관광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활용, 소통채널 상시화, 사업관련 자문 및 컨설팅
 - 사업 추진 공무원 및 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워크숍 개최

② 사계절 명품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 국내관광 수요 부산 유치 및 신규 관광자원 확충

○ (국내관광 수요유치 및 체류형 관광기획) 해외여행 대체수요 충족

- 테마·타깃별 여행상품 등 관광콘텐츠 개발·추진
 - 가족, 허니문, 힐링, 캠핑 등 웰니스 여행코스 개발 및 야외 액티비티 프로젝트 추진
- 동남권 관광공동체 구축 기반 마련
 -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20.5.~'21.3.)을 통한 동남권 연계 관광사업 발굴
- 부산형 체류형 관광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21.1.), 중점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21.2.), 종합계획 수립('21.3.)

○ (관광개발 전략 수립 및 인프라 확충) 전략적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확충

- 관광자원개발 추진전략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전략적 관광개발 계획수립, 관광 여건 및 동향 분석 등 2.3억 원

43) 2022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 투자시설 유치 마무리 ▷ 34개 시설(유치완료 32, 공모예정 2)
 - 관광단지 개별시설 및 테마파크 개장('21.5.) 대비 교통대책 강구
 - 해안관광도로 확장,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임시주차장 개방 등
- (원도심 관광 인프라 개선) 원도심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 경쟁력 제고
 - 태종대 관광시설 개선 ▷ 해안 관광도로 건설('15~'22) L=2.4km(230억 원), 노후시설 보수(5억 원)
 - 용두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노후 도로 포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2.4억 원
- (부산만의 감성 돋는 관광자원 확충) 국내관광 증진을 위한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 영도대교 수변 문화공간 사계절 축제 및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21.~'22.)
 - 중구 영도대교 일원 유라리 광장, 사계절 축제 개최(4회), 수변산책로 난간조명 설치 등 9억 원
 - 기장 도예촌 조성('07.~'30.) ▷ 안테르센마을 준공('21.), 종합촬영소 준공('23.)

③ 글로벌 부산관광 브랜드 마케팅 강화

□ 국내·외 부산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부산관광 브랜드와 도시 인지도 제고
 - MZ세대 타깃 홍보 동영상·유튜브 등 디지털 마케팅 강화
 - (동영상) 트렌드 영상 지속 제작·배포(유튜브) 인플루언서 협업, 크리에이터 양성 등
 - 다국어 SNS(5개 언어, 12개 채널)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웨이보 등 활용 콘텐츠 확산, 협업 이벤트 추진
- (시장별 특화마케팅)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모션 추진
 - 중화권(주력시장), 신남방(성장시장) 등 대상 국가별 특화 마케팅
 - Live 방송, 한류 콘텐츠, 포털·쇼핑 사이트 등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 마케팅 추진
 - 해외현지·온라인 매체 활용 관광객 유치 확대
 - 해외홍보사무소(6개소), 유력 현지 유관기관 등 연계 협업 마케팅 추진
 - 국가별 파급력 있는 OTA 선정 홍보, 비수기 대비 할인 프로모션 대대적 시행
 - 특화 콘텐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캠페인 적극 전개
 - 부산관광 결합상품 프로모션(2~5월) 및 여행주간, 이벤트 등 연계 관광객 유치 홍보

- (동남권 통합 마케팅) 거점 연계 관광으로 상생 발전·시너지 창출
 -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거점화를 위한 발전기반 마련
 - BI·슬로건 제작, 통합 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동남권 홍보·마케팅 추진
 - 유니버설 관광서비스 편의 제고
 - (편의 개선) 여행 편의성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고객 맞춤 및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포털 '비짓부산VISIT BUSAN' 고도화
 - 뉴스레터 운영, 여행큐레이션 강화, 이벤트 등 홍보활동 강화
 - 민간(OTA) 및 기관(기상·해양 등) 연계 정보 제공, 모바일 최적화 등 이용편의 제고
 - 관광안내소 시설·기능 개선 및 문화관광해설지 확대
 - (관광패스 개발) 관광자원 등 연계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 외국인 대상 부산거점 관광패스 개발(동남권 단계별 확대)
 - 기초 조사(1~6월), 패스 개발(7~12월), 판매 개시('22년)
- ④ 차별화된 부산관광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부산관광 콘텐츠 개발 주력
 - (Only-One 관광콘텐츠 개발) 생애 꼭 오고싶은 버킷 관광콘텐츠 개발
 - 부산의 7개 해안교량과 7개 해수욕장 활용 행운의 도시(럭키 세븐) 브랜드 디자인
 - 세븐브릿지 : 평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영도대교
 - '오이소 부산', '행운의 세븐브릿지'를 형상화한 관광기념품 개발(부산대표관광 기념품 사업 연계)
 -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등 부산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 원도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명소 구축사업,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
 - 시티투어버스 서부산권 노선도입 및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 권역별 특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부산 동구 '명란한 동구' 추진
 -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구축 및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10선 육성
 - 야간경관 명소, 야간체험 관광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대
 - '21년 1차년도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관광육성사업 부산테마로 연계 추진
 - 거제·통영·남해와 연계한 '남쪽빛 감성여행' 테마 사업 추진
 - 광역투어패스(부산↔거제·통영·남해), 광역투어버스 프로그램 발굴, 운영

□ 관광생태계 고도화

- (관광기업 육성) 관광업계 위기극복과 역량강화를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스타트업 Scale-Up 프로젝트 추진(20억 원, 5개사)
 - 단계별·맞춤형 관광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화(스타트업 → Scale-Up → 월드클래스 기업)
 - 코로나19 단계별 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추진(8.1억 원)
 - 코로나19 확산 및 종식에 따라 여행사 지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내용 전환
 - 부산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20.10.~'21.6., 3억 원)
-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글로벌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확립
 - 국제관광도시 및 관광마이스 대표 도시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15억 원)
 - 민간 주도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업계 종사자, 대학생, 전문가 등)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21년 상, 24.5억 원, 방역요원 총248명)
 -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 사업 추진('20.~'22., 26억 원)

⑤ 지속가능한 축제발전방안 선도

□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축제발전방안 마련

- (축제 패러다임 전환) 위드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축제 개최방안 마련
 - (형 태) 일상과 공존하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 대규모 집객·참여형 → 소규모·분산, 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병행
 - 유튜브·SNS 활용, 드라이브 인 등 다각적 축제모델 기획 및 안전한 행사 개최
 - 거리두기 단계별 정부방역지침 준수 및 지역축제 안전개최 모델 제시
 - (콘텐츠) 축제 테마별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 행사 성격별(공연·전시·푸드·종합형 등) 전략 및 시민참여 콘텐츠(공모 등) 개발
 - (채 널) 축제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바다축제, 록페스티벌, 불꽃축제 등 시 주최 대형축제 대상
 - 특정기간·장소에 대규모 집결하는 형태 대신, 새로운 방식의 참여공간 및 경험 제공
 - 사용자간 커뮤니티 조성 및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화
- (축제 경쟁력 강화) 지역축제 평가체계 개선, 글로벌 축제 육성
 - 전체 축제에 대한 평가와 환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 평가체계 일원화(단순화), 평가기준 정비(기획력, 자생력 강화 유도)

- 축제조직위원회 기능 개편 및 역할 제고
 - 조직위원회 → 축제 전문인력 양성, 평가기능 육성 등
- 계절별 대표 축제 육성 및 글로벌화 추진
 - 부산항 축제를 국제항만축제로 육성 / 봄(유채꽃), 여름(바다, 록페), 가을(불꽃), 겨울(북극곰, 트리)축제 육성
- 축제 캐릭터 및 아이템을 관광기념품으로 브랜드화 ▷ 불꽃, 유채꽃, 북극곰 축제 등
-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추천절차 개선 및 대표축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역축제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추천 및 글로벌 축제로 육성

⑥ 코로나19 위기극복 역량 강화 지원

□ 관광·마이스 생태계 위기대응력 제고

○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조성·운영) 대외 위기상황 발생에 취약한 업계 지원 및 육성

- 정치·외교·질병 등 외부환경 변수에 따른 관광마이스업계 피해 심각
 - MERS(15년)→사드배치로 인한 금한령(17년)→일본 수출규제(19년)→코로나19(20년)
- 위기대응 및 관련업계 긴급 지원을 위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조성(21)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조성목적) 관광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방안 마련
 - (기금용도) 관광마이스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관광사업자 및 전시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
 - (조성재원) 100~200억 원(시 출연금, 기부금, 기금 운용수입금 등)

○ (위기대응센터 설치·운영) 코로나19 피해업체 종합안내센터 상시운영

- 위기 상황 발생 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시책 안내로 적시적·효율적 대응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상시조직으로 구성·운영(21.상)
 - 정부 및 시 주요 시책 상시안내 및 금융·노무·법무 등 전문컨설팅 병행

○ (생태계 주체 간 정기협의체 운영) 상시·적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모색

-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적시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 부산관광협의체 운영 정례화(월1회, 업계·학계 등 현장전문가 중심)
 - 생태계 주체 간 오픈톡 운영 통한 수시 정보 공유 등
 - ▷ (구성) 부산시, 관광공사, 관광협회, 대학, 관련 업계 대표 등 실무협의체
 - ▷ (내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현장해결, 신규 정책아이디어 발굴, 정책효과 피드백 등

2) 세계적인 MICE 특화도시 부산 육성

① 부산 B-MICE 특화모델 기반 조성

□ MICE 생태계 경쟁력 강화

-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IT 기반 융복합 종합컨벤션 확대, 비대면 등 트렌드 반영
 - 행안부 타당성조사('20.6~'21.2),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21.5) 등 행정절차 이행
- (누리마루 APEC하우스 활성화) 버스킹 등 문화공연, 드라마·영화 촬영장소 활용
- (MICE 전문인력육성 및 청년일자리사업추진) MICE 인재육성 지원
 - MICE기업과 우수청년 매칭,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제공 >39억 (행안부)
 - 청년고용친화적 MICE생태계조성사업(177명), 청년 MICE TECH 전문인력 양성(10명)
 - MICE 성장사다리별 윈스톱 고용체계 조성사업을 통한 청년 인력풀 구성 >3.5억(고용부)
- (4차 산업형 MICE 강소기업 육성)(5억 원) >총사업비 31억 원('19~'23)
 - 기업 전문 컨설팅, MICE 유치 실무 역량 강화, 행사기반 스마트앱 개발 지원
 - MICE 전문인력 육성 교육 지원 및 MICE 시민아카데미, 온라인 홍보 등 인식 확대
-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개최지원) >7억, 전시회·회의 총15건 선정
 - 개최 확실(유망)행사 및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기획 사업('20년) 집중 육성
 - 행사장 임차료, 미팅테크놀로지 사용료, 마케팅·방역비 등 지원(건당 0.2~1억 원)

□ R&D 혁신을 통한 B-MICE 모델 확립

- (산학연 마이스 R&D 협의체 운영) 지역산업 연계 부산 대표 MICE 개발
 - MICE R&D 단계별(과제발굴·사업화·기술혁신 등) 협업 및 업계 자체 R&D 지원 확대
- (공모 수상작 사업화) 우수 MICE 콘텐츠 사업화 및 전시회 개최 지원
 - 2020 MICE 콘텐츠공모 수상작(73건) 사업화를 통해 발굴된 전시회 직접지원
 - 우수기획서 직접 사업화 또는 민간 전시회 개최지원, 부산대표 전시회 육성
- (MICE 전문전시회 개발) MICE페스티벌 기간 확대, 행사 다양화로 질적 확대
 - 2021 부산MICE 주간 운영('21.3월 4주차), 유관기관과의 협업 통한 성장지원

② 글로벌 MICE 유치전략 다각화

□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마이스산업 랜드마크로 도약

○ (1차년도 사업연계) 해운대 복합지구 전방위 홍보, 벅스코 시설경쟁력 강화

- 복합지구 브랜드(HAEVENUE)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타깃팅 홍보사업('21~'23)
 - (국외) 동북아 주요3국(중국·러시아·일본) 대상 / (국내) 서울·수도권 소재 국제기구·협회
- 벅스코 내 마이스 안내소 및 화상상담장·스튜디오 운영 활성화('20~'23)

○ (2차년도 사업방향) 해운대 복합지구만의 특징점 부각, 차별화전략 마련

- 복합지구 모바일앱(HAEVENUE) 개발로 마이스 행사운영 절차 간소화
 - 실시간 행사정보 제공, 현장등록 및 체크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참가자 조사·분석 등
- 유니크베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이스 참가자 개최지 경험 극대화
 - 복합지구 내 소재한 유니크베뉴 활용한 부대프로그램 진행시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 국제회의 유치/개최/협력 강화

○ (국제회의 유치·개최 강화) 주요 회의·전시회 맞춤형 유치전략 마련

- 한국마이스산업전(KME, '23.~'25.) 적극 유치 ▷ 마이스 도시 브랜드 강화
- 주요회의 의사결정권자 집중관리를 통한 국제회의 수요 지속 창출
 - 유치설명회 개최(협·학회 1, 기업인센티브 1), DB관리 및 네트워크 강화
- 참가자 맞춤형 유치개최 지원기준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 하이브리드 및 국내행사 지원기준 마련, 참가자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 (대내·외 협력 강화)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과 협업 활성화

- 市, 뷰로, 베뉴, KTO 등 마이스 유치·개최 협력 강화 ▷ 협업회의, 원스톱 행정지원 등
- 마이스 통계 전략적 대응 ▷ UIA 도시순위 관련 데이터 별도 발굴 강화, BTO·베뉴·조사기관 협업

□ 마이스 목적지 마케팅(Destination Marketing) 강화

○ (공동마케팅 활성화) 국제회의 개최 본격 재개 대비 온라인 공동마케팅 확대

- 국내·외 마이스 전문전시회 부산홍보관 공동참가(부산단독 2, KTO공동 2)

- (교류협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글로벌 마이스 네트워크 주도적 참여
 - UIA(국제협회연합)·ICCA(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참가, 글로벌 동향파악·정보교류
- ③ 부산형 의료관광 글로벌 신성장 프레임 구축
 -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기반 조성
 - (부산 메디컬 특화지역 중점 육성) 권역별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동부산 의료웰니스 클러스터 육성 ▷ 의료+웰니스 융합상품 마케팅 확대
 - 해양웰니스자원 발굴, 암요양 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중입자치료 상담센터 구축 추진
 - 서구 지역특화 의료특구 조성 ▷ 특구신청('21.3월,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특화사업(중증질환 중심) 발굴, 해외환자 게스트하우스 운영, 온라인 상담센터 개소
 - 서면 의료관광 특화거리 활성화 ▷ 글로벌관광 지역콘텐츠 발굴 육성
 - K-뷰티 상품개발 및 영상 제작, 복합(의료, 쇼핑, 문화)웰니스 투어 운영(FIT 대상)
 - (의료관광 서비스플랫폼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파트너십 확대
 -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를 통한 민간 의료관광 역량강화 지원
 - 의료관광 지원센터 구축(항만, 항공, 철도), 환자유치 해외 협력거점 확대(러시아)
 - 지역 의료관광 수용태세 개선
 - 국제 의료인증 지원, 해외환자 토탈케어 표준모델 개발, Pre-Post 환자관리시스템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 추진
 - (잠재 의료시장 개척) 글로벌 의료수요 변화 대응 신규 의료시장 개척
 - 온라인 기반 지역특화 의료기술 홍보 및 국제 의료교류 확대
 - 지역특화 의료상품 쇼케이스, 특화 의료기술 해외로드쇼, 환자초청 나눔의료(5명)
 - 온라인 의료세미나 개최, 온오프 의료MICE 참가, 부산 의료정보 매거진 발간(5개어권)
 - 온오프 플랫폼 기반 의료관광 마케팅 추진
 - 모바일 의료관광 상품설명회(2회), 에이전시 세일즈콜(3회), 의료상품 체험지원
 -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9월), SMS축제(10월), 부산 의료관광 해외특별관 운영
 -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 특화 의료상품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지역특화 의료상품 개발
 - 중증(암)치료 브랜드화(양·한방), 의료웰니스(체류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발굴
 - 온라인 원격진료센터 개소, 환자유치 통합서비스 지원(항공, 숙박, 컨시어지)

3)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① 시대선도형 엑스포 유치전략 추진

□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 추진

○ (특화된 콘텐츠·회장 구성) 부산지역 특색 및 팬데믹시대 맞춤 특화

- 시대 흐름과 트렌드 반영, 뉴노멀 엑스포 개최 방안 마련
 - 경계 없는 엑스포, 사이버(Virtual) 엑스포, 전 세계인 참여 프로젝트 발굴 등
- 지역성, 개발 여건 등을 반영, 부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부산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최대한 반영

○ (탄력적 유치활동 전개) 단계별, 타깃별 전략

- (유치신청 前後) 여건변화 신속 대응 및 탄력 추진 ▷ BIE 및 경쟁국 동향 등
- (유치신청 後) 타깃 국가별 맞춤형 교섭활동 ▷ 개발도상국, 우호국 등

□ 실질적 유치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향후 유치의 실질적 주체 역할('21.상.)

- 市 상의와 연계, 정부와 적극 협력, 글로벌기업 참여 등 유인전략 마련
- 중앙유치위원회와 범시민유치위원회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정부·광역지원 체계구축) 정부 유치지원체계 구성 및 지지 선언 등('21.상.)

- 정부유치지원위원회(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유치지원특별위원회(국회, 시도의회 등)

○ (광역 차원 우호세력 확보) 동남권·영남권 발전협의회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② 범국민 유치 붐업 및 지지세 확산

□ 대국민 붐업 활동 강화,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확대

○ (유치열기 확산) 행사 및 각종 매체 활용, 유치 공감대 확대

- 범국민 붐업 이벤트 개최 및 전국 단위 홍보 강화
 - 유치 신청 기념 결의대회, 걷기대회 등 참여 행사('21.하)
 - 전국 단위 각종 행사 연계, 찾아가는 엑스포 홍보관 운영(상시) 등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지지 공감대 확산
 - 언론 기획시리즈 보도, 라디오 광고, TV 인기프로그램 연계 홍보 등
 - 주요관문·다중매체 홍보 확대(서울역, 부산역, 김해공항, 도시철도역, 사직야구장 등)

○ (바이럴 홍보) 흥미 유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중적 감성 타깃 홍보강화

- 인플루언서 등 협업 ▷ 콜라보 콘텐츠 제작 등 바이럴 홍보 강화
- 기업·스포츠팀과 협업 ▷ 유치응원 캠페인 추진 및 홍보 굿즈 제작
- 톡톡튀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콘텐츠 ▷ 2030유튜브 홍보단 선발·운영 등

□ 정부와 협력, 해외 유치홍보 활동 본격 전개

○ (해외홍보 확대) 정부와 협업, 해외 교섭 및 홍보 강화

- 시기별 민관 유치사절단 파견 ▷ 유치 신청서 제출, BIE 파리 총회 등
- 유치 네트워크 확대 ▷ 해외 관계자 초청 행사, 국제컨퍼런스('21.하) 등

○ (2020두바이 엑스포 연계) BIE 회원국, 엑스포 방문객 홍보('21.10.~'22.3.)

- 한국관 활용 및 한국의 날('22.1.16.) 연계 홍보
 - 정부, 별도 홍보관 설치 확보시 전용 홍보 콘텐츠 설치·운영 추진
- BIE 및 각국 관계자 초청행사 ▷ 공식만찬 등(정부 합동)

③ 입지경쟁력 강화로 유치경쟁 우위 확보

□ 유료사이트 확대를 통한 개최부지 경쟁력 강화

○ (55보급장이전 본격 추진) 개최부지 포함, 유료구역* 확대, 유치약점 해소

- (여건) ① 미 55보급창 주출입구 주변에 위치, 장애요인으로 작용 예상
 - ② 아시아권 3연속 개최로 비슷한 규모의 유치계획 경쟁력 부족
- * 유료면적 200만㎡(현재 161만㎡) 이상 바람직(BIE관계자, 박람회 컨설턴트 등) 유럽, 미주 국가 등 대규모 면적(관람객 4천만 이상) 유치 추진시 경쟁력 부족
- (대응방안)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고위급정책협의회 구성* 등 총력 추진
 - *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 (유료사이트 확장 등) 유료구역 확장과 콘텐츠 차별화 전략 병행 추진

- 플로우팅 전시관 등 공유수면을 활용한 유료구역 확장방안 적극 검토
- 산업부와 협업하여 주제 및 콘텐츠 개발 등 마스터플랜 차별화 집중

- 개최 부지 주변사업 연계를 통한 도시 인프라 개선
- (유치경쟁력 강화) 도시 경쟁력 제고로 유치경쟁 우위 확보
 - 가덕신공항 건설로 공항, 항구, 철도를 갖춘 최적의 입지경쟁력 확보
 - 24시간 운영가능한 국제공항이 없어 해외방문객 접근성 부족 등 입지경쟁력 약점
 - 북항통합 재개발사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오페라하우스 박람회 유산(legacy)으로 사후활용 방안·강구
 - 마스터플랜(안)에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기본계획 반영
 - 광역교통 확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SOC 확충
 - 층상지하차도, 승학터널, 도시철도(우암선, C-BAY PARK 선) 등
 - 부산 대개조와 연계한 엑스포 활용 구상사업 발굴
 - BIE 도시재생 이념에 부합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가능한 사업 추진

4)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관광도시 구현

①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신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 (수륙양용 투어버스 도입) 신개념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해양관광 특화
 - 해양과 하천을 접한 부산의 장점을 활용,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부산 수륙양용 투어버스’ 도입
 - 수영강 노선 연내 도입(3대), 관련 지침 개정 및 노선 확대(광안리 등)
 - 사업자 선정(‘21. 2.), 수영강 진·출입로 조성(‘21. 3. ~ 10.), 시범 운항 및 도입(‘21.12.)
 - (해상택시·버스 도입) 해상교통과 관광을 접목한 신 해상관광교통망 구축
 - 출퇴근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새로운 해상교통 체계와 해양관광을 접목한 해상(수상) 버스/택시 도입
 - 부산역(북항)을 중심으로 동부산, 서부산을 아우르는 신 해상관광교통망 구축
 - 시범노선* 우선 도입 후 순차적 노선 확대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규제개선(‘21. 상), 개발방식 결정·시범노선 추진(‘21. 하)
- * 해상버스 : 부산역-해양박물관-오륙도-용호부두-해운대-오시리아
 * 해상택시 : 해상버스 터미널간 이동, 자갈치-송도, 자갈치-영도 구간 우선 시범 실시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해양관광 프로그램 발굴) 해양레저, 레포츠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 해양레저·레포츠 테마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계절 해양관광객 유치
-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해수욕장에서 펼치는 신개념 해양레저 공연 운영
 - 2021. 시정협치 사업 제안, 청년이 만드는 신개념 해양레저 상설공연(100백만 원)
- 사계절 해양레포츠 테마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영장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레포츠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70백만 원)

②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 저변 확대

○ (다양한 해양레저 대회, 행사 개최) 국내·외 다채로운 해양레저이벤트 개최·유치

-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남해안컵 국제 요트대회' 공동 개최
-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부산국제보트쇼
- 무관중, 선수 중심 경기 개최 : 아시아세일링페스티벌(슈퍼컵, 시장배 요트대회)
- 방역지침 준수, 안전한 행사 추진 : 부산항축제, 국제해양레저워크 등

○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관심 유도

- 구·군 공모 통한 특화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선정·상시 운영체계 마련
 - (딩기)요트, 서핑, 카누, 조정, 카약, 카이트 보딩 중 전략적 양성 종목 선정, 육성

□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

○ (유람선 관광 활성화) 해양레저행사, 시티투어 등 연계 관광자원화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주변 환경 개선
 - 외부 경관조명 설치, 내부 리모델링, 선착장 수용태세 개선, 안전펜스 미관 개선 등
- '용호만 매립부두 주변 재개발 계획' 관광자원화 전략 협의
 - '용호부두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른 친수공간, 교통수단 집적지 등 조성
- 남항 유람선 선착장 편의시설(그늘막) 설치
 - 승선장 입구에 비, 폭염 대비 탑승객 편의시설 설치, 원도심 관광 활성화
- 유람선 연계한 '부산패스포트' 통합 패키지상품 홍보
 - 시티버스, 부산타워, 다누비, 다이아몬드베이와 용호만/남항/수영강 유람선 연계

○ (크루즈 관광 활성화) 크루즈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

-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 수립
 - 크루즈산업 증장기 정책방향, 크루즈선 기항확대 및 모항 유치 방안 등 마련
 - '잇츠더십 코리아' 부산 유치, 부산항을 모항으로 '20~'24(5년) 정기운항 협약
 - * '20년 코로나19로 운항 취소, '21년 용선 규모 확대(53천톤→110천톤) 운항
- 국내 연안크루즈를 통한 안심여행 인식 제고 및 신규수요 창출
 - 국내 주요 기항지(속초-부산-여수-목포-서산 등) 지자체 공동 노선 개발 추진

③ 해양레저관광 성장기반 조성

□ IT 기반 사계절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 (스마트 안심비치 구축) 첨단기술 활용,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확보

- 사계절 안전한 해수욕장 구축 운영
 - 7개 해수욕장 지능형 CCTV 설치로 사고위험상황 자동감시 및 경보 송출('21~'23, 15억)
 - 상시 전문 안전요원 배치, 폐장기간 야간입욕 제한법령 정비
 - 시·구, 해경, 소방, 관할보건소 등 합동으로 '해수욕장 현장대응반' 구성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 확대
 - 파라솔 현장배정제, 혼잡도 표시제 등 대면접촉 최소화 운영
- 해양레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레저 안전플랫폼' 구축
 - '21년 정부 제안사업으로 국비 확보 추진(BISTEP 협업, '21.~'26., 500억)

□ 해양레저 거점도시 기반 조성

○ 마리나 인프라 체계적 확충

-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19.~'23., 480억, 우암부두 내, A=20,158㎡)
 - 설계공모('20.3.~6.), 실시설계용역('20.10.~'21.8.), 공사 시행('21.~'23.)
 -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 임대료 감면 협의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08.~'24., 전액 민자, A=234,516㎡)
 - 실시협약 변경(안) 접수('21.상), 민자적격 및 수요예측 재조사 검증('21.하)
 - 조망권 침해, 공공성 확보 등 민원해소 방안 마련
- 해운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15.~'25., 국비·민자, A=124,08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7.), 실시협약 체결('16.11.), 사업계획서 제출('19.12.)

- 사업대상지 적정성 검토, 라운드 테이블 구성·운영으로 갈등 조정
- 북항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건립('20.~'22., 전액 국비, A=1,000㎡)
- 북항 재개발 실시계획 반영('20.9.), 설계완료('21.상)
-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40명, 43백만 원)
- * 1단계('17~'19) 8개 과정 397명 수료, '20년 4개과정 47명 수료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부산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2013.01.01.	2021.10.01.	관광진흥과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광지의 효율 운영과 관리	2021.03.24.	2021.03.24.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기반 마련	2021.12.29.	2021.12.29.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사업 지원·육성	2011.06.08.	2021.12.29.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2015.09.23.	2015.09.23.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광관련 사업 및 산업 활성화	2021.01.13.	2021.01.13.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2016.09.04.	2021.05.26.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2016.01.01.	2016.01.01.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2009년 11월 14일 부산시 중구 신창동에 소재한 사격장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2009.12.30.	2019.07.10.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	2012.09.09.	2017.09.27.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2021.12.29.	2021.12.29.	마이스산업과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이스산업 육성	2014.02.02.	2021.08.1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료관광 활성화	2009.12.30.	2020.07.15.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	2011.11.02.	2011.11.02.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벙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벙스코 설립 및 운영	2015.05.27.	2022.04.13.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2030부산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2015.10.24.	2019.07.10.	2030엑스포 추진단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크루즈산업 육성	2016.01.01.	2021.07.07.	해양레저관광과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2016.11.02.	2017.12.02.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에 따른 내용 삭제 및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기 현실 반영	제2조(사업) 제5호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사업' 삭제
		제10조(예산편성)	"예산편성"의 처리 기한 변경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사업 지원 범위 확대	제6조(보조금)	제1항제7호 신설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접근가능한 보행 및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명	관광환경→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제2조(정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등 정의 추가 규정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추가 규정
		제4조의2(대상시설의범위등)	대상시설의 범위 등 규정 신설
		제5조(위원회의설치)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 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규정 정비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및 조문 일부 개정	제11조(재정지원) 제1항	인용조문 수정 (제7조→제10조)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항	인용조문 수정 (제7조→제10조)
		부칙 제2조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안목적 : 부산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여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제1조(목적)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정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관리대상)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
제4조(책무)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	제10조(인센티브)

○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 입안목적 : 부산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 육성

제1조(목적)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정의)	제7조(지원 사업)
제3조(책무)	제8조(재정지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10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 조례명: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부산시는 기금조차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1조(목적)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위원의 해촉)
제5조(지급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1조(수당)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준용)
	제13조(시행규칙)

○ 조례명: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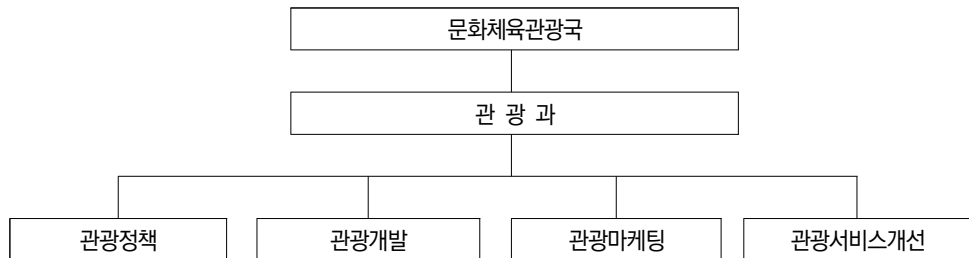
- 입안목적 :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해서 영향을 받는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일자리, 소득증대 사업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제1조(목적)	제5조(지원사업)
제2조(정의)	제6조(예산확보)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상생노력)
제4조(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지정)	제8조(위원회 설치)

3. 대구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이하	연구직	계
정 원	1	5	9	7	-	22
현 원	1	4	10	6	-	21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30,400	22,506

주) 2022년도 추경1차, 성립전예산 추가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2019년까지 대구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71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구 국제공항 해외 직항노선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현지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은 불가능하였다. 기존 대면으로 추진되어 오던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세

일즈콜 등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반면, 그 대안으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대구 랜선여행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SNS 채널(9개) 운영을 비롯하여 국가별 대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였다. 대구관광산업 붐업조성을 위해 2021 대구 K-POP 콘서트와 연계하여 대구 한류페스타를 비대면으로 개최, 해외 한류팬을 대상으로 잠재관광수요 확보에도 힘쓰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춘 언택트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구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해외관광객 본격 방한을 대비하여 기반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인바운드 여행사의 자체 경쟁력 확대를 위한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을 위한 사업과 인바운드 전담 관광안내통역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대구 인트라바운드 관광시장정책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재도약을 돕고,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관광상품 판매 지원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등 여행 트렌드에 맞는 시의적절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였다.

대구관광 정보 제공과 관광콘텐츠 홍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 여행정보 소통으로 대구관광 공식블로그 '제멋대로 대구로드'를 적극 활용하여 사계절 변화하는 대구의 모습과 기억, 쉽고 즐거움이 있는 관광지 등 유익한 여행정보를 제공하였다. 관련 성과로 '제14회 대한민국소셜미디어 대상 지역관광부문에서 '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 제11회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분야 '최우수상'(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5년 연속 2개부문을 동시 수상하였다.

또한, 대구와 경북의 관광자원(유교·가야·신라문화권, 생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3권역(대구·안동·영주·문경) 선비이야기여행 사업추진 등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서문시장(2회 연속), 팔공산(2회 연속), 수성못이 선정되었다. 또한, 2020년부터 선정된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김광석 길, 서문야시장, 아양기찻길, 수성못, 옥연지 송해공원 등 11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홍보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21년 6~7월/2개월간 중앙언론사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산 팸투어, TV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대구관광을 홍보하였다.

MBC Every1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스펀오프⁴⁴⁾인 ‘빌푸네 밥상’(2021.7.8.~8.27. 매주 목/70분 방송) 유치를 통해 대구10味(동인동집 갈비, 납작만두 등), 한류드라마 촬영 관광지(청라언덕, 앞산전망대 등) 중심 방송노출을 통해 대구관광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언론사 여행기자, 파워블로거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언론 매체, 블로그·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구관광을 홍보하였다. 전국을 테마별로 10개 관광권역으로 선정하여 관광객 동선에 따라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코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으로 대구·경북 선비이야기여행 3권역(대구·안동·영주·문경)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플랫폼활용 홍보활동 및 판매(판로개척)지원으로 ‘2021 라이브커머스’ (총판매 1,648건, 누적시청자수 767,345명) 추진, 2021 대한민국 숙박대전 ‘대구는 날’ 추진으로 5만원권 특별숙박쿠폰 발급(2,234명 참여)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 지원하였다. 단체관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관광객 유치를 프로그램으로 ‘두근두근 대구 챌린지 투어’(13,929명참여), 친환경 여행캠페인 『Green Daegu』(197명 참여), ‘향촌 르네상스 시즌2’ 대구역 랩소디 투어(512명 참여)를 진행하였다.

○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및 대표 관광코스 개발

-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 : 지역 관광명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광자원 발굴
 - 1회차(국채보상운동과 대구시민정신), 2회차(K팝), 3회차(K푸드), 4회차(K컬처), 5회차(K드라마), 6회차(K의료), 7회차(K게임), 8회차(K뷰티&패션)

○ 시티투어 및 근교권 투어 운영

- 문화유산과 관광지 연결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 시티투어 버스(12개소 도심순환, 6개 테마코스). 대구 근교권 투어(22개 코스)
- 대구시티투어 : 1,799회 / 6,914명 이용
- 대구근교권투어 : 52회 / 854명 이용

○ 관광안내

-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방문객 : 내국인 111,110명, 외국인 6,293명)
 - 관광정보센터(1개소, 4명) : 영어 2, 일어 1, 중국어 1
 - 관광안내소(6개소, 22명) : 영어 10, 일어 5, 중국어 7
- 관광 안내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운영

44) 기존의 영화, 드라마, 게임 따위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 대구방문 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정보
 -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 2대 설치,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2개소
- 교통
 - 도시철도 6개역 다국어 관광안내·방향 표기 개선(63개)
 - 택시 미디어바 활용 대구관광 홍보(대구택시 1,000대, 수도권택시 1,200대)
- 쇼핑
 - 친절여행상점 선정(20개소),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지원(22개소)
 -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시범)사업(모바일 웹 기반의 쇼핑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맹점 100개소 확충, 가상피팅 키오스크 3개소 설치)
- 숙박
 - 숙박 관광지도 제작(관광호텔 8개소 대상, 2만부)
 - 관광숙박업 대구관광 홍보 영상물 구축(10개소)
- 식당
 - 다국어 음식메뉴판 제작지원(112개소), 한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사 지원(4개사)

○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언택트 관광 마케팅 추진)
 - 동영상 플랫폼 활용 대구관광 랜선홍보 영상 139개 콘텐츠 제작·지원
 - 지역 여행사 대상 대구 전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지원(21명)
- 대구 전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지원
 - 취업취약계층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32명 교육생 중 15명 합격)
- 관광항공 협력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마케팅 추진
 - 대만·베트남 현지 대구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대표 공연관광 콘텐츠 발굴 및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화 지원
 - 대구·경북 농촌관광 콘텐츠 활용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 외교부 공동 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대구관광 홍보 추진
- 국가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추진
 - 일본·대만 대구관광 온라인 라이브 랜선여행 상품 누적 조회수 114,451회 달성
 - 중국 온라인 플랫폼 마펑위(mafengwo) 연계 대구관광 웹드라마형 랜선여행 조회수 298만 달성
- 해외 대구관광홍보사무소 운영 : 3개소(중국 청두,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구분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중국 청두
개 소 일	2016. 4. 14.(목)	2016. 9. 12.(월)	2016. 8. 1.(월)
관리지역	대만 전 지역	도쿄, 오사카 등 전지역	중국 서남지역
관리부서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한국관광공사 청두지사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여행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세일즈콜 추진 - KTO타이베이지사 공동 지방 공항 홍보 로드쇼 참가 - 대구관광 붐꽃 유튜브 팸투어 및 국제마라톤대회 SNS 홍보 (조회수 96,047회) - 대구의 달 홍보 및 춘계여행 체험형 강좌 개설(228명) - 대구시×한국관광공사×롯데 면세점 공동 집콕 한국나들이 이벤트 추진 - 대구시-타이베이시 대중교통 매체 활용 관광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TA 웹세미나 활용 대구관광 홍보 및 뉴스레터 발송 - JATA투어리즘엑스포·JOTC 웹 세미나·JATA트래블마트 참가 - 한국관광공사 공동 KOREA 페어 in 도쿄·오사카·후쿠오카 개최(4회) - 해외 현지 여행사 대상 '대구를 응원하고 싶다' 화상회의(ZOOM) 개최(3회) - 대구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 대구관광 홍보 홈페이지 제작·개설 및 콘텐츠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제주 공동 중국 FIT관광객 유치 홍보설명회 개최 - KTO청두지사 공동 사천성대외 우호협회 플랫폼 활용 대구관광 사진전 개최 - 2021 광저우 '한중 문화교류의 달' 행사 개최 - 한국관광공사 공동 '2021 한류 문화축제' 개최 - 2021 서남지역 기업회의&인센티브(MICE) 해외 유치 설명회 개최 - 중국 쓰촨국제자유교역박람회·청두 경제무역혁신 포럼 행사 참가

- 해외 온·오프라인 대구관광홍보 활동 강화

- 국가별 온라인 SNS채널 운영을 통한 대구 관광 콘텐츠 홍보

국가	언어	채널	주소	누적 방문자
중국	중문간체	웨이보	weibo.com/daegutour	302,150
		웨이신	dgtouch@gmail.com	10,300
		마핑위	www.mafengwo.cn/u/62540989.html	1,481
일본	일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gutour.jp	14,625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aegutour_jp/	7,902
대만	중문번체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gutour.cht	35,792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aegutour_tw/	13,828
영어권	영어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guTravel	29,799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aegutour_eng/	10,923

- 한류활용 홍보마케팅

- 한류활용 홍보 채널

제작 프로그램	송출채널	편수	프로그램 노출
도달쑤&뿌까 콜라보 대구관광 방송광고	KBS	1편	기간 : '21. 11.22~12.24(1개월간, 63회) KBS 1·2TV 대구·경북권 송출
	TBC	1편	기간 : '21.11.25~12.24(1개월간) 1일 3~4회 이상 송출(총 100회 이상)

- 대구·경북 공동 태극 드라마 ‘프라우묵’ 제작 지원 및 태극 CH3현지 송출
- 여행사 네트워크 관리 및 관광시장 동향 분석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해외 주요 관광시장 동향 및 실태조사 실시(6개국, 976명)
 - 지역 관광사업체 대상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할인 쿠폰 사이트 운영 확대

○ 테마가 있는 관광콘텐츠 보강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사업 추진
 - 대구·경북 웹드라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제작 홍보(158만회 조회수 달성)
 - 대구·경북 테마 홍보영상 3편(판소리 및 선비) 제작 홍보(KTO 해외지사)
 - 관광 특화 지역창작자 양성(15개팀, 44명) 및 모바일 게임 개발(9종)
 - 대구·경북 여행자플랫폼 구축 및 체험상품(3종) 개발 운영

* 2021. 11. 18. ~ 12. 12. / 24일간(721명 참여, 대구 206명)

○ 국내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추진

- 관광 영향력자 팸투어, 미디어취재 지원 지속 추진
 - 여행사, 언론사 여행기자, 파워블로거 대상 팸투어 실시 및 언론 매체, 블로그·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구관광 홍보
 - MBC Every1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스펀오프 인 ‘빌푸네 밥상’(2021.7.8.~8.27. 매주 목/70분 방송)에서 대구10味(동인동짬 갈비, 납작만두 등), 한류드라마 촬영 관광지(청라언덕, 앞산전망대 등) 중심의 방송노출을 통해 대구관광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언론사 여행기자, 파워블로거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언론 매체, 블로그·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구관광을 홍보하였다.

대 상	일 시	인원	실 적
SBS라디오, 서울신문, 네이버TV 등	21.3~12월	7회	• 라디오, 신문, 매거진 취재 지원 총 7회
중앙언론사 기자초청 팸투어	21.6~7월	13명	• 동아일보 등 13개사, 비대면 여행지 대구, 위드 코로나 시대 인싸 여행지 등
한국관광공사 SNS취재단 초청 팸투어	21.10.8.~10	20명	• 한국관광공사 SNS기자단 초청, 총 50개 온라인 콘텐츠 생성 홍보

○ 대구관광 블로그 ‘제멋대로 대구로드’ 운영 실적

- 제1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 ‘지역관광부문’ 7년 연속 대상 수상
- 제11회 대한민국SNS대상 ‘관광분야’ 최우수상 수상 5회 연속 수상

○ 대구관광 SNS 대학생 기자단 운영

- 인원 / 활동기간 : 25명(내국인) / 2021. 5월 ~ 12월
- 활동내용 : 대구의 명소와 숨은 여행지 등 콘텐츠 발굴하여 블로그 콘텐츠 189건, 영상 콘텐츠 72건 제작 및 SNS공유활동 400회 등 SNS로 대구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홍보
- 활동이 우수한 기자를 선정(5명)하여 대구광역시장상(1명) 등 수여

○ 대구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강화

- 중앙 일간지 활용 대구관광지 홍보(5회)
-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대구·경북 캠핑 플레이 페어, 102회 전국체육대회, 대구관광 홍보관(3회) 운영
- 2021년 대구 대표 축제(행사)

축제(행사)명	일시(기간)	내 용
경상김영풍속재연 (상설공연)	11. 13. ~ 11. 20. (매주 토, 일)	400년 전 경상김영 풍속재연 (수문장교대의식, 경점시보의식 등)
대구포크페스티벌	9. 20	비대면 온라인 포크송 공연(19개팀 22명 참가)
대구힐링공연예술제 '호러와 함께' (前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7. 30. ~ 10. 31.	소극장 연극공연(21개팀 23개 작품)
대구국제재즈축제	10. 6. ~ 10. 11	비대면 재즈공연(지역밴드 등 14개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9. 10. ~ 11. 7.	메인오페라, 소극장 오페라, 온라인 오디션 프로그램 등
대구생활문화제	11. 19. ~ 11. 21.	생활예술동호회 공연 및 전시, 구·군 생활문화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 18. ~ 7. 5.	국내 우수 창작뮤지컬 공연, 덤프 어워즈, 덤프린지
대구국제패션 문화페스티벌	12. 6. ~ 12. 12	디자이너패션쇼, 패션 및 예술 콜라보 공연 패션쇼 연계형 이커머스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2,335	2,970	27.2
	기타여행	1,174	1,037	-11.7
	총계	3,509	4,007	14.2
외래관광객 수		103	48	-5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⁵⁾

위드 코로나 시대,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도시관광 1번지, 대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도시관광 1번지, 대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추진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관광산업 체질 혁신화 △ 국내·외 관광시장 전략화 △ 관광인프라 지역특성화 △ 관광수용환경 글로벌화 △ 관광산업 도약화이다.

첫째, 관광 활성화와 관광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광산업 체질 혁신화이다.

미래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콘텐츠로 메타버스 대구여행 가상체험관을 조성하여 대구만의 특색있는 로컬 브랜드 전략을 추진한다. '비상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관광위기상황 발생시 지역 관광업계가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소규모 영세여행사 통합 협동조합화 및 민간부문 관광사업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자생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관광 통합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광시장 전략화이다.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특색있는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추진과 해외여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관광 재개 시점에 따른 해외 권역별 타겟 마케팅을 본격화하여 해외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대구여행 미션트래블 마케팅과 근거리 중심의 관광코스

45)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경상권과 광주 등 전라권과 연계한 광역 루트 개발에도 힘쓰겠다. 2022 세계가스총회와 연계하여 대구시 홍보관 운영과 총회 참가자 옵션형 체험투어 상품 운영 등 'Re-Visit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대구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지역특성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의 선호 관광지가 변화되어 도심 외곽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앞산 관광명소화,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대봉 배수지 물 문화공원, 팔공산 관광활성화 사업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KTTP사업의 대구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대구공항 입국부터 관광객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제공하는 관광서비스 체계를 2022년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광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관광수용환경 글로벌화이다.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다국어 메뉴판 확대, 즉시 환급 사후면세매장 확충 등, 안내, 교통, 쇼핑, 식당 등 모든 분야에서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대구클래식 및 대구힐링 투어 코스를 포함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대구의 문화·역사 체험과 도시를 벗어난 특색 있는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광산업 도약화이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창업스쿨 운영, 로컬 가이드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관광스타트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인바운드 스타여행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역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사업체 대상 라이브 커머스 활용 지역관광상품 판매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구형 뉴 관광산업 생태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1) 관광산업 체질 혁신화

○ 미래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콘텐츠 육성

- 메타버스 대구여행 가상체험관 조성

- 대구여행 가상 체험관(관광상품관 운영/ 라이브 커머스)

* 관광명소 : 관광지, 쇼핑, 음식 등 3D map 소개 및 관련 사이트 링크 연계

* 교통망 : 공항, 동대구역, 지하철 등 전체 map에서 동적으로 지역을 연계

- 대구 컨퍼런스관(한국형 건축물 형태)
 - * 관광업계 등 화상회의 활용공간 조성(회의자료 다운로드 및 홍보영상 Play)
- 공연관(Beyond Stage)
 - * 오페라, 뮤지컬, 국악, 재즈, 아이돌 공연 등(라이브공연, 동영상 등)/각종 축제, 공연 사전 홍보 기능 역할

○ 관광상황 비상위기 조직체계 구축 및 관광 자생력 강화

-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비상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상설)
 - 관광 위기상황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소규모 영세여행사 통합 협동조합화(중대형화)
 - 대형 여행사와의 경쟁, 급격한 관광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한 영업 환경 개선
 - * 대경관광클럽협동조합('21.5월/ 11개 업체)
 - * 대구여행사 협동조합('21.8월/ 124개 업체)
- 민간부문 관광사업 역량 강화 등 미래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업계 체질 혁신
 - 대구관광협회의 대구투어패스, 캠핑카 대여 사업, 전국캠핑대회 개최 등 자체사업 지원

○ 관광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수요자별 맞춤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관광서비스 제공
 - 관광객수, 국적·관광명소·시간대별 관광행태 및 소비특성 분석 등 활용
 - 내외국관광객 행태분석(민간데이터) + 스마트관광 고객행태분석(스마트데이터)
 - 지능형(AI) 관광특화 융합모델 생성으로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분석 제공
 - * (민간데이터) 이동통신, 신용카드, 소셜미디어 등 방문자수 이동행태 분석
 - * (스마트관광데이터) Wifi, 앱, 1330 채팅 등 스마트관광 고객 유형분류 및 여행행태 분석

2) 해외관광시장 활성화 전략

○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관광마케팅 추진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는 언택트(On-Tact) 마케팅 집중 추진
 - 해외 주요 관광시장 대상국 특성을 반영한 해외 SNS 홍보 강화
 - 해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구 랜선여행 확대
- 코로나19 완화 국가 중심으로 선제적 수요확보를 위한 선택적 마케팅 추진
 - 'K-방역 선도도시, 여행하기 안전한 대구' 홍보를 위한 안심관광 모범상품 개발·운영

- 코로나19 소강 시 본격적 붐업(Boom-up) 마케팅 실시
 - K-팝 콘서트 개최 및 대구한류관광 상품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주요 관광시장 국가와의 관광 교류를 위한 국제포럼 등 개최 추진
- 대구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다변화 지속 추진
 - 현지 방송프로그램 및 교통매체 등 활용 대구관광 홍보
 - 한류 콘텐츠(K-팝 콘서트 등) 활용 마케팅 강화
 - 현지 대구관광홍보사무소(중국 청두,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운영
 - 대구국제트래블마트 개최(10월)로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지역 인바운드 관광경쟁력 제고
 - 지역 인바운드 관광업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 전담 인바운드 스타여행사 육성
 - 인바운드 관광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대외여건 및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 국내관광시장 활성화 전략

- 워드 코로나, 일상회복과 함께 도약하는 대구관광
 - 단체 및 FIT 유치(인센티브 지원), OTA 투어상품 및 군위편입 숙박 상품 개발
 - 대구관광 홍보설명회 및 세일즈콜 추진, 온라인플랫폼(라이브커머스)활용 지역관광상품 판로 개척 지원, 개별관광객 유치 '모바일 챌린저 투어', 대구여행주간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으로 즐기는 대구관광
 - 대구관광 SNS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다양한 유튜브 신규 제작 및 공동 브랜드 발굴
 - 관광전문 온라인 기자단 활용 마케팅 강화, SNS, 유튜브, 여행플랫폼 연계 확산
 - 여행전문 미디어, 매거진, 오프라인 언론방송 등 연계한 미디어 취재 지원 등
- 대구관광 브랜드 강화
 - 교통매체활용 홍보, 대구관광 홍보관 2회 이상 운영
 - 관광콘텐츠 홍보(기념품 및 홍보 책자 등)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공모·평가사업 적극대응 및 마케팅 추진
 - (코레일) 내일로(RAIL路) PASS 연계 개별관광객 유치
 - (대구은행) 대구경북관광지(대구 19개소, 경북 36개소) GPS기반 모바일 스탬프투어 지속

4) 관광인프라 지역특성화

○ 단기사업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지원(1개소, 50백만 원)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43개소, 100백만 원)
-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3개소, 90백만 원)

○ 중·장기 사업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2016~2022년/170억 원) : 대구·경북 공동추진
 - 3대 문화권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통합형 관광기반 구축
- 앞산관광명소화 사업(2017~2022년/490억 원)
 - 앞산 전망대, 노후시설 리모델링, 탐방로 정비, 앞산 자락길 및 진입도로 정비, 숙박시설 등
-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2016~2022년/396억 원)
 - 화원유원지와 도동서원의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개발 등
- 봉무섬표 공원 조성(2023~2026년/140억 원)
 - 전망대 및 산책로, 힐링공간 조성, 곤충테마 공간 조성 등
-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2023~2025년/90.5억 원)
 - 수상공연장 조성

5) 관광수용환경 글로벌화

○ 관광안내·정보 분야

- 관광교통거점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다국어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확대
- 주요관광지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 관광호텔내 관광안내키오스크 개선 및 설치
-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확대(동성로관광안내소, 대구공항 관광안내소)

○ 쇼핑 분야

- 친절여행상점 선정 및 홍보
- 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고도화 사업 지원

○ 교통 분야

- 시내버스 승객용 안내기 기능 개선 및 교체, 다국어 노선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 다국어 노선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주요교통접점 관광안내·표기 개선

○ 숙박 분야

- 관광호텔 대상 숙박관광지도 리플릿 제작
- 관광숙박업 대구관광 홍보 영상물 확대

○ 식당·음식 분야

- 다국어 메뉴판 지원, 위생·편의용품 등 배부

○ 환대 분야

- 관광 접점분야 종사자 '환대실천 교육' 지원

6) 관광산업 도약화

○ 대구 관광히어로 군단 양성

- 지역 대학 관광관련 학과 연계 글로벌 창업스쿨 운영
 - 학점 연계 인센티브 제공,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관광분야 기업 인턴십 지원
 - 대구 로컬가이드 양성
 - 취업 취약계층(다문화, 경력단절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아카데미 운영
 - * 자격증 취득교육 과정 무료 수강(교재비, 시험 접수비 등 무상 지원)
 - * 지역 여행사 인력 지원을 통한 실전 역량강화 및 인바운드 여행업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글로벌 스타 관광벤처기업 육성

- 관광스타트업 기업 고도화 지원
 - 기업 맞춤형 All-in-one 지원 생태계 구축
 - 기업 발굴>진단>육성>사업화>후속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생태계 구축
- 대구 전담 인바운드 스타여행사(Daegu Star Travel Agency)
 - 여행트렌드 변화 맞춤형 상품개발·운영 여행사 선정 및 육성 지원
 - 테마별(개별, 비대면, 무장애) 및 산업별(뷰티, 웨딩) 대구 특화 상품 개발
 - * 관광업계 신규 일자리 창출, 공정여행 등 지역 선순환 기반 마련

○ 대구형 뉴 관광산업 생태계 모델 구축

- 지역 관광업계 관광상품 판매 및 컨설팅 지원
 - 관광사업체 대상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역관광상품 판매 지원
 - 소규모 클럽투어, 랜드사 연계 개별맞춤형 관광상품 서비스 제공
 - * 코로나 이후 외래객 유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고품질 관광상품 사전 개발 지원
 - * 대구투어카드 연계 캠핑카·교통·쇼핑·유료관광지 할인 혜택 인센티브 지원
- 여행상품판매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
 - 숙박, 교통, 지역 관광 스타트업 상품, 기존 여행사, 소셜커머스, 온라인 상품 등이 연계되어 관광정보에 대한 상품들이 생산→유통→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1:1 맞춤형 선순환 판매 지원 시스템 구축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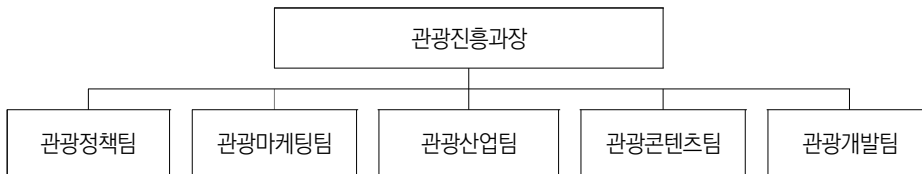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	11.12.30.	20.10.30.	관광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20.07.10.	20.07.10.	관광과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	20.07.10.	20.07.10.	관광과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0.30.	20.10.30.	관광과

4. 인천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	5	11	7	-	-	24
현원	1	5	11	3	1	2	23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예산액	30,240	29,347

주) 인천광역시 본 예산 기준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해외 관광 중단 및 국내 관광의 침체로 관광업계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관광분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인천 관광업계가 위기극복을 할 수 있었으며,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인천 관광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안전 및 환경, 근거리 야외, 소규모 및 비대면 여행 선호 등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뉴노멀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였고,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강화로 관광도시 인천의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였으며,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도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인천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 및 관광 네트워크 강화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 12개, 관광스타트업 아카데미 46명, 이음콘서트(네트워킹 등) 2회
 - 협업 프로젝트 4개 사업(12개 기업 참여),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 134건 등
 - 산·학 연계 관광일자리(인턴십) 지원 12개 기업 33명, 미니잡페어 개최
 - 인재 육성 아카데미 386명, 1인 크리에이터 65명, 개항장 스마트 관광상품서비스 개발 3개사
- 인천관광 내부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인천관광협회 및 관광협회의 사업발굴 및 예산반영(8개, 1,625백만 원)
 - 인천관광협회 지원근거 마련(관광진흥조례 제23조 2항)
 - 관광두레 예비PD 양성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수용태세 및 활성화 기반 구축

- 인천시티투어 운영 전면 개편 및 코로나19 상황 맞춤형 운영
 - 노선운영 : 7개 노선(순환2, 테마5)
 - 시티투어 순환형(바다, 개항장) 및 테마형(강화역사·강화힐링, 인천시간여행, 소래포구, 노을야경) 운영 : 1,964명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운행기간 단축
-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안내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광 안내소 운영
 - 11개소 28명(영어 9, 일어 9, 중국어 9, 환경미화 1)/관광안내 84,993건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 100회/16,021명
- 인천 알리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3개 권역 42개소 128명
 - 해설 활동 13,709회, 이용객 273,373명
-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 관내 전수조사(463개소), 우선정비대상(284개소)선정 및 철거(23개소)

○ 방인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

- 글로벌 해외 마케팅 홍보 강화

- 코로나19로 방한·방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집중 추진
-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인천관광 상품·콘텐츠 발굴로 도약 기반 마련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해외관광객 수	1,269,417	1,407,650	299,775	126,677	

주) 2018년~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20~2021년 '2021 외래관광객조사(문화체육관광부)

- 글로벌 관광도시 해외 인지도 제고

- 시청자 참여형(인터랙티브)영상 제작을 통한 안심관광지 홍보(2편)
- 인천영상위원회 연계 드라마 제작 지원(JTBC 드라마 '아이돌' 촬영 및 방영, 12부작)
- 바이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인천크루' 양성(SNS 게시물 85개 게시)

- 전략시장별 해외마케팅 진행

- 시장별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온라인 233건, 오프라인 17건)
- 2021 인천 국제 온라인 트래블마트 개최(16개국 164개 업체 참여, 상담 345건)
- 인천공항 환승관광객 유치 (총 38,743명, 코로나19로 인해 무료 내부 환승투어만 진행)
- 트래블버블 시행국 대상 국제관광교류 재개 선도(싱가포르 47명, 스페인 19명 방인단 유치)

- 국내·외 인천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국내·외 인천관광파트너 12개사 추가 지정(국내 41개, 해외 110개)
- 국내·외 파트너사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인천 스페셜리스트 양성' 교육 등)
- 안전꾸러미 제작(4,100세트) 및 배포 및 월별 인천관광정보 뉴스레터 발송(월1회)

-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 개별협력 10개 여행사 선정(총 873명 기획유치, 62개 상품개발, 203백만 원 지원)

- 제12회 INK콘서트 개최

- 국내 정상급 K-POP스타 공연(온라인 생중계), 재생횟수 총 15,871,499회

(단위 : 회)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콘텐츠	TV방송 시청자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비고
5,456,494	9,337,194	615,799	462,012	

○ 국내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마케팅

- 인천여행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참가 : 할인쿠폰 6,316매(목표 5,000매) 발급
 - ※ 인천 숙박상품기획전 별도 개최 : 할인쿠폰 2,043매(목표 1,400매) 발급
 - 신혼여행/럭셔리 커플 여행상품 발굴 및 운영(4개 상품, 150명 참여)
 - 쓰담쓰담 인천 착한 섬 여행 캠페인 개최(556명 참여)
- 뉴노멀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인천 미식관광상품 개발(공모전) 및 홍보마케팅(6개 상품, 621명 참여)
 - 생태관광체험(교동도 난정마을, 백령도 진촌마을) 시범운영(2개 상품, 337명 참여)
 - 내가 그린(Green) 인천여행 대국민 캠페인 개최(476명 참여)
 - 해변 쓰담 달리기 요트투어 친환경 상품운영(60명 참여)
- 방송/미디어 및 온라인 활용 국내관광 인지도 제고
 -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인천은 바다다! 인천 부두 밥상')
 - (채널A) 관찰카메라24 ('주말, 인천여행 정보' 3편)
 - (채널A) 내일은 야구왕 ('스포츠관광 도시, 인천' 2편)
 - (중앙일보) 온·오프라인 기획 연재 ('인천 섬 여행' 연재기획 5회)
 - (빵야TV) 한류스타 차은우 팬미팅 (인천 관광매력 온라인 홍보)
 - '인천 밥심 챌린지' 미식관광 참여 이벤트 및 후속편 '인천 달달한 챌린지' 이벤트 개최
 - 한국 PD연합회 유력 TV방송 인천 기획 유치 컨설팅 (6개 프로그램)
-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35개 여행사, 230백만 원 지원, 15,082명 모객)
- 관광업계 네트워킹 및 팸 투어 추진
 - 인천 가치소비 공정여행 개발(9개 코스) 및 시범운영(3개 코스, 112명 참여)
 - 언론매체 백령도 팸 투어 실시(중앙일보 생태관광 및 미식관광 취재)
 - 지역 항공사(에어서울)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 추진(트레블 마켓 참여, 경품지원 등)
 - 친환경 교육관광 시범운영 실시 (2회, 29명 참여)
- 차별화된 인천 관광 거점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모바일 미션수행 게임 콘텐츠 2건 신규개발 및 운영(총 6,384명 참여)
 - 경인아라뱃길 친환경 라이딩 행사 개최(274명 참여)
 - 인천 웰니스관광상품 온라인 기획전(837명 모객) 및 체험단 운영(205명 참여)
- 평화관광 활성화
 - 평화관광지 연계 숙박상품 기획전 추진(홈쇼핑 2,242건 판매, 3,841명 직접 유치)

- 인천상륙작전기념일 연계 팔미도 평화관광 홍보(콘텐츠 4건 생성, 2,562회 홍보) 및 평화관광지 체험단 운영(2회, 총 40명 참가)
- e-커머스 플랫폼 홍보채널을 통해 인천관광지 홍보(4,679,549회 노출)
- 평화섬 어드벤처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영상 14건, 사진 120장, 엽서제작 600부)
-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 5개섬 대상 상품운영(소이작도, 덕적도, 백령·대청도, 불음도)
- 국내관광 박람회(전시)회 참가 인천홍보관 운영: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5회(32,191명 방문)

○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명소 개발

-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도서 관광인프라 구축
 -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2012~2025, 강화군)
 -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2017~2021, 강화군)
 -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2017~2021, 중구, 강화군)
-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명소 개발
 - 아시아 누들타운조성(2014~2021, 중구)
 -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2018~2021, 중구)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 2021 지역특화 관광축제(남만시장, 윈터마켓): 6,160명 유치, 62개 업체 참여
 - 시기별·단계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맞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구성
- 제5회 주섬주섬 음악회(온라인) : 유튜브 5개 채널 생중계(19,697명 관람)
- 2021 군·구 지역특화축제 지원 : 중구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남동구 서창별빛거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지원

- 관광사업체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2차 / 1,745개사 / 21억 5천만 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추천 지원 : 2건 / 2.5억 원
- 마이스 업계 위기극복 사업화 자금지원 : 48개사 / 2.4억 원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7,012	7,373	5.1
	기타여행	2,459	1,770	-28.0
	총계	9,471	9,142	-3.5
해외관광객 수		300	127	-5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코로나19 완화 및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국제간에서는 방역 우수국가 간 여행안전 권역 협정을 통해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등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인천관광의 조기회복과 도약을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브랜드 마케팅 강화, 관광객 친화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인천관광산업 경쟁력 지원 및 인천관광 내부 역량 강화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 인천관광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사업 정착 지원
 - 관광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산학연계 관광일자리 창출 및 관광인재 육성
 - 분야별 전문 컨설팅 및 관광기업 재창업 지원
- 인천관광 협회·협의회 지원 : 운영보조 지원 및 사업운명을 통한 역량강화

○ 글로벌 관광도시 해외 인지도 제고

- 인천안심관광지 홍보를 통한 인천 관광 해외 인지도 제고
- 신규 드라마 지원 및 홍보를 통한 新한류 연계 브랜드 마케팅 추진

- 전략시장별 해외 관광상품 마케팅
 - 온라인 트래블마트 개최 등 온·오프라인 인천 관광상품 통합 마케팅
 - 인천공항 환승관광객 유치 활성화
- 해외관광객 유치 기반강화 및 인센티브 운영
 - 국내·외 파트너 추가 선정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인천관광 파트너십 강화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 제13회 INK콘서트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 10. 1.(토) 19:00~22:00 /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 주요내용 : 국내 정상급 K-POP 스타 공연 등(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관람목표 : 해외 5,000명, 국내 32,000명
- 인천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마케팅
 - 인천 숙박관광상품 기획전
 - 인천 특화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평화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 친환경·생태관광 활성화
- 국내여행목적지 인천 인지도 제고
 - 방송/미디어 활용 인천관광 인지도 제고
 - 다달이 인천여행 캠페인 추진
 - 국내관광홍보관 운영 및 인천시 공식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상품 운영 : 10개섬)
 - 대상지 : 소이작도, 덕적도, 불음도, 장봉·신시모도, 승봉·자월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 상품구성 및 프로그램 : 섬별 2박3일 및 4박5일/ 선상낚시, 갯벌체험, 해변요가 등
- 주섬주섬 음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 7. 23.(토) 19:00~22:00 /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 주요내용 : 인천 섬, 해변 음악회 및 부대행사(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관람목표 : 1,000명

- 2022 지역특화 관광축제
 - 동인천 낭만시장 : 2022. 10월 중 /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 미추홀 윈터마켓 : 2022. 12월 중 / 주안역 남광장 일원
 - 2022 군·구 지역특화 관광축제 개최 지원 : 강화 교동화개정원 마켓, 연수구 송도불빛 축제, 계양구 계양문화로 빛축제, 남동구 서창별빛거리
-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 매력개발
 -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
 - 사림도 유원지 개발사업
 -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 고객 만족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 : 11개소
 - 관 내·외 주요 축제·이벤트 등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 100회
 -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3개 권역 42개소 127명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인천시티투어 운행 정상화 및 적극적 홍보·마케팅 전개
 -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 도모, 관광모니터 운영 : 31명
 -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206개소), 신규콘텐츠 제작(8개 등)
- 인천투어 국문 홈페이지 개편 및 VR콘텐츠 제작
 - 인천투어 국문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서브페이지 재구성
 - 기존 관광데이터 현행화(1,650여건) 및 신규 테마형 콘텐츠(30건) 제작
 - 인천 랜선여행 VR콘텐츠 제작(3편) 및 홍보마케팅 실시

마. 관광자치 법규 현황

□ 인천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 관광여건개선 - 관광산업육성지원	2011-01-10	2021-12-30	관광진흥과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 운영	1998-03-16	2017-09-25	관광진흥과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	- 관광활동지원 - 관광환경조성	2017-09-25	2022-01-13	관광진흥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관광공사의 설립 - 운영	2015-08-03		관광진흥과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조의제목)	개정내용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관광업무위탁 절차 명확화	제21조(운영의 위탁)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광협회 지원 근거 마련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제2항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제2항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관광환경조성 관련사무위탁 절차 명확화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3항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지원근거 조례규정 신설

- 관광진흥조례 : 제22조 2항, 제23조 2항, 제24조 신설함

조 항	조례내용	신설사유
제22조 2항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9.30.]	설립근거조항 명확화
제23조 2항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 조항 신설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9.30.]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업의 지정 및 취소 의 관광협회 권한 명확화

5. 광주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이하	사무운영	계
정원	1	4	7	7	-	19
현원	1	4	7	7	-	19

주) 문화관광체육실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27,453,651	28,549,423

주) 2021년 결산 기준, 2022년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예술여행거점 센터 조성 등 1년차 기반조성 사업을 근간으로 예술관광 전문기획자와 예술관광 스타트업 을 발굴·육성하는 등의 본격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광주관광송 '어서와요 광주'를 제작하여 관광 도시 광주 인식개선 중점으로 광주예술여행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을 추동할 예술관광 전문인력 141명을 양성(예술관광 전문기획자 과정 73명, 시민주도 과정 68명)하였다. 이외에도 예술관광 생태계 육성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술여행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화를 운영하여 15건의 콘텐츠 발굴 및 172회 1,145명의 투어를 운영하였고, 예술관광 전문기업 창업 및 R&D사업을 통해 관내 7개 사업체를 발굴 육성하였다. 자치구 거점예술여행센터(3개소)는 관광객과 창업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 세계 K-POP 팬들을 유치하는 한류관광 선도 도시로서, 충청로 옛 학생회관 뒷골목에 광주출신 K-POP 스타를 테마로 한 제이홉 팬 메시지 조형물, 광주출신 아이돌 스타 54명 스타 핸드프린팅, 스타 애장품 전시 기념관(더 팬존), 스타 서터벽화 등 상설 도보 관광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K-POP 정기공연, K-POP 팬아트 공모전 등 K-POP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K-POP 팬아트 공모전 수상작은 금남로4가역사 내 마련된 팬존 공간에 전시되어있다.

○ 비엔날레 연계 K-POP 예술공연 및 온·오프라인 정기공연

	비엔날레 연계 K-POP 예술공연	K-POP 온라인 정기공연	K-POP 오프라인 정기공연
공연일자	4.25./5.1.(2회)	10.3./10.31./12.24.(3회)	10.30./11.6./11.7.(3회)
관람객/조회수	총 228명	총 3,530회	총 415명

- K-POP 팬아트 공모전 개최 : 총 65개 접수작 중 45작 선정,
 - 우수작품 수상자 대상 시상식 개최 및 수상자 K-POP 팸투어 운영
- 주요 관광지 배경 K-POP 버스킹 영상 제작(6편)
- K-POP 출연 광주관광 홍보영상 제작배포 및 관광홍보 활동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유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여행업계에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였으며,(1차 404개 업체 606백만 원(업체당 150만원), 2차 411개 업체 411백만 원(업체당 100만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주도의 관광사업체(숙박, 음식, 체험 등)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되었다. 「광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수탁기관-(사)광주광역시관광협회) 예비 주민사업체 육성 지원 등을 수행하는 예비 PD 6명을 선정하였고, 예비 주민사업체는 11곳을 선정했다. 또한 예비 주민사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회), 맞춤형 컨설팅(11회),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했다.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 PD와 예비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광주 관광사업체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생력이 더욱 강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지역관광업계 유지,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여행사(21개소) 육성 및 지원하였으며, 여행 수요 회복기 대비 선제적 마케팅 활동 및 시기별, 테마별 프로모션 등을 통한 '여행 목적지' 광주관광 홍보 활동(팸투어 29건 272명, 여행업계 대상 세일즈 14건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광주 문화관광포털(오매광주), 각종 뉴미디어(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광주 홍보에 힘썼다.

○ 광주 지역 협력여행사 선정 및 지원(21개소)

지원내역	세 부 내 용
상품 판매 및 프로모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A(인터파크투어) 통한 상품 판매 채널 확보 및 상품 판매 수수료 지원 • 팸투어 운영비 지원 • 상품 운영시 가이드비 지원(1일 10만원) • 유료 체험비 지원(1인 최대 15,000원)
공동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참가시 상담석 제공 (제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중 상품 판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디자인진흥원 연계 티켓 할인 지원
업체 및 상품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여행사 홍보 브로슈어 제작 • 대표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개발 및 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추진 • 이해보증보험 가입 지원 • 광주관광활성화 컨퍼런스 중 라이브커머스 진행

* 협력여행사 상품 판매를 통한 국내관광객 유치 실적 : 310명(39개 단체)

○ 광주 여행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기획 및 프로모션(9회)

대 상	시 기	주요내용	비 고
광주 테마관광상품 개발(518,인문학)	'21.4.9-10.		모두투어 연계
광주 테마관광상품 개발(인권캠프)	'21.5.20.		모두투어 연계
광주상품 프로모션 실행(1차)	'21.4.-6.	광주는O가 예술	인터파크투어 연계
광주상품 프로모션 실행(2차)	'21.7-8.	꿀잼도시 광주	인터파크투어 연계
광주상품 프로모션 실행(3차)	'21.9-10.	디자인비엔날레	인터파크투어 연계
광주상품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1.10.6.		인터파크TV 송출
광주상품 프로모션 실행(4차)	'21.11.	총장축제	인터파크투어 연계
광주상품 프로모션 실행(5차)	'21.11.~	남도패스	인터파크투어 연계
택시투어 상품개발 팸투어 및 간담회	'21.11.23.		모두투어,홍익여행사 연계

○ 2021년 관광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홍보관 운영실적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프랑크푸르트 세일즈	'21.3.24.	해외/온라인
2	러시아 트래블마트	'21.4.12.~30.	해외/온라인
3	협력여행사 대상 설명회	'21.4.2.	
4	중동 관광박람회	'21.5.16.~19.	해외/온라인
5	서울 국제관광박람회	'21.6.24.~27.	
6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21.9.9.~12.	최우수상 수상
7	서울 트래블마트	'21.10.27.~11.5.	해외/온라인
8	한려 지방협력포럼 홍보관 운영	'21.11.3.~5.	
9	내나라 여행박람회	'21.11.18.~21.	특별상 수상

○ 광주문화관광포털 운영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광주문화관광포털’ 콘텐츠를 추가, 보완하여 볼거리 확충 및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여 최적의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 방문자수 : 402,528명(국 245,115명 / 영 45,608명 / 일 28,375명 / 중 83,430명)
- 페이지뷰 : 3,399,360건(국 2,583,993건 / 영 281,874건 / 일 235,026건 / 중 298,467건)

○ 뉴미디어(SNS)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문화·관광 소셜미디어 콘텐츠 683건 생산(블로그 215, 페이스북 234, 인스타그램 234)
- 방문 실적(블로그 658,847명, 페이스북 누계 112,357명, 인스타그램 누계 89,180명)
- SNS 기자단(10명) 운영, 이벤트(12회) 실시, 기자단 팸투어(2회) 실시

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 인근 전통문화관, 국악상설공연 등 광주만의 특색 있는 주요 관광자원을 권역별로 연결한 광주시티투어버스 순환형(61회 운행, 570명 탑승)과 테마형(28회 운행, 272명 탑승), 비엔날레 특별노선(172회 운행, 933명 탑승)을 운영하여 대내·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에는 광주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정상 개최되었으며(22만명 방문),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와 ‘굿모닝! 양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 중심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1,465	1,187	-19.0
	기타여행	1,210	621	-48.7
	총계	2,676	1,808	-32.4
외래관광객 수		76	27	-6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⁶⁾

1) 광주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 전개

○ 광주 특화관광 활성화 추진

- 지역 예술자원, 야간관광, 스포츠 인프라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 운영
- 예술여행의 달(10월), 88데이 마케팅 등 관광도시 '광주' 이미지 집중 홍보

○ K-POP 특화거리 조성 및 K-POP 체험프로그램 운영

- K-POP 관광도시 광주 이미지 구축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도심 속 K-POP 관광 인프라 조성
- K-POP 야외 상설무대 조성, 미디어파사드 및 빔조명 사인 설치 등 야간관광명소화
- K-POP 온·오프라인 정기공연, K-POP 팬아트 공모전 개최, 스타섭외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배포, 스타 핸드프린팅 지속 추진

○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조성

- 예술관광 전문인력·스타트업·거점예술여행센터(3개소) 연계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발굴
-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및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조성 (자치구 공모)

○ 다양한 방식의 관광도시 홍보 추진

- 방송사 연계 '광주 관광 붐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 광주 대표 관광상품(굿즈) 개발 및 디지털 통합 홍보마케팅 지속 추진

○ 광주광역시 시티투어 운영

- 광주의 특색있는 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 광주의 역사 등을 모티브로 하는 테마형(오월의 버스, 100년의 버스) 투어버스 운영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 광주관광 온라인 뉴스레터 정기 제작 및 발송
- 지역 협력여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광주전담여행사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광주관광상품 판매 활성화
- OTA 연계 협력사업 <'야놀자' 내 지역업체(숙박업체) 입점> 추진

46)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광주 특화 체험상품 공모 및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지원
-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통한 여행목적지 광주 홍보
-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한식만들기) 운영
- 설명회, 스터디 투어 등 국내·외 대상 관광도시 홍보 등
- 여행사 대상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2) 모두가 행복한 관광환경 조성

- 무장애(Barrier free) 관광기본계획 수립
 - 무장애 관광 로드맵 등 체계적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추진
 - 여건분석 및 개선과제(시설개선, 관광복지 제고방안 등) 도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
-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지원 및 시설개선
 - 무장애 시티투어버스 운영(휠체어 2석, 수어가이드 탑승)
 - 주요 관광지점 환경 및 편의 개선(경사로 설치 등 시설 정비)
 - 무장애 관광지도 제작, 관광약자 맞춤형 팸투어, 시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코스 운영 등
-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수용태세 개선
 - 데이터 중심 관광서비스 혁신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 관광객을 위한 여행자플랫폼(여행도서관) 조성
 - 문화관광해설사(18개소/90명), 관광안내소(9개소) 및 남도관광센터 운영

3) 지역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억의 총장 월드축제 지원
 - 일자 : 2022. 10. 13. ~ 10. 17. / 5일간
 - 장소 : 문화전당, 총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
 - 목적 : '추억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행사내용 :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거리 페레이드, 추억의 테마거리, 각종 공연 및 경연 등
 - ※ 버스커즈 월드컵 : 2022 총장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 버스킹 오디션 프로그램
-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 지원
 - 일자 : 2022. 10. 13. ~ 10. 16. / 4일간
 - 장소 : 극락교 인근 영산강 친수공원 일대

- 목적 :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군락지를 광주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나누는 장 마련
- 행사내용 : 역사발 투어 프로그램, 시민예술 공연, 체험행사 등

○ 굿모닝!양림 축제 지원

- 일자 : 2022. 10월 중 (개최일자 협의중)
- 장소 : 양림동, 사직공원 일원
- 목적 : 남구의 역사·문화·인물들의 삶과 산재한 근대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행사내용 : 인문학 강의, 양림동 화가들의 전시, 공연, 사생·시낭송대회 등

○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협력 및 맞춤형 지원

- 축제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평가단 구성을 통해 콘텐츠,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
- 광주대표축제 선정 및 축제 발전방향 자문을 위한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4) 관광자원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

○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 추진

- 영산강·황룡강권의 활력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테마형 마을관광 역량 강화 사업

〈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 건립: 아시아 문화예술과 선비문화정신 체험관광 〉

- 기간 : 2018 ~ 2024년(7년)
- 위치 : 월봉서원 인근(광산구 광산동)
- 사업비 : 119억 원(국 55, 시 64)
- 사업내용 : 복합관 건립(연면적 2,300㎡), ACC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23.5.), 공사시행('23.6.~)

〈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 - 체류형 전통한옥 체험 관광 〉

- 기간 : 2022 ~ 2023년(2년)
- 장소 : 서창향토문화마을 주변(서구 서창동)
- 사업비 : 30억 원(국 15, 시 7.5, 구 7.5)
- 사업내용 : 서창향토문화마을 주변 리모델링, 일출·일몰스팟, 소원성취길 조성 등
- 추진사항 :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22.10.), 준공('23.)

- 남도음식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아시아 문화특화거리 디자인 및 조성)
 - 아시아 음식관광 명품화 거점센터 조성(동구 충장상상큐브 시설 內)

5) MICE 도시 기반 구축 및 관광인력·기업 육성

-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추진
 -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 심의
 - (사업착수) 설계(2023~2024), 착공 및 준공(2024~2025), 개관(2026 예정)
-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
 - 관련 업계 및 집적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MICE 아카데미 운영
 -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MICE 도시 이미지 구축
-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 기간/예산 : 2022~2026 / 100억 원(국 50 시 50)
 - 시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2022. 6. ~ 2022. 8.), 개소(2022. 8.)
 - 관광기업 창업·육성 및 개선·활성화 지원, 관광일자리 허브 구축 및 인재양성 등
- 관광업계 인력 양성 지원
 - 광주관광 특화 가이드 육성 및 지원
 - 관광업계, 특수목적관광 종사자 대상 현장 중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 공유 사무공간 및 집기 등 관내 여행업계(18개사) 공유사무실 지원
-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 기간/예산 : 2021. 4. ~ 2024. 3. / 13억 원(국 6 시 7)
 - 예비PD 양성 및 예비·광주형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 예비·광주형 주민사업체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속운영가능 모델 발굴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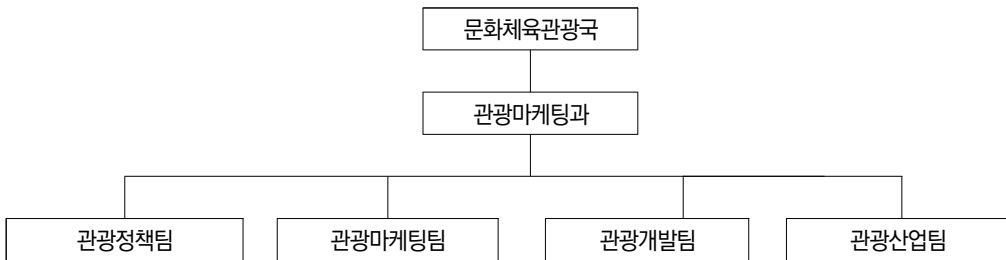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	11.07.01.	20.06.01.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4.01.	20.04.01.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3.01.	20.03.01.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17.11.01.	19.10.15.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11.03.02.	11.03.02.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스마트관광 생태계구현을 통한 광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20.12.28.	20.12.28.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18.07.15.	18.07.15.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04.05.15.	20.04.01.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07.06.30.	19.10.15.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11.03.02	15.11.01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0.05.03.	15.06.01.	관광진흥과

6. 대전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계
정원	1	4	6	6	-		1	18
현원	1	4	6	2	-	4	1	18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13,099	11,990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① 차별화된 여행콘텐츠 개발로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트렌드 반영) 운영방식과 참여규모 다변화를 통한 안전여행 정착

- 비대면, 소규모, 개별여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프로그램 지속 운영
- 스토리투어(455명), 시티투어(1,633명), 테마여행프로그램(314명)

- (스마트 여행콘텐츠 개발) IT기술을 활용한 게임형 미션 여행프로그램 개발 운영
 - 관광지에서 스토리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외래관광객 방문 유도
 - 대청호를 배경으로 스마트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상시 운영(3개 구간, 3,423명 참여)

②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관광상품 개발) 인근 지자체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 대전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실속형 관광상품 '대전투어패스' 운영
 - 테마여행 10선 금강백제권역 지역 간 관광사업* 연계 추진
 - * 금강백제권역 투어패스 운영 및 홍보마케팅(대전 주관), 금강오딧세이 테마투어(부여 주관), 테마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공주 주관), 금강역사 관광포럼(익산 주관)
 - 소규모·비대면 관광트렌드에 맞춘 충청권 연계 관광상품* 운영
 - * 대세충청 스탬프 투어, 우리끼리 힐링여행
- (여행편의 증진) 여행자 중심의 투어서비스 개선으로 관광만족도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13개소 60명) 활동과 관광안내소(4개소) 연계 운영
 - 트래블라운지 내 여행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 * 텔레코일 Zone: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전자무선신호 전달로 청각장애인의 청취환경 개선
 - 이용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대전관광 홈페이지 개편 추진
- (대전여행 홍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활용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빅데이터 기반 푸시광고, 유튜브 등 표출로 타깃별 홍보 마케팅 추진
 - 언론매체 및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전 명소·맛집 등 집중 홍보
 - 관광박람회·전국행사 계기 '대전홍보관' 운영으로 대전관광 인지도 확산

③ 도시여행 인프라 확충 및 관광거점 발굴·육성

- (보문산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자원화 가능한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
 - 전망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투자심사 완료, 설계비 확보, 설계공모 시행
 - * 친환경 목조전망대: 연면적 1,140㎡, 높이 50m 이하, 지하1·지상4층
 - 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 가옥철거, 옹벽설치 추진
 - * 일반광장 3,100㎡, 주차장 1,360㎡(32면), 보상 및 철거 4,460㎡(28필지)/15가구
- (대청호오백리길 인프라 확충) 생태 힐링여행 환경 조성 및 탐방객 편의증진
 - 생태테마 투어 프로그램 운영, 원점회귀 코스 개발 및 코스안내도 설치(8월)
 - 흙먼지떨이기 설치(4월), 보행안전 기반시설 조성(9월), 안내해설사 운영

④ 안전한 축제 운영 및 관광산업 육성 지원

-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축제·문화·비즈니스를 융합한 지역유명 축제로 자리매김
 - 일반 및 전문교육 코스로 진행되는 와인스쿨 운영(5.13.~9.30.), 시민참여 제고
- (토토즐 페스티벌) 다양한 콘텐츠 도입 운영으로 위축된 원도심 활력 제고
 - 9.11~12.25(매주 토요일), 대면 및 비대면 양방향으로 프로그램 구성운영(8개)
 - 디지털 보물찾기,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유튜브 홍보, SNS서포터즈단 운영 등
-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역관광벤처 발굴육성으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관광스타트업 공모전(21개사 선정), 네트워킹을 통한 관광기업 역량강화 지원
 - 여행업계 경영회복을 위한 공유오피스 무상지원(26개사), 교육·컨설팅 추진(5회)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2,495	2,327	-6.7
	기타여행	2,811	2,276	-19.0
	총계	5,307	4,603	-13.3
외래관광객 수		101	41	-59.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① 차별화된 여행콘텐츠 개발로 관광경쟁력 제고

- (투어운영 활성화)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 지속 개발·운영
 - 여행객이 찾아와 즐기고 재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투어프로그램 운영
 - 스토리투어(스토리텔링), 시티투어(신규코스 개발), 테마여행(문화탐방 등)

-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발굴 활용으로 '관광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
 - 대청호(생태·힐링), 보문산(전망대), 원도심(감성), 대덕특구(과학기술), 유성(온천) 등
- 지역주민과 여행객, 운영자가 함께 만족하는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 여행환경 조성) 최신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프로그램 제공
 - 실감기술로 지역관광 명소를 여행하는 '스마트 체험형프로그램' 상시 운영
 - 여행객의 성향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관광기반 마련

② 수요자 중심의 홍보마케팅 강화

- (관광객 유치) 관광행사 및 인기 관광상품 운영으로 폭 넓은 여행객층 확보
 - 국제관광박람회, 팸투어 등을 통한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도
 - 여행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및 여행객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상생협력) 지자체 공동 여행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마케팅 추진
 - 금강백제권역(대전, 부여, 공주, 익산)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관광생태계 구축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가 선정한 여행상품 개발 및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관광안내 수준향상) 트래블라운지를 통한 원스톱 여행정보서비스 제공
 - 관광콘텐츠 안내 및 관광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 추진
 - 국제행사 대비 관광안내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맞춤형 교육강화
- (대전여행 홍보) 파급력 있는 홍보매체와 굿즈 활용을 통한 관광홍보 강화
 - 방송 콘텐츠,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관광지 노출
 - 지역상품과 결합한 관광굿즈 제작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 및 홍보효과 제고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여행인프라 확충

-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 계획공정에 따른 원활한 공사 시행
 - 전망대 실시설계(~'22. 8.), 부지조성 착공('22. 3.), 본공사('22. 9. ~), 준공('24. 6.)
 - 대사지구 광장, 주차장 확충 및 스카이워크 조성 등으로 여행객의 편의 증진
- (대청호오백리길 활성화) 천혜의 자연자원 '대청호' 여행명소화 추진
 - 전통누각 쉼터 및 생태테마 야간경관길 조성, 걷기&러닝축제 지속 추진(10월)
- (취약계층 여행편의 도모) 관광향유권 보장으로 관광도시 위상 제고
 -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모니터단 의견수렴 및 여행지원 추진

- (온천지구 활용) 특화된 자원인 온천과 건강을 테마로한 관광거점 조성
 - 유성온천체험관 등 복합공유공간과 온천특화프로그램으로 관광상품화 추진
- (관광자원 지속개발) 힐링, 맛, 야간 등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
 - 스마트관광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민·관 협력 응모
 - 영화, 빵, 영화, 게임 등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야시장 등 특색있는 야간 관광자원 개발
- ④ 안전한 축제 및 관광산업 지원 육성
 -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와인을 소재로 한 이색 이벤트 및 국제행사 개최
 - 내·외국인 대상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행사 진행 및 UCLG 연계 추진(10월)
 - 제조도시별 와인 전시 및 시음, 전통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토토즐 페스티벌) 축제의 장 마련으로 시민화합 및 도시활력 제고
 - 새롭고 다양한 공연 및 게임형 프로그램 운영, 야간 관광시설물 조성(4~10월)
 - 지역 유명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내·외국인 방문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관광기업 육성) 관광기업지원센터 역할수행으로 건강한 관광생태계 구축
 - 전문 컨설팅을 통한 관광기업의 체질 개선 및 개발된 관광상품 판로 개척
 - 디자인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관광스타트업 경쟁력 확보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대전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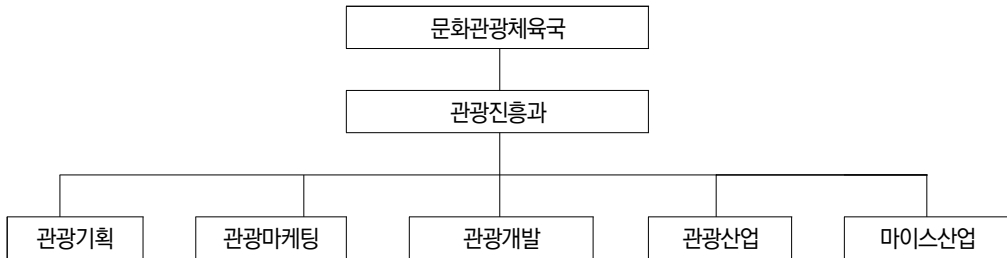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0.8.13	20.7.03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	17.8.11	-	관광마케팅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	관광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89.01.01	16.8.12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1.10.1	-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7.04.28	-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대전광역시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1.08.05	17.04.28	건강보건과

7. 울산광역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약직	기능직	계
정 원	1	5	6	7	1	0	0	20
현 원	1	5	7	7	1	0	0	21

주) 문화관광체육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19,926	13,883

주) 관광진흥과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산업수도로서의 중추적 역할에서 나아가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지닌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다양한 생태종과 시민들이 공존하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반구대암각화, 해발 1,000m 산으로 둘러싸인 영남알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만의 역사·산업·생태·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영남알프스’, ‘대왕암공원’, ‘간절곶 소망길’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선정되었으며 해양·산악·산업·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도시 울산으로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①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 관광 인프라 조성

- 울산관광재단 운영(‘21.1월)
 - ※ 1본부 7팀 38명(일반직 30, 공무원 6, 파견 공무원 2)
-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수립
- 울산형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최적의 스마트관광 기반구축,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 울산권만의 관광매력 발굴, 생태관광도시 울산인식 제고, 경쟁력 있는 울산권 관광 생태계 조성(6대 전략)

○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국내·외 관광활성화

- 체류형 관광도시 울산 홍보 마케팅
 - 울산 4계절 뉴노멀 FLEX 영상 제작 및 송출
 - 공중파 프로그램, 라디오 캠페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유튜브 등 SNS홍보
 -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홍보관 운영, 울산관광정책설명회
- 코로나 이후 해외관광객 유치 대비
 - 대만 케이블 TV 홍보 마케팅
 -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양성(보수)교육 : 2회, 58명(7개 언어)
 - 국내·외 관광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11회, 227명)
- 관광업계 공동 프로모션 추진
 - 호텔 숙박패키지 판매 및 특산품 제공 연계 개별 여행객 유치
 - OTA(인터파크투어) 연계 라이브 방송 : 2회

○ 체험형 관광콘텐츠 강화

- 해상(대왕암공원)·산악(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 강동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 강동관광단지 뽕로테마파크 문화재 발굴 완료(‘21.7월),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시범라운딩(‘21.10월)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 준공('21.6월)
- 울산관광단지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완료('21.12월)

○ MICE산업 육성

- 전시컨벤션센터 개관 및 운영('21.4.29. 개관 / 전시장 가동률 35.5%)
 - 지역 특화전시회 진행(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 울산안전산업위크) 및 민간 전시회 지원 공모
 - 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KTX리무진 랩핑 광고, SRT매거진 등)
- MICE 유치홍보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 국내·외 회의(5건) 및 제 20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MICE 유치설명회(4건)
 - 울산 MICE홍보물 제작(4건), Pre/Post 투어 프로그램 개발지원(2건)
 -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20.8~9월), 마이스 얼라이언스 출범(33개 회원사)

② 울산관광 안내체계 개선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 17개소 1~2명 탄력적 배치 및 운영
 - ※ 80명(남 18명, 여 62명)
 -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 울산시티투어 운영

- 운영기관 변경 : 울산도시공사 → 울산관광재단
- 운행횟수 조정 : 장생포대왕암코스 버스 1대 추가 투입(1대 → 2대)
 - ※ 순환형코스 : 태화강국가정원코스(2대, 1일 9회), 장생포대왕암코스(2대, 1일 9회)
- 유관기관 연계 이벤트 실시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인성 교육프로그램 협약(7월), 수능 이벤트(11월), 십리대숲 비밀클럽(11월), 호텔(12월), 차량 내 포토존 설치 및 이벤트 실시(12월)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 종합관광안내표지판 : 4개소 정비(KTX울산역, 부산울산고속도로휴게소, 강동 해변, 진해해수욕장), 1개소 신규 설치(울산박물관 광장)
- 울산12경 안내표지판 : 14개소 유지

○ 관광기념품 공모전

- 시상작 : 26점
- 주제 : 울산의 특성을 테마로 생산 및 판매 가능한 관광기념품

○ 홍보물 제작

- 가이드북, 지도, 여행추천 코스 책자 총 3종 188,000부 제작
-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관광 홍보물 총 4종 73,000부 제작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2,492	3,304	32.6
	기타여행	1,457	890	-38.9
	총계	3,949	4,194	6.2
외래관광객 수		71	29	-58.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⁷⁾

① 비전 및 전략

- 「관광으로 크는 도시, 매력있는 울산」을 비전으로 4대 과제, 16개 세부 추진과제 수립

② 주요 사업계획

-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

- 울산관광재단 설립 운영
-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세부사업 추진

47)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및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및 울산시티투어 운영 및 콘텐츠 강화
- 해오름동맹 관광 실무협의회 운영
-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운영
-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관광부회 운영

○ 포스트 코로나 관광 마케팅 경쟁력 향상

-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
- 국내관광 홍보관 운영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관광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
-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
-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문화관광축제 지원
-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e-길잡이 추진
- 동남권광역관광본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지원

○ 울산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 해상케이블카 및 썰라인 설치
- 강동관광단지 조성 및 울산관광단지 지정 추진
- 울산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산업 육성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온·오프라인 홍보
- 지역특화전시회 '2022 울산화폐박람회' 개최 및 민간 우수 전시회 육성
-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 대규모 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도시마케팅 홍보 강화 및 유치설명회 운영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울산광역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의 관광·마이스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24.		관광 진흥과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1. 3.18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13.01.10	21.06.19	"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	20.09.24		"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울산광역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시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18.05.17.	21.06.19.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관광객에게 울산의 문화·예술·역사·산업 등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 효율성을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1.06.09.	19.09.26.	"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	21.09.24.		"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시회,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시·컨벤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05.17.		"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18.11.08.		"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울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제18조(관광 업무의 위탁)	② 제1항의 관광업무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1. 3. 18.>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제8조(회의)
제2조(정의)	제9조(간사)
제3조(책무)	제10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11조(지원)
제5조(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제13조(사무의 위탁)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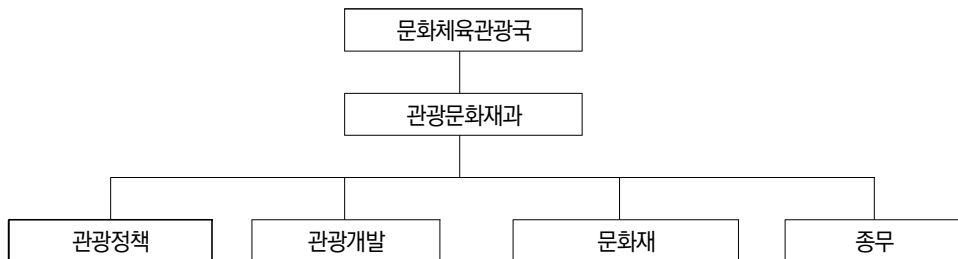
○ 조례명: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입안목적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울산광역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

제1조(목적)	제8조(사무의 위탁)
제2조(정의)	제9조(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제5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7조(민간참여 확대)	

8. 세종특별자치시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능직	계
정원	1	4	4	3	3	-	2	-	17
현원	1	4	2	5	-	1	2	-	15

주1)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주2) 부서장 1명, 관광분야 인력(7명), 문화재분야 인력(5명), 증무분야 인력(2명)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9,339,000,000	8,049,171,000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 세종 시티투어 운영 : 7월, 11월, 12월(3개월) / 7개 테마코스 / 121회 / 이용객 2,104명

※ 인근 지역과 상생 및 교류를 위한 연계 투어 운영(공주 연계투어 13회)

- 템플스테이 체험여행 지원 : 영평사 템플스테이 체험과 주요 관광지 연계 투어

- 문화재 활용사업 : 향교·서원 문화재(연기향교, 전의향교)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세종 흥판서대) 활용사업

- 관광인프라 확충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19~'26) : 금강누정선유길 개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 김중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2단계 사업('19~'23) : 실시계획 인가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 사업(1차분) 착수
-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21.9월~12월)
-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 금이성, 작성산, 이성구간 탐방로 정비(탐방로 노면정비, 안전시설 등)
-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사업('19~'22) : 2단계 둘레길 5개 구간, 74.9km 조성
- 고북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08~'22) : 3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금강보행교 건립사업('18~'21) : 교량 상·하부층 건설
-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 텐트 등 노후시설 교체, 관련 조례 개정
- 모바일 관광플랫폼(세종은 처음이지?) 유지 관리 : 세종 주요 관광지에 대한 모바일 앱으로 관광 정보, 게임 및 위치안내 서비스, 생활정보 등 안내
-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21.12.26.)
- '조치원 문화정원' 민간위탁운영('21.2.16.~) : 각종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행사 추진

○ 지역관광기업 등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20.9.) 및 운영('20~'24) : 관광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률·세무·경영 등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연번	사업명	추진결과(사업내용)
1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7개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세종 2개소)
2	연계 관광상품 공모전	총 4팀 선발 및 운영비 지원(세종 1개팀)
3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10개팀 응모, 9개팀 선발, 관광자원 영상 홍보
4	세종 관광 S-서포터즈 양성	지역 관광활성화 미션 수행을 통한 관광 창업자 양성
5	관광기업 스케일업 지원(트래블쇼 참가)	센터 공모전 참여기업 9개사 참가, 홍보 지원
6	세종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운영	기업입주공간, 공유오피스, 미디어랩 등 조성

- 관광두레사업('20~'22) : 관광두레 PD 업무 지원, 관광두레 업체(6개) 세종엔(스마트 플랫폼) 홍보, 추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1팀)

○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 진흥사업 추진

- 관광마케팅 강화

- 국내·외 관광 홍보관 운영 : 4회(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제102회 전국체전, 내나라여행박람회)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 1회(SNS 관광홍보단)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마케팅('21년 주관 : 충북) : 대세충청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 팸투어, 우리끼리 힐링여행 사업, 개별여행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 언론기사화 사업 진행
- 세종시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5개(금1, 은1, 동3) 작품 당선작으로 선정, 기념품 전시대에 상시 전시 및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
- 세종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범사업 추진 : 국립세종수목원 연계 체류형·당일형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인센티브 지원

- 관광진흥사업 추진

- 세종-천안 대표관광지 시티투어 상생협약 체결('21.상반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전문 해설사 16명 운영(고정배치 5개소 및 세종 시티투어 상시 투입) 및 표준 해설 시나리오 제작
- 도시소개전문가 운영 : 도심관광 전문 해설사 6명 운영

- 기타

-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다. 방문객 추이

(단위 :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1,008	892	-11.5
	기타여행	1,317	990	-24.8
	총계	2,326	1,883	-19.0
외래관광객 수		45	9	-8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⁸⁾

○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 해설이 있는 행복여행 세종 시티투어 운영 : 7개 테마 코스
 - ※ 인근 지역과 상생 및 교류를 위한 연계 투어 확대 운영(공주, 천안)
- 템플스테이 플러스윈 투어 지원 : 영평사 템플스테이와 세종시 주요 관광지 연계
- 숙박대전 추진 : 세종시 숙박업소 이용 특별 숙박쿠폰 발행(여행사 숙박상품 판매)
- 지역문화유산교육 및 문화재 활용사업 : 5개 분야 6개 사업 확대 운영
 - ※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연기향교, 전의향교) 활용사업,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 관광생태계 혁신플랫폼 구축

-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20~'24) :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7실) 제공, 교육 및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관광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 관광기업 육성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대전-세종 연계 관광상품 공모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공유오피스 지원사업, 세종S-서포터즈 등 추진
- 관광두레사업('20~'22) : 관광두레 업체(6개) 세종엔(스마트 플랫폼) 홍보

- 관광인프라 확충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19~'26) :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 토질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김중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15~'23) : 조성공사(토목,조경) 및 전기통신공사 추진, 운영계획수립 추진
-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 전의향교~운주산성 구간 탐방로 정비
-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 실시설계 용역 추진('22.8월~'23.3월)
-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사업('19~'22) : 3단계 둘레길 5개 구간, 69km 조성
- 고북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08~'22) : 3단계 공사(방문자센터, 생태광장 등 건립)
- 금강보행교 개통('18.7.~'22.9. / L=1,651m) : 국내 최장 보행자 전용 보행교로, 한글 반포 연도 맞춰 1,446m 둘레. 이응다리라고도 부름.
- 세종중앙공원 조성사업 2단계('21~'23) : 부지 조성 공사(86만㎡)
- 국민여가 캠핑장 위탁운영 : 시민참여 캠핑 안전지킴이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등

48)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광안내체계구축 : 다목적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및 운영(1층 관광안내소, 2층 시티투어),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22.5.12.)
-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원 사업('22.3.~12.) : 영평사 템플스테이 방사 증축 등
- '조치원 1927' 개관('22.7.): 원도심 내 방치되던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사업을 통한 복합문화 및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
- 조치원 도도리파크 조성('18.4월~'22.7월), 개장 예정('22.7.29) : 농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실현하는 소통 공간

○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 진흥사업 추진

- 관광마케팅 강화

- 한국관광공사 선정 '22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금강보행교) 홍보 : 스텝 투어('22.4.4~10.28.),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팸투어('22.10.14.~15.)
-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행(도심 중심의 무정차투어 및 야경투어 운영)
- 국내·외 관광 홍보관 운영 : 4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 전국제전, 국외 관광 박람회), 정원산업박람회 성공 기원 및 市 관광지 홍보
-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 3회(SNS 관광홍보단 팸투어, 코레일 내일로 대학생 팸투어,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 충청권 공동 관광 마케팅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국내·외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충청권 전담여행사 지정 및 홍보마케팅, 동남아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 언론기사화 사업, 랜선투어 등)
- 관광홍보물 제작 : 종합 관광안내지도 15,000부, 관광홍보책자 26,000부(세종에 머물다 / 누구나, 언제나 걷고 싶은 길 2종), 테마별 관광홍보엽서 10,000부 및 각종 홍보물(쇼핑백, 우편봉투 등) 제작
- 비대면, 비접촉 관광이 가능한 야외 관광지와 트래킹 코스 중점 홍보

- 관광진흥사업 추진

- 세종-천안 대표 관광지 시티투어 상생협약 관련(국립세종수목원 시설요금 감면 추진, '22.5월)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전문 해설사 13명 운영(고정배치 5개소 및 세종 시티투어 상시 투입) 및 표준 해설 시나리오 제작
- 도시소개전문가 운영 : 도심관광 전문 해설사 6명 운영
- 세종시 관광재단(가칭) 설립 관련 검토('22.7.~)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관광 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발전 장려금 및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1.07.	'21.11.15.	관광문화재과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육성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축제운영 소요 경비 지원 	'13.11.20.	'21.7.1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7.7.20.	'21.7.15.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16.8.10.	'17.7.20.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조성 캠핑장(합강, 전월산) 운영관리 	'18.12.10.	'21.12.10.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중장기 발전전략 ■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20.12.18.	'21.7.15.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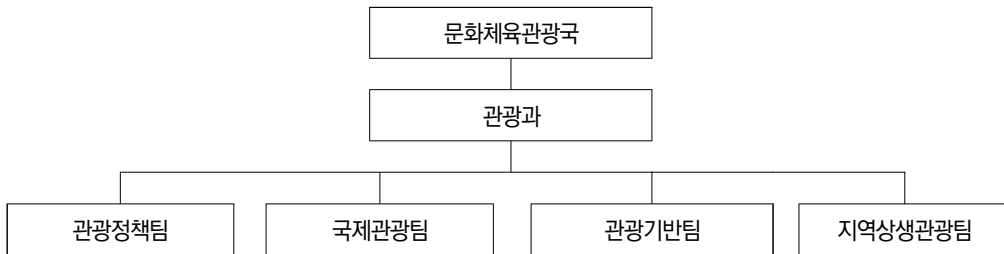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사업자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7조 (보조금)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제8조 (보조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 추가 규정, -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보고·검사 등 규정을 삭제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 필요 쾌적한 캠핑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 	제8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감면대상에 市 명예시민·시민대상 수상자 추가
		제9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시설이용료 반환불가 규정 정비
		제10조 (시설의 이용제한 등)	시설이용 제한사유에 '감염병 예방등을 위한 경우'를 명문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당 등 개정	제14조 (수당 등)	수당, 예비 지급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수당 등 개정	제11조 (수당 등)	수당, 예비 지급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당 등 개정	제9조 (수당 등)	수당, 예비 지급

9. 경기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정 원	1	4	6	8	1	20
현 원	1	4	6	8	1	20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42,109,217	44,945,512

주) 2021년: 결산 기준, 2022년: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경기도는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기도만의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경기관광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민을 위한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실현에 이바지하였다.

1) 최신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만의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추진

- 관광명소화 계곡 3개소(포천시 백운계곡, 여주시 주록리 계곡, 가평군 조무락골·용소계곡) 선정
-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 개최(304건 접수, 우수작 3건 선정)
- 계곡별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10건 개발 및 운영
- 포토존 설치(8개소) 및 어종 자원 보존을 위한 민물고기 치어 방류 행사
-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관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경기바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5개 주요사업 및 13개 연계사업)

-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챌린지 캠페인(358명) 및 전문가 학술포럼(89명) 실시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관광상품화 기반 마련(7개 프로그램, 450명)
- 힐링음악회(5개시), 경기바다 명소 공모(270명 참여), 찾아가는 경기관광홍보관 운영 등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 특색있는 골목 7개소 발굴, 전문가 자문(21회) 등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1,727명 참여 / 만족도 평균 4.74점)
- 해설사 양성, 관광마케팅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77명), 골목홍보 등 인지도 제고

○ 역사·문화·생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 향토음식과 관광지를 엮은 네이버웹툰 ‘요리GO’ 연재(9.23~11.11)
- 권역별 1박2일 프로그램 ‘자차로 떠나는 안심여행’ 3회 진행
- 시·군 공모를 통해 핵심 융합콘텐츠개발(고양, 포천, 연천)

○ 경기도형 산업관광 육성

- 산업분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산업관광 자원(42개사) 발굴
-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팸투어(2회, 18명), 도내 산업관광 홍보물 제작 지원(12개사), 홍보영상 및 전자책·지도 제작(6개 언어)으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 유도
- 산업관광 체험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4편)로 인지도 제고

○ 시·군 걷기길을 연결한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

- 총 길이 860km, 60코스, 4개 테마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
- 경기 둘레길 전용 온라인 안내체계 구축(웹사이트) 및 홍보 마케팅 추진

2)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대응 및 경기관광 성장 기반마련

- 한류콘텐츠 확충, 비대면 마케팅 접목 등 뉴노멀 경기관광 조성
 - 영상 미디어콘텐츠 제작·송출 및 한류가이드북 제작·배포(10개 언어, 11만부) 등 한류 콘텐츠 강화
 - 제한 외국인 SNS 서포터즈 운영 및 경기관광 사진 공모전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관광마케팅 자원 확보
 - 지역산업 연계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선정(3개), 유니크베뉴 발굴·홍보(접수 37개소, 선정 17개소)
 - 행사개최자(학회, 협회) 대상 비대면 유튜브 마이스 설명회 개최
 - 유력 마이스 박람회 참가 및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38회)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관광 및 마이스업계 온·오프라인 B2B 지원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 확대
 - * '트래블마트' 개최(36개사·해외 여행업계 13개국 140개사 참여,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720건 성사)
 - 관광설명회·박람회,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경기관광 브랜드 해외 마케팅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 관광사업체 사업장 임차료(월세) 826개사 지원(최대300만원)
 - 방역물품 지원(1,722개사) ※ 마스크, 손소독제, 온도측정기

3)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개발 및 확산

-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 기 조성 6개소(2019~2020년) 홍보 마케팅 및 신규 거점 3개소(이천, 가평, 연천) 선정
 - 거점 9개소 지역별 탐방시설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경기관광축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경기관광축제 30개 선정(대표축제 10, 특성화축제 15, 문화관광축제 5) 및 지원
 -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연중 안정적, 지속적 운영 지원
 - 시군 등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축제 모니터링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

4)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지역관광 인프라 개발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 관광지 보행로 및 편의시설 분야 개선 지원(5개 시군 관광지 8개소)

※ 용인(곤충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안양(안양예술공원), 포천(산정호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동두천(소요산관광지), 연천(재인폭포, 역고드름)

- 경기여행누리 차량 운영(휠체어 탑승 가능 대형버스 2대, 총 89회 736명)
- 임진각관광지 내 공간 환경 개선(커뮤니티시설, 화장실 신축, 산책로 개보수)
- 무장애 관광지(60개소) 및 숙박시설(20개소) VR콘텐츠 제작 및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48개소 284명)

○ 지역 특화형 관광자원 개발

- 안산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9개소)
-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 등 관광(단)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지원(3개소)
- 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관광시설 방역점검 실시(총 13회 304개소)
 - ※ 관광지 24개소, 유원시설 110개소, 관광숙박시설 63개소, 야영장 107개소
- 관광안내표지판 17개소,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2개소, 전통한옥 개보수 3개소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관광숙박시설 44개소, 야영장 62개소)
- 성수기 대비 안전점검(물놀이 유원시설 31개소, 야영장 136개소)
-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유원시설 21개소, 야영장 204개소)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33,744	41,183	22.0
	기타여행	11,751	12,218	4.0
	총계	45,496	53,400	17.4
외래관광객 수		647	214	-6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⁴⁹⁾

경기도는 대표 관광명소 육성과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31개 시·군 공동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공정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을 구현 하고자 한다.

1) 경기도 대표 관광명소 육성

-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추진
 - 청정계곡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12개 시군 14개 계곡)
 - 청정계곡 알리미(30명)구성 및 SNS 마케팅, 방문 유도 이벤트(사진공모전 등) 개최 등
-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 경기바다 인접 5개 시(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소재 여행상품 기획전 개최, 힐링음악회(2회), 토크콘서트 등 행사 진행
 - 전 국민 대상 홍보영상 공모전 실시 및 SNS 등을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 강화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 신규 골목(4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골목별 1개 이상)
 - 기 선정 골목(14개) 관광콘텐츠 지속 운영 및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골목 홍보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판매 및 방문 인증 이벤트로 지역 상권 활성화

2)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선제적 기반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 해외시장 대상 착한여행상품(관광지+숙박/1,000건) 및 유력 온라인플랫폼 상품 판매(5건)
 - 경기투어라인(EG투어) 버스 운영(40~60회), 외국인 단체 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핵심여행사 MOU 체결 및 팸투어(7개국/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 관광유관기관 공동홍보 등 협력사업(해외 여행사협회·관광청 등)

49)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 도내 단체·기업 행사 중점 유치 등 국내외 마이스 행사 개최 확대(40건)
- 전국 최초 스몰미팅(1일 행사 포함 연 3회 이상 개최) 육성 지원제도 시행

3) 지역과 상생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 경기관광축제 지원

- 우수 지역축제 25개(경기관광축제 20, 문화관광축제 5) 운영 지원
- 현장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36개), 우수사례 공유 등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 탐방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사업 실시
- 거점별 특성을 살린 테마 프로그램(오감자극 생태체험 등) 운영

○ 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 산업관광 활용 상품개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및 언론·SNS 콘텐츠 홍보로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
- 국내외 여행사 대상 산업관광지 연계 팸투어(8회), 참여기업체 홍보 지원 등

4)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관광 환경 조성

○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 8개 시·군 관광지(13개소) 관광약자 쉼터 조성 등 무장애 공간환경 개선
- 관광약자 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업계 인식개선 교육

○ 경기 둘레길 활성화

-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완주자 관리, 모니터링 등) 및 온라인 안내체계 개선
- 경기 둘레길 활성화 용역 추진(지역거점센터 및 테마노선 발굴 등)

○ 공정캠핑 문화 조성

- 이용자 캠핑예절 및 사업자 안전 준수 등 공정캠핑 캠페인(동영상, 포스터 등) 실시
- 안전정보 게시판 및 등록야영장 현판 제작·배포로 '등록야영장' 활성화
- 장애유형별 투어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 수요자 맞춤 경기여행누림 차량 운영
- 관광약자 유형별 팸투어(10회) 및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업계 인식개선 교육 등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경기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경기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02.04.08.	22.04.08	관광과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1.13.	-	관광과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12.12.28	21.11.02	관광과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2.12.28	13.12.02	관광과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2.01.05	19.07.01	관광과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 정착 기여	15.10.13		관광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2.04.06	19.08.06	관광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	08.12.30	21.12.31	관광과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류문화조성 지원을 통하여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17.01.05		관광과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7.06.13	19.07.01	관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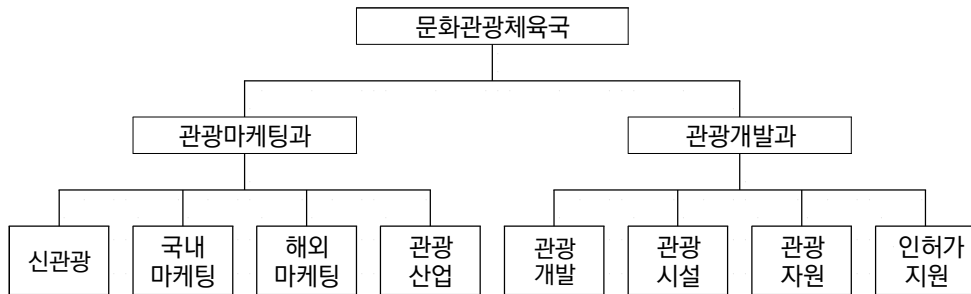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체류형 관광의 정의 필요	제2조(정의)	체류형 관광 정의
		제9조2(관광객의 유치)	제8조(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의 국내여행의 공간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 -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분야 서포터즈 운영 등 경기관광 홍보정책 다각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2조제1호	“경기도를”을 “경기도를 방문하거나, 경기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 시·군 외의 다른 시·군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자에게”를 “경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기도,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제5조제1항3호	경기도,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
제7조제2항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5조 15조 3	용어 정비

10. 강원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주) 사업소: DMZ박물관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연구사	계약직	계
정 원	1	2	9	14	10	5	0	-	-	41
현 원	1	2	9	11	11	2	4	-	-	40

주) 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85,899	63,032

주) 2021년: 결산 기준 /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강원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사업체 회복 지원
 - 전자출입기록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확대 운영 * 가맹점 4.5만여 개소
 - 한-싱 VTL 연계 안심관광 MOU 체결 및 강원 국제안심관광 매뉴얼 제작·배포
 - 도내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 도비 830백만 원 지급(830개 업체)
- 강원도관광재단 본격 사업추진을 통한 신관광 트렌드 선도
 -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및 비수기 관광 활성화 기여
 - 언택트 및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추진
 -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강원 땀땀여지도 구축 및 홍보) 시도
- 위드코로나 시대 맞춤형 마케팅 및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
 - 국내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및 최고상 수상
 - *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대상),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대상), 내나라 여행박람회(감독상)
 - 2021 문체부 한국 관광의 별 본상 수상(관광약자 배려 부문): 춘천 킹카누나루터
 - 야놀자, 유명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추진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2년차 사업 선정(지자체 평가 1위)
 - '헬로 강원' 국가대표브랜드 지자체 관광부문 대상 수상(6년 연속)
- 광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인프라 확충
 - 북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국비 5억 원 확보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26개 사업, 1,403억 원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상사업 추진(강릉): 국비 500억 원 확보
 - 문체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선정(삼척)
 - * 동굴 관광콘텐츠 재활성화를 위한 국비 60억 원 확보(총 사업비 120억 원)
- 특성화된 관광자원 발굴 및 폐광지역 관광 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국비 확보
 - 특화브랜드 개발 및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20억 원(국 10, 지 10)
 - 관광개발 3단계 사업 국비지원 합의: 488억 원(국 244, 지 244)
 - 폐광지역 2단계 관광자원화 사업 마무리: 3개 분야 13개 사업, 1,307억 원
 -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사 연예 협력사업 추진: 6개 사업, 193억 원
 - 설악동 재건사업 추진(속초): 국비 132억 원 확보('22년 사업비 32.5억 원)

다. 방문객 추이

(단위 :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20,635	23,446	13.6
	기타여행	1,727	1,976	14.4
	총계	22,362	25,422	13.7
외래관광객 수		118	54	-54.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 관광업계 회복지원

- 관광사업체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별 2억 원, 3.5%, 4년 간
- 관광업계 실직자·휴직자 대상 관광일자리 제공
-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성장 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및 관광브랜드 고급화

-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2회, 영동·영서권) 및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11월)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신규양성, 보수교육), 시군 관리 운영 지원
- 도내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즉시환급 시스템 100개소 설치 등
-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활성화: 우수상품 디자인 개선·판촉, 홍보동영상 제작 등

○ 만족도 높은 관광객 수용태세 제고

- 모두누리 관광환경 조성: 관광약자 이동지원, 관광코스 개발 및 여행상품 운영 등
- 도내 관광안내소 49개소 운영 지원: 홍보물 배부, 각종 관광행사 홍보지원 등
-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노후 표지판 정비 및 정보 현행화 등
-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시설 개보수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 강원도관광재단 지역밀착 기능 강화

-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 마케팅, 스마트 관광 추진

- 관광빅데이터 등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 MICE 및 항공·해양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 도 전역 파급 특화프로그램 운영
 -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철도이용 자유여행객 대상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축제 지원: 홍보 및 행사운영비 등 지원
 - 여행주간 지정 운영 및 공연 개최를 통한 DMZ지역 관광활성화
- 변화하는 트렌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기업형 위케이션 활성화 추진
 - 놀러와 강원 관광상품 프로모션: 평화지역 및 소도시 테마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진행
 -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 반려동물 관광지 홍보 및 동반관광 분위기 조성
 - 내비게이션 기반 및 도내 캠핑장 연계 관광마케팅 추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
 - 수도권 거점 상설 축제홍보관 운영(키자니아 서울)
 - 유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주요 관광지·전통시장·맛집 등 홍보
 - 매체활용 지역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제작 소요 비용 실비 지원
 - 국내 주요 관광전 참가 홍보: 5회, 강원도 홍보부스 운영
- 강원 국제안심관광 시스템 구축
 - 국제 안심관광 G-Safe Travels 운영: 방역지원 및 안심관광지 선정·홍보
 - 전담여행사 해외 단체관광객 안심관광 패키지상품 운영: 전담여행사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해외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운영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3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
 - 'Hello! 강원' 글로벌 관광상품 확대 육성: 여행상품 개발, 팸투어, 홍보캠페인 등
 - 동冬통통 스노우 페스타 해외 관광상품 육성: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연계 동계·한류 특화상품 육성
 - 외국인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 동아시아 역내 관광주도 강원관광 글로벌 세일즈
 - 창립 20주년 기념 제17회 EATOF 총회 확대 운영: '22. 10월 중, 베트남
 - 2022 PATA 연차 총회 연계 강원 세일즈: '22. 10월 중, UAE
 - KATA-TVA 한국·대만 관광교류 회의 차기회의(36차) 유치 추진

- 광역관광개발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6개 시군 10개 사업, 대표 관광콘텐츠 확보
 - 북부권(강원·경북) 광역관광개발사업 구상안 수립
- 폐광지역 재건을 위한 관광사업 추진
 - 폐광지역 거점역사 활용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6개소, 역사별 콘텐츠 개발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
 - 폐광지역 4개 시군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및 특화브랜드 개발 등
-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 관광도시 조성
 - 방한외국인의 지역방문 촉진을 위한 전국최초 지역관광거점도시 조성: 4개 분야 33개 사업 추진
 - 강원·경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추진(춘천·가평 특구)
- 기존 관광지 재생을 통한 지역 대표 관광자원 활성화
 - 지역특화 관광 종합개발을 위한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사업 추진: 정선, 삼척
 - 노후시설 및 유휴자원의 관광 매력성 제고를 위한 설악동 재건사업 추진
- 지역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4개 시군, 6개 사업
- 친환경 생태 관광개발로 저탄소 녹색관광 실현: 8개 시군, 9개 사업
- 비대면·힐링·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 자연생태자원 연계 선형기반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3개소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공모)
 - 일반·자동차야영장 기반·숙박시설 조성 등 국민여가캠핑장 3개소 조성 지원
 - 등로야영장 시설 개보수·화재예방·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상생형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 신규지정 2개소, 조성계획 승인 6개소
- 사계절 매력 있는 강원 관광지 조성: 18개 시군 41개소 대상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지역관광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 관광시설 투자유치 활성화
 - 관광시설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운영
 - 도유지 활용 우수 관광시설 투자유치 추진(원주 드림랜드, 춘천 삼천동 수변공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등)
 - 강원관광엑스포장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 어린이·키덜트 감성 자극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강원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	2015. 6. 5.	2019. 3. 8.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999. 7. 15.	2020. 11. 6.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	2018. 9. 28.	2019. 11. 8.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 5. 29.	-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1. 9. 23.	2018. 7. 13.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1. 7. 8.	2019. 1. 4.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지역축제 체계적 육성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산업 발전	2019. 3. 8.	2019. 11. 8.	관광마케팅과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및 행복 증진 이바지	2016. 5. 20.	-	관광개발과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0. 5. 17.	2021. 12. 31.	관광개발과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야영장 육성과 체계적 지원 규정으로 옥외여가문화 확산	2021. 3. 12.	-	관광개발과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탄광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 9. 25.	2021. 12. 31.	관광개발과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평화문화 광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1. 7. 8.	2021. 12. 31.	관광개발과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개정내용
「강원도 관광엑스포 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입장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 추가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제7조 (입장료 등)	입장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 추가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조항 이동)	제14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17조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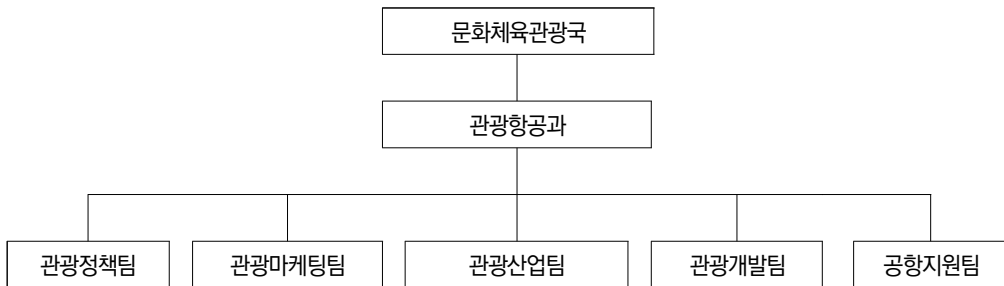
- 입안목적: 옥외 여가 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강원도 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
- 조의 구성

제1조(목적)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2조(정의)	제7조(야영 교육 등)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8조(사무의 위탁)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제9조(시행규칙)
제5조(야영대회 개최)	

11. 충청북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정원	1	5	8	10	-	-	24
현원	1	5	8	9	1	-	24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27,400	25,728

주) 2022년 1회 추경 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관광환경 변화 대응 대표축제 육성 및 관광서비스 제공
 - 경쟁력 있는 축제 선정 지원 : 6개, 3,374백만 원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 항공·관광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코로나19와 충북관광의 방향과 과제(TV토론)
- 관광의 날 행사 : 유공자 표창, 관광두레 설명회 등(M컨벤션)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 180명, 2,084백만 원
- 관광두레 사업(공모) : PD 선정(청주, 음성 각1명 / PD 활동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공모) : 제천, 단양, 영동 선정(사업비, 마케팅 등 지원)
- 열린관광 환경 조성(공모) : 충주 3개소 선정(보행로, 음성·축지 안내판 설치 등)

○ 전략적·혁신적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권역별 관광협의회 연계 관광자원 홍보 : 76백만 원
- 서울-충북 연계 K-트래블버스 충북관광상품 운영 : 30백만 원
-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2개 사업, 14백만 원(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가 및 단체여행객 모객 어려움으로 인센티브 지원 건 감소)
- 내외국인 여행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10회, 30백만 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북 전담여행사 육성·지원 : 2개사, 18백만 원
-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 버스임차료 지원(20개상품) 및 50선 스탬프투어, 51백만 원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중부내륙 힐링여행) 조성 : 3개 사업, 273백만 원
-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관광 홍보 : 28개소, 502백만 원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관광 홍보 : 3회, 85백만 원
- 충북관광 SNS 채널 운영 : 4개 채널, 90백만 원
- 관광 홍보물 제작·배부 : 16종, 125백만 원
-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 12개 사업, 90백만 원
- 충북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충북나드리) : 70백만 원

○ 활력넘치는 관광산업 육성

- 충북↔서울 마이스 공동마케팅 추진: 1회, 2백만 원
- 마이스 박람회참가 충북홍보관 운영: 5회, 27백만 원
- 충북 대표 관광상품 발굴 육성 : 6개 상품, 150백만 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 800백만 원
-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 33편, 198백만 원
-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활성화 마케팅 : 2개 사업, 45백만 원
- 한국관광공사 공동 도내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1회, 20백만 원
- 도 관광안내소 운영 : 3개소 13명, 541백만 원
-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 : 20개소 311백만 원, 2개 프로그램 260백만 원
-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추진 : 4개소 128백만 원

○ 지역고유의 역사문화테마 관광인프라 조성

- 옥천 장계관광지 정비 : 2,000백만 원
- 제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 1,600백만 원
- 제천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조성 : 1,100백만 원
- 보은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 : 500백만 원
- 보은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 : 600백만 원
- 옥천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 100백만 원
- 옥천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 : 100백만 원
- 영동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 2,400백만 원
- 진천 농다리 관광명소화 : 1,000백만 원
-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 : 400백만 원
- 괴산 괴강관광지 정비 : 1,200백만 원
- 괴산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 : 1,920백만 원
- 단양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 360백만 원
- 단양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 600백만 원
- 단양 천동~다리안 탐방로 조성 : 500백만 원
- 단양 상진나루 조성 : 668백만 원
- 단양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 200백만 원
- 충주 목계솔밭캠핑장 조성 : 720백만 원
-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900백만 원
-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 2,218백만 원
-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 2,992백만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92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

-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에어로케이) 출범('21.4)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21.9)
- 청주국제공항 민간 소방대 신축 완료('22.) : 6,6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 구축 완료('22.) : 5,2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 및 시스템 구축('23년 예정) : 9,0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이용권역 케이블 방송 홍보 : 19개 지역, 9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 2개소, 50백만 원
- '21년 국내선 이용객 개항이래 최대 실적 달성(263만명)

다. 방문객 추이

(단위 :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6,915	7,643	10.5
	기타여행	3,202	2,502	-21.9
	총계	10,117	10,146	0.3
외래관광객 수		113	32	-7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⁵⁰⁾

○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및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 경쟁력 있는 축제 선정 지원 : 6개, 4,215백만 원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 9.23~25 / 청주대 / K-pop공연, 문화교류 등
- 항공·관광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10월 / 경쟁력 강화 논의, 전문가 특강 등
- 관광의 날 행사 : 11월 / 기념식(유공자 표창), 특강 등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 176명, 2,085백만 원
- 관광두레 사업(공모) : PD 선정(충주 1명 / PD 활동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공모) : 영동 1개소(사업비, 마케팅 등 지원)
- 열린관광 환경 조성(공모) : 청주, 제천 각2개소(보행로, 음성·축지 안내판 설치 등)

○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북 전담여행사 육성·지원 : 2개사, 18백만 원
-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 44백만 원
- 충북관광 SNS 채널 운영 : 4개 채널, 90백만 원
-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 20개 상품, 80백만 원
- 내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 3개 사업, 140백만 원

50)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외국인 여행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 9회, 45백만 원
-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관광 홍보 : 27개소, 502백만 원
-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광고 홍보 : 3회, 85백만 원
-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 13종, 110백만 원
- 서울-충북 연계 충북관광상품 운영 : 30백만 원
-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 15개사업, 165백만 원
- 권역별 관광협의회 연계 관광자원 홍보 : 82백만 원
- 충북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충북나드리) : 70백만 원

○ 고품격 관광산업 활성화

- 마이스 인센티브 지급 : 28백만 원
- 마이스박람회 충북홍보관 운영 : 27백만 원
- 충북 관광상품 발굴 육성 : 125백만 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 700백만 원
-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 33편, 198백만 원
-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활성화 마케팅 : 4건, 45백만 원
- 충북관광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한국관광공사 협업) : 1회, 20백만 원
- 도 관광안내소 운영 : 3개소 13명, 585백만 원
-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 : 11개소 208백만 원, 1개 프로그램 120백만 원
-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추진 : 4개소 160백만 원

○ 자연자원을 활용한 청정관광 기반 구축

- 제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 660백만 원
- 제천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조성 : 518백만 원
- 보은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 : 1,200백만 원
- 옥천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 1,800백만 원
- 옥천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 : 500백만 원
- 진천 농다리 관광명소화 : 1,600백만 원
-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 : 2,000백만 원
- 괴산 괴강관광지 정비 : 3,400백만 원
- 괴산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 : 1,200백만 원
- 음성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 2,000백만 원
- 단양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 1,428백만 원

- 단양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 1,000백만 원
- 단양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 720백만 원
- 충주 목계솔밭캠핑장 조성 : 1,596백만 원
-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1,500백만 원
-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 2,426백만 원
- 충주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 6,468백만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4,020백만 원

○ 행정수도 관문 공항 실현 및 공항 경쟁력 강화

- 청주국제공항 제3,4 주차장 확장 : 400백만 원
- 제2 주차빌딩 사전 타당성 평가 용역 : 15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 구축('22년 준공) : 5,2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 및 시스템 구축('23년 준공) : 9,0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 8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 30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역 셔틀버스 운영 지원 : 3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이용권역 케이블 방송 홍보 : 21개 지역, 90백만 원
-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 3개소, 50백만 원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충청북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20.11.06		관광항공과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 관광복지 활성화	20.07.10		관광항공과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지원	08.04.04	15.03.27.	관광항공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마이스산업 육성·발전	17.05.18	18.04.06	관광항공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문해설 인력 육성·지원	11.04.01	15.03.27	관광항공과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쟁력 있는 축제 개발·육성	08.04.04	13.04.25	관광항공과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도민의 편익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07.04.13	21.12.17	관광항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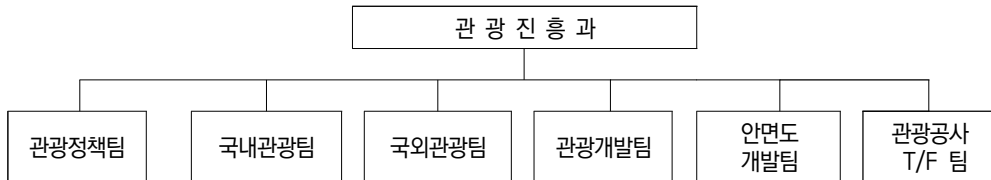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제6조 (지원 신청)	제14조에 따른… → 제15조에 따른…

12. 충청남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	6	8	8	3	-	26
현원	1	6	8	3	5	3	26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67,559,327,070	70,296,992,000

주) 2022년 1회추경 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① **민관관광협치 강화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객 불편사항 발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광모니터단 운영
 - 관광모니터단 위촉(30명), 관광불편사항 발굴개선(유형별 234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운영(2개 과정, 84백만 원)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8명), 보수교육(온라인 167명)

- 관광드라마을 육성지원(4개소, 30백만 원)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육성으로 공동체의식 회복 및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10개소, 28백만 원)
 - 템플스테이 사업과 인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②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 강화**
- 국내여행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4회), 설명회·홍보전(2회), 팸투어(8회) 실시
 - 여행주간 홍보 및 관광업계 참여유도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
 - 축제, 농촌체험, 특산물 판매를 연계한 온라인 마켓(G마켓) 운영(1억2백만 원, 5개 시군)
-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충남관광 홍보 강화
 - 충남관광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한 충남여행 관심도 제고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
 - 관광 홈페이지 테마여행 콘텐츠 제작 및 웹진 발송(매달 1회)
- 핵심관광지 육성 및 대표 관광상품 발굴로 충남관광 경쟁력 확보
 - 「테마여행 10선」 백제권 지역특화 코스 개발 추진
 - ※ '20년 : 금강오딧세이 테마버스 운영, 금강식후경 이색체험 여행상품 개발, 스마트 관광택시운영 등
 - 시군(5개 :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연계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통한 충남의 대표 관광코스 개발
- ③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축소 추진**
- (팸투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설명회 추진
 - 중화권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10~11월 / 2회)
 -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3~12월 / 6회)
 - 찾아가는 충남관광설명회 개최(3~7월 / 10회)
- (박람회) 국내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부산국제관광박람회 참가(9월)
- (공모전) KT&G와 함께하는 청소년 충남문화여행 콘텐츠 공모전 실시
 - 충남 관광 홍보콘텐츠 21팀 제작·참여, 4팀 입상(10~11월)

④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추진

- 서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204억 원)
 - 논산 강경근대역사 문화촌, 예산 착한농촌 체험세상,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등
-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방문 건의 등 노력(8회)
 - ※ 사업규모 : 3개시도 40개 사업 6,167억 원, 우리 道 10건 1,693억 원('17~'26)

⑤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수요 창출

-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및 휴양 공간 확충
 - 지역 관광자원 명소와 테마로 연결, 네트워크형 관광개발
 - ※ 체험관, 전시관, 탐방로, 공원, 안내 및 편의시설 등 조성
- 총사업비 91,855백만 원(국 16,636, 도 30,346.5, 시군 44,872.5) / 도 본청 및 15개 시군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49개소)	91,855	16,636	30,346.5	44,872.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0개소)	20,402	10,201	-	10,201
관광자원개발(31개소)	60,547	6,435	24,893.5	29,218.5
관광개발(균형발전사업)(8개소)	10,906	-	5,453	5,453

주) 관광자원개발: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탐방로, 관광인프라, 기업도시, 기금, 계획공모 포함

- 관광 트렌드 변화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관광지 조성 및 재정비
 - 관광(단)지 지정 관리 : 27개소
 - 신규 관광단지(지정 협의 중) : 1개소(원산도 대명리조트)
 - 정비사업 추진 : 4개소(덕산온천 1, 삼교호 1, 춘장대해수욕장 2)
- 유원시설·야영장 안전대책 수립 및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 방역실태 관광시설 현장점검(총 1565회, 관광숙박 38 야영장 230 유원시설148)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관광숙박업, 야영장 안전점검
 - 관광숙박업 10.7.~11.3. / 22개소 , 야영장 10.7.~11.3. / 46개소
 -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 5.8.~6.25. / 64개소
 - 겨울철 야영장 안전 점검 : 11.22.~12.24. / 63개
 - 동절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 : 2.25.~3.3. / 2개소(보령, 아산)

- 봄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 : 3.23.~4.9. / 65개소
- 하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 방역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 6.16.~7.21. / 15개소
- 하반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 점검 : 8.30.~11.19. / 18개소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14,952	15,433	3.2
	기타여행	4,694	3,713	-20.9
	총계	19,645	19,146	-2.5
외래관광객 수		166	44	-73.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① 지속가능한 충남관광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관광거버넌스 구축

- 「충남관광협회」와 「충남관광협의회」 양 체제로 운영, 단체 간 보완·협력 체계시스템 구축으로 충남관광 민간역량 강화

→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등 발전적 추진

○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171명)·전공심화(22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관광객 불만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충남 관광모니터단 운영(30명)

○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추진 및 민간역량 강화

- 다양하고 참신한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주민 주도의 관광두레 마을 시범 육성(2개 마을 공모 선정)

② 지역문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한 축제 육성·지원

-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68회 백제문화제」 개최(22.10.1.~10.10.)
 - 백제 역사, 문화의 고유성 및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로 연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준비
 - 당초, 2021.10.1.~17.에서 2022.10.7~23일로 1년 재연기 개최 결정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17.9.), 운영 중 (2본부 6부)
 - 조직위원회, 계룡시, 국방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향토문화 축제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3년 문화관광축제(2개), 예비 문화관광축제(2개)
 - 道 선정 지역향토문화축제(11개),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운영(5개)

③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 관광 마케팅 활동 강화

- 국내여행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5회), 설명회·홍보전(4회), 팸투어(5회) 실시
 - 여행주간 홍보 및 관광업계 참여유도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
 - 농촌체험, 특산품 판매를 연계한 온라인 마켓(G마켓) 운영(153,000천원 / 5개 시군)
-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충남관광 홍보 강화
 - 충남관광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한 충남여행 관심도 제고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
 - 관광 홈페이지 테마여행 콘텐츠 제작 및 웹진 발송(매달 1회)
- 대표 관광상품 발굴로 충남관광 경쟁력 확보
 - 시군(5개 :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연계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통한 충남의 대표 관광코스 개발

④ 포스트코로나 대비 충남도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재시동

- (관광설명회)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팸투어 및 찾아가는 관광설명회 실시
 - 유망 여행사 대상 충남관광 세일즈 활동 및 초청 팸투어 추진
- (홍보자료)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
 - 영어, 중국어, 일어 홍보책자 및 홍보 동영상 제작

- (SNS홍보) KT&G 연계 충남관광 홍보 공동사업 추진
 -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 및 SNS 홍보전을 통한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공동마케팅으로 충청권관광객 유치 활성화
 -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 합동 협력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힐링, 비대면 관광지 등)
- ⑤ **지역의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 지역균형 관광발전을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속 추진
 -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5개소), 공사(5개소) 추진
 - ※ 2022년 국비 149억 원 확보(논산 36, 부여 15, 청양 20, 예산 61, 공주 9, 금산 8)
 -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화·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및 휴양공간 확충
 - 체험관, 전시관, 탐방로, 공원, 안내 및 편의시설 등 조성
 - ※ 총 39개 사업, 714억 원(국비 64, 도비 303, 시군비 347)
 - 유원시설·야영장·관광숙박업 안전관리 강화(연 3회 점검)
 - ※ 총 416개소(유원시설 148, 야영장 230, 관광숙박업 38)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충청남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 등	21.09.30.	-	관광진흥과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사항 규정	21.07.20.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 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	08.12.24.	21.04.30.	
충청남도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이스 산업 육성, 관광 경쟁력 강화	21.04.30.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 등	20.07.10.	21.04.30.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지원 사항 규정	10.03.10.	19.05.30.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규정	21.12.30.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련 사항 규정	94.11.15.	18.12.31.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야영장 육성·지원, 옥외 여가문화 확산	21.04.30.	-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재)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관련 지원사항 규정	06.03.20.	15.12.30.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백제문화재단 설립, 운영·지원 관련 사항 규정	07.02.20.	20.04.0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우수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07.10.01.	20.06.10.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p>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피해가 무엇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임.</p>	<p>제명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않으나관광”을 “않으나 관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을 “관광사업자,”로 한다.</p>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제8조제1호나목 중 “중·저가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제15조제1항 중 “등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를 “등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진흥 조례 부칙으로 개정(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제2조(정의)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추진사업)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행사 개최·참가 등)	제11조(회의)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12조(시행규칙)

○ 조례명: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정의)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사무의 위탁)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포상)
제7조(실태조사)	제15조(시행규칙)
제8조(협의회의 설치)	

○ 조례명: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2조(정의)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업무의 위탁)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제9조(시행규칙)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 조례명: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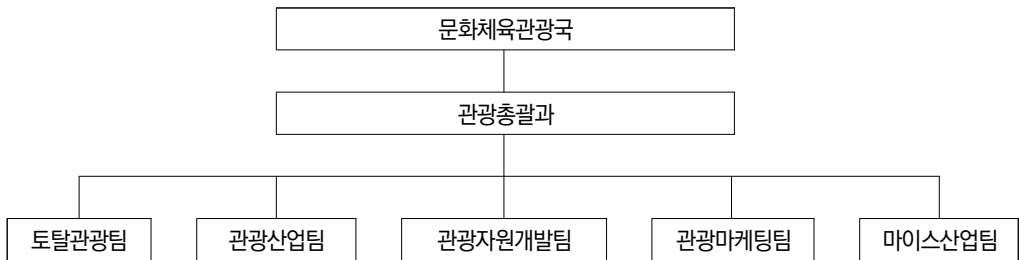
- 입안목적 :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제2조(정의)	제8조(야영 교육)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사무의 위탁)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11조(시행규칙)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13. 전라북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운영	계
정 원	1	5	11	4	2	1		24
현 원	1	5	10	2	2	3		23

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제외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84,317,605,000	75,442,522,000

주) 추경 14,000,000,000원(미포함)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인프라 조성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선정(진안군 국비 60억 원)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선정(전주, 남원, 진안, 부안 9개지점 국비 22.5억 원)

-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공모선정(남원시 국비 1.1억 원)
-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1곳 선정(완주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 시군 대표축제 및 시골마을 작은축제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 개최(23개)
-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개(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화암사, 고창 병바위& 두암초당)
-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3개(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무주 구천동어사길, 진안 운 일암반일암 숲길)
-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개(남원 지리산 둘레길 3코스, 무주 적상산사고)
-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개(완주 상관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 고창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 전북투어패스 지속 운영으로 지역관광활성화 유도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관광에서 국내관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전북투어패스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관광활성화 유도
 - (가맹점) 투어패스 양질의 가맹점 확보(22개) 및 교육 지속 실시
 - ※ 자유이용시설 90, 판매소 65, 특별할인가맹점 425
 - (상품개발) 체험, 교통, 문화·전시, 축제 등 연계상품 개발(14개)
 - ※ 체험(3개, 무주리조트 곤도라 패키지 등), 교통(1개, 코레일 남원춘향여행권), 문화·전시(3개, 정읍 피카소 특별 전시 연계 패키지 등), 축제(3개 진안 꽃잔디등산 관람 연계 등, 기타(4개, 임실치즈테마파크 연계이용 등)
 - (홍보) 투어패스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
 - ※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372회회), 투어패스 블로그기자단(12명) 활동

○ 전라북도 관광벤처기업 육성 3개(체험형 1개, IT형 2개)

○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운영 21팀(여행인플루언서,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등) 참여

○ 단계적 일상회복 및 관광산업 재개 대비 전북관광 홍보 마케팅 전개

- 개별여행 지원사업 추진(가족·소규모 여행객 10,860명유치)
- 해외관광객 대상 전북관광 홍보(전북트래블마트, K-글로벌 캠핑페스티벌 등)
- 국제관광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홍보(온라인아카데미 및 랜선여행 등 / 13개국)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서울시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교류협약 체결
- 유니크메뉴 7개소 선정(코리아 유니크메뉴 2개소, 전북 유니크메뉴 5개소)
 - ※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왕의지밀, 팔복예술공장, (정읍)내장산생태탐방원, (무주)태권도원, (순창)शल랜

- 드, (고창)상하농원
- 전라북도 마이스뷰로 지정(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전북 마이스산업 청년현장활동가 육성(7명)
- 전북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구성(18개 단체·업체)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11,132	11,984	7.7
	기타여행	2,661	1,854	-30.3
	총계	13,794	13,838	0.3
외래관광객 수		86	29	-6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⁵¹⁾

- 중앙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관광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구축(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2022~2026)
 - 외래관광객 쇼핑만족 제고를 위한 쇼핑관광활성화 추진(국비 10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 2022~2025)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을 연계한 생활관광활성화 추진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 체험기반의 장기체류 관광활성화 및 친환경 여행프로그램 운영
 - 여행인플루언서 참여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도비 0.3억 원)
 - 탄소중립 ESG친환경 전북여행(도비 1억 원)
 - 이성계 로드스쿨라 역사탐방(도비 1억 원)
-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2022~2026)

51)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라북도 권역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 기여

○ 전국 4대 관광거점 도시 육성(전주 한옥마을)

- 한문화가 관광도시 브랜드로 거듭나는 가장 한국적인 글로컬 문화관광도시, 전주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관광콘텐츠, 관광브랜드 전략수립 및 수용태세개선과 관광연계 효과 극대화 추진
- (계획) 2020~2024년(5년간)까지 11대 분야 37개 사업(총 1,277억 원 / 국비 490, 도비 198, 시비 589)
- (효과)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관광만족도 90점, 관광GRDP 3%달성, 일자리 창출 4만 명 창출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남원시, 진안군)

- (남원시) 관광지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스토리 기반의 빛의 자원화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통합 개발 추진
 - (계획) 2020~2024년(5년간) 총 150억 원을 투자하여 달빛공원, 사랑의 종설치, 모노레일, 홍보마케팅 추진하여 203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달성
- (진안군) 진안군의 자연경관과 특화자원인 '홍삼'을 활용, 산림과 마을을 연계한 치유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특화거리 조성
 - (계획) 2021~2024년(4년간) 총 138억 원을 투자하여 진안고원형 치유관광콘텐츠 개발, 홍삼한방타운 치유거점조성사업, 진안고원 치유음식 및 치유체험특화거리 조성, 헬스푸트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관광활성화 유도

○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및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 전북 대표축제 대상 전문기관 컨설팅 및 현장평가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문제점 개선으로 축제 경쟁력 향상
 - 대상 : 14개 시·군 대표축제(1시군 1축제)
 - 주요내용 : 시군 축제 담당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3월), 사전컨설팅 및 현장평가(4~11월), 시군 대표축제 최종평가(12월)
- 소규모 축제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대상 : 14개 시·군 시골마을 작은축제(14개) 및 지역특화형 마을축제(7개)
 - 주요내용 : 시군 축제 담당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3월), 축제별 사전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4~11월)

- 전라북도 여행업계 민생회복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된 여행업체 대상으로 경영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 도내 577개 여행업체, 각 80만원 지원
-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 관광명소를 코스별 테마 관광상품으로 운영하여 관광수요 창출
 - 매주 토·일 도내형, 광역형, 기차연계형 78코스 운행
- 창조형 관광자원개발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지역특화(관광지, 관광자원)개발 : 익산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등 37개 사업 574억 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전주 한옥마을관광기반조성 등 10개 사업 274억 원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 스마트관광 요소를 접목하여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도모
 - (계획) 2022~2024년(3년간) 총 95.6억 원을 투자하여 흥얼버스킹, 스마트주막, VR·AR·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 스마트관광도시 구현
-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1,120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전북관광자원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교육여행 콘텐츠 개발, 사전답사 및 체험학습비 지원
 - 투어매니저 운영 및 전북방문 여행객 지원사업 추진
 - 국내·외 여행관계자, 언론 및 여행블로거 등 대상 팸투어 추진
- 맞춤형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해외 로드쇼 및 박람회 참가(2회)
 - 전북관광 자원 홍보 '전북트래블마트 개최'(1회)
 - MZ 세대 대상 홍보마케팅 강화 '외국인 대학생 대상 팸투어 추진'(1회)
 -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홍보마케팅(4회)

- 전북 SIT(특수목적관광)브랜드 상품 마케팅
 - 태권도, 전통문화, 생태자원 등 우수자원 연계 특수목적관광 상품 개발(4회)
 - 관광설명회, 관광홍보관 운영 등 특수목적관광 상품 홍보(4회)
 - 태권도 연계 관광국제교류 행사 추진(1회)
 - 관광콘텐츠 제작(2회) 및 홍보마케팅(13개국 63개 기관)
 - 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5회)
- 미디어 활용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 전북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업로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웨이보 등)
-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전북홍보관 운영(총8회, 국내6회, 해외2회)
 -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내나라 여행 박람회, 제37회 서울국제관광전 등
-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조성 및 전북관광활성화
 - 22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북여행 '전북 오시개'길 4개소 추가 지정(전주 바람 쐬는 길, 군산 금강습지생태공원, 익산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용안생태습지공원, 고창 갯벌 생태탐방로)
 - ※ 21년 지정현황 새만금광역탐방로(김제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공원(남원시), 경천애인 징검다리(완주군), 오수 의견관광지(임실군), 윤일암반일암 숲길(진안 고원길 9구간, 진안군), 섬진강예향천리마실길(순창군)
 - 관광수용태세 개선 안내판 설치 추진
 - 반려동물 여행상품 개발·홍보 및 관광객 유치
- 테마별 관광지 5개 분야 60개소 발굴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등)
- 전북 마이스산업 지원 및 유치 기반 강화
 - 전북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육성(4개)
 - 마이스 학회행사 유치 확대
 - 마이스 얼라이언스 확대 및 앰버서더(홍보대사) 위촉
 - 마이스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유니크베뉴 추가지정(5개소)
 -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개최 지원
- 마이스 홍보마케팅 강화
 - 아태 마이스 페스티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 마이스 설명회 및 전문가 팸투어 추진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전라북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전라북도 관광진흥조례」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9.28	2018.11.9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1.17	-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29	2020.9.20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9.22	2020.9.20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31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역문화·관광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북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2011.10.14	2015.8.7	관광총괄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조성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5.1	2019.6.7	관광총괄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12.8	2021.4.9	관광총괄과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교통수단 등을 하나의 카드로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2.1		관광총괄과

14. 전라남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정원	1	1	4	9	7	22
현원	1	1	5	9	8	24

주) 관광문화체육국장 포함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98,475,804,000	96,269,100,000

주) 2021년 관광과 결산(최종예산) 기준, 2022년 관광과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전라남도는 2,165개의 섬과 6,743km의 긴 리아스식 해안선, 1,054km²인(세계문화유산 지정면적의 87%) 갯벌, 국립공원 6개소, 문화재 1,266점,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107개소, 법정 관광지 36개소가 있다.

깨끗한 공기, 햇볕이 많고 땅이 오염되지 않아 친환경농업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국 인증 면적의 56%를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정 바다에서는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 85%를 차지한다. 피로회복에 좋은 음이온 농도는 수도권의 15배가 넘고, 일조량이 수도권보다 20%가 많아 풍력, 태양광, 조류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적지이며, 겨울철에는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가 슬로시티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 일상 속 청정 관광지로서의 전남 위상 구축 및 민생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와 문화예술인 등 지원
 - 여행업체 : 2회 / 1차 525개 / 2차 560개
 - 문화예술인 : 3,489명
- 관광업계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확대, 상환 연장
 - 12개 업체 5,561백만 원 용자 지원 / 12개 업체 1,034백만 원 1년 상환 연장
-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
 -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추진 : 교통편의성 제고 등 20개 사업, 278억 원
 - 관광지 조성사업 : 영산호관광지 조성 등 13개, 70억 원
 - 문화관광자원 개발 :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등 95개, 387억 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목포 용해생태체험시설 조성 등 31개소, 100억 원
 - 노후 관광지 재생(3건, 37억 원), 청정 전남 이미지 강화(4건, 6억 원)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 6개소, 1,000백만 원

○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문화상품 개발

- 해양, 생태, 문화, 음식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소득 창출
 - 관광 신산업 창업 지원 : 10명, 3억 4천만 원
- 해외관광객 유치추진
 - 외국인 농촌 체험 및 해양 체험 상품 개발 운영
 - 일본 온라인 체험 관광 상품 운영
 - Ready to Go to Korea 태국 온라인 관광설명회 참가
 - 무안국제공항 관광 교통 안내 키오스크 구축
 - 글로벌 여행 잡지 등 관광 홍보 실시

-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내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예산지원
 - 남도여행 으뜸상품 운영 : 18개 여행사, 36개 상품, 6,259명 유치
 -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 상품 운영 : 4개 여행사, 4개 상품, 759명 유치
 -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 232회, 3,402명
 -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운영 : 14개 시군, 77팀, 120명
 - 전남·광주 통합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운영 : 가맹점 442개소, 3,409매 판매
 -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 34건, 11,293명 유치
 - 문화관광축제 : 보성다향대축제 등 3개 축제, 90백만 원 지원
 - 도 대표 및 지원 축제 : 목포항구축제 등 10개 축제, 2억 원 지원

○ 관광진흥체계 정비 및 수용태세 개선

-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등 상생협력체제 구축
- 전남관광발전협의회는 2010년도 관광 관련 주요 12개 기관을 비롯한 관광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전남관광 발전방안 등 토론 및 연구 추진
- 관광사업체 및 도민들의 능동적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친절교육 실시
- 여행트렌드에 부응한 홍보마케팅 전개
 - 온라인 마케팅 : 포털사이트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용 홍보
 - 오프라인 마케팅 : 박람회 홍보관 운영, 관광설명회 개최, 팸투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대중매체 활용 홍보 : TV·라디오, 인터넷 배너, 교통시설(KTX·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수단(버스, 기차), 지면(신문, 잡지) 활용 홍보
 - 스마트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 공익 해설 서비스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426명(한국어 357, 영어 22, 중국어 23, 일본어 24)
 - 전라남도 관광정보센터 운영 : 6개소, 안내원 9명 상근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15,662	17,731	13.2
	기타여행	3,941	2,398	-39.2
	총계	19,603	20,129	2.7
외래관광객 수		60	26	-56.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⁵²⁾

전라남도는 매력 전남 체류형 관광 육성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 및 환대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으로 관광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중점 및 역점 추진방향

- 전라남도 방문의 해 집중 홍보로 전남 관광 재도약
 -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남관광 홍보마케팅 집중 추진
 - 안정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운영
 - 여행하기 쉽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강화
 -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 총량 증대
 - 시군의 주체적 참여와 협조로 연간 축제 분위기 조성
-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및 생태계 구축
 - 섬·해양·내륙 연계 관광개발
 - 관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관광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관 협업 강화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콘텐츠 개발 홍보
 - 수요자 중심, 쌍방향 스마트콘텐츠 개발 홍보
 - 국제 관광시장 재개 대비 외래객 유치 세일즈 마케팅

52)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전라남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	21.07.01.	-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12.05.25.	21.05.20.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흥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21.07.29.	-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관광객 유치 활성화	21.09.30.	-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남도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	12.12.27.	17.08.10.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이바지	10.08.13.	21.12.30.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03.06.05.	15.02.26.	관광과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	12.07.27.	21.05.20.	관광과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16.12.29.	19.06.11.	관광과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	16.05.16.	20.03.16.	관광과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	20.06.29.	-	관광과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21.07.29.	-	관광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역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20.06.29.	-	관광과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념하고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각종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	08.04.04.	15.02.26.	관광과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실현	20.05.21.	-	관광과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15.12.31.	20.01.17.	관광과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결쟁력 강화	20.01.07.	20.07.01.	관광과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 개정	제4조	경제과학국장 → 전략산업국장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국내 여행 수요의 급증이 예측됨에 따라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조의5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신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 개정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일자리정책실장, 경제과학국장 →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

제1조(목적)	제7조(위원회 구성)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지원 사업)	제11조(간사)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 조례명: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제1조(목적)	제6조(기초조사 등)
제2조(정의)	제7조(지원 사업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	제9조(교육 및 평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1조(시행규칙)

○ 조례명: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제1조(목적)	제6조(이용료 면제 등)
제2조(정의)	제7조(이용료의 환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준수사항 교육 등)
제4조(남도한바퀴 운영)	제9조(위탁운영)
제5조(이용료 납부 및 결정)	제10조(지원)
	제11조(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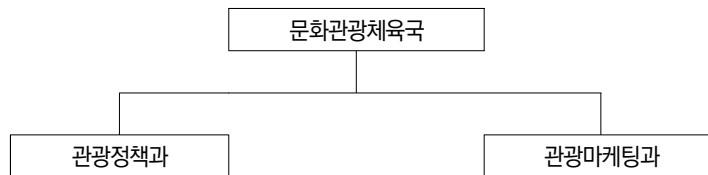
○ 조례명: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제1조(목적)	제6조(사업 지원)
제2조(정의)	제7조(해설사 배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참여 활성화)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규칙)
제5조(조사·연구)	

15. 경상북도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이하	계약직	기능직	계
계	1	2	7	9	8	3	1	-	31
관광정책과	-	1	3	5	5	1	-	-	15
관광마케팅과	-	1	4	4	3	2	1	-	15

주) 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126,206,947,000	96,698,893,000

주) 2021년: 결산 기준, 2022년: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범지역적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광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및 유튜브·TV프로그램 활용 동해안권 홍보영상 제작
- 「경북관광혁신위원회」 운영 : 릴레이간담회(5회), 정책연구 과제(4건)

-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251건(보조사업 220건, 융자사업 31건)
 - 지원금액 : 18,890백만 원(보조사업 8,970, 융자사업 9,920)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원대상 : 478개소(음식 363, 숙박 115)
 - 지원금액 : 6,925백만 원(음식 6,138, 숙박 787)
- 관광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실적 : 15개 업체, 87명(500백만 원)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
 - 선비이야기여행 : 선비이야기여행 투어카드 운영 및 홍보사업, 관광역량강화 및 컨설팅 등
 - 해돋이역사기행 :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포럼·관광상품 운영 등
- 매력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 문화·생태·녹색 등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 및 기존 관광지 생태·녹색 등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 및 기존 관광지 재정비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지 개발 3개소(2,500백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40개소(61,402백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7개소(8,400백만 원), 탐방로안내체계구축 2개소(500백만 원)
 - 생태녹색관광자원화(2개소) 사업 추진(508백만 원)
- 체류형 관광 기반마련
 -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 봉화군(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 2,000백만 원
- 테마체험 관광기반 확충
 - 소규모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 5개 시군, 5개소, 435백만 원
-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 3개 군 3개소, 400백만 원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9개소, 453백만 원)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 23개 시군, 43개 사업지구 선도·전략사업 추진
 - 완료(41), 공사 중(2)
 - 2021년 안동 세계유교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6개소 공사 마무리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11개 사업)
 - 사업비 : 4,742백만 원
 - 주요사업 : 경북문화기행 “HI! STORY 경북”, 3대문화권 공동홍보, 3대문화권 활성화 포럼 운영, 대표아미추어 발굴육성, 문화보부상, 3대문화권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경북투어패스) 등

○ 3대문화권 후속 광역관광개발 추진

- 낙동문화권 광역연계협력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3개 시도, 22개 시군구) 유희 문화관광자원 리뉴얼 및 DNA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보급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마케팅 추진

- 코로나19 극복 경북관광 활성화 지원 : 200백만 원, 2개 사업 추진
 - 여행업살리기 프로젝트 160백만 원(여행업체당 1백만 원 코로나 지원금 지급)
 -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 40백만 원
- 민생살리기 경북여행대전 추진 : 2,500백만 원, 10개 사업
 - 세계유산축전 연계 관광상품, 세계유산 팸투어, 경북관광 홍보관 운영, 훈민정음 주간 특집방송 제작, 공유차량 서비스 제휴 관광객 유치,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 연계 특별이벤트, 코레일 제휴 관광상품 운영, 숙박대전 등 여행할인 등 10개 사업
- 한류관광 콘텐츠 개발 : 300백만 원
 - 2021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21.10.5.~10.9./경주)
 - 한류스타 활용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해외 인플루언서 홍보영상 제작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경북관광 홍보 추진

-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시군 홍보마케팅 지원, 파워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스포츠 경기장 활용 마케팅, 광역교통수단 이용 마케팅 등 5개 사업, 1,400백만 원

○ SNS 관광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및 바이럴마케팅 : 350백만 원

- 관광포털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 및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
- 여행리포터(26명), 여행작가(6명), 여행 V-LOG단(10명) 운영

구 분	홍보매체	방문 및 구독자수	주요내용	
홈페이지	경북나드리	227만 명	추천맛집, 추천여행, 게스트하우스, 이달의축제 등 경북권 관광안내 및 홍보	
SNS	국내	네이버블로그	161만 명	영덕 죽도산전망대 외 455건
		카카오스토리	7.8만 명	포항Park1538외 207건
		페이스북	17만 명	영덕 죽도산전망대 외 641건
		인스타그램	3만 명	경북의 해안트레킹 외 647건
		유튜브	4.5천 명	날아서 경북속으로in칠곡 외 246건
	중화권	웨이보	52만 명	의성 반려견 동반여행 외 105건
		페이스북	3.1만 명	경주 동궁원 외 105건
	일본	페이스북	3.2천 명	청송 온천여행 외 105건
	영어	페이스북	5.9만 명	안동 도산서원 외 105건
홍보단		인원	활동내용	
여행리포터	26명	경북의 해안트레킹 등 홍보 취재	여행기사 362편, 영상 55편 제작	
여행작가	6명	경북 향토음식, 특산물 기행 등		
V-log단	10명	23개 시군별 관광자원 홍보영상 제작		

- 명사와 함께 하는 인문기행, 백두대간 인문캠프 운영(140백만 원)
 - 4개 시군(영천, 봉화, 칠곡, 경주) 대표 관광지
 - 참여명사 : 신병주(영천), 손미나(봉화), 최진석(칠곡), 최광식(경주)
 - 주요내용 : 현장 초청강연, 추천관광지 답사, 문화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 상품개발 및 지원(81백만 원)
 - 대상시군 : 경주, 안동, 영주
 - 체험관광상품 운영, 홍보영상 제작 및 SNS 홍보, 내외국인 팸투어 등
- 시군별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 : 334백만 원(도비 167백만 원, 시군비 167백만 원)
 - 11개 시군(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 시군별 신규 전략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
- 야간관광상품 운영 : 334백만 원(도비 100백만 원, 시군비 234백만 원)
 - 10개 시군(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청도, 성주, 예천, 울릉)
 - 사업내용 : 달빛기행, 유적지답사, 농촌체험, 공연·이벤트 등
- 분천역 산타마을 개장 및 운영 : 40백만 원
 - 사업내용 : 분천역 산타마을 운영 지원 및 홍보(여름 산타마을축제 온라인 개최)

- 국내관광 박람회 참가 :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 등 4건 참가, 11만명 관람
- 경북관광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 150백만 원
 - 지원사항 : 경북 여행상품 구매시 상품가의 50%, 최대 10만원 지원
 - 판매건수 : 1,643건(가족포함 수혜인원 : 4,930명)
 - 판매금액 : 392,550천원 (할인 지원액 : 140,000천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 450백만 원
 - 대상국가 :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등
 - 국제관광박람회(6회), 홍보설명회(3회) 참가
 - 무빙레터, SNS, 웹드라마, 웹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인도네시아 좋은 친구들 예능제작 지원 및 외신기자, 여행사 대상 팸투어 실시
- 국외전담여행사 운영 : 50백만 원
 - 국외전담여행사 선정(16개사)
 - 테마형 랜선투어(13회) 진행, 신규관광상품 개발(3개) 및 OTA 상품등록(49개)
- 해외 현지홍보사무소 운영 : 240백만 원
 -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5개소 운영 및 SNS 홍보단 구성(90명)
 - 현지 여행업계, 언론, 항공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현지 매체(옥외광고, 여행잡지) 활용 경북관광 홍보
 - 현지 월별 주요동향 파악, 홍보사무소 SNS 계정 개설 및 이벤트 실시
- 문화관광 축제 지원
 - 사업비 : 3,182백만 원(국비 91, 도비 91, 시군비 3,000)
 - 선정현황 : 포항국제불빛축제, 청송사과축제, 봉화은어축제
 - 축제개최 : 포항국제불빛축제, 봉화은어축제 온라인 개최(미개최 : 청송사과축제)
- 시군우수축제 지원
 - 사업비 : 6,867백만 원(도비 652백만 원, 시군비 6,115백만 원, 기타 100백만 원)
 - 14개 선정(최우수 2, 우수 4, 유망 6, 육성 2)
 - 개최(온라인) : 영덕대게, 영천보현산별빛, 경산갯바위소원성취, 의성슈퍼 푸드마늘, 영양산나물, 청도반시, 김천자두포도축제

○ 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

- 사업비 : 951백만 원(도비 390백만 원, 시군비 561백만 원)
- 22개 시군(군위 제외)유료관광지, 숙박 등 연계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
- ※ 2021년 판매실적: 73,554건 2,121백만 원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13,595	19,393	42.6
	기타여행	2,969	3,241	9.2
	총계	16,564	22,634	36.6
외래관광객 수		86	24	-7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 범지역적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영호남 관광교류전(전북과 교류, 60여 명)
- 관광행정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 4개 시·도 공동 관광상품 개발 홍보 협력
 - 도·시·군 협의체 협력사업 추진 : 권역별 공동홍보 마케팅 및 협력사업
 - 경북관광혁신위원회운영(53명) : 국책과제 발굴 릴레이 간담회, 정책과제 연구, 정책심포지엄, 경북관광 중·장기 정책개발·비전 제시, 정책자문 등

○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 사업기간 : 2019~2028년(10년)
- 목 표 액 : 1,000억 원(도비 500, 시군비 500)
- 2022년 운용액 : 153억 원(용자사업 55, 보조사업 35, 예탁 50, 예치 13)

- 지원조건
 - (용자사업) 최대 5억 원까지 용자 : 0.8% 대출
 - (보조사업)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 자부담 총사업비의 20%
-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신축·개보수비 용자, 관광콘텐츠 개발 및 도 역점 추진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사업(120백만 원)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력을 갖추기 위한 보수교육 추진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35백만 원) : 친절해설 실천 결의대회, 해설기법 강화 교육, 도내 우수관광자원탐방 등 실시로 현장역량강화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5,474백만 원) : 활동비(식비, 교통비), 환경개선(근무복, 해설장비), 상해보험료 등 지원

○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2,000백만 원)

- 주관/참여/운영 : 경상북도/경주시/경북문화관광공사
- 사업내용
 -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성장단계별 입주기업 모집,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관광업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노무, 마케팅, 회계 등 종합컨설팅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인재양성) 관광기업↔청년 인턴매칭, 관광아카데미 운영, 관광일자리상담소 운영 등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원대상 : 관광지 인근 또는 관광객대상 음식점 및 숙박업소
- 지원금액 : 최고 2천만 원 * 자부담: 30%
- 사업비 : 40억 원(도비 20, 시군비 20)

○ 관광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 추진

- 참여업체 : 도내 등록 관광사업체(관광진흥법 기준 등록업체)
- 지원내역 : 인턴 채용 시 인건비 134만 원 지원 *최저임금(월 1,914,440원) 70%
- 사업비 : 2억 원(도비)

○ 경북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사업 추진(700백만 원)

- 사업내용 : 관광두레PD 활용 관광사업체를 발굴하여 창업에서 경영까지 지원
 - 예비·경북 관광두레 PD 선발(예비 6, 경북 2), 주민사업체 발굴(20개), 협력주민 사업체 사후관리(8개)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0~2025년(6개년)
- 사업비 : 975억 원(국비 488, 도비 146, 시비 341)
- 사업위치 : 안동
- 사업내용 : 거점도시 대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브랜드 육성 등
 - ※ '22년 사업비: 10,500백만 원(국비 5,250, 도비 1,575, 시비 3,675)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 ① 사업위치 : 포항
 - 사업기간 : 2020~2024년(5년)
 - 사업비 : 120억 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48)
 - 사업내용 : 관광상품 및 지역 특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노후 관광시설 리모델링 등
 - ※ '22년 사업비: 3,300백만 원(국비 1,650, 도비 330, 시비 1,320)

- ② 사업위치 : 영주
 - 사업기간 : 2021~2025년(5년)
 - 사업비 : 120억 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48)
 - 사업내용 : 관광상품 및 지역 특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노후 관광시설 리모델링 등
 - ※ '22년 사업비: 720백만 원(국비 360, 도비 108, 시비 252)

○ 매력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 문화·생태·녹색 등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 및 기존관광지 재정비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지 개발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사업 등 5개소 9,625백만 원(도비 5,293, 시군비 4,332)
 - 문화관광자원 개발 : 전통 한옥촌 조성사업 등 50개소 75,203백만 원(도비 43,184, 시군비 32,019)관광자원화 사업 등 40개소 61,912백만 원(도비 37,763, 시군비 24,149)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2개소 12,005백만 원 (균특전환 5,812, 도비 530, 시군비 5,663)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 금오동천둘레길조성사업 등 3개소 2,540백만 원(균특전환 1,300, 도비 220, 시군비 1,020)
 -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추진 : 2개소(포항, 문경), 560백만 원(국비 280, 도비 84, 시군비 196)
-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 봉화군(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 6,000백만 원
-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 체험프로그램 운영(13개소, 630백만 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3개소, 400백만 원)
- 3대문화권 인프라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3대문화권 인프라 활성화 지원
 - 13개 시군, 14개소 3,544백만 원(관광진흥사업 이월)
 - 4개 시군, 4개소 180백만 원(자체사업)
 - 3대문화권 숙박시설 활용 밀키트 및 미식여행 개발운영 시범사업
 - 2개 대표 시군(안동, 고령), 4개 연계 시군 400백만 원
- 3대문화권 후속 광역관광개발 추진
- 낙동문화권 광역연계협력사업 기본구상 용역 완료('21. 7월)
 - 제20대 정부 지역 공약 반영 ☞ 다부처 국비지원 건의
 - (3개 시도, 22개 시군구) 유희 문화관광자원 업사이클링, 관광형 통합 교통 서비스 (TMaaS),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등
- SNS 활용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사업비/매체 : 350백만 원 / 경북나드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사업내용 : 경북여행리포터단 운영(30명), 폭넓은 관광자원 취재 및 홍보, 숨은 관광지 발굴 SNS채널 게시 및 유튜브 동영상제작 홍보
-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전략마케팅 추진
- 예능프로그램 활용 스타마케팅 추진 : 150백만 원
 - 국내·외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 350백만 원, 유튜버, 블로거 등 활용
 - 시군 홍보마케팅 지원 : 300백만 원(도비 90, 시군비 210)
- 친환경 캠핑 관광 활성화 추진
- 대한민국 캠핑대전(100백만 원), 친환경캠핑프로그램 운영(330백만 원-도비 99, 시군비 231), 포항캠핑페스타 지원 180백만 원(도비 54, 시비 126)

- 경북전통주 체험관광 지원 : 250백만 원(도비 75, 시군비 175), 5개 시군
- 테마형 템플스테이 및 소울스테이 육성 지원
 - 템플스테이 육성 지원
 - 사업비 : 150백만 원
 - 대상 : 13개 사찰(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선정)
 - 내용 : 참선, 사찰음식 체험, 다도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마케팅 지원
 - 소울스테이 육성 지원
 - 사업비 : 150백만 원
 - 대상 : 15개 피정기관
 - 내용 : 천주교 피정활동과 힐링콘텐츠를 접목한 체험형 관광상품 운영
- 체험과 테마가 있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유네스코 세계유산상품개발 및 지원
 - 사업비 : 81백만 원(도비 24, 시군비 57)
 - 사업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경북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백두대간 인문캠프 운영
 - 사업비 : 140백만 원
 - 사업내용 : 경북출신 작가와 동행, 작품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작가 생가 탐방 등
 - 시군별 대표 및 야간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 사업비 : 557백만 원(도비 144, 시군비 336, 기타 77)
 - 사업내용 :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품개발 및 지원
- 경북 방문 여행객 인센티브 지원
 - 공유차량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 사업비 : 300백만 원
 - 사업내용 : KTX와 연계하여 경북에서 1박 이상 방문하는 관광객이 공유차량 이용 시 이용요금 할인
 - 경북관광 근로자 휴가비 지원
 - 사업대상 :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2,700명
 - 사업비 : 150백만 원
 - 사업내용 : 경북 여행상품 구매시 상품가의 50%, 최대 5만원 지원(울진은 최대 10만원)
 -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연계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마케팅사업 강화
 - 사업비/대상 : 450백만 원 / 중화권, 일본, 동남아, 잠재시장, 구미대양주
 - 사업내용 : 해외 시장분석, 경북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콜, 관광상품 판촉, 팸투어
- 한류 열풍에 따른 한류 관광마케팅 확대
 - 사업비 : 300백만 원
 - 사업내용 : K-culture를 테마로 한류관광 콘텐츠 개발
 - K-pop, K-food, K-beauty 등 해외방송·드라마 촬영 지원
- 해외홍보사무소를 통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사업비/대상 : 240백만 원 /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 사업내용
 - 여행업계, 언론사 등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및 협업체계 구축
 - 국가별 SNS 홍보단 활용 현지 관광 붐 조성 및 이벤트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
 - 사업방향
 - 지역특색과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우수축제 발굴·육성
 - 코로나 엔데믹 관광이슈 변화에 따른 선제적 축제 활성화
 - 문화관광축제(문화체육관광부 지정)
 - 문화관광축제 : 3개 축제(포항국제불빛, 봉화은어, 청송사과축제)
 - 지원예산 : 3,180백만 원(국비 90, 도비 90, 시군비 3,000)
 - 도 지정 우수축제 육성·지원
 - 13개 축제 홍보·마케팅·관리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 대상 : 영덕대게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등 13개 축제
 - 지원예산 : 6,032백만 원(도비 658, 시군비 5,374)
- 시군 축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
 - 사업비 : 300백만 원(도비 150, 시군비 150)
 - 사업내용 : 시군 축제장 메타버스 구현(영천보현산별빛축제, 성주생명문화축제, 영덕대게축제)
- 경북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
 - 사업비 : 195백만 원
 - 사업내용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거점시설 특별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할인 프로모션 등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경상북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고유 역사문화 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을 통해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1.05.24.	-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16.12.15.	-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	20.07.09.	-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	17.10.19.	20.06.04.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경상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함	12.04.09.	17.12.28.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18.12.17.	22.03.03.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3.04.11.	-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경상북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1.07.15.	-	관광정책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11.11.07.	20.02.20.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15.5.21.	18.12.27.	관광마케팅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	12.09.16.	-	관광마케팅과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	14.12.29.	-	관광마케팅과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경상북도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	13.09.16.	-	관광마케팅과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경상북도 고유 역사문화 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을 통해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1조(목적)	제5조(지원사업)
제2조(정의)	제6조(예산지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상호협력)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규칙)

○ 조례명: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입안목적 :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경상북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제1조(목적)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2조(정의)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업무의 위탁)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제9조(포상)
제5조(추진사업)	제10조(시행규칙)

16. 경상남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정원	1	4	6	5	3	19
현원	1	4	7	5	3	19

주1) 문화관광체육국장 제외

주2) 동남권광역관광본부 파견 6급 1명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59,137,347	62,860,860

주) 63,657,090천원(2022년 1회 추경예산)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 소규모·비대면 관광트렌드에 대응, 단계별 경남힐링 여행 기획 홍보(5회)
 - 봄철 안심관광지 16선(경남에도 봄이 오나 봄, 3월) → 도내 영화·드라마 촬영지 홍보(5월) → 여름철 안심관광지 18선(경남의 하(夏) 플레이스는 어디?, 6월) → 가을철 안심관광지 13선(경남의 가을여행지 여기이소!, 10월)

○ 개별자유 여행객 타깃 경남관광 홍보 강화

- 체류형 장기여행 프로젝트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추진(15개 시군)
 - 829명 참가(1,555명 신청),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참가자 SNS 포스팅 11,914건
- 유명 TV 인기 여행 프로그램 유치(2회),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제작(2회)
- 경남관광 전용 국내·외 주요 SNS 채널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추진(4개 언어권, 8개 채널)

○ 민·관이 함께하는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추진

- 2021년 대한민국 숙박대전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총 상품 결제액 1,050백만 원 및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 유치)
-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스토리를 발굴 할 수 있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지역별 특색있는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 지정관광지, 문화·테마형 관광자원개발 등(56개소 64,388백만 원)
- 친환경 자연생태 관광자원개발로 국민 건전여가 활성화
 - 생태녹색 관광자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지원(17개소 5,414백만 원)
- 지역특화 관광코스·상품 개발 등 핵심관광지 육성
 - 거제·통영·남해 연결, 남쪽빛 감성여행코스·상품개발 등(3개소 552백만 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사업추진(3개소 1,640백만 원)
 - 사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
 -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 남해 여권없이 떠나는 독일여행

○ 관광자원 조성 및 수용태세 기반확충

- 야영장(2회) 및 유원시설(2회) 안전점검
- 관광종사자 온라인 친절교육으로 친절문화 확산
- 야영장 개보수(13개소)
-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5개소)
- 관광안내소 운영(7개소)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신규 12명, 보수 245명), 경진대회 및 심화교육 추진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 주민사업체 육성 및 지원(24개소)
-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및 지원(2개소)

-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발굴 및 판로 확대
 - 공모전 수상작 전시(대상~입선 수상 19개작)
- 2021 정부 및 도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원
 - 정부 지정 : 7개 441백만 원(현행 3, 명예 2, 예비 2)
 - 도 지정 : 7개 160백만 원(대표 2, 우수 5)
- 마이스산업 지원
 - 지원전시회 개최 지원 : 9건 1,379백만 원, 41,601명 참여
 - 컨벤션 등 유치·개최 지원 : 6건 92백만 원, 4,250명 참여
 - 행사 축제 공연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 363개사, 업체당 100만원 지원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횟수	관광여행	16,421	19,902	21.2
	기타여행	4,977	3,606	-27.5
	총계	21,398	23,508	9.9
외래관광객 수		164	78	- 5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횟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⁵³⁾

-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남형 관광콘텐츠 발굴
 - 경남에서 생활하며 여행하는 '경남형 한 달 살이' 추진 (18개 시군)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글로컬 관광콘텐츠 개발(건축물 투어)

53)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힐링 여행 트렌드에 맞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추진
 - 웰니스관광 상품판매 및 콘텐츠 개발(체류형 럭셔리 관광상품 운영 등)
 -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경남 웰니스 관광지 6개소 선정)
 - 청년 웰니스관광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약 15명)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내·외 스마트 홍보 추진
 - 유명 TV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국내·외 주요 SNS 채널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추진(4개 언어권, 8개 채널)
 - 경남관광 글로벌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30명)
-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 관광마케팅 전개
 - 경남관광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 여행사 대상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및 관광교역전 참가
- MICE산업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 지역산업 및 중점육성 전시회 개최 지원(9건 1,379백만 원)
 - 국제회의·학술대회 등 국내·외 컨벤션 개최 지원(6건 92백만 원)
 - 서울시 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 해외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 추진
 - 양 시도 연계 MICE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 세계적인 명품축제 발굴·육성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정부지정축제(7개, 440백만 원), 도지정 축제(7개, 148백만 원) 지원
 -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통영한산대첩축제 11백만 원, 진주유등축제 10백만 원)
 - 축제문화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축제 지원
 -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8개, 40백만 원)
 - 지역 대표 관광브랜드화를 위한 축제홍보
 - 계절·지역·테마별 축제 홍보
 - 문화관광축제 안내 리플릿 제작·홍보
 - 국내·외 박람회,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 홍보 집중
- 경남만의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지·문화관광자원 개발 : 56,982백만 원
 - 관광(단)지 조성·정비(6개소), 문화관광자원 개발(36개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1개소)

-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개발 및 관광안내체계 정비 : 12,880백만 원
 - 생태녹색관광자원(7개소),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9개소)
- 지역주도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발굴 및 지원 : 9,620백만 원
 -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천), 여권없이 떠나는 독일여행(남해)
- 건전한 국민여가 향유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등 : 4,240백만 원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2개소), 생태녹색관광 육성(3개소), 주민참여 관광자원(4개소)
- 전국 최초, 반려·비반려 관광객 포용 정책 추진 : 1,000백만 원
 -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지 조성(밀양, 합천)
- 경·부·울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발전 광역관광 발전모델 구축
 -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 반영 추진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경상남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으로 창출된 이익이 공평·공정하게 분배되는 지역 환경 조성	2021.12.30.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주민의 영리성·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사업 실현	2021.12.30.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	2015.01.02.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	2019.03.28.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12.26.	-	관광진흥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정책 과제의 발굴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06.11.	2019.02.08.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	2009.10.15.	2014.12.26.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	2009.01.15.	2018.12.06.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12.31.	2014.10.10.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08.13.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014.04.03.	-	관광진흥과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020.05.14.	-	관광진흥과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 조례명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안목적 :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 관광산업에 따른 이익분배와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

제1조(목적)	제5조(사업 등)
제2조(정의)	제6조(위원회 설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시행규칙)

○ 조례명 :「경상남도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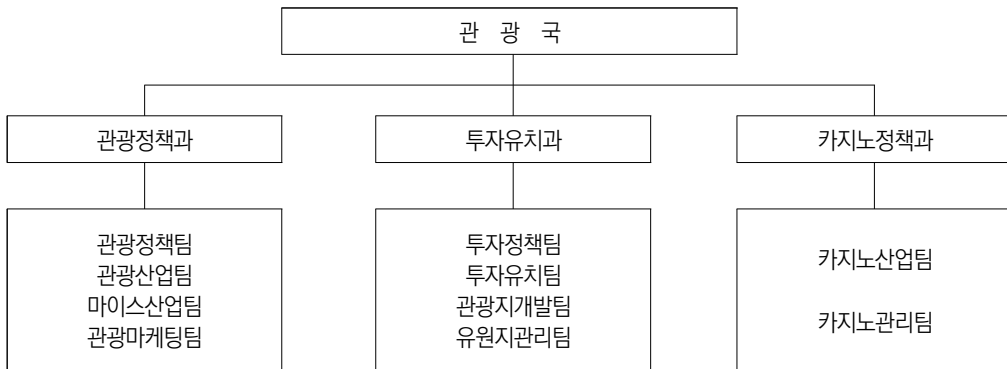
- 입안목적 : 지역 주민이 자발적이고 협력하여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영리성·공리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사업을 실현

제1조(목적)	제7조(사업 및 지원)
제2조(정의)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주민참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사무의 위탁)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11조(포상)
제6조(실태조사)	제12조(시행규칙)

17. 제주특별자치도

가. 관광행정 조직 및 인력현황

1) 관광행정 조직도



2) 인력현황

구분	일반직								전문 경력관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	3	10	16	20	-	-	1	52	
현원	1	3	10	15	16	4	2	1	52	

주) 관광국장 포함

3) 관광부문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산액	86,306	72,588

주) 본예산 기준

나.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

1)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광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다.

2021년 제주관광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시장회복 국면 진입 및 정상화되는 전환기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의 전면적 여파를 극복해가며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2021년 내국인은 2019년 내국인의 87.5%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도내 관광업계 대상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관광업계 대상 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였다.

※ 2021년 관광업체 지원 실적
 (직접지원) 관광진흥기금 활용 '21년 총 3,543억 원 지원
 - 특별용자 582개업체 1,129억 원 - 상환유예 1,194건, 2,414억 원
 (간접지원)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스마트환경, 방역비 및 보증보험 지원 등

안심 제주관광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 밀집지역인 8대 클러스터를 설정하였고, 관광현장 방역점검 및 방역장비 지원도 지속하였다.

전환기적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시장 회복 준비도 추진하였다. 국내관광 측면에서는 힐링·치유 테마의 '제주형 웰니스관광' 확대 추진하였고, SNS 매체를 활용하여 자연, 체험 및 안전 등을 테마로 한 온라인 홍보도 확대하였다. 해외관광 측면에서는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제주무사증 일시정지 해제요청에 대한 對정부 절충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해외 수요 회복 준비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도 준비하였다.

* (중국) MZ세대 타킷 여행상품 개발, (일본) 찐제주 캠페인, (베트남) 런투제주 비대면 마라톤 등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주관광 분야의 정책 추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기도 하였다.

- ▶ '실시간 혼잡도 분석서비스' UNWTO 스마트방역 우수사례 소개
- ▶ 제주형 웰니스관광 글로벌 미디어(CNN, 워싱턴포스트지) 소개
- ▶ 컨슈머인사이트, '21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6년 연속 종합 1위
- ▶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지수' 제주 1위
- ▶ 제주 MICE, ISO 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 '제12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제주 선정(중앙일보)

2)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제고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다.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 심의로 양질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여부 중점관리로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 지원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했다. 2021년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투자·고용실적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등 결과를 공표하여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등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개발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토록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 투자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심의 대상을 50만㎡에서 30만㎡으로 확대 심의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하였다.

“송약선언(‘20.10.25.)” 발표 이후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위해 장기 미준공 유원지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1. 4월에 장기 미준공 유원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사업기간 연장을 제어하고 불요불급한 시설부지 제척 등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였다. 유원지 사업장 재정비로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계획의 실질적인 투자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 제주 외국인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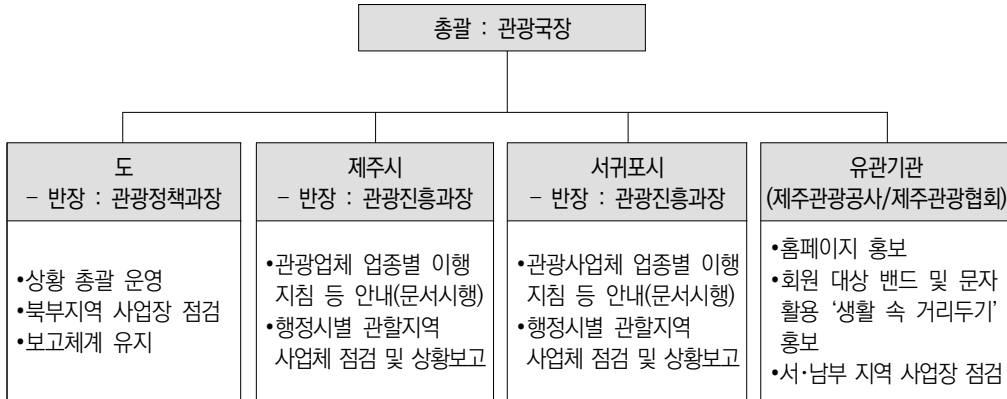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적 수준의 제도 정비 추진, 제주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현장 맞춤형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카지노 자금 세탁 방지 체계구축 등 국내·외 카지노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투명한 카지노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카지노업 8개소 중 5개소가 휴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카지노업계 정상화를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 방문 및 제주지원위 등에 건의를 통해 카지노업 기금용자 제한 완화,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대중앙 절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장기 휴업에 따른 카지노업 휴업기준을 마련하여 종사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최소화하였으며, 카지노 기금 납부에 따른 업체 부담을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카지노업체 순회 방문을 통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도 카지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카지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상회복’ 시행(‘21.11.~)이 46일 만에 중단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관광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외 대외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서 관광업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양극화가 생겨나고, 투자환경 위축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산업은 경영난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2년 만에 찾아온 해외 인바운드 시장의 해빙 모드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 가장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다.

4) 세부 추진실적

○ 안심·제주관광을 위한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

- 민관협력 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협회 등



- 업종별 방역 매뉴얼 작성 전파,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제작 배부, 주기적 방역의 날 지정 시행 및 방역물품 지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에 따른 방역현장 점검 : ‘21.1.~연중
-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대비 관광객 대상 특별방역 점검(‘21.4.~) : 돌하르방 마스크 제작, 특별방역 홍보 전단지 제작 배부 등
- 설연휴(2월), 가정의 달(5월), 휴가철(7~8월) 및 관광객 밀집지역 (핫플레이스 8개 클러스터) 방역 현장 점검
 - 자율방역 주1회, 종사자·방문객 위생 예방수칙 이행 현장 지도 점검, 관광객 집중 지역 사업체 특별관리 및 유원시설물 단속 강화 등
- 추진실적: 안내 및 계도 8,515개소, 지도 24개소, 과태료 부과 3건

구 분		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기 타 (여행업등)
계		8,515	4,679	1,134	1,147	1,117	438
안내 및 계도	2월(설연휴)	610	466	63	46	27	8
	2~4월(상시)	428	291	63	51	23	-
	4월(집중방역기간)	627	427	72	66	62	-
	5월(가정의 달)	835	514	95	109	49	68
	6월(성수기 대비)	899	502	123	128	121	25
	7~8월(여름휴가철)	1,964	982	285	294	296	107
	9월 상시방역(추석)	875	435	159	143	108	30
	10월 상시방역	811	400	123	118	111	32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760	315	78	92	162	113
12월 및 연말연시	733	347	73	100	158	55	

* 지도(현장시정) 24개소: 제주시(18), 서귀포시(6)
 - 제주시(18개소): 숙박8, 이용 및 유원 5, 여행 5 / - 서귀포시(6개소): 숙박 6
 ** 과태료 부과(3개소) : 제주시(2), 서귀포시(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확대

① 기금 운용 현황

연 도	수입액(백만 원)					지출액(백만 원)			적립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출국	이자수입 등	주민참여 전입금	계	이차보전	보조사업 등		
'07	4,080	975	3,039	66	-	1,240	290	950	2,840	2,840
'08	6,508	2,796	3,487	225	-	1,532	841	691	4,976	7,816
'09	19,450	7,485	3,576	281	8,108	2,674	1,761	913	16,776	24,592
'10	11,911	5,637	3,510	1,326	-	4,291	3,363	928	6,182	30,774
'11	11,911	6,373	3,436	2,102	-	5,626	4,173	1,453	6,285	37,059
'12	13,428	6,369	5,337	1,722	-	7,732	5,376	2,356	5,696	42,755
'13	19,665	10,284	7,593	1,788	-	9,405	6,807	2,598	10,260	53,015
'14	28,748	17,388	10,847	513	-	16,852	9,014	7,838	11,896	64,911
'15	30,475	18,686	9,671	2,118	-	25,046	11,240	13,806	5,429	70,340
'16	33,738	17,551	13,383	2,804	-	26,051	11,835	14,216	7,687	78,026
'17	23,772	15,661	6,458	1,653	-	47,036	11,190	35,846	△23,264	54,762
'18	23,838	13,100	8,889	1,849	-	31,612	10,202	21,410	△7,774	46,988
'19	62,516	47,529	12,695	2,292	-	50,282	8,599	41,683	12,234	59,222
'20	4,930	193	2,579	2,158	-	32,324	7,936	24,388	△27,394	31,828
'21	39,189	12,751	50	16,388*	10,000	35,801	10,118	25,683	3,387	35,215

* '21년 이자수입 등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7,065백만 원)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6,000백만 원) + 이자수입·그외수입 등(3,323백만 원)

② 용자추천 현황(이자차액 보전 방식)

구분	계	'07~'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자추천 (억 원)	16,966	7,779	1,600	1,609	768	1,117	606	289	2,070	1,128
이자보전 (억 원)	1,027	227	90	112	118	112	102	86	79	101

- 2020 용자추천 세부 (2021년 수정)

(단위 : 개소, 억 원)

구분	합 계		경영안정자금		노후전세버스교체		개보수		건설		비고
	업체	추천액	업체	추천액	업체	추천액	업체	추천액	업체	추천액	
2021년	582	1,128	515	837	21	28	15	135			
상반기	383	675	364	590	11	16	8	69			
하반기	168	325	151	247	10	12	7	66			
전기차 (대)	31 (348)	128									

- 용자 제도개선 사항

- 용자규모 확대 : ('19) 1,000억 원 → ('20) 5,700억 원
- 지원업종 확대 : ('19) 33개 → ('20) 45개
- 신청자격 확대 : 행정처분 이력 제한 등 폐지
- 기간연장 :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1년→2년)
- 지원 최저한도 설정 : 매출액 무관하게 5천만 원
- 전세버스 경영안정자금 사용범위 확대 : 차량구입비 신청 가능
- 전세버스업체 특례보증에 따른 특별용자지원 : 업체당 3천만 원, 26개 업체

③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제5항 신설(2021.11.23. 조례 제2956호)

④ 2021 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카지노업계 지원

- (기존)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변경)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피해지원

① 2021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 2,920개 업체 3,990백만 원

- 제주형 제4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 816개소 2,181백만 원
- 제주형 제5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 2,104개소 1,809백만 원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 등

② 온라인 마켓 ‘탐나오’ 판매수수료 절감 및 안전관광 빅할인 이벤트 추진

- 관광상품 판매 수수료 인하 (‘20.11월~지속)
 - 특산품, 기념품업 등 관광상품 판매수수료 인하 11% → 5.5%
- 안전한 제주관광 빅할인 이벤트 (2021. 6~8월, 10월~11월/총2회)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여행 서약” 마스크 기부 캠페인 및 20% 할인 지원
 - 1차 쿠폰사용 3,879건, 할인지원액 94백만 원
 - 2차 쿠폰사용 3,130건, 할인지원액 79백만 원

③ 관광사업체 안전장비 및 방역용역 지원

- 안전 및 서비스 장비 등 영세사업체 장비 구입 지원(203개 업체 170백만 원)
- 안전관광 및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관광사업체 방역지원(161개소 80백만 원)
 - 방역비, 소독약품, 방역물품 등 지원

④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 부담감면 등 지원

- 여행사 공유오피스 지원(‘21. 11월~) : 42개소, 최대 1년간
- 여행업 보증보험료 지원(납입금액의 50%, 30만원 한도) : 434개소 26백만 원

○ 2021년도 MICE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① 국내·외 MICE 유치 실적 : (목표)100건 (유치)107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회의 개최건수 축소되었으나 국내회의는 지속적으로 개최됨

② 글로벌 MICE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각인

- (MICE 경쟁력) 2021년 기준 세계 35위, 아시아 12위, 국내 5위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성과)

③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국제적 인프라 확보 본격 시동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추진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완료(‘16.12.)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설계 공모(‘18.3~7월)
 -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전문가 업무대행)를 통한 업체 선정
 - 다목적 복합시설 계획 설계 완료(‘18.10.30.) 및 중간설계 실시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경관심의(‘19.8.), 교통영향 평가(‘19.12.),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20.2.)

- 제2차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20.3~11월)
- 실시실제 착수('21.9.)
 - ※ 문화재 발굴조사('19~'20) →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증가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21.9.~11월)

④ 2021년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현황

구 분		유치목표(건)	유치건수(건)
국제MICE	UIA 국제회의 (300 이상, 해외 참가자 40% 이상)	100	16
	국제 인센티브 투어 (참가자 100명/해외 10명 이상)		0
	기타 국제MICE행사 (외국인 10명 이상)		14
국내 MICE			77
총 계		100	107

- 국제 MICE 유치
 - 국제회의 : 제10차 아시아 토목공학대회(2025), 국제구름 및 강수 컨퍼런스 (2024), 국제전력전자학회 학술대회(2023) 등 16건
 - 기타 국제 MICE : 한국섬유공학회 한일공동심포지엄(2022),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컨퍼런스(2022), 대한치과교정학회(2023) 등 14건
- 국내 MICE 유치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대회(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2022) 등 77건

○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8개 축제 중 16개 축제가 개최 취소됨
 - 제주들불축제(비대면), 탐라국입춘굿(비대면), 제주유채꽃축제(비대면), 탐라문화제 (온·오프라인 병행), 최남단방어축제(드라이브인스루),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온·오프라인 병행) 등 12개 축제 개최
-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 4회(본회의 3회, 소위원회 회의 1회)
 - 주요내용 : 제8기 축제육성위원회 및 축제육성소위원회 구성, '21년 도지정 축제 지정, 축제 평가지표 개선 등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현황

구분	연번	축제명	기간	개최(예정)장소	비고
광역축제	1	성산일출축제	12.30.~1.1.	성산일출봉 일원	취소
	2	제주돌불축제	3.8.~3.14.	애월 봉성리새별오름 일원	개최(비대면)
	3	탐라문화제	10.5.~10.9.	제주시 일원	개최(온·오프병행)
	4	서귀포칠십리축제	11.19.~11.21.	서귀포시 일원	개최(온·오프병행)
	5	제주해녀축제	9.23.~9.25.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	취소
	6	제주馬축제	10.7.~10.8.	렛츠런파크제주 일원	취소
	7	탐라국입춘굿	1.20~2.3.	목관아 및 원도심 일원	개최(비대면)
	8	제주유채꽃축제	4.6.~4.8.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 공장 일원	개최(비대면)
	9	최남단 방어축제	11.15~11.30.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	개최(드라이브스루)
지역축제	10	전농로왕벚꽃축제	3.31.~4.2.	전농로 일원	취소
	11	제주왕벚꽃축제	3.27.~3.28	애월읍 장전리 일원	취소
	12	가파도청보리축제	4월~5월	가파도 일원(상동항)	취소
	13	우도소리축제	4월중	우도면 일원(천진항)	취소
	14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4.14~4.30.	남원읍 한남리 일원	개최(온·오프병행)
	15	방선문축제	5.8.~5.9.	방선문 계곡 일원	개최(비대면)
	16	보목자리돔축제	5월~6월	보목포구 일원	취소
	17	삼양검은모래축제	7월중	삼양해변 일원	취소
	18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7월중	논짓물, 대왕수천 일원	취소
	19	이호테우축제	8.2.~8.4.	이호테우해변	취소
	20	표선해비치해변하얀모래축제	9.28.	표선생활체육관 일원	개최(비대면)
	21	금능원담축제	8월중	금능 으뜸원 해변 일원	취소
	22	도두오래물축제	8.13.~8.15.	도두 오래물광장 일원	취소
	23	쇠소깍축제	8월중	효돈 쇠소깍해변 일원	취소
	24	산지천축제	9.23.~9.25	산지천 일원	취소
	25	추자도참굴비축제	11.12.~11.14.	추자면 일원	개최(온·오프병행)
	26	고마로마문화축제	10월중	삼성로 일원	취소
	27	제주성읍마을전통민속재현축제	10.22.~10.23.	성읍민속마을 일원	개최(비대면)
	28	중문칠선녀축제	11.6.~11.7.	중문 진실캠핑장 특설무대	개최(비대면)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축제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9개 축제) 연장·재지정 ('21.8.20, 축제육성위원회 결정)

구 분	광역축제	지역축제	비고
최우수(2)	제주들불축제	탐라국립춘궁	
우 수(3)	탐라문화제	성읍마을전통민속재현축제	
		추자도참굴비축제	
유 명(4)	서귀포칠십리 축제	전농로 왕벚꽃축제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 의거 「관광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62개 업체⁵⁴⁾를 선정
-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패 부여, 우수관광사업체 상금(80만 원) 지급 및 지정업소에 대하여 SNS 홍보 및 리플릿 제작,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

○ 2021년 관광숙박업소 현황

(단위 : 개소/실)

구분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휴양콘도 미니업
합계	422/33,662	125/16,059	1/26	62/4,058	170/4,338	4/92

○ 2021년 제주방문 관광객 1,201만 명(전년대비 17.3% 증가)

- 내국인관광객 중심의 시장회복 국면 진입
 - 2021년 내국인관광객 방문 현황 : 11,960천 명(전년대비 19.3% 증가)
 - 총괄 마케팅 실적

구 분	박람회	취재지원	홍보물 제작	기 타
국내권	4건	19건	371,000부	

54) 관광지 27, 숙박 9, 교통 5, 여행업 10, 음식 11

-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국가별 상황 맞춤형 마케팅 추진
 - 총괄 마케팅 실적

(단위 : 건)

구 분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세일즈	온·오프라인홍보
중화권	9	6	-	2	29
일 본	7	3	2	2	30
동남아·구미주	7	11	7	2	39

○ 2021년 주요 마케팅 실적

① 국내·외 잠재소비자 대상 '청정·안심 목적지 제주' 사전 마케팅 강화

-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조성
 - 비짓제주(Visit Jeju: '16.12.27. 오픈) 활용 정보 제공 확대(방문자수 309만명)
- KBS 월드, 아리랑 TV 연계 전 세계 114개국 청정제주 이미지 광고
- '제주 안전 여행' 영상 제작 및 주요도시 다중집합 송출(226개소)
- 국·영·중·일 어권별 SNS 채널, 메가유튜버 활용 제주콘텐츠 지속 노출
 - 어권별 운영 SNS 팔로워수(1,410천명) 전년(1,252천명) 대비 12.6% 증가
 - 시즌/타깃별 고품질 영상(20편), 이미지(131건) 기획·제작(반응수 143만회)

② '코로나19 안전 제주여행' 기반 관광객 유치 가동

- 나만의 안전한 제주여행 V컬러링 모바일 이벤트 추진
- 「공공수요 맞춤형 제주힐링·연수패키지 여행상품」 조달 판매 MOU 체결(3월) 및 제주힐링·연수 패키지 여행상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3개사)
-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SNS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개최 등
 - 제주여행 포스팅 공모전을 통한 제주여행 관심 유도(674건 접수, 43개팀 선정)
 - 2021 유명 인플루언서(홍보대사 11명) 초청 제주여행 콘텐츠 제작·송출
 -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2021 제주 안트레' 개최(11.13)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행업체 마케팅 지원 강화

- 영세사업체 연계 공동 제주여행상품 개발·판매 지원(16개 컨소시엄, 81개 업체)
- 관광사업체 유튜브·전문업체 활용 홍보영상 제작 및 업로드
 - 공모 관광사업체 100개소 참여, 온라인 반응수 261만회
- 여행업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72개소), 제주관광상품 홈쇼핑 광고(5개소), 관광사업체 현지판촉활동비(29개소) 지원

④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국가별 상황 맞춤형 마케팅 가동

- (중화권) 잠재 소비자 대상 제주 특색 글로벌상품 발굴 및 홍보
 - MZ세대 타깃 '제주에 있는 척' 캠페인 추진(7회, 113백만뷰)
 - 글로벌 여행상품 개발(6개) 및 얼리버드 여행상품 판매(1,573건)
- (일본시장) 방한 핵심층 타깃 제주관광 사전 마케팅
 - 소비자 참여형 '찐제주 캠페인' 전개(3차, 248,110뷰), 테마형 랜선라이브 '방구석 제주 프로모션'(3회, 참가자 951명)
 - 도쿄 코리아타운 연계 한류층 대상 프로모션 전개(11월)
- (동남아 등) 국제 관광 재개 대비 동남아 주요국 타깃 사전 마케팅
 - 런투제주, 제주관광 버츄얼 마라톤 대회 개최(3회, 11,362명)
 - B2B 제주관광 뉴스레터(4회), 온라인 설명회(4회) 등을 통한 해외 잠재 소비자 대상 제주관광 인지도 제공
 - 싱가포르자동차협회 공동 자유여행 안심상품(에코자동차 투어) 개발·운영
- (기타) 글로벌 잠재 소비자 대상 청정·안전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
 - 국내 거주 미국인 유튜버 활용 제주 콘텐츠 홍보(팸투어 4회)
 - 태평양 지역(일본, 괌, 한국) 내 미군 및 미군가족 대상 언론매체 활용 홍보
 - 도내 무슬림 친화식당 지정 신규 참여 업체 발굴(총29개소)을 통한 수용태세 마련

○ 관광개발사업(유원지 포함) 현황(2021.12.31. 기준)

(단위 : 개소, 억 원)

구 분	지 역 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완 료	운영중 (일부준공)	공사중	
합계			51	43	6	30	7	8
			240,045	161,739	10,019	137,362	14,358	78,306
관광개발 사업장	소 계	개 소	29	23	5	13	5	6
		사업비	115,202	45,711	3,972	28,157	13,582	69,491
	제 주 시	개 소	19	15	4	7	4	4
		사업비	91,460	31,027	3,730	18,317	8,980	60,433
	서귀포시	개 소	10	8	1	6	1	2
		사업비	23,742	14,684	242	9,840	4,602	9,058

(단위 : 개소, 억 원)

구 분	지 역 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완 료	운영중 (일부준공)	공사중	
유원지개발 사업장	소계	개 소	22	20	3	17	-	2
		사업비	129,941	121,402	6,755	114,647	-	8,539
	제 주 시	개 소	8	7	1	6	-	1
		사업비	14,798	10,586	3,900	6,686	-	4,212
	서귀포시	개 소	14	13	2	11	-	1
		사업비	115,143	110,816	2,855	107,961	-	4,327

주) 유원지 조성계획 미수립 : 서귀포시 1개소

○ 관광개발 사업 추진실적 (2021.12.31. 기준)

구 분	개소	투자금액(억 원)		고 용(명)				지역업체 참여 (억 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체	도민	전체(%)	도민(%)		
합계	61	184,863	118,451 (64.1%)	31,849	25,421	9,002 (28.3%)	6,703 (74.5%)	57,898	29,303 (50.6%)
관 광 개 발 사 업 장	소계	21	43,917 (44.5%)	5,239	4,471	1,463 (27.9%)	1,328 (90.8%)	11,071	5,352 (48.3%)
	완료	5	3,972 (103%)	401	369	416 (104%)	395 (95%)	2,545	863 (34%)
	일부운영	11	26,363 (47.9%)	2,879	2,522	1,025 (35.6%)	919 (89.7%)	6,970	3,253 (46.7%)
	공사 중	5	13,582 (20.7%)	1,959	1,580	22 (1.1%)	14 (63.6%)	1,556	1,236 (79.4%)
유 원 지 개 발 사 업 장	소계	16	118,974 (63.1%)	23,851	19,010	5,162 (21.6%)	3,832 (20.1%)	44,438	21,375 (48.1%)
	준공 완료	3	6,755 (102%)	458	376	436 (95.1%)	357 (94.9%)	4,569	2,235 (48.9%)
	일부준공 (운영중)	13	112,219 (60.7%)	23,393	18,634	4,726 (20.2%)	3,475 (18.6%)	39,869	19,140 (48%)

주) 개발사업장 51개소 중 14개소(절차이행 8, 행정 6) 제외

○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추진

-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관광진흥법 개정과 병행추진) : '19년~현재
 - 카지노업 허가갱신, 양도양수 등 사전승인,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등 6건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근거 마련(관련 조례 개정) : '19.12.
- 카지노 게임기구 및 전산시설 직접 검사 근거 마련(조례 개정) : '20.11.

○ 제주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 도내외 카지노 지역사회 협력 및 수범사례 조사 : '20.3.~10.
- 유관기관 방문 등 사회 공헌사업 및 힐링프로그램 교류 논의 : '20.11.~ '21.11.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 '21.11.~

○ 카지노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구축 (카지노정책과)

- 현장 맞춤형 감독반 편성·운영(4개조, 연 353회, 연인원 933명 투입) : '21.1 ~
- 카지노 핵심 6개 분야 전문검사(매출액, 자금세탁, 게임기구, 크레딧 운용실태, 입장절차 이행실태) 추진 : '21.1 ~
 - 상시 감독(연중) / 매출액 조사('21.4.) / 해외이주자 입장실태 확인점검('21.4.) / 카지노 의심거래 보고 이행현황 검사('21.8.)
- 관광진흥기금 산정을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20.4., 8개 카지노업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카지노 관리시스템 확보를 위한 업무 협력 강화
 - 카지노 운영상황 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 '21.1 ~
 - 카지노 게임기구 검증시스템 정식 운영 : '21. 12 ~
- 카지노 현장 전문가 초청 교육(5회) 및 직원 업무연찬회 개최(4회)
- 카지노업계 건의사항 반영 카지노조례 시행규칙 개정
 - 칩스 구매장소 확대, 프로모션 바우처 기준 상향 조정 등 4건

○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카지노 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 카지노 기금 규제 완화 및 고용 정상화 등 중앙부처 방문 및 대정부 건의 : 11회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기획재정부 등) 기금 용자 제한 등 금융 분야 규제 완화 등
- 행·재정적 부담 감경 위한 조치
 - 카지노 관광기금 분납지연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4회 분납별 가장 중한 처분만 적용)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 고시) : '21.4.1~'22.3.30.
 - 카지노 게임기구 및 전산시설 직접 검사 실시(검사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 효과)

다. 방문객 추이

(단위: 천 회, 천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국민 국내관광 회수	관광여행	8,136	10,734	31.9
	기타여행	332	362	9.0
	총계	8,469	11,097	31.0
외래관광객 수		60	48	-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2021 외래관광객조사」.

주1)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국민 국내관광객 수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이후 '여행지별 여행 회수'를 통해 방문객 추이 제공

주2)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별 방문비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임

주3) 외래관광객 수의 경우 2018년부터 모집단에서 크루즈 여행객이 제외됨에 따라 결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주4) 증감률은 단위 미만 반올림 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임

라.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⁵⁵⁾

- '일상회복' 연계 선제적 마케팅 전개로 안정적 관광수요 창출
 - [민·관협력체계 조기가동] 시장회복 골든타임 확보 등 대응체계 구축
 - 관광업체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상품개발 협력*
 - * ('21) 디지털 스튜디오 조성 → ('22) 관광사업체 상품 온라인 홍보 기법 및 판로개척 컨설팅
 - 국제관광 재개 위한 항공사·여행사 협업 마케팅 및 전세기 지원 확대
 - [선제적 마케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관광시장 반등 모멘텀 확보
 - 뉴노멀 트렌드 반영 제주만의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개
 -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및 SNS·인플루언서 연계 힐링 마케팅 가동
 - 한류 연계 관광수요 창출 및 유튜브 활용 트렌디한 관광정보 제공
- 속도감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통한 관광시장 안정화 도모
 - [신속한 회복 지원] 관광진흥기금 용자 및 체질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
 - 관광사업체 특별용자·상환유예 조기 시행('22.1월~), 특별보증제 신규 추진
 - * 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1,500억 원 규모), 상환유예(2,980억 원 규모, 유예기간 1년)
 - 여행업 공유오피스·컨설팅 지원, '탐나오' 활용 영세업체 판로지원
 - [업계 경쟁력 강화]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할 상품개발 및 맞춤형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종사원 역량강화, 테마상품·관광기념품 선정 등

55)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빈틈없는 안전환경 조성으로 제주여행 불안 심리 해소
 - [점검강화] ‘방역·관광’ 공존을 위한 공백없는 안전관광 환경 조성
 - 불공정행위 단속, 상시 방역점검 등 관광분야 특별대응체계 구축
 - [장비지원] 관광현장의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 관광사업체 방역비(용역, 소독약, 마스크 등) 및 안전 물품 구입비 지원
- 제주관광 상생 가치 확산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 [책임관광] 탄소중립 기반 親환경 및 親소비자 관광정책 추진
 - ‘3(불편·불만, 쓰레기, 불안감) Zero’ 정책 방향 설정 → 관광신뢰 구축
 - * E-RUN트립, 필(必)환경 캠페인, WTTTC 안전여행 스탬프, ‘불만제로’ 조성 등
 - [무장애환경]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확대
 -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실행계획* 마련,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
 - *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22~’26) : ‘21.12.28.
 -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 지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등
 - [지역관광] 마을 자원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소득 증대
 - 웰니스관광 상품 고도화 및 브랜드 확산,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고부가 MICE 관광을 통한 제주관광 도약 발판 마련
 - [MICE 인프라] MICE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구축
 - 유니크베뉴, MICE상품 육성 및 인턴십·컨설팅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 MICE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컨벤션 기반시설(MICE 다목적복합시설) 착공
 - [MICE 콘텐츠·브랜딩] 코로나19 극복 MICE 마케팅 전개
 - 안면체온인식기 설치 등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MICE 행사 개최 지원
 - 제주 MICE시설 가상체험·시설투어 기회제공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 新성장동력 확보로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변화 대응
 - [산업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한발 빠른 대응
 - ‘J-스타트업’ 운영을 통한 신규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일자리 창출)
 - * ‘J-스타트업 플러스(후속지원 확대, 통합마케팅), 관광스타트업 전국 경진대회 개최 등
 - [미래기반조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관광 전략적 추진
 - 관광분야 데이터 확보·공유, 관광업체 대상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견인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스템 운영 강화
 - 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50만→30만㎡)로 검증 강화 및 사업 실행력 향상
 - 사업신청 초기에 사전검토단계 운영하여 사업자 부담 및 행정력 낭비 해소
 - 자연사업장 사업 정상화 독려 및 투자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컨설팅 및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과 미이행 시 페널티 방안 강구
 -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공표(연2회)
 - 관광개발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준공규정 신설 등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 (재정비 완료 사업장) 집행계획에 의한 투자 유도 및 실적 점검
 - 매년 상·하반기 투자실적(재원조달 및 승인조건 이행상황 등) 점검
 - 매년 10월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보고 등
 - (재정비 미완료 사업장)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전면 재정비
 - 재정비 계획에 부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승인·고시 및 투자실적이 미흡한 사업장 실시계획인가 실효 및 유원지 폐지 등 추진
 - 단기 내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 및 투자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 조치 마무리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규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 국제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고객분쟁 조정 제도, 콤포 관련 제도, 소프트웨어 검사 매뉴얼 마련 등
 - 제주 카지노감독위원회 권한 강화(8단계 제도개선)
 - 선진 감독기구(싱가포르 등) 및 유관기관(금융정보분석원, 국과수 등)과 교류 및 업무 협력 강화 추진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 마케팅, 도민인식조사 등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및 제도개선 추진
 - 2016년 이후 국제카지노정책포럼 매년 개최
 -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카지노업 허가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 등
 - 도내 카지노업체의 지역협력 및 공헌 사업 추진 : 랜딩, 드림타워 등
 -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29개 과제) 수립: '22.1.

마. 관광 자치법규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제주관광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8-01-09	20-04-13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08-07-16	16-11-23	관광정책과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9-01-07	22-04-19	관광정책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09-03-18	22-04-19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진흥조례	제주 관광산업 육성과 진흥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09-10-07	22-01-12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09-10-07	22-03-04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도민대상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10-01-13	16-11-23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대표축제 마련 및 경쟁력 확보	10-06-29	16-11-23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	11-08-17	16-11-23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 등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13-05-15	21-12-31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04-01	22-04-19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07-08	21-06-25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데 목적	19-07-31	21-12-31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항 규정	22-04-19	-	관광정책과

조례명	조례목적	최초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20-05-13	-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21-05-20	22-04-19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관광의 지속가능 발전 및 활성화 목적	22-01-12	22-04-19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2-03-04	-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22-03-04	-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 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04-05	16-06-22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약칭) 개발사업에 관해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사항 규정	07-01-08	21-11-23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	07-03-07	22-03-04	투자유치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12-01-11	22-03-04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사업시행자 개발이익의 지역발전과 도민 환원 필요사항 규정	20-04-13	-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15-06-03	22-03-04	카지노정책과

□ 2021년 조례개정 현황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제3조 제2항 제5호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해설 매뉴얼 개발·제작·보급,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 해설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반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	제6조(활동비 등 지원)	<삭제>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신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제4조 제2항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를 위한 심의 대상 확대 및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변경) 절차, 개발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4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기능)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보고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연·생태분야”를 신설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 범위확대 - 개발사업 변경승인 규정을 신설 -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조례명	개정목적	개정조항 및 내용	
		조항 (조의제목)	개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여행업 업종 통합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 반영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명칭 변경 -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함(법 제11조의2제1항 관련) -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일선 관련 사고”를 “여행계약의 이행 관련 사고”로 명확히 함
제주관광 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	제4조제5항	<신규>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2021년 신규 제정 관광관련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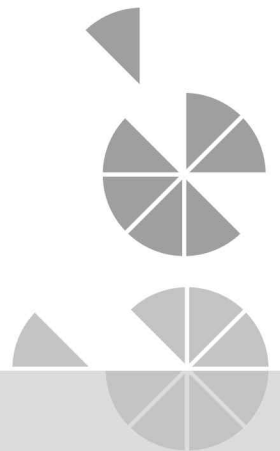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입안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주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제1조 목적	제6조 웰니스 관광 인증제
제2조 정의	제7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실태조사
제4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 웰니스 관광 민간협력 체계 구축
제5조 위원회 운영	제10조 시행규칙

부록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	_553
2.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_558
3. 보세판매장 및 내국인 면세점 현황	_560
4. 관광관련 서적 및 연구실적물	_562
5. 시티투어 코스	_568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현황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아 시 아 주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얀마	외교, 관용	90일	'11.04.0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가포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스라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인도네시아	외교, 관용, 공무	30일	'20.02.1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만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4.11.	
	쿠웨이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90일	'15.06.24.	※ 최초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90일까지
	일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중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 공무보통여권은 불포함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총 체류기간은 각 180일의 기간 중 60일 이하
	키르기스스탄	외교, 관용	30일	'11.05.1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일반	90일	'81.12.09.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아 시 아 주	터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3.1. 양해각서 개정
	튀르키예 메니스탄	외교 관용	30일 30일	'08.12.06. '19.05.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키스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5.06.08.
	필리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 이하의 단기상용(C-3-4), 단기 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르단	외교	90일	'17.0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미 주	과테말라	외교, 관용	90일	'03.12.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07.10.04.	
	그레나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15일		
	니카라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멕시코	일반	3개월	'79.04.06.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외교, 관용	90일	'97.08.01.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94.11.0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벨리즈	일반	90일	'07.12.22.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외교, 관용	90일	'07.02.08.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02.05.20.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주 유럽 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재입국허가 면제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아이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90일	'94.01.19.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13.01.10.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특별	3개월	'00.07.18.		○재입국허가 면제 (단,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리스	선원수첩	15일	'74.05.15.			
	외교, 관용	제한없음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74.01.24.	○재입국허가 면제 : 1997.4.1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 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16.03.13.	※ 총 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스페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06.09.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관용		'14.09.17.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 간 체류기간 부여 (2003.6.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 마카오 제외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개정)	○ 재입국허가 면제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아 프 리 카 주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20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8.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 골 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튀니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모잠비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자니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 최초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90일까지
	대 양 주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바누아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자료 : 법무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된 내용 미포함

○ 대륙별·적용대상여권별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109개 국가)

구분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아시아주	29	27	9	2
미주	30	30	25	15
유럽주	36	36	30	2
아프리카주	13	13	4	2
대양주	2	2	1	

자료 : 법무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된 내용 미포함

2.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주별	국가명	체류기간	비 고
아시아주 (11)	레바논	30일	○ 시행일 : 2004. 5. 1.(외교·관용여권)
	사우디아라비아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마카오	90일	○ 시행일 : 2003. 1. 1.
	바레인	30일	○ 시행일 : 2009. 10. 1.
	브루나이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오만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일본	90일	○ 시행일 : 1993. 11. 2.
	카타르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쿠웨이트	90일	○ 시행일 : 2015.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타이완	90일	○ 시행일 : 2012.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홍콩	90일	○ 시행일 : 2002. 2. 1.
북미주 (2)	미국	90일	○ 시행일 : 1981. 8. 1.
	캐나다	6개월	○ 시행일 : 1994. 5. 17.
남미주 (5)	가이아나	30일	○ 시행일 : 2004. 5. 1.
	아르헨티나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에콰도르	90일	○ 시행일 : 2014. 1. 1.
	온두라스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파라과이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유럽주 (11)	모나코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몬테네그로	30일	○ 시행일 : 2004. 5. 1.
	바티칸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일	○ 시행일 : 2004. 5. 1.
	사이프러스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산마리노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세르비아	90일	○ 2013. 7. 1. 부로 30일에서 90일로 조정
	슬로베니아	90일	○ 시행일 : 2002. 3. 15
	안도라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알바니아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크로아티아	90일	○ 시행일 : 1999. 3. 1.(13.7.1. 부로 30일에서 90일로 조정)

주별	국가명	체류기간	비 고
대양주 (13)	괌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나우루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뉴칼레도니아	30일	○ 시행일 : 1999. 3. 1.
	마셜제도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미크로네시아	30일	○ 시행일 : 2002. 11. 1.
	사모아	30일	○ 시행일 : 2004. 5. 1.
	솔로몬군도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키리바시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통가	30일	○ 시행일 : 2009. 1. 1.
	투발루	30일	○ 시행일 : 2009. 1. 1.
	팔라우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피지	30일	○ 시행일 : 2002. 11. 1.
	호주	90일	○ 시행일 : 1999. 3. 1.
아프리카주 (5)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모리셔스	30일	○ 시행일 : 2004. 5. 1.
	세이셸	30일	○ 시행일 : 2004. 5. 1.
	에스와티니 (舊스와질란드)	30일	○ 시행일 : 2002. 11. 1.
	보츠와나	90일	○ 시행일 : 2018. 7. 1.

자료 : 법무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된 내용 미포함

3. 보세판매장 및 내국인 면세점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외교관 (1개)	동화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시 내 (18개)	동화면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호텔롯데 명동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호텔롯데 월드타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호텔신라 서울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77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호텔롯데 부산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호텔롯데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83
	호텔신라 신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69
	진산선무(울산)	울산시 중구 변영로 363
	그랜드관광호텔(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8-10
	중원산업(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4
	양코르면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입국장 (3개)	경북공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경북공면세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경북공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출국장 (2개)	경북공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그랜드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구 분	업체명	주 소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호텔신라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호텔롯데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신세계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경북공면세점 인천공항 제2여객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호텔롯데 김포공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호텔신라 김포공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부산면세점 부산항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듀프리토마스쥬리면세점 김해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호텔신라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그랜드면세점 대구공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층	
	두제 청주공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주)더포춘트레이딩포춘면세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G.A.D.F면세점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78-14	
	(주)동무 디엠면세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지정 (5개)	JDC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JDC 제주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JDC 제주항 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JTO(제주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JTO(성산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30-21	
합계	48개		

자료 : 관세청, 2021년 12월 31일 기준

4. 관광관련 서적 및 연구실적물

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간서적(2021년 기준)

연도	구분	과제명
2021	기본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과 정책대응 방향 • 문화·관광 분야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관광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 제6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방한시장 분석 및 정책과제 • 관광벤처기업 지원정책 발전방향 연구 • 관광산업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 비대면 관광서비스의 활용현황과 대응방향 • 지속가능관광 인증제 도입 방안 • 양성평등 관점의 지역관광 콘텐츠 점검 방안 연구 • 관광지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관광협력 활성화방안연구 • 문화·관광·콘텐츠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구축 연구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조사방법 개선 방안 연구 • 한류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법제화 방안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 행태 변화 분석 • 국제관광 재건정책의 국외 사례 연구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관광행태 변화 동향 및 시사점 •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방향 •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 관광개발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수탁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서비스 조직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대상자의 지분구조 변경 등 검토 및 심사 관련 업무 대행 • 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기초조사 연구 • 문화예술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202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정부 정책수요 예측과 미래문화 전망 및 대응전략 연구

연 도	구 분	과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카지노산업 동향 및 운영 사례조사 연구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관광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 2020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위탁 용역 •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방안 연구(3차)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 관광-항공업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 축제 관련 산업 기초조사를 통한 축제의 산업적 발전 방안 연구 •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현황 조사 연구 • 관광특구 평가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관광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 • 카지노업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대상자의 사업기간 변경 등 검토 및 심사 관련 업무 대행 • 유원시설업 경영 및 고용상황 실태 조사 • 2020년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국고보조) • 2020년 외래관광객 조사(국고보조) • 2020 국제관광협력사업(국고보조) • 2020 숙박여행 기초통계조사(국고보조) <p>※ 해당연도 종료 과제 기준</p>

나. 한국관광공사 발간 서적(2021년 기준)

책자명	발간시기	내용
한국관광공사 디지털혁신 전략	매년	공사 및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중장기 전략
한국관광통계 연보	매년	외래객입국통계, 내국인출국통계, 관광수지, 관광사업통계
데이터로 보는 한국관광 (구.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매년	‘외래객 방한관광’, ‘국민해외관광’, ‘국민 국내관광’, ‘관광 사업체’, ‘세계관광’ 등 한국 관광산업 현황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매년	‘잠재 방한여행객’의 해외여행 및 한국여행 의향, 방문 예상 시기, 희망 방한 형태 등 조사
인바운드관광 마케팅전략	매년	관광시장동향, 마케팅 중점 추진사업
한국관광 가이드북	매년	한국 관광 트렌드 및 주요 관광지, 여행 실용 정보 (한국 기본 정보, 전국지도, 지하철 노선도 등) 제공 (영어, 일본어, 중간체, 중번체, 독일어, 불어, 서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니어, 몽골어)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매년	글로벌 명품 관광콘텐츠 정책 목표 및 방향 수립, 국내·외 관광상품 우수사례 조사 분석 등
국제회의 개최 현황	매년	국제기구(UIA, ICCA) 및 법률 기준 개최현황 제공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매년	MICE 산업 규모 및 사업체 운영현황 조사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매년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MICE 참가자 조사	매년	MICE 행사 참가자 만족도 및 소비액 조사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매년	신고접수 현황 및 내용분석 등
주요국 관광기구 현황 및 마케팅 전략	격년	주요국 관광정책 및 마케팅 홍보사업, 주한 NTO의 한국시장 홍보활동 현황 등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2021.1	한국의 세계유산(15건), 무형문화유산(21건), 세계기록유산(16건)의 특징 및 정보(교통편, 관람시간, 주변 관광지 등) 제공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간체, 중번체)
역사·문화 테마 구미주 틈새시장 발굴 연구	2021.1	역사·문화 중심 구미주 틈새시장 현황 분석, 신규 타깃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시사점 도출 등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관광트렌드 인사이트 2021)	2021.1	해외 현지의 특색있는 최신 관광 트렌드 소개
MICE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21.3	국내·외 MICE 산업 환경 분석 및 MICE 산업의 발전방향과 세부 실행계획 제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보고서	2021.3	빅데이터 활용 지자체 컨설팅 결과 공유
빅데이터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실태 및 영향 조사	2021.3	2020년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기초 실태 및 영향조사 결과

책자명	발간시기	내용
지역관광경쟁력 신규분석모델 구축 연구	2021.3	지역관광경쟁력 신규분석모델(지표) 구축 연구보고서 및 지표분석 사례 보고서
2020 KOPIST 액션플랜 경진대회 최우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2021.3	라오스 ODA 관련 사전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2020 관광두레 연간실적보고서	2021.4	2020년도 관광두레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관리 등
데이터&투어리즘 1호 -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기록	2021.4	빅데이터 활용 세대별 여행 특성 분석 보고서
신한류 영상관광 활성화 방안조사	2021.4	한국 영상관광지 인지/선호도 및 방문의향, 주변시설 조사 등
2020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성과기록집	2021.5	2020년 추진 DMO 사업자별 추진 대표사업 및 주요 성과 소개
관광통역안내사 활성화 방안 연구	2021.5	개별여행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21.5	관광안내 분야 종사원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관리 체계 분석
개별관광유망테마교육과정설계	2021.5	개별관광 유망테마 관련 종사자 직무전문역량 강화 교육과정 설계
데이터&투어리즘 2호 - 빅데이터로 보는 관광스타트업 생존기	2021.5	관광스타트업 현황 및 사례 분석 보고서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물 순례(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간체, 중번체)	2021.6	한국의 현대, 전통, 근대 건축물 사진 및 정보 제공, 주변 추천코스 소개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중장기 전략 연구	2021.6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시장 분석, 방한 의료관광객 특성 및 수요분석, 방한 의료·웰니스 관광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 등
2021 웰니스관광 기초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2021.7	웰니스관광 환경분석 및 국내 웰니스 관광자원 현황 및 활성화 조사 등
아시아중동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전략 수립	2021.7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동 무슬림 관광객 유치 중심으로 아시아중동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 전략 수립
열린관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매뉴얼	2021.7	관광약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분야 국제관광협력 기본계획수립	2021.7	디지털 분야 국제관광 현안 진단, 관광 디지털전환 동향 및 전문가 의견조사, 디지털전환 국제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한국관광 포스터(12종)	2021.8	한국관광 대표 이미지 제공
구미대양주 방한관광 전략 연구	2021.8	구미대양주 주요7개국 방한관광시장분석, 3개년(2022~2024)유치전략도출등
2021 국제기구 플랫폼 등 활용한 한국관광 우수사례 대외 홍보방안 연구	2021.9	한국관광 우수사례 대외 홍보전략 수립
데이터&투어리즘 3호 - 여행업의 넥스트레벨	2021.9	온라인여행사 시장동향 분석 및 OTA 기업별 유형분석 보고서

책자명	발간시기	내용
2021 시니어 관광 활성화 연구 통합 보고서	2021.10	시니어관광시장 실태 조사 및 시니어관광 활성화 방안
50 Best ways to Travel Korea	2021.10	동남아 중동 방한 관광객 대상 지역별 관광코스 소개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여행실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2021.10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인트 사용자의 포인트 이용 행태 분석
데이터&투어리즘 4호 - 코로나 시대의 관광,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내가 찾던 관광유형은?(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남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21.10	관광빅데이터 활용 관광유형 구분 및 데이터기반 관광사업 제안 등 보고서
데이터&투어리즘 5호 - 반려동물 동반 여행 동향 분석과 개선과제	2021.10	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동반 여행 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데이터&투어리즘 6호 - 빅데이터 기반 신규 관광트렌드 및 사업 발굴(위계이션을 중심으로)	2021.10	빅데이터 활용 관광트렌드 '위계이션' 분석 및 데이터기반 경쟁력 분석 보고서
국제회의기획업 피해현황 조사	2021.11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회의기획업 매출 및 고용 변화 파악 및 정책지원 관련 조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제도개선 정책제언	2021.1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태 및 제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법령, 운영지침 개선(안) 마련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v1.0(계획 / 구축·운영)	2021.11	스마트관광도시 계획 수립 및 구축·운영을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시
2022 동계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2021.11	방한 동계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방안 제시
한류 명예의 전당(가칭) 조성 기본계획 연구	2021.11	한류 명예의 전당(가칭) 조성 관련 설립·운영 방향 도출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한국의 사계절 관광지 사진집(영어, 일본어, 중간체, 중번체)	2021.12	계절별 최신사진 확보 및 SIT(특수목적관광)관광객 대상 사계절 정보 제공
미팅테크놀로지 디렉토리북	2021.12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PCO 및 기술업체 리스트, 정보 제공
특별한 열린관광 가이드북	2021.12	열린관광지 점자·촉지 가이드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증장기 발전전략 수립	2021.1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 및 성과 분석
방한관광 홍보 활용을 위한 유튜브 소셜데이터 분석	2021.1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영어권, 일본, 중국 내 한국여행 트렌드 심층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 관광트렌드 분석	2021.12	빅데이터(통신,소셜등) 및 스몰데이터 활용 관광 트렌드 분석 보고서
2022년 관광트렌드 전망 전문가 및 소비자 조사 보고서	2021.12	2022 관광트렌드 전망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조사 보고서

책자명	발간시기	내용
지역관광상생 주제모듈활용 지역관광역량 심층진단 및 분석 보고서 발간	2021.12	지역관광 주제모듈활용 골목관광상권의 지역관광역량 심층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산업트렌드 및 관광심리 분석 보고서 발간	2021.12	빅데이터 활용 관광 위기상황에서의 여행 행태변화 및 심리반응 분석 보고서
위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21.12	한국형 위케이션 사업의 기본 개념 활용을 통한 위케이션 사업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021 해외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조사	2021.12	한국관광 홍보를 위한 해외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효과 분석
2020년 기준 캠핑관광 이용자 실태조사	2021.12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수 추정조사 결과, 캠핑 이용 실태 및 캠핑장 운영 현황 조사 분석 등
2021 추천웰니스관광지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1.12	공사가 지정한 추천 웰니스관광지의 인지도 및 만족도 분석 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가이드북	2021.12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선정 「한국의산지승원」 관광지 및 주변 연계 관광지 등 소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ESG 방한관광 디지털 가이드북	2021.1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선정 「한국의 갯벌」 활용 관광콘텐츠 및 연계 관광코스 소개
관광개발 업무매뉴얼 및 관광투자유치 편람	2021.12	관광(단)지 개발사업 업무매뉴얼 및 관광투자유치 편람 현행화
2021 해외 크루즈 관광객 방한 수요조사	2021.12	방한크루즈 유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일본, 대만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 수요시장 소비자 대상 해외 크루즈 여행 인식 및 방한 크루즈 여행 인식 파악
중국인 관광객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 전략	2021.12	중국인 출입국제도 변화 및 효과,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환경 분석 및 방향성, 중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및 유치활성화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관광정책 수립 전략연구	2021.12	국제기구 및 해외 탄소중립 대응정책 및 사례분석, 국내 탄소중립 대응 환경 및 정책 분석, 관광분야 탄소중립 정책 방향 분석, 국제 탄소중립 관광협력 및 선도정책 등
동남아방한관광유치전략연구보고	2021.12	동남아 6개국 소비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 통계분석
2021 무슬림 친화 식당 가이드북 및 관광 지도 통합본	2021.12	무슬림 방한관광객 대상 무슬림 친화식당 홍보 및 관광정보 제공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5. 시티투어 코스

지역	시티투어 코스명	운행방식	운행정보(운영일/운행시간/소요시간)	이용객수 (명)
서울	도심고궁	순환형	금토일, 09:30~16:30(기점 기준) 1일 8회 운영, 회당 2시간 소요	49,155
	파노라마		코로나19로 임시중단	
	강남어라운드		코로나19로 임시중단	
	야경		금토일, 19:00~ (7~8월 20:00~) 1일 1회 운영, 회당 2시간 30분 소요	
	전통문화		수~일, 10:00~16:40(기점 기준) 1일 11회 운영, 회당 1시간 30분 소요 ※ 야간 매일 19:30 1회 운영	
	한강잠실		코로나19로 임시중단	
부산	해운대 (레드/블루라인)	순환형	09:30~16:30 1일 9회~12회 운영, 회당 2시간 10분 소요	49,856
	태종대 (그린라인)		09:15~16:15 1일 12회 운영, 회당 2시간 10분 소요	
	북부산 (역사테마노선)	테마형	(사전예약) 화~일, 10:00~17:00 1일 1회 운영, 회당 7시간 소요, 미운행	
	야경투어		(사전예약) 11~3월 19:00~/4~10월 19:30~ 1일 1회 운영, 회당 2시간 30분 소요	
대구	도심순환 여행	순환형	화~일, 09:00~18:00 1일 7회 운영, 회당 2시간 50분 소요 2층버스 1대(오픈형), 1층버스 2대	2,816
	테마여행	테마형	(사전예약) 화~일, 10:30~18:00 1일 1회 운영, 회당 7시간 30분 소요 6개 코스(팔공산, 낙동강, 비슬산, 수성가창, 야경, 체험)	4,098
	(경북) 대구근교권 투어		(사전예약) 토·일, 09:00~18:00 축제, 이벤트성 행사, 여행주간 등 수요에 따라 특별운행 실시 22개 코스(문경, 안동, 경주, 포항 등 - 기본 10, 산업 2, 서원 4, 축제 6)	854
인천	바다노선	순환형	화~일, 10:00~18:40 1일 2회 운영, 회당 2시간 35분 소요	1,624
	개항장노선		화~일, 주중 09:30~17:10/주말 09:00~17:40 주중 1일 4회/주말 1일 6회 운영 회당 1시간 40분 소요	320
	인천시간여행	테마형	(사전예약) 목·금·토·일, 09:00~17:30 1일 1회 운영, 8시간 30분 소요	20

지역	시티투어 코스명	운행방식	운행정보(운영일/운행시간/소요시간)	이용객수 (명)
	소래시장투어		(사전예약) 목·금, 09:30~17:30 1일 1회 운영, 8시간 소요	(노을야경투어)
	강화역사투어		(사전예약) 토요일, 09:00~17:30 1일 1회 운영, 8시간 30분 소요	
	강화힐링투어		(사전예약) 일요일, 09:00~17:30 1일 1회 운영, 8시간 30분 소요	
	노을야경투어		(사전예약/현장판매) 금·토, 18:40~20:40 1일 1회 운영, 2시간 소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의해 운행일 감소 및 감염 유입방지 및 확산예방을 위해 테마형 운행노선 제한함(테마형은 노을야경투어만 운행함)	
광주	무등산 지질명수 투어	순환형	토·일, 09:00~17:20 1일 1회 운영, 회당 8시간 소요	328
	전당권 문화관광투어		토·일, 09:00~12:50, 14:00~19:00 1일 2회 운영, 회당 4시간 소요	80
	빛고을남도투어		토·일, 09:00~17:30 1일 1회 운영, 회당 8시간 소요	162
	100년의 버스	테마형	금·토, 10:00~12:30 1일 1회 운영, 회당 2시간 30분 소요	163
	오월의 버스		금 13:00~15:30, 토 09:00~11:30, 1일 1회 운영, 회당 2시간 30분 소요	109
	비엔날레	특별코스	화~일, 08:40~18:00 1일 6회 운영, 회당 8시간 소요	933
대전	순환투어 (남부코스)	순환형	(사전예약) 토·일, 1일 7회 운영, 회당 2시간 5분 소요	269
	순환투어 (대청호코스)		(사전예약) 토·일, 1일 5회 운영, 회당 1시간 10분 소요	538
	관내테마투어	테마형	(사전예약) 월~일 09:30~13:00, 14:00~18:00 야경 18:30~22:00 1일 2회 운영	1,240
	광역투어		(사전예약) 토·일 1일 1회 운영, 회당 8시간 10분 소요	1,038
	언택트세이프투어 (A·B·C 코스)		(사전예약) 토·일 1일 2회 운영, 회당 4시간 소요	1,179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코스	순환형	화~일, 09:30~18:10 1일 9회 운영, 회당 1시간 20분 소요	4,431
	장생포·대왕암 코스		화~일, 09:40~19:00 1일 5회 운영, 회당 1시간 10분 소요	



보고서 집필 및 자료제공 기관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집필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세청
- 관세청
- 문화재청
- 산림청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방문위원회
- 한국철도공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MICE협회
- 한국여행업협회
-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한국PCO협회
- 한국호텔업협회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